

第13輯

麟蹄文化



麟蹄文化院

麟蹄文化

第 13 輯



麟蹄文化院

❖ 지역문화선언 ❖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의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8. 11. 1

지역문화 전문가 일동

發 刊 辭



인제문화원의 기관지인 인제문화가 1986년에 창간호로 시작하여 금년에 『인제문화 제 13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에서 나타납니다. 신라통일의 웅대한 업적과 세종대왕의 문화창조는 이를 증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제문화원에서는 우리고장의 향토문화를 꽃피우기 위하여 창립 이래 연례적으로 향토사를 조사 발굴하여 선양하고 정신문화의 가치관을 더욱 굳건하게 향상시켜 왔으며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마음의 양식을 늘리는데 힘써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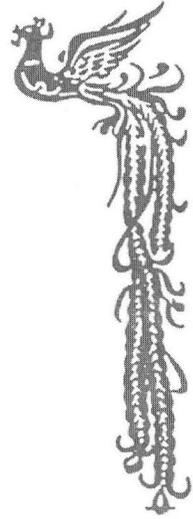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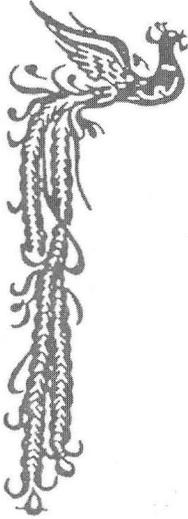
문화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즐거움과 보람을 심어주고 사람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원천으로 개개인 삶의 질을 높여주고 국민복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문화와 예술이 우리일상 생활에 친밀하게 자리잡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물결이 넘쳐흐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값지고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인제문화원은 정신적인 지주로서 가장 한국적이고 향토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 귀중한 옥고를 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매년 끊임없이 간행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인제문화원 원장 박 해 순

祝



續 刊

내린문학동인회장

내설악사진동우회장

인제미술인회장

내설악수석회장

향토민속보존회장

인제서예인회장

오 정 진

민 중 식

강 인 석

김 기 호

박 해 순

최 중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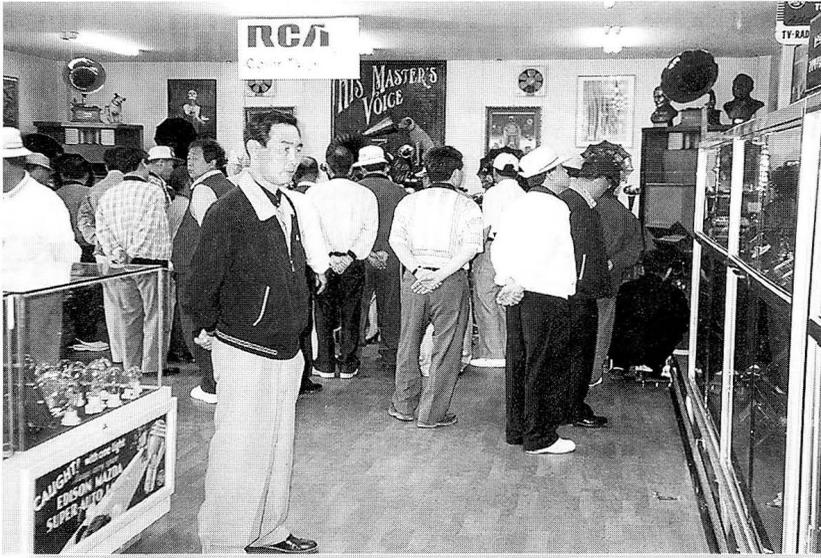
문화사업화보

1998





..... '98 문화 사업 회보



..... '98 문화 사업 화보







인제문화학교 개강식 ('98. 3. 31)



문화학교 개강식 (수강자 참석 사진)



문화학교 서예강좌 ('98. 1. 1 ~ 12. 30)



문화학교 풍물강좌 ('98. 1. 1 ~ 12. 30)



문화학교 꽃꽂이강좌 ('98. 4. 1 ~ 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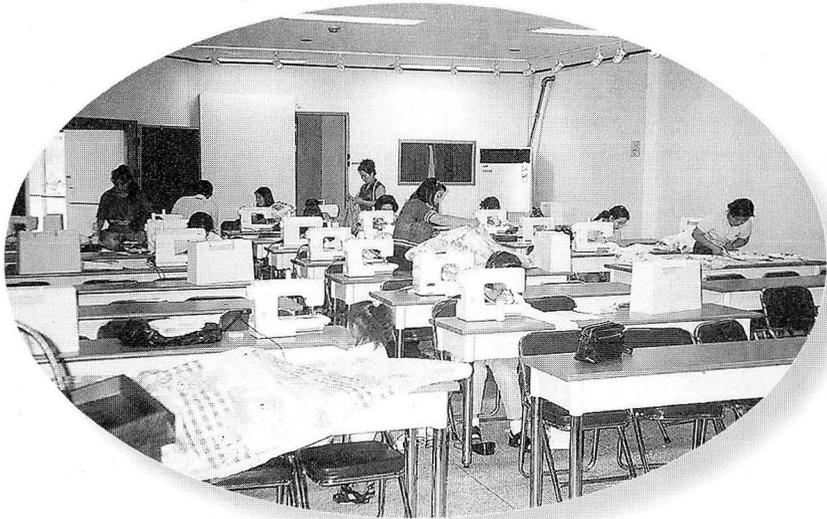


문화학교 전통의례강좌 ('98. 4. 1 ~ 9. 30)

..... '98 문화 사업 회보
.....



문화학교 스텐실강좌 ('98. 4. 1 ~ 9. 30)



문화학교 홈패션강좌 ('98. 4. 1 ~ 9. 30)



▲ 합강문화제 백일장
및 시낭송회
('98. 9. 25)

◀ 합강문화제
사생대회
('98. 9. 24)





합강문화제 꽃꽂이전 ('98. 9. 24 ~ 9. 27)



합강문화제 공예품전 ('98. 9. 24 ~ 9. 27)

..... '98 문화 사업 화보



'98 청소년을 위한 춘천시립합창단 초청연주회



'98 사진영상의 해 기념 사진전 ('98. 12. 4 ~ 12. 6)

* * * * * 목 차 * * * * *

발간사·박해순 3
 '98 문화사업화보 5

기 고 문

IMF와 眞實 정광벽/23
 인제 장수대(將帥臺) 김영기/27
 영원한 우리의 젓줄 내린천(內麟川)과 인제(麟蹄)사람들 최병훈/30
 귀신잡이 정원채/35
 한국문화의 뿌리 이정량/46
 역경과 고난을 이긴 孝心 정순임/56
 金剛山이 보고싶다 석찬호/62
 해방공간의 정치세력과 노선에 대한 고찰 손흥기/71
 인제이씨(麟蹄李氏) 인제문화원/82
 상장례(喪葬禮) 인제문화원/85
 제의례(祭儀禮) 인제문화원/96
 전통혼인례 인제문화원/104
 수연례(壽筵禮) 인제문화원/114

향토문예

수필 상지촌 옥녀 이야기 한용운/123
 약 장 수 김신향/128
시조 上南面 昇格 祝詩 (상남면 승격 축시) 外 11편 목 원/132
시 童子石(동자석) 外 3편 한용운/145

제1회 거리시화전 작품

제1회 거리 시화전을 개최하며...	김신향/153
신흥사 단풍外 1편	권정남/155
紀行	김명기/157
속초역 -序詩- 外 2편	김창균/159
사다리	김춘만/162
별	이상국/163
농심	이만진/164
한계령 밤안개 外 4편	김신향/165
이야기 外 2편	김규중/171
추억 外 2편	김미애/174
딱정벌레	박돈구/177
만남	박현순/179
美山里에 가면	서충규/180
자반고등어 外 1편	윤영희/181
어한기 外 2편	이창준/184
물치항에서 外 1편	이정/188
가을 外 1편	임동수/190
사랑하므로 外 2편	조해숙/196
떼 外 1편	정준교/199
어느날 外 1편	한성산/201
不眠의 밤	한용운/203
고향	황민숙/204
그늘 外 2편	황영희/205
행복	김규남/211
중독	김애림/213
세상에 뿌린 사랑	계정희/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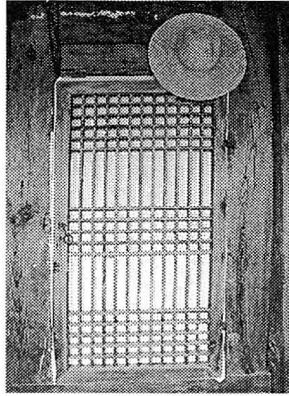
더 작은 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박하영/216
동심	송유경/217
내결엔	신혜빈/219
반성 -체념에 대한 반성-	이윤미/220
소나무	이정선/222
낙엽	정훈실/223

제4회 '98년환경문예공모입선집

시 어젯밤 꿈	김현규/227
맑은 공기	이지현/228
자연을 위한 비망록	김성진/229
수필 아름다운 강원도의 힘	홍성현/231
산문 지구가 아프데요	김보영/235
수필 병들어 가는 지구, 우리 손으로...	이현정/237
수필 자연과 더불어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이류환/239
동화 다시 태어나거든	최성모/244
행복마을의 만세소리	장보영/250
수필 송수리의 바람	손진숙/253

문화재용어해설

건축(建築)	259
탑파(塔婆)	285
불상(佛像)	295
고분유물(古墳遺物)	310
자기(磁器)	317
공예(工藝)	329
서화·전적(書畵·典籍)	336



기 고 문

1. IMF와 진실
2. 인제 장수대
3. 영원한 우리의 젖줄
내린천과 인제사람들
4. 귀신잡이
5. 한국문화의 뿌리
6. 역경과 고난을 이긴 효심
7. 금강산이 보고싶다.
8. 해방공간의 정치세력과
노선에 대한 고찰
9. 인제이씨
10. 상장례
11. 제의례
12. 전통인혼례
13. 수연례



정 광 벽
지역문제연구소

IMF와 眞實

이른 아침 새벽 등산길에서 이만철 사무국장님의 원고부탁에 진짜 지역에 문제는 무엇인가? 생각해왔다. 아침 새벽 등산길에서 만나는 부지런한 분들 건강한 분들의 時代가 生覺난다. 소나무껍질을 베끼고, 칩뿌리에 부딪기며 이내 우리 전후(戰後)세대가 꺾지않은 모라토리움을 아니면 파산을 經驗한 古代가 아닐까? 하지만 그 時代는 진실이 있었고 情이 있고 이웃이 있으며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심봉사의 어린 딸에게 동양의 젖을 물리는 우리가 있었다. 지금 논의되는 사회복지시설도 없이 가난의 파고를 더불어 함께 넘어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왔다.

국가신인도 34위, IMF도 누구도 믿지않는 국가통계, 여기에 어찌 재벌의 회계장부를 믿을 수 있을까? 공자도 '나라가 환란에 빠지면 제일 먼저 버릴 것이 兵(병사)이며, 그 다음이 食糧이며, 맨 마지막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믿음(信)이다.' 라고 설파했다. 믿음이 무너지면 무엇으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없이 살아도 믿을 수 있는 사회, 정이 있는 사회를 그리워하는 시대를 그리워하며 추억과 향수를 가지고 물질만능, 물질숭배에 빠져 제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전통과 예의 그리고 우리의 文化를 상실하며 오늘을 지새고 있다. 이것은 복고주의도 아니고 배타적 만족주의도 아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시기에 왔다. 모든 것이 不足한 것이 過함 보다 낫다는 진리는 큰 차가, 큰 냉장고가, 큰 집이 행복이 아니고, Small is Beautiful(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우리 자성의 시대이다. 약간 부족할 때 사람은 서로 돕고, 서로 인정하는 자세

를 견지한다. 일본 작가 삼포농자의 “인생은 불행에서 꽃된다.”라는 작품은 삶이 풍도와 빈곤, 즐거움과 불행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날때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체는 아니 무기물인 쇠자체도 달구어지고 두두러지면서 강철로 변화한다. 그것은 본질에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다. 어두운 밤이 있다는 것은 밝은 새벽이 온다는 뜻이다. 고생이 고생이 아닌 것은 인간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무도 겨울에 자라고 큰 것이 여름에 큰 것보다 단단하다고 한다. 단단해지는 것은 시련과 단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성숙되가는 생명체가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8%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이며 더우기 중요한 것은 식량의 자급자족율이 24%밖에 안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절약해야 이 좁은 땅에 이 많은 인구가 살아남기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짐승은 정신병이 없고, 인간이 유일한 정신병을 앓는 존재이다. 제조조건에서 정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순화해도 좋다.

나누는 삶,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생각하는, 思考하는 存在인 인간 사잉의 믿음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세계가 요구하는 믿음제도, 신뢰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파블로의 개처럼 조건반사와 무조건반사 사이를 오갈 것인가, 아니면 늑대소년처럼 不信의 자초로 파멸할 것인가? 「베니스 상인」의 샤일록은 비참하게 죽었다. 공동체의 조건중에 제일의 조건인 믿음의 진실이 없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를 못믿고 만인에 의한 萬人의 투쟁이 인간이 이루는 이상적인 사회인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못믿으면, 기호인 빨간불에 횡단을 하여 생명을 잃는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IMF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우리 핏속에 문화속에 흐른다고 자부한다. 저 큰나라 중국이 수없이 덤벼들었지만 끄떡없이 지켜낸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잘못된 서양문물의 유입이 우리에게 정신을 잃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신을 차리고, 진실을 회복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면 신바람나게 양주대신 막걸리로 햄버거대신 메밀묵으로 살아도 행

복을 느낄 것이다.

나라 살림을 어찌 살았으면 빛의 총액을 모르고 흥청망청 살았던 말인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수입 지출을, 더하기 빼기를 틀리게 해도 빚쟁이는 정확히 알아 계산한 날에 통지가 오려되어 있는데도, 우리의 살림도 분수에 맞는 것은 소유가 많으면 떠나기 어려워진다는 佛家の 말이 있다. 예수님도 지팡이만 들고 떠나라 하지 않았는가. 더 이상의 고통을 벗기 위하여 옛날의 조상들의 삶을 본받아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일지 모른다. 현재는 과거의 연장이고, 미래는 현재의 연장일 것이다.

쑥스럽지만 제가 알 수 있는 우리 부친의 생활에서의 예를 끝으로 이 글을 끝맺을까 한다. 저희 아버님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주무시고 새벽 4시에 기상하시는데 이시간 식구 모두가 소를 몰고 가넛고개로 소를 풀어놓고 돌아와 아침을 먹고 학교로 보내면 심심해서 책을 볼 수 밖에 없다. 아버님은 나가셨다 돌아오실 때는 손에 무엇인가 들려있다. 지금으로 보면 환경보호나 미화이지만 어머니가 질색을 하시든 말든 그 당시 모든 것이 뭉감이며 불쏘시개로 집에 쌓여만 갔다. 논둑이나 밭둑을 가실때에도 거름이 된다고 소의 배설물을 일일이 거두어 자신의 경작지에 모아들이신다. 우리가 소를 부실하게 먹여오면, 짐승이 배가 고프는데 너희도 배가 고퍼보라고 밥을 줄이신다. 그당시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지만 그래도 밥을 먹을만한 집이 었지만 밥을 가지고 말씀하시니 더우기 밥알이 남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다. 그당시 물을 길여다 먹는(우물물)때인데 물을 낭비하면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이 생전에 낭비한 물을 마시라 한다고 호령이 떨어진다. 저녁에 호롱불에 기름을 아끼라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니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집안에 가축 역시 건강할 수 밖에 없었다.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비료포대를 찢어 장부로 쓰신 것이 선명히 볼 수 있었다. 소를 잘먹이거나 나무를 많이해오면 죽상으로 신앙촌카라멜과 달걀을 상으로 받았다. 이 시대의 엄마들이 어렵다니까 아이들의 우유를 줄이는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참 크는 나이, 힘을 쓰는 나이에 잘먹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아버님은 소를 잡아 자기 자식에게도 먹이는 일면이 있었다. 어려울수록 건강해야 하며, 어려울수록 배워야 한다. 우리 민족은 어디서든 동네가 생기면 학교부터 먼저 세우는 것이 전래되어 왔다. 중국의 50개 소수 민족중에서 대학(연변대학)이 있는 민족은 조선족 뿐이다. 지금 어렵다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배우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배움을 출세를 위한 배움이 아니지만 더불어 가는 삶, 함께 나누는 삶에서 믿음과 신뢰, 아프면 아픈데로, 더우면 더운데로, 추우면 추운데로 함께 가야할 이 시대의 공동체가 흐르는 눈물을 담아줄 수 있는 인정이 있는 사회에서 더우기 바람이 불면 먼저 눕는 民草들이 바람이 그치면 먼저 일어나는 소외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社會는 누군가 술선수범하여 지도층이란 분들의 자기희생을 요구한다.

우리는 솔직해지고, 담백해지며, 진실해지면 극복할 수 있다. 소비경제의 주체인 가정에서 주부들 역시 알뜰살뜰한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녀이자 딸이기 때문에 핏속에 있기 때문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제 장수대(將帥臺)

김 영 기
강원일보 논설위원



한계산 소동라령 작은길 벼랑에 걸려

인제에서 영동으로 넘어 갈 때는 영마루를 한계령이라고 부르고, 양양에서 영서로 넘어올때는 그 영마루를 오색령이라 불렀다. 그 옛날에는 또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고 불렀는데, 소와 말이 많이 넘으면서 소똥과 말똥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소똥령, 한계령, 오색령이라 부르던 그 영마루를 지금은 한계령이라 부른다. 1971년 한계령 도로가 완공

되면서 한계령의 명칭이 일반화되었다. 인제군 북면 소재지인 원통에서 차도로 10Km 동북쪽 지점, 한계 3리 자양밭(紫陽田)에 소재하고 있는 장수대가 새로운 명승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70년대 이후가 된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원통으로부터 동쪽은 좌우쪽이 다 큰산이어서 마을이 깊숙하고 산골 물은 가로 세로 흘러서 건너는 것이 무려 36번이나 된다」고 했다. 또 「나무들은 갈대 자리를 말아 세운 듯한 것이 위로는 하늘에 솟고 곁에는 가로 뻗은 가지가 없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더욱 높아서 그 꼭대기를 볼 수 없다. 남쪽에는 봉우리가 절벽을 이루는데 그 높이가 천길이나 되어서 기괴하기가 형언할 수 없다」했다. 하늘벽(天壁)안쪽으로 기묘하게 솟은 경치를 그렇게 옛 사람들은 표현했다.

장수대, 6.25때 전몰장병 명복기린 이름

산은 너무 높아서 새는 날아오르지 못하여 행인들은 절벽이 떨어져 누르지나 않을까 놀란다. 가느다란 작은 길이 벼랑에 걸쳐 있고, 빈 구멍은 입을 벌리고, 높은 봉우리는 용이 마주 당기고 범이 움켜잡은 듯 하다고 그 풍경을 찬양했다. 영서에서 으뜸이라고 했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내설악 한계산 속에 6.25 때는 민족상잔의 전투가 벌어졌다.

1959년 10월 1일 당시 제3군단장 소장 오덕준(吳德俊) 장군이 산장 48평을 건립하고 장수대라는 큼직한 현판을 걸었다. 6.25가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그 현장에 전몰장병의 명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장수대(將帥臺)로 명명되었던 것이다. 장수대 인근에는 동부산장 한계사지(寒溪寺址), 한계고성(寒溪古城), 옥녀탕(玉女湯), 대승폭포(大勝瀑布), 하늘벽(天壁)등 명승지가 자리잡아 관광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옥녀탕, 대승폭포, 한계고성의 명승지

대승이라는 총각이 한계리에 살았다. 하루는 폭포가 있는 절벽에 동아

줄을 매고 내려가 석이를 뚫다.

그때 절벽위에서 대승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소리질렀다.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으나 어머니는 간곳 없고 지네가 동아줄을 끊어질 참이었다. 후세 사람들은 죽어서도 아들을 살려낸 어머니의 음성이 메아리친다 해서 폭포이름을 대승폭포라 불렀다 한다.

「택리지」에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왔던 명나라 장수가 이 대승폭포를 구경하고서 중국 강서성 구강현 남쪽에 있는 여산(廬山)폭포 보다 훌륭하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수대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옥녀탕이 맑은 물을 담고 있다. 대승폭포에 월관선녀(月官仙女)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때 지네가 선녀들을 해코지 하려 했다. 선녀는 둘째 소까지 갔으나 지네가 다시 쫓아 왔으므로 피할 곳이 없었다.

하늘에 있던 옥황상제가 옥선녀가 피할 고시 없는 곳을 내려다 보고 벼락을 내렸다. 지네는 벼락을 맞아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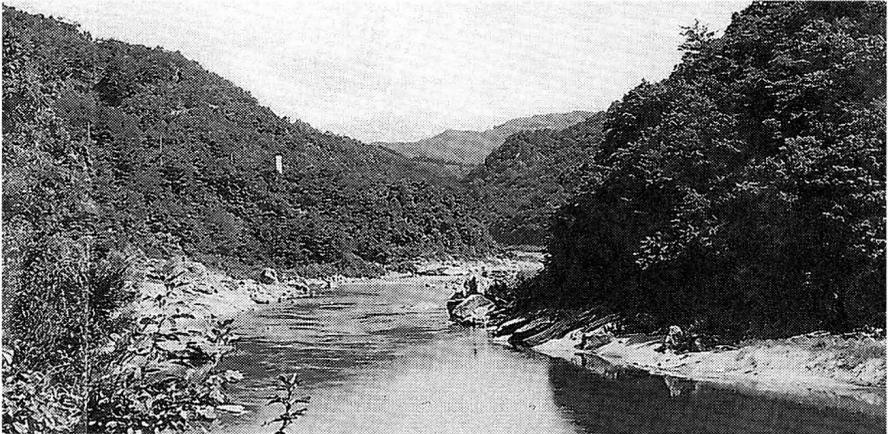
그때 바위가 떨어졌는데, 지금 길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바위가 그 바위이다. 옥선녀(玉仙女)가 놀던 탕을 옥녀탕이라 줄여 부른다.

한계산 고성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6천2백78척 높이가 4척이었다. 안에 우물이 1개소가 있었다. 한계사는 자장법사가 한계사를 창건, 다섯 번 화재를 입고 용대리 암자동으로 이전 백담사를 세웠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한계사지는 그 터이다.

설악산 한계산의 서쪽, 영서의 으뜸되는 경치는 장수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한계령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영원한 우리의 젓줄 내린천(內麟川)과 인제(麟蹄)사람들

최 병 헌
인제군·읍 상동리



지난 3월 6일 인제문화관에서는 내린천담건설반대 백지화를 기념하는 조출한 행사가 있었다.

행사 10분전까지만 해도 빈자리가 많아 주최측은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었다. 그러나 개회식이 시작될 무렵에는 빈자리는 물론 통로에는 입석자로 꽉 메움으로서 군민의 단합된 의지를 내외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식순에 따라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가 이어지고 이승호 군수의 격려사를 할 차례였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 해냈습니다. ...지켰습니다.”

평소 스피치에는 막힘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말이 끊기고, 더듬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장내가 숙연해 지더니, 여기 저기서 눈물을 훔쳐내는

사람도 더러 보였다. 정부로부터 댐건설 백지화 선언을 얻어냈다는 안도와 기쁨보다도 내린천의 인위적인 파괴행위를 군민의 힘으로 막아냈다는 감회가 컸기 때문이다.

왜 아니 그러하라.

지난해 4월 정부에서는 소양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 과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이란 명분으로 내린천댐 건설을 계획하고도 그 주인인 인제군에는 사전협의나 통보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환경할애비가 와도 댐은 건설해야 한다는 정부관료의 망언에 군민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에 격분한 군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댐건설 반대운동에 나섰다. 댐건설 백지화라는 통보를 받던 금년 1월말까지 9개월간을 군민들은 한마음이 되어 8천여명이 동원대는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서 삭발식, 군민서명운동, 청년 및 부녀사수대 발대, 사랑의 헌혈 운동, 전국문인 시낭송회 및 성명서 발표, 학생응변대회 등 조직적이고도 평화적인 시위를 강도높게 전개해 왔다.

물론 전경련이나 환경단체 등의 지원사격이 있기는 했지만 정부를 상대로하는 싸움이니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결과인지라 그간의 마음고생이 어땠겠는가. 더욱이나 이승호 군수는 자치단체의 책임자로 국책사업에 협조는 커녕 삭발을 해가며 싸워야 했으니 오죽했으랴.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댐건설을 반대하게 된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넓다고 하지만 90%가 산과 강이고,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소양댐 건설, 제병훈련장 설치, 양수발전댐 건설 등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옥답을 수장시킨 불운한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갈대만이 한없이 무성한 토지가 / 지금은 내고향 / 산과 강물은 어느날의 화화 / 피 묻은 전신 주위에 / 태극기 또는 작업모가 걸렸다. / 학교도 군청도 내집도 / 무수한 포탄의 작열과 함께 / 세상엔 없다. / 인간이 사라진 고독한 신의 토지...”

위의 시는 인제가 낳은 시인 박인환의 <고향에 가서>란 시의 일부다. 박인환이 6.25당시 종군기자로 활동하면서 어린시절의 꿈과 추억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인제를 지나치며 폐허화된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그랬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이 땅.

북한과 대치해 있는 접적지역으로 그야말로 한때는 버림받은 땅이었다. 아무도 이곳을 찾아오거나, 뿌리내리고 살려는 이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타지역보다 개발이 뒤질 수 밖에 없었고, 낙후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그런 이 땅이 이제는 도리어 살기좋은 곳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무리한 개발을 하지않고, 공장지대에도 없다보니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지역이 되었다.

한쪽의 수채화같은 산수절경.

어디나 승경 아닌곳이 없어 아무데나 짐 풀면 편히 쉴 수가 있다.

국립공원인 설악산과 천연기념물이자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대암산과 향로봉을 제외하더라도 점봉산, 방태산, 개인산 등 명산이 즐비하고, 진동리의 원시림은 인류 최후의 보루라 해도 결코 손색이 없다.

홍천 내면에서 인제쪽으로 장장 55Km를 굽이쳐 흐르는 내린천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으로 이름이 낫지만, 맑고 깨끗하기가 비할데 없다. 서식 어종은 천연기념물인 어름치를 비롯해서 한국특산종인 쏘가리, 금강모치, 참중개, 꺾지, 모래무지, 메기 등 11종이 있으며, 주변에는 멸종위기에 있는 수달도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철쭉이 장관을 이루고, 여름이면 발들여놓을 틈조차 없이 피서객이 찾아드는데 2년전부터는 급류타기 동호인들이 합세하자 어떤 이는 수삼인칠(水三人七)이라 말하기도 한다.

가을에는 마주보고 둘러앉은 산들이 원색으로 곱게 물들고, 겨울이면 설화가 장관을 이루어 4계절을 두고 볼거리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산하를 신이 주신 천혜의 선물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내린천을 백미로 꼽고 하늘이 내린 내린천이라 신성시 해오고 있다.

자연을 벗하며 교감을 나누어서 일까.

군민의 정서는 유순하면서도 대의에 이르면 목숨걸고 투쟁하는 대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래서 내린천 주변 마을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내린천 상류 마을인 미산리 양지동에서는 한시에 뛰

어난 백사 김진악 선생을 배출했다.

선생은 금령김씨 27세 손으로 학문이 뛰어났으며 특히 한시에 능하여 많은 유작을 남겼다. 상남면 하남리로 내려오면 <해빙기의 아침>을 쓴 소설가 한수산이 태어난 광주동이고, 기린면 소재지인 현리는 <훈장>을 쓴 소설가 이외수가 유년의 꿈을 키워 온 곳이기도 하다.

특히 현리에서 인제방향으로 4Km쯤 달리다 보면 강건너에 대내(竹川)마을이 그림같이 펼쳐진다. 120여세대가 거주하는 이 마을에서는 12명의 효부가 나와 그야말로 효행의 표상이 되고 있다. 하류로 내려오면서 북리, 귀둔리, 하추리, 원대리에서도 효자효부가 많이 나왔다. 이렇듯 내린천은 단순히 흐르는 물이 아니라 인재를 대표하며, 군민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 정신적 지주이자 생명이다.

내린천이 흐름을 중단하는 것은 인재군민의 죽음과 다름없다. 때문에 남녀노소가 분연히 일어서 싸웠고, 끝내는 내린천을 지켰다.

내린천과 그 주변에 서식하는 모든 동식물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냈다. 이제 인재에 살고, 인재를 사랑하는 모든이들은 댐건설백지화 선언을 얻어낸것에 만족하지않고 이를 계기로해서 내린천의 영광을 위하여,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살기좋은 인재건설, 나아가서는 나라 사랑 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그 본보기로 내린천 보호단체 설립, 백서발간, 내린천주변 환경마을 조성, 백지화 기념탑 설립 등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4일 1차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하여 322명이 헌혈을 실시하였으며, 3월중으로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전개한 고철모으기에서는 980톤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이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내린천은 인재에만 흐르는 물이 아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와같이 이 땅과 조국, 나아가서는 인류세계를 살리는 젖줄임을 모두는 알아야 한다. 경고하노니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자 반드시 자연으로부터 보복을 받는다는 것을 무서워 하라. 내린천이 영원히 흐르기를 바라는 것은 후손을 위하고, 자연의 명령에 따름임을 천명하여 구상 시인의 시 <인류의 맹점에서>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 세계는 짙은 어둠에 덮여있다.
이 칙흙 속 지구의 이곳 저곳에서는
갓가지 위급을 알리고 구급을 호소하는
지금 세계는 짙은 어둠에 덮여있다.
이 칙흙 속 지구의 이곳 저곳에서는
갓가지 위급을 알리고 구급을 호소하는
비상 경보와 경적이 실새없이 들려 온다.

하지만 세상은 기계문명과 이기와
과학만능이라는 환상과 도취에 빠져서
하늘과 땅과 공기와 물을 결단내며
스스로 지구의 종말이 머지않다면서도
실용과 실증과 편익에 마비된 사변들이
매미와 개구리들처럼 온갖요란을 떨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삼키는 무리들이
이 전율할 밤을 한껏 탐닉하고 있다.

이 존재 망각의 밤, 인류의 맹점에서
세계는 마치 나침판이 고장난 배처럼
방향도 중심도 잃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대들이 지니는 그 예지와 정기로
그대들이 지니는 그 우주적 감각과
우주적 연민을 다함없이 발휘하여
인류의 이 어두움을 밝히자!
인류의 향방을 비추자!



정 원 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귀신잡이

대략 이렇게 한다는것을 어린 15세시절 눈으로 보고 직접 들은 목격담을 소개 한 것이다. 이렇게 살 수 밖에 없었던 1930년대를 살아온 사람으로 지금의 고도로 발달된 의료기술을 체험하면서 생각해도 한 인간의 일생중에서 즉 무에서 유로 발전 된 것에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이정 배아리로 고생 고생 하다가 끝에는 곱을누는 만성환자를 귀신의 작화로만 여기고 경문을 읽어서 고치자는 길밖에 없었던 그시절 나같은 인생이 살아 남았다는 것은 하늘로 부터 천명(天命)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약이라야 초약으로 이정 배아리 처방으로 다람쥐를 잡아 구워먹이는 일이 고작이요 아니면 영사난 경명주씨를 잡아 어머니 젖을 섞어먹이는 방법외에는 귀신의 탓으로만 돌렸던 시절에 성행했던것이 경읽고 귀신 가두는 일이었다.

요즈음 용의눈물을 보노라면 세자는 왕권 찬탈에 혈안이 되어 혈육살상을 서슴없이 자행한 선왕조들에 회의를 품고 세자로서 왕위 계승을 거부하는 정사에 불타는 그 정신 사상을 그의 외삼촌 형제와 강비소생인 두 아들의 원귀(冤鬼)가 침범해서 그렇다는 무당의 말에 현혹되어 원귀를 달래자는 해원굿을 하고 있는것을 보게된다. 이런 무속행위가 궁중이나 사대부가정 또는 일반사회에서 성행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 당시의 무속 상황을 글로서 기술(記述)해 보려는 나도 1930년대에

출생하여 자라나면서 그시대 그상황을 몸소 체험한 사실을 기술 해 보고자 한다.

1989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 교동에 제생(濟生)의원이라는 병원이 개설되었고 그로부터 5년후 전국에 5개의 병원이 개설되었다는 기록을 본 일이었다. 왜놈들이 우리나라를 강점(強占)하고 수탈과 억압정책이 극에 달하던 때라 도탄(塗炭)중에 사는 백성들은 근거리에 병원이 있다 해도 엄두도 못내는 세태(世態)였다.

환자가 발생해도 민간처방에 의한 초약이 고작이고 극성스럽게 발병하던 학질(瘡疾) 일명 말라리아는 예방법을 쓰는것이 고작 너무도 학질이 심하니 왜놈들이 학질약을 주었는데 약을 타러가서 “고곡구신민노지가”를 못 외우면 약을 타오지 못했던 생각이 난다. 이런 사회상에서 백성들은 그 귀신의 작태하고만 여기고 복술에게 문복(問卜)하여 점성가가 시키는 대로 퇴송(退送)(귀신을 달래서 보내는 일) 송경(誦經)(정읽고 귀신가두는 일) 아니면 굿(무당을 데려다) 등으로 많은 재화(財貨)를 소비하여 가산을 탕진(蕩盡)하는 사례도 허다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고나면 귀신을 가둔 그 이튿날 아침이되면 환자가 소생을 하여 회복되는가 하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독경(讀經)을 하고 귀신(鬼神)을 가두는 도중에 사망되어 점성가는 모양 창피하여 야밤중에 도망쳐버리는 웃지못할 사실도 있었으니 믿어야할지 믿지 말아야할지 위급한 환자를 둔 가정은 그래도 믿는 방향으로 이끌렸든 것이다. 해방이후부터 차츰 없어지기 시작한것이 지금은 간혹있는것도 사실이다.

해방전까지는 당시 사회는 거의가 이 무속(巫俗)에 의존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 환자를 고치기 위하여 점성가의 지시대로 하는 방법이 세종류가 있는데 그 첫째는 퇴송(退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환자를 둔 가정이 점성가를 찾아가 문복(問卜)(점치는 일)을 하여 점괘가 나오는 대로 방법을 지시하는데 우선 음식을 준비하고 초경이 지나무렵(밤10시경) 손 없는 방향에다 빈 소반을 갖다 놓고 정한수 한그릇 밥세접시 식칼 쌀눔박에 물을 조금 담고 숟3개를 넣어 소반 앞에 갖다놓고 준비 사실

을 복술에게 알린다. 복술가는 세수를 하고 동쪽을 향해 재배한다. 귀신 대잡이를 옆에 앉게한다음 경문(經文)을 한참 읽은 후, 온갖 잡귀잡신과 원혼귀등을 일일이 초문(初問)하여 살살 달래고 어르면서 신이 원하는 것과 준비된 음식을 잘 대접하니 물러가다오 하는 식으로 애원하다 시피 빌어 올린다. 이때 신이 흠양하고 돌아가겠다는 표시는 대잡이가 하는데 귀신대를 살래살래 흠양하는듯 흔들면서 갈 방향을 찾아나서면 대잡이는 신이가는대로 대를 흔들며 따라가다가 문득 나무에 접하게 된다. 이때 흰색기 세발을 조아들고 따라가던 사람은 쟁싸게 대가 접한 나무에 매놓고 돌아온다.

자리에서 독경을 하던 복술가는 나직한 목소리로 신에대한 확인주송을 외면서 식칼을 잡고 던져 본다. 칼끝이 집에서 밖을 향해 던져지면 신이 떠나간 것으로 인정한다. 이때 만약 칼끝이 집을 향해 떨어지면 복술가는 쟁싸게 칼을 땅에다 +자를 긋고는 손에잡은 칼을 그 +자 그은데다 콧 쪽고는 침을 세번 뱉고 왼발로 땅을 세번 차고는 들어온다. 이 과정을 퇴송한다고 이르는 것이다.

만약 대잡이가 든 귀신대가 꼼짝도 않을 때는 귀신이 노여움을 풀지 않고 가기를 거부한다는 신호로 간주하고 여기서 복술가는 퇴송으로는 듣지 않을 귀신(鬼神)이니 경문을 읽어 신장(神將)으로 하여금 귀신을 잡아 가두어야 된다는 제안을 한다. 환자 가정으로서는 생사기रो에 있는 환자가 이 방법을 하면 낫는다는데에 무슨 이의가 있겠는가. 복술인의 뜻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

그 두번째 방법으로 하는것이 송경(誦經)을 시작하는 일이다. 이것을 일명 “푸닥거리”라고도 한다. 즉, 송경이라는 것은 경문에 나오는 신장들을 경문으로 호출(呼出)하여 잡아드릴 귀신의 존재를 알리고 신장들을 정갈한 음식으로 대접하고 용기를 북돋아 귀신을 잡아드리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1~2주간의 독경(讀經)과정을 겪은 다음 침범하여 환자를 괴롭히는 온갖 잡귀잡신(雜鬼雜神) 또는 원혼귀(冤魂鬼) 퇴송할때처럼 귀신을 어르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신장으로 하여금 온갖 귀신을 잡아 가두는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 송경하는 방의 준비사항.

- 손없는 방향에다 병풍을 친다.
- 이곳에 북통을 걸고 온갖 신장들의 직책이 나열된 주서(朱書)로 쓴 신장들의 위패(位牌)를 병풍과 천정에 죽 걸어 놓는다.
- ※ 이 위패는 전문卜術家들을 찾아 자문하시오.

한가지 아는것을 기록하면 이렇다. 천정에 부착하는 다섯장군을 써보자.

세로 90cm 가로 10cm의 한지(漢紙)를 오려서 주서로 쓰는데 東方靑帝將軍, 西方白帝將軍, 北方黑帝將軍, 南方赤將軍, 中央黃帝將軍이 五帝將軍 은 각종 신장을 통솔하는 東西南北 中央의 대장군으로서 최고로 치는 장군이다

- 그리고 옛날 농가에 쓰던 망태라고도 하고 일명 뽕명이(어깨에 멘다는 뜻)에다 콩이나 메밀 등 속으로 2~3두 정도 담아 끈으로 묶어 북통 앞에 놓고 그 위에 수건을 덮어 경문을 읽고 북을 치는 복술가가 앉는 의자 대용으로 준비해야 한다. 북통 옆에는 항상 정한수를 떠 놓는 소반과 촛대가 준비되어야 한다. 복술인이 한시간 간격으로 휴식을 취는데 휴식이 끝나고 독경이 시작될때면 환자측은 정한수를 갈아올리고 분향 한다음 재배하며 두손바닥을 싹싹 비비면서 환자의 회생에 대한 소망을 마음으로 빈다. 이 과정은 복술인이 휴식이 있을 적마다 정성을 바쳐야하니 보통 일이 아니다. 이 과정을 다 치르고 나면 성한 사람도 환자가 되어 드러눕는 일이 허다했다. 이것을 졸경(卒經)을 친다고 한다.(경 읽다가 졸도했다는 뜻, 우리사회는 이 졸경쳤다는 말을 흔히들 쓴다. 독경을 맞췄다는 뜻도 됨)

이제 한주동안 온갖 신장들에게 잘 대접하면서 환자에게 칩노한 귀신의 존재를 알리고 사기(士氣)를 북돋아 주었으니 귀신을 잡아 가두는 날이 왔다. 귀신을 가두는 과정을 준비해야할 사항은 이렇다.

우선 복술인은 하루종일 쉬지않고 독경에 들어간다. 북에다 방울을 단다. 방울이 없을때는 엽전 열잎을 끈에 꿰어 달든가 아니면 수저 다섯

가락 정도를 달아 복을치면 그 소리는 대단히 요란스럽다. 이 방울을 고령(鼓鈴)이라고도 하고 일명 “신방울”이라고도 한다. 귀신을 가두는 날이되면 그 신기해보이는 과정을 구경하러 오는 마을 사람들이 짝쓸이로 뭉혀든다. 이 사람들을 다 대접해야하는 것이 주인의 책임이다. 떡을 두시루~네시루씩 찌고 메밀묵을 백여명이 먹을 수 있게 만든다. 술도 물론 많이 빚어야 한다.

경제적 손실이 가히 짐작되는 과정이다. 신장대를 10~20개 정도 만들어야 하고 컷대잡이가 들어야하는 사컷대 국화꽃 모양을 20개정도 만든다. 빨래돌 하나를 준비하여 방 한가운데 놓는다.

※ 화덕가루 2~3되를 만든다.(솔껍질 오래된 것을 구하여 이를 분쇄하여 떡가루처럼 제분한것.(松皮粉)

작대기 끝에 솜방치를 달아 석유에 적신다음 장정이 허리수평으로 든다. 이 때 한 사람이 세분된 송화가루를 한줌씩 쥐어 상정이 든 불을 향해 방산하면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온누리가 환해지는 화광(火光)이 방산된다. 마치 폭죽을 쏘아 올린 것 같이된다. 이것을 축귀화(逐鬼火) 귀신을 쫓는 화광이다. 이 과정은 귀신을 쫓다 가두운 뒤 마당에 나가 군중이 보는 가운데 실시하는데 이때 귀신 쫓는 소리로 군중들은 큰소리로 신장아 하면서 위협적인 소리를 질러댄다.

다음은 신장대를 잘 붙잡는 소위 이름난 난명대 잡이를 6~7명 모셔온다. 또 귀신을 귀신통에 번개처럼 잡아놓는 유명하다는 사컷대 잡이를 초청해 온다. 그리고는 말구 8수에 거리 30cm정도의 소나무합 복판에 사컷대를 잡아넣는 □형 구멍을 끌로파서 20개정도 준비한다. 이 구멍을 막아주는 재덕을 대포잔 크기만치로 천에 싸서 귀신 통수대로 준비한다. 그리고는 귀신통을 꼭꼭 묶을 외워 끈 색기 두발을 준비한다. 여기서 명대잡이와 명사컷대 잡이는 유명하다는 분을 선정해야 하기에 때로는 40~50리 밖 외부인사를 모셔오는 경우 그대신 수고로도 대단히 비싸다. 2일간의 품삯에 바지저고리 감으로 주는것이 상례다. 이제 귀신 가두는 과정을 써보자. 저녁 7시 어둑어둑할 무렵에 시작하여 밤 12시 경에야 끝이나는 것이다. 이 여섯시간의 과정은 복술가도 대잡이들도

일반 관객도 그야말로 숨막히듯 화급한 시간을 장식한다. 그러수 밖에 없는것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잡신들이나 이를잡아 가두려는 신장들이 번개처럼 날뛰지 않고는 잡힐 잡귀도 없고 못잡을 신장들도 없다는 것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यो, 복술인과 신장 대잡이 컷대잡이 모두는 이 신장들과 같이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푸닥거리의” 본질이다. 시작이 되면 복술인은 북에다 고령(鼓鈴)을 드리우고 요란한 소리가 나게하고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각 신장들에게 할 일에 대한 독려 경문을 읽고 환자를 괴롭히는 귀신이 말명귀나 원혼귀나 잡귀 신들이냐는 괴명(鬼名)을 일일히 지명하면서 작전지시를 내리는 경문(經文)을 한시간동안 유창하게 독경한다. 그리고는 간단한 야식과 술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한다. 8시가 조금 지나면 본격적인 귀신몰이가 시작되는데 이때 모두는 자연적으로 긴장감에 사로 잡히게 된다. 복술인은 경문을 읽고 북은 평시보다 더 요란하고 화급하게 친다. 신장대잡이는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신장대를 잡아 쥐고는 준비된 빨래 돌위에 대끝을 몇번 딱딱 박아보면서 고요한 자세를 취하고는 신장이 응접하는가를 감정으로 살핀다. 아무리 독경을 해도 신장대는 끄떡도 않는다. 이때 복술인은 북방망이로 고령을 걸어 북뒤로 올려 놓고는 한손으로 북을 잔잔하게 동동 치면서 신장에게 조목조목이 문답형식으로 조문을 시작한다. 여기서 능란한 복술인 자질이 드러난다. 참으로 잘하는 복술인이 있다. 문화행사가 열리게 되면 가급적 이름있는 명인술사를 초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잠깐 들자면 이렇다. 미련한 인수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니 신장은 굶어살피사 무엇이 못마땅한지 내 묻는 대로 응답 해 달라는 발언이다.

신장전에 성금이 부족해서 그렇드라 그러면 그렇다고 응답하라 이때 신장대를 잡은 대잡이는 꿈쩍하고 운신을 하면서 대를 덜렁드러 빨래돌에 콧 박으면서 그렇다는 표시로 신장대를 설래설래 흔든다 이랬을때 주인은 상위에다가 적지않은 돈을 놓게된다. 이 상황은 주인의 생활형편을 감안하여 가감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돈은 수고한 대잡이와 복술인들이 일쪽같이 분배한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신장에게

묻는다. 이만하면 되었으니 감응하고 이가문에 드러와 집안을 소요스럽게 하고 환자를 괴롭히는 온갖 잡귀신을 다 잡아드려 화탄지옥으로 영구 소멸시켜주고 청춘에 죽은 원혼귀가 살았을제 입던 옷가지가 있는데 찾아주겠느냐 주겠으면 응답 강신하라고 복술인은 애원하는 식으로 조문을 한다. 이때 귀신대는 그렇게 하겠느냐는 표시로 대가 설레설레 내린다. 이러자 복술인은 신명난다는 식으로 복방울을 복면에 내리고는 힘차게 북을 요란하게 치면서 각종 신장을 비러 발원하면서 귀신을 잡아드리도록 경문을 유인한다. 대잡이도 신명이 나서 왼손을 허리에 짝 잡고 대를 든 오른손을 확 빼쳐 신장대가 미친듯이 떨면서 환자가 있는 방을 향해 질주한다.

환자의 전신을 신장대로 쓰다듬듯 문지른 다음 방바닥을 미친듯이 두들겨 댈다. 이때 복술인은 숨이 넘어갈 듯 북을 치면서 각 신장들을 단단히 사문하여 각종 잡신들을 하나하나 쳐들면서 남김없이 잡아드리라고 호통을 친다. 잡아오는 귀신들이 붙잡혀오는 도중 옆으로 쉼까하여 이를 막기위해 복술인은 육도삼약과 팔진도 주문을 큰소리로 독경한다.(여기서 육도삼약이나 팔진도 주문을 서슴없이 외우는 복술가라면 참으로 대단한 베테랑 급이다. 이런 복술가라야 뽀빠 다니는 대가라 할 수 있다.) 이때 신장대잡이는 신발을 신을 사이도 없이 냅다 튀다시피 버선발로 길이든 산이든 서슴없이 막뛰어 달아나듯 청춘 원혼귀가 삼신(插神)했다는 주인이 숨겨둔 그 옷가지를 찾아 그 방향을 정말로 귀신처럼 찾아가 물어둔 그 지점에 신장대를 응시하면서 여기를 파보라고 호령하듯 지시한다.

따라간 사람이 그곳을 파내보면 집주인이 몰래 숨겨둔 그 옷가지를 신장대와 같이 싸잡아 지고는 뛰어가는지 굴러가는지 같이 불을 들고 따라간 사람이 따라갈 수 없도록 집을 향해 땀다.

이때 사귀대를 손에잡고 올평걸을 툭치고 앉아있던 사꿏대잡이는 전신을 후들후들 떨면서 사꿏대가 손바닥에서 팽이돌듯 돌기 시작한다. 이때는 긴장이 최고도록 발작되는 순간이다. 일반 구경꾼도 덩달아 신장아 하는 소리를 대갈하면서 백여명에 달하는 모두는 최고의 절정에

이른다. 신장대잡이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으면서 혹시나 잡아온 잡귀들이 도망이라도 칠까하는 위험에서 죽는지 사는지 모를 정도로 신장대를 두들겨댄다. 여기서 잡귀들은 급한 나머지 사꺏대잡이의 손바닥에서 놓고있는 꽃송이로 옮겨간다. 이 신접을 감지한 사꺏대잡이는 온방바닥에 대굴대굴 굴면서도 손안에 있는 사꺏대는 놓치지않는다. 여기서 장정 한사람이 귀신통을 들고 사꺏대잡이 옆에 닦아 앉으면서 귀신을 가둘 준비를 한다.

신장대잡이들은 혹시나 잡아온 귀신을 놓칠까하여 있는힘을 다하여 신장대를 두들겨대고 관중들은 신장 신장 ... 하고 외친다. 이때 사꺏대잡이는 귀신통을 응시하며 잡아넣을 찬스를 엿보고 술객은 번개복을 치고 하는 순간 그야말로 반짝하는 불빛처럼 언제 잡아 넣었는지 모르게 재떡은 귀신통을 막았고 원색기를 들고있던 장정을 귀신통을 +자형으로 퐁퐁 뉘는다. 이렇게하여 그 집을 침노하는 귀신을 다 잡아가두자니 밤 12시가 넘도록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4~5차례로 반복하면서 귀신을 다 가두고 나서는 다시 복술인은 방울을 걸어 북뒤로 올리고는 동동 북을 자근자근 치면서 한사람 대잡이로 하여금 그 집안에 침노한 모든 잡귀신들이 다 잡혔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이때 귀신대가 잘 내리면 귀신이 다 잡혔다는 뜻이고 대가 안내리면 잡신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으로 결론짓고 2~3일간 경을 더 읽어 다시 귀신을 가두는 2차 행사를 치르는 수도 있다. 그후 귀신이 다 잡혔다는 해답이 신장대로부터 나오면 앞에서 전술한 송피분으로 최종적으로 귀신이 더는 못들어 오게 한다는 화광의 방산에 방으로 모든 과정은 끝난다.

여기서 엉터리 복술가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 전문지식도 없이 한 시대를 난무했던 일이있다. 일제하의 참혹한 생활상에서 대접 잘 받고 돈 잘 버는 일이였기에 사이비(似以非) 복술가(卜術家)가 흔했던 시절이기도 했다. 이 과정을 연출해 보면 한층 더 관중을 웃기고 재미도 있을것 같아 잠깐 소개한다. 이역시 비뿔살 좋고 만담에 능한 엉터리 술객을 신별해야 될 것으로 본다. 그 시절 경을 읽는 가정에는 복술을 익히고 배

워서 복술가를 희망하는 초보자도 많이 찾아들었고 또는 엉터리 복술가를 잡아내기 위하여 전문 복술인이 관객으로 가장하고 경읽는 집을 찾아 주인과 내통하고 암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럼 여기서 엉터리 술객의 행각을 소개하면 이렇다. 육감과 천간지지는 술술외는 능력은 있어야 이것도 된다. 원전끝에 한 환자가정을 소개받아 경을 읽으러 간다. 그런데 이놈의 복술가는 처음부터 고령(鼓鈴)을 내려걸고 북을치며 경문을 읽는다. 미천이 없는 복술인이 무슨 지식이 있겠는가?

엉터리 경을 읽자니 방울소리로 위장하자는 것을 주인인들 알 것인가? 그 경문은 이렇다. 배꼽이 있는대로 빠질 지경이다. 처음 경문을 읽기 시작할 때는 동동 북을 울리면서 누구나 듣겠금 금유태세 해동조선 국 강원도 인제군으로 돌아들어 상남면 미산리로 돌아들어 대주 정씨가 와병에 인사절로 안절부절 하는데 듣거라 신장들은 이집에 침범한 목매 죽은 결항귀야 너도 먹고 물러가고 굶어죽은 아사귀야 너도 먹고 물러가고 물에빠진 수살귀야 너도 먹고 물러가라고 까지는 했는데 그다음은 미천이 없으니 남이 들을까 근심되자 북 앞으로 고령(鼓鈴)을 내려걸고 요란스럽게 북을치며 읽는 경문에 왈 여차하니 저차하고 저차하니 여차로다. 여차저차 이차하니 아이고 답답 내 가슴아 정성이 부족해서 수수편떡 쉬었구나 환자몸에 귀산바과 이쪽치고 저쪽치라 제 기집을 남을주고 남의 기집 보려다가 야밤삼경 깊은밤에 호랑이 아가리 흘딱귀야 병자놈이 죽어지면 여편네 차지는 내 차지라 여차하니 저차로다 대략 이런식으로 엉터리 경문으로 돈 버리를 할려다가 뒤편에서 듣고있던 전문 복술인(암행)에게 발각이 돼 시험을 치르다가 답변할 재료가 없으면 컷방망이 세례가 올라 붙는다.

급한 나머지 입고 온 갓옷을 방에 둔채로 북통까지 내동댕이치고 야밤도주를 친다. 이때 전문 술객이 본격적으로 경을 읽고 졸경을 끝내게 된다. 이 엉터리 과정을 잘 해 내는 만담가를 선택하여 연출 해 보면 웃음바다로 민속 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귀신잡이 경문 중 마지막 끝에 경을 읽는 옥추보경(玉樞寶經) 중 몇가지를 수록해 보고자 한다.

神將退文(신장퇴문)

水火相盪分乾坤	大禹造鼎列萬象 (수화상탕분건곤)	대우조정열만상)
八域十方各有界	靈靜神動曰天地 (팔역십방각유계)	령정신동왈천지)
大道一亥枝萬葉	二氣殊徑合往復 (대도일해지만엽)	이기수경합왕복)
成功赫照遍諸土	五行從令養萬物 (성공혁조편저토)	오행종령양만물)
四生六道設陰陽	形有智愚靈鬼神 (사생육도설음양)	형유지우령괴신)
業風吹到鬼妖亂	下界群生浸輪迴 (업풍취도귀요란)	하계군생침률회)
魔揚陰道姦作孽	賊入寶藏味天理 (마양음도간작얼)	적입보장미천리)
五形散亂變萬身	魑魅魍魎戲無邊 (오형산란변만신)	리미망양희무변)
雷聲一振玉樞符	紫微眞靈入三昧 (뢰성일진옥추부)	자미진령입삼미)
四十八將降魔劔	打破崑崙捕邪精 (사십팔장강마검)	타파곤윤포사정)
五方神將列旗幡	凶穢消蕩日月睛 (오방신장열기번)	흉에소탕일월정)
山神土地聞誦經	侍衛五身除萬劫 (산신토지문송경)	시위오신제만검)
七曜九元魂魄安	靑龍白虎不移方 (칠요구원혼백안)	청룡백호불이방)
天官律令莫敢違	陰邪妖孽囚鐵圍 (천관률령막감위)	음사요얼수철위)
三界魔王束手臧	五岳鬼卒化微塵 (삼계마왕속수장)	오악귀졸화미진)
波旬煞鬼歸聖域	地中陰怪覺正路 (파순살귀귀성역)	지중음괴각정로)
三十六天雷律令	七十二地神威力 (삼십육천뢰율령)	칠십이지신위력)
十方虛空隱微塵	群生安樂永泰平 (십방허공은미진)	군생안락영태평)
黍羅日月壺乾坤	三十六宮都春光 (서라일월호건곤)	삼십육궁도춘광)
有情無情歡仙樂	滌去妄念還本第 (유정무정환선악)	척거망념환본제)
普化天尊攝號令	塵土刹羅琉璃界 (보화천존섭호령)	진토찰라류리게)
群星萬靈登上天	四十八將從符道 (군성만령증상천)	사십팔장종부도)
山王護山神守家	五道八方神安寧 (산왕호산신수가)	오도팔방신안령)
靑龍之神還東方	白虎之神歸西方 (청용지신환동방)	백호지신귀서방)
朱雀之神定南方	玄武之神治北方 (주작지신정남방)	현무지신치북방)
句陳騰蛇陰陽神	保佑中央護人道 (구진등시음양신)	보우중앙호인도)
陽神上昇陰神下	晝神夜神歸日月 (양신상승음신하)	주신야신귀일월)

泥丸明堂神常寧 五華五臟神守靜 (리환명당신상영 오화오장신수정)
動神靜神準法度 各率神兵安方位 (동신정신준법도 각솔신병안방위)
呪日 吾奉

九天膺元雷聲普化天尊律令
구천응원뢰성보화천존율령
淋鷗翺山梟縛羅娑 婆訶
진언깁산병박라사 바하

한국문화의 뿌리

李 政 良

社團法人 韓國典禮院長

一. 서론

인류의 생활방식이 세계화되면서(Gloval Oraganization) 각 민족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文化的 특성의 역동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지구촌에서 살아 남으려면 이제는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만을 가지고는 앞서가기 어렵게 되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향유욕과 소유욕의 2중 구조로, 저 괴테가 말한 눈물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고전적이고 생태적인 소유욕에서 생활의 즐거움을 향유하려는 보다 차원 높은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의 선진국의 개념이 단지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의 우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어떻게 삶을 즐기느냐 하는 소위 문화적 생활양식을 놓고 선·후진의 잣대를 가름하고 있다.

인류 文化가 금세기초까지만 해도 동양의 윤리적 철학사상이나 서양의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 문화라면 금세기 후반의 문화경향은 인간의 감성을 중히 여기는 감성문화로, 21세기는 이른바 감성시대라고 예견한다.

따라서 오늘의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은 단지 편리성이나 내구성, 또는 가격의 비교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호감을 주느냐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경쟁력은 바로 매력있는 문화적 감성을 만족시

켜 줄 수 있는 것이 더욱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예컨대

한끼의 밥을 먹을때도 양에서 → 질로, 질에서 분위기로 바뀌다보니, 매력있는 독특한 문화적 향기가 없으면 외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文化상품은 라이프 싸이클이 길고, 또 부가가치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문화적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이 호감을 주고, 믿음을 주기 때문에 경쟁력의 바탕은 바로 文化수준의 바탕을 의미하고, 또 한계와 발전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땅과 인구나 문화중에서 국토가 작고 국민을 구성하는 민족도 단수이며, 또 그 인구가 적은 작은 나라이고, 부존자원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지배해 온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소위 슈퍼국가는 될 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문화적으로 민족의 인종적 우수성과 우리의 독특한 자연 환경, 최고수준의 언어구조와 문자, 사상적 통합 논리는 지구촌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적, 소인(素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문화적 선진국이 될 만한 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다.

二. 우리 문화의 뿌리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문화의 뿌리는 첫째 자연환경, 둘째 인류학에서 말하는 민족의 특질, 셋째 언어와 문자라고 한다.

원시종교(Shamanism)는 그 자연환경과 민족의 특질에서 연유된 것이며, 모든 종교 사상의 접목도 환경적 영향이 절대적이다.

오랜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진 우리 민족의 가족제도와 가정 문화도 우리 문화의 특성의 하나이다.

1) 자연환경의 문화적 조건

자연환경은 ‘문화의 어머니’ 라고 한다.

인간이 자연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라와 민족의 문화는 삶의 바탕인

자연환경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범 동양문화가 오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살아가면서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 순응의 동양철학을 낳았다.

지상의 모든 생물이 하늘에서 그 명을 받았다는 소위 天命사상은 바로 자연의 순리에 맞춰 살아가는 생활철학을 발달시켰다.

자연에 어떻게 잘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이다.

중국의 탄탄한 유교의 생활철학이나 인도의 우주적 종교관은 자연조건이 낳은 동양 철학의 진수라고 하겠다.

회교이 코란이나 기독교의 절대적 신관은 중동의 사막과 같은 특수한 환경조건에서 나온 것이다.

자연을 정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구라파의 자연환경이 절대신을 믿는 기독교 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나아가 소우주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우주의 주체적 의지로 생각하는 동양철학과 인간은 단지 피조물이며, 하느님의 은총만이 원죄를 면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뿐인 서양 기독교 문화의 갈등의 소지가 여기에 연유하는 것이다.

2) 한국의 자연과 문화의 바탕

한국의 자연조건은 한국사람을 자연에의 적응성이 가장 뛰어난 특질을 만들어 놓았다. 일년내내 변화무쌍한 날씨는 농경사회에서 24절후의 시간적 대응방법을 정밀하게 만들어 놓았고, 태양력과 대음력을 함께 사용하며, 다양한 음식문화, 복식문화와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했다.

한대, 온대, 아열대의 복합적인 기온은 (최저기온 중강진 -43.6℃~최고기온 대구 40℃) 한국 사람을 어떠한 기후대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주었다.

가파른 경사의 산지와 비좁은 평야와 일정치 않은 강우량은 한국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주었다.

다양한 식품문화와 다양한 복식문화는 바로 우리 자연조건의 영향이다.

3) 인종과 문화의 바탕

인류학에서 말하는 한국 사람의 인종적 분류와 형상의 특징은 본 강의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인종적 특질이 그 민족의 문화의 뿌리에 핵심적 요소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문화의 뿌리.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 한국인의 두뇌구조와 한국사람의 뛰어난 손 솜씨의 원인을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한국 사람은 우측대뇌가 유별나게 발달되어 있다. (右側大腦半球型)

인간의 좌측대뇌는 이성(理性)의 뇌이고 우측대뇌는 감성(感性)의 뇌이다. 우측대뇌가 발달하였다는 것은 바로 한국사람은 감성이 타민족에 비해서 천부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국문화를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바로 감(感)文化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전통문화 등에서 가령 의·식·주 전반에 걸쳐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설계를 하여 물건을 만드는 경우가 없다.

눈 대증으로 손짐작으로 적당히 하여도 훌륭한 조화미를 창출해 낸다. 궁궐의 도목수가 설계도 없이 대역사를 하였으며, 석굴암같은 인류 문화유산의 대표적 작품도 “설계도가 없다” 다보탑이나 석가탑도 마찬가지다.

또 우측뇌는 사지의 반대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측 감성뇌는 왼손으로 작용한다. 작업을 할때 오른손은 도구를 사용하지만 왼손은 직접 작업 대상인 물건을 잡는다. 왼손으로 물건을 감정하면서 손감각으로 감을 잡고 작업을 한다.

우리나라의 석물조각은 전부 왼손으로 끌을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고 쪼아서 만든 것이다. 그 복잡한 한복을 만들때도 자로 재서 재단을 하는 법이 없다. 눈짐작과 손짐작으로 해도 잘 맞는다.

세계기능올림픽에서 한국이 10년패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히 한국 사람은 천부적으로 손 솜씨가 세계 제일이다. 이 손솜씨로 한국의 전통공예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사물을 확인하는데 눈으로 보고 끝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손으로 만져 본 다음에야 마음이 놓인다.

4) 언어 문자와 문화의 바탕

언어학에서 말하는 아타이어의 구조적 특질은 생략한다.

지리상에서 약 20여개의 고급언어 중에서도 한국어는 가장 우수한 고급언어에 속한다. 한국사람은 이 지구상의 어떤 언어도 다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세계문화 일반을 흡수하고 반대로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이다.

우리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것은 우리 구강의 신체적 조건을 형상화한 것으로 그 과학적 우수성을 미국 하바드대학의 10여년에 걸친 연구 결과로 입증하였다.

우리 정부가 10월 9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빼버렸는데 지난해 10월 9일 미국 언어학회에서 왜 기념행사를 안하느냐고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을 벌린 일이 있다.

미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군에 넣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말에 경어가 유별나게 발달한 것은 사회질서의 근간인 가정의 엄격한 윤리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윤리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문화 선진국이 되는데 우리의 언어 문자는 향도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무교(SHAMANISM) 문화의 바탕

무교는 어느 민족에나 있는 원시 종교이다.

인간의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으려 하는에서 무속 신앙이 출발하지만 더 나아가 인간의 앞날의 운명을 가늠할 수 없기에 길흉화복에 대한 예방과 기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무교는 어느 문화권이나 민족을 막론하고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독자적 문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무교는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이서 지상의 나무 줄기와 잎, 꽃을 피우는데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듯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문화 전반에 영양을 공급하는 뿌리이다.

샤머니즘이 가장 다양한 일본이 우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미신이라고 매도한 이유도 한국인의 가장 한국적인 의식구조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고도의 철학적 논리로 무장한 불교, 유교, 기독교까지도 그 밑바탕에는 우리 무교의 영향력이 크다.

한국 무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신인(神人)합일이다. 신인합일이 되었을 때 망아(忘我:ECSTASY) 상태가 되어 기(氣)가 솟구친다. 한국 문화를 전장에서 감(感)문화라 했지만 한단어를 더하면 기(氣)문화라 한다.

한국사람의 기(氣)는 바로 망아(ECSTASY) 상태에서 나오며 망아는 바로 신인(神人)합일의 무교에서 비롯된다.

우리 문화의 꽃인 전통 무용이나 전통 음악 또한 이 무교에서 비롯됐음을 볼때 무교야말로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이고 생명력의 근원임을 알 수 있다.

불교가 유입되면서 칠성각이나 삼신각 같은 무교와 교합하고 유교의 상장례 의식에 강신. 뇌주하는 것은 무교의 생사관과 일치한다. 무교의 생사관은 영이 몸에 있으면 삶이요, 영이 몸에서 떠나면 죽음임을 의미한다.

현재도 전국에서 매년 거행되는 동제(洞祭)를 비롯한 문화제의 양태가 우리 무교의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부흥회장에 가보면 무교적 ECSTASY장면이 연출되어야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면 무교가 문화의 뿌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 모든 축제(FESTIVAL)가 그러하듯이...

三. 한국문화의 특성

1) 자연주의적 성향

한국 전통문화중에서 삶의 기본 바탕인 의·식·주(衣·食·住)의 생활모습이 지극히 자연과의 조화와 교감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연현상을 음(陰)과 양(陽)의 2분법적 대입과 오행(五行)으로

분류되는 자연현상의 대대적 문화문법(對待的 文化文法)의 적용은 한국 사람의 삶의 전 영역을 덮고 있다. 풍수지리의 발달도 마찬가지다.

천시(天時), 지리(地利)와 인화(人和)의 개념은 한국인의 전통적 작위, 부작위의 잣대가 되어 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한국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자연과의 일체사상은 자연의 여러 가지 동식물까지도 의인화, 인격화하여 하나의 인격체로서 교감을 나누고 있다. 한국의 시(詩)·서(書)·화(畫)가 고도의 상징성을 나타내면서 풀하나 꽃한송이, 나무열매 하나까지 의미를 부여 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매·난·국·죽으로 대표되는 사군자는 그 식물의 특성을 군자의 격으로까지 올려 놓는다.

건국의 신화부터 현대까지 한국인 정신의 삼대지주는 천·인·지(天·人·地) 삼일 사상이다.

하늘 밑에 땅위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땅을 갈아 곡식을 생산하고(在世理化), 사람끼리 나누며(弘益人間), 하늘에 영생하는(性通光明) 건국이념을 보면 우리 문화의 근본이 천명(天命:자연의 순리에 따름) 문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종합지향성(보편주의)

한국인은 고유의 단일언어의 사용과 앞에서 말한 자연주의적 성향은 모든 종교 사상을 통합하는 통철학적 사고가 발달하였다.

역사적 천재 김시습이 유·불·선 삼교에 통달하였다던가.

휴정은 삼가규범에서 삼교의 공통분모를 모색하였다.

모든 사물을 상호 관련속에서 통합적으로 사유하고 이해하고자 한 공통의 논리는 한사상을들어내는 핫바지론과 엽전론이다.

한복은 삼차원 구조로 되어 있어, 인체에 적합한 입체적 구조를 지녔고, 앞뒤의 구별없이 대립이 지양된 엽전의 한사상은 한국인의 의식 구조와 행동양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하나(一), 여럿(多), 가운데(中), 같음(同), 얼마쯤(或), 큰(大)의 뜻》

사물을 항상, 종합적인 관계로 인식,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고, 전체가 곧 부분을 반영하는 인식구조는 한의학이나 풍수설을 발전시켜왔다.

“다가 하나고 하나가 다다.(一卽多 多卽一:栗谷 李珣)”

“하나로 시작하나 그 하나가 시작이 아니고, 하나로 끝나다. 그 하나도 끝남이 아니다.(一始無始— 一終無終— : 天符經)”

3) 사람 중심주의(人本主義)

단군신화에 보면 천재 환인이 아들 환웅을 인간세계에 내려보내 지신인 곰(熊氏)과 결합하여 단군을 탄생시킨다.

이는 초월적 존재인 환웅을 인간세상에 내려와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在世理化),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弘益人間) 인간중심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다.

우리나라 시조설화의 대부분이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과 결합하여 신인(神人)이 탄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국 사람의 탄생신은 삼신 할머니인데, 심신은 바로 천신, 지신, 인신으로 천·인·지 합일인데, 사람이 천신과 지신을 통합하는 사람중심 개념이다.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인내천(人乃天) 사상이나 증산교의 인존사상(人存思想)은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낸 것이다. 전장에서 말한 무교의 핵심도 신·인 합일의 망아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인의 인권사상은 태교의 발달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한결같은 소원은 훌륭한 자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백일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천일기도를 드리고, 합궁하는 날도 좋은날(Best Condition)을 택해서 하였고, 음식도 철저히 가려 먹었다.

단동치기 십계훈(檀童治基 十戒訓)을 보면, 어떠한 일보다도 훌륭한 자식을 생산하여 잘 키우는데 목숨을 걸었다.

한국인이 유별나게 교육열이 심한것도 위와 같은 전통사상에 연유한 것이다.

4) 가족주의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매우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토인비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은 한국 가족문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 말이나, 1997년 스위스 유니온 은행이 21세기 발전이 가장 기대되는 나라로 한국을 들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의 가족문화와 교육열을 지적한 것이다. 세계 가정의 날은 바로 한국이 주장해서 정해진 것이다.

① 한국 가족의 특성은 가족의 일원인 개인의 정체성(正體性)이 인정이 안된다. 즉 개인이 가정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개개의 가족의 구성원보다 집(家)이 우선하는 가족 전체로서의 정체성만 강조된다는 점이다. 그와 같은 가족간의 인간관계는 모든 사회생활의 인간관계에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한국 사람은 사회에서의 행동양식이다. 인간관계의 성립이 가족간의 관계선상에서 재연되어 가족상황에 대한 정보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한국사람은 처음 인사를 나누고, 관계를 맺을 때, 관향과 조상과 부모, 형제 집안의 내력까지(족보) 밝혀야 인정을 받는다. 예컨대 취직을 할 때 본인의 인적사항만으로는 통과되지 않는다.

개인적 신분으로는 신뢰하지 않고, 모든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문화의 배경까지도 알려야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는다.

② 두 번째 특성은 가족의 집단적 구성원의 크고 작음이 바로 가세가 되고, 그것은 곧 사회적 역할과 직위까지도 절대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고 가세가 클수록 좋은 것이다.

우리의 전통 관혼상제의 가정의례에서 얼마나 많은 가족과 일가친척 친지가 모이는 것은 대단한 관심사로, 지금도 도도한 사회 현상이다.

③ 세 번째 특징은 서열의식에서 오는 위계질서의 문화양태다. 가정의 부자간, 형제간의 서열의식은 사회로 연장되어 우리 사회의 강한 서열의식과 상위 지향적 의식구조의 발달을 가져왔다.

가정의 급수성(級數性, 촌수·항렬)은 그대로 사회로 재생산되어 권위주의적 관료의식이 깊이 뿌리내리고, 존·비의 발달을 가져왔다.

가령 회의석상에서 속으로는 반대하는데 그 자리에서 “차마 반대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표결은 찬성이고, 내심으로는 반대하는 것이다.

즉 예와 아니오가 체면상의 예와 아니오가 되기 싶다.

“만장일치”, “일사불란” 등의 의결방법이라든가, “그것도 일리가 있다.”, “없었던 것으로 하자”,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등과 같은 연극·의례적인 행동양식을 낳아 속마음을 알기란 쉽지 않다.

위와 같이 한국의 모든 사회 질서의 근원은 가족주의 가정문화에서 나오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인 것이나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핵가족화와 실제 생활의 이산가족, 결손가정의 증대는 우려되는 바다.

특히 우리 가족문화의 자랑거리인 효사상은 핵가족화와 생활의 이산가족화가 효의 모범을 보이기가 어려워 가정의 인성교육이 어려워지고 있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四. 맺은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인은 지구촌에서 문화적 선진국 내지, 지도 국가가 될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야흐로 전개되는 문화전쟁에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감성과 기문화가 결합하면, 민족의 에너지는 폭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문화는 자연과 인간을 결합시키는 통합 논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 사상도 흡수 통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교전쟁이 없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소위 아메리칸 칼라나 저팬 카탈를 뛰어넘는 KOREAN COLOR을 지구촌에 심어놓은 문화선진국이 되어 문화의 역동성과 속성이 가지고 있는 LONG RUN의 생명을 키우도록 해야할 것이다.



역경과 고난을 이긴孝心

鄭 順 任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4반

인제읍 고사리 장수터 마을 앞을 유유히 흐르는 내린천(內麟川)의 맑은 물은 옛부터 깨끗하게 이곳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들을 담고 흘러내려 심산유곡의 적막을 이루는데 큰 몫을 다하고 있다.

풍치가 국토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요, 그 어디를 둘러봐도 깊고 높은 산이 시야에 확 들어오고, 어느때든지 어느곳을 가보아도 색다른 모습으로 찾는 이들을 반기는 곳이 이곳 내린강가의 사람들인 것이다.

오늘도 그 맑고 맑은 물은 내린천 물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욕심을 대변하듯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지수(指數)를 조금도 거짓없이 나타내는 청정도(淸淨度)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소음과 매연에 찌드러운 도시인들은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을 보고 싶으면 바로 인제(麟蹄)로 오면 될 것이다. 그리고 물욕이나 산림욕을 실컷 하고 싶으면 내린천을 찾으면 된다고 하겠다.

이처럼 군민(郡民)의 순박하고 해 맑은 삶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내린천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국토의 보배요, 청정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정이 메마르고 이기심이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극진히 부모님을 모시는 효행(孝行)의 미담을 듣고 볼때마다 신선한 충격과 깊은 감동의 찬사를 보내게 되는 감성을 갖고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역경속에서 부모님에게 바치는 효심(孝心)과 고난을 극복하는 그 덕행은 바로 인간 승리의 한 장면이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처럼의 국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려운 IMF 하에서도 정부와 국민,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구조조정을 하여서라도 개혁으로 “제2의 건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하나의 디딤돌로 시장개방으로 상징되는 국제 경제 전쟁의 거센 물결을 헤쳐나가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는 개인 이기주의와 그리고 몰염치한 군상들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면서 이런 인간미와 도덕성의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제15회 인제합강문화제 행사에서 충효부문에서 인제군민대상을 수상한 정순임(鄭順任)여사야말로 모든 시대, 모든 사회를 초월하는 인륜이며,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질서의 표본이라 여겨 본 지면에 소개하마로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갈 사회질서의 원천을 삼고자하는 것이다.

인간의 덕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효행이야말로 이 시대의 낡은것도 새로운것도 아니며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할 변함없는 질서이며, 법도인 것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모든 인간들이 한결같이 갈망하는 것은 더 많은 물질도, 더 많은 편리도 아니며,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고귀한 덕목의 보존이라 할 것이다.

에나 지금이나 이곳 고사리 장수터 마을은 천하절경으로 이름난 곳이라 했다. 설화(說話)에 의하면 먼 옛적에 장수터(將帥堡)에 사는 韓氏가 장사를 낳았다가 후에 역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그 부모가 죽었다고 하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옛말에 이런 절경에 인걸(人傑)이 난다고 했듯이 효자 효녀가 많은곳으로 복지개봉 골짜기에 졸졸 흘러내리는 돌 냇물 도랑 옆 양지바른 언덕에 정순임 여사의 가족이 오손도손 정겹게 살아가고 있다.

여사님은 평소 근검절약을 생활신조로 시모(金元, 94세)를 극진한 사랑으로 봉양하고, 그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주변 이웃들에게도 헌신적으로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효부이며, 각종 정부시책과 군정 전반

에 걸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여사님은 1948년 6월 19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임촌리에서 가난한 농군인 부(父) 鄭三萬, 모(母) 林玉子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그리고 6살이 되던 해 이른 봄에 부모님을 따라서 당시 임산자원에 의한 임목 벌채가 한참인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텃 말에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게 되었다. 부친은 인근지역 산판에서 벌채 노역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렸으며, 자연히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 사춘기 소녀의 꿈도 피워 보지도 못한채 오직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꽃다운 나이 16살 되던 해 가을에 이웃 농가의 朴鍾泰 씨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 당시 시가의 살림도 매우 어려웠다. 모든 사람들이 그날 그날의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 가던 시절이었으니 말이다. 그의 남편 역시 산판일을 주로 하면서 적은 농토를 가꾸워가며 가족의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처지였다. 친정 아버지나 남편에게 있어서 산판일은 힘에 부치는 고된 일이었다. 그처럼 어려운 일을 매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많이 드시는 날이 많아졌다.

시부님 朴三龍 옹은 1966년 12월 5일 돌아가시기까지 그 오랜 세월을 해수병으로 고생하셨다. 그리고 시모님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골에서 출생하신 분으로 젊으셨을때에는 건강한 몸으로 농사일에 매달리며 생활하였으나 그 시절 식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워 영양실조에 의한 위장병을 얻으셔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다.

여사님에게는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시부의 해수병, 시모의 위장병 등으로 그 어려운 가정 살림에 병원치료는 엄두도 낼 수가 없었고, 또한 약 한첩 제대로 쓸수도 없었다. 더구나 남편도 농사와 산판의 고된일로 인해서인지 일찌기 늑막염을 앓았지만, 그저 근심 걱정으로 바라다만 볼 뿐 속수무책일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날이면 날마다 자꾸 쪼들리는 가정살림살이, 견디다 못해 여사님은 손을 걷어 붙이고, 젊은 새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닦치

는 대로 하였다. 특히 60년대의 이 지방의 가뭄은 년년내내 흉년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서 가족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되었다.

언제나 봄이면 산나물을 뜯고, 여름, 가을이면 산약초와 버섯등을 채취하여 시장에 내다 팔아 그 돈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렸으며, 간간히 약재를 사다가 시부모님의 병 간호를 하였다.

그 당시 여자의 하루 품삯으로 좁쌀 3되씩 받는 콩, 옥수수, 감자밭 김매기, 공사장 잡부일, 식당의 굶은 일등을 닦치는대로 이를 악물고 하였다. 온갖 고생을 무릎쓰고 가난을 벗어나려는 굳은 신념의 악착같은 노력이 있어서 차츰 가계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특히 시부모님의 위장병에 대한 섭생(攝生)생활에 정성을 다해 온 보람이 있어서인지 곧이어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 오늘의 94세에 이르는 동안 잔병치레도 없이 건강하게 장수를 하고 계시다. 요즘에 와서야 청각이 다소 떨어지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보면 그 오랜 세월동안 눈물겨운 효성이 극진했음을 보게된다. 그러나 시부님의 병환과 남편의 늑막염에다 간경화증까지 겹치는 병환은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었으리라.

그의 남편마저 1984년 12월 24일 노모와 처, 자식등 8명의 가족을 남겨둔 채 한 많은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큰 아들 朴範順(33세)은 1984년 2월에 울산시 남구 매암동 30번지 金石水씨의 참한 규수 香珠씨와 결혼하여, 현재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대전에서 개인사업으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가족이 재미있게 살만큼은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신다.

그리고 둘째아들 明順(31세)은 원대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맨 주먹으로 울산시로 진출하여 “울산동부화학주식회사(현재 동부한농화학)” 생산부 기술직에 근무하면서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중학교, 고등학교 전 과정을 검정고시에 당당히 합격하여 현재는 방송통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정말 노력 학구파의 한 사람이기도 한다. 그는 일찌기 뜻한바가 있어 도시의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말았다. 고향에서 나이 연마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혼자 농사와 가사일에 고생만 하시는 어머님을 언제나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1997년 5월

5일 귀농의 큰 포부를 가슴속에 안고 처자식과 함께 돌아왔다.

현재 소작하는 종지까지 합쳐 논 6,000평, 밭 14,000평에다 경제작물재배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아울러 느타리버섯 하우스도 2동을 새로 지어서 부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다.

그가 얼마나 영농과 청소년지도에 열성인지, 단위부락 4-H 지도자와 군 4-H연합회 기획부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1998년 11월 17일 농민의 날에는 모범 영농지도자로 선정되어 인제군수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 셋째아들 英淳(27세)은 인제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전부터 경기도 일산에서 건축업하시는 이모부 밑에서 건축기술연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외동딸 銀柱(25세)는 곱게 잘 키워서 1996년 7월 15일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71번지 강호범 가의 강민규씨와 결혼, 출가시켰다. 그는 어려서 일찍부터 어머니의 특별하신 가정교육을 아주 잘 받아서인지, 그의 시가에서 시조부님, 시부모님 등 층층이하의 웃 어른님을 잘 모신다고 칭찬도 곁들이신다. 그리고 막내 아들 德順(23)이가 있다. 그는 인제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불의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약간의 청각장애가 있으므로해서 셋째형과 같이 일산의 이모부덕에서 건축일에 종사하며 기술습득연마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여사님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혼자 겪어온 불우했던 시절을 되돌아 보면서, 부락 내 각종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어렵고, 궂은 일을 앞장서서 하므로서 이웃 주민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어 이를 보는 사람은 물론 만나는 사람마다 정겨움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이웃노인들을 항상 노시모님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공경하고 있으며, 자주 왕래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그 보살핌을 각별히 하고 있다. 더욱이나 노시모님을 살아생전 건강하실때에 한번이라도 더 서울에 살고 있는 딸네집에 다녀오시게 하기 위해 서울까지 모셔다 드리고는 잠시 집에 다녀오기가 바쁘게 발걸음을 되돌려 서울로 가는 그의 효심은 그 누구도 못말린다고 이웃에서도 칭찬이 대단하다.

여사님은 부녀회원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자연정화활동, 재활용품수집

교환, 비지정관광지 주민제도 및 홍보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항상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5남매를 혼자 손으로 고이 잘키워 사회의 한 일원으로 성장시켰으며, 오늘도 충효사상의 헌신적인 사랑과 실천으로 시모님을 극진히 봉양하는 그의 효부상이 차츰 이웃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1995년 9월 22일 경로효진사상고취에 기여한 공로로 인해 인제군수의 공로패를 받은바도 있다.

그리고 1997년 10월 9일 인제군민의 날 행사인 인제합강제 식당에서 충효부문의 영예로운 인제군민대상을 수상하였다.

자고로 옛부터 일러 오기를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사람이 난다고 했듯이 산수 수려한 내린천강변을 끼고 있는 이웃마을인 원대리에 사시는 趙玉女 여사님이 1988년 효부상인 화혼상(華虹賞)을 수상한 바 있고, 또 인근 하추리에 사는 젊은 청년 尹鍾 씨가 효자로 추천되어 제19회 어버이날에 보건사회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사실도 모두가 우연의 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무엇보다도 웃어른과 그 이웃의 소중함을 먼저 아는 그런 인간미와 도덕성의 회복이 가장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인정이 극히 메마르고 이기심이 팽배해 있는 현 시점에서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긴 효행의 미담을 지상에 올려놓아 못 세인들의 귀감은 물론 孝의 참된 기본 정신과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더 나가서 인간의 가치관을 재 정립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다.

(內麟文學會 韓 龍 雲)



金剛山이 보고싶다

석 찬 호
인제읍 상동5리

1. 고향을 그리며

내 고향은 북강원도 회양군이다.

금강산이 바로 회양군에 있다. 고성과 통천에 이르는 동쪽에 외금강이 있고 금강산 일만이천봉의 중심은 내금강면에서 고성의 괴금강으로 걸쳐 있는 셈이다. 뜻하지 않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실향의 아픔을 되새겨 보면서 한반도의 허리 京元線에 철마의 기적은 몇었고 내나이 칠순이 넘어 동강난 땅에 사는 지금 늘 꿈속에서 금강산을 그리고 북녘하늘을 바라보며 통일의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항상 그리운 고향을 그려보지만 큰산이 뒤에 있으니 하늘이 북에 없고 큰바다가 앞에 당하니 땅이 동쪽에 다하였도다. 다리 아래는 동서남북 길이요 지팡이 머리에는 일만이천봉이였더라. 수 많은 시인 묵객들이 천고웅자의 신비를 읊조려도 오히려 시문이 막혔다.

김삿갓은 금강산을 감탄하여 평생에 금강산을 위하여 시를 아끼였더니 금강산 이름에 오히려 시가 막힌다고 한탄하였다.

내금강은 우아하여 여성적이라 했고, 외금강은 웅건하여 남성적이라 하였다. 사계절 경관이 수려함이 뛰어나 春金剛, 夏蓬來, 秋風岳, 冬皆骨로 부르는 한반도 絶勝의 상징이기도 하다.

나는 늘 휴전선 철책 넘어 금강산을 그리며 망향의 한을 심키고 살아간다. 더욱이 큰 명절때가 돌아오면 간단하게 메를 때놓고 함께 살아가는 어린 자식들과 같이 고향땅에 묻힌 조상에게 제를 올릴때 보이지 않

는 눈물을 흘려보고 꼭 메인 답답한 가슴을 참고 지내며 살고 있다.

그리운 내고향 회양군은 함경남도 남서 연변군과 접경을 이루고 동으로 통천·고성, 남쪽으로 양구 수입면과 금화군, 서쪽으로 평강군이 둘러싼 산악군이기도 하다.

2. 金剛山

금강산은 한반도의 동해안에 뻗은 척량산맥(脊梁山脈)인 태백산맥 북쪽에 수려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세계적인 명산으로 자연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금강산은 동경 129 2分에서 13分 북한38 34分에서 47分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산중의 최고봉인 비로봉 1,638m는 동경 128 3分 북한38 39分에 해당한다. 금강산은 그 지세에 따라 내금강 외금강 신금강(新金剛) 해금강(海金剛)으로 나뉘어진다.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흐르는 산맥 능봉선과 다시 비로봉에서 동쪽으로 뻗은 선에 의해 구분되는 세부분중에 서쪽부분이 내금강이요 동북부분이 외금강이요 동남부분을 신금강으로 부르며 동쪽 해안을 해금강이라 부르는데 이 네금강은 각각 특유의 경관과 풍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외금강은 준협한 암봉암능(岩峰岩稜)의 기골이 늠늠한 남성미에 비견되고 내금강은 가파른 여러 봉우리에 동금강천(東金剛川)의 본기류가 깊이 파고들어 여러줄기의 아름다운 계곡을 만들고 깊은 수림이 어울려 여성미의 현묘(玄妙)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찌기 일본의 어떤 풍류객은 금강산을 보기전에는 천하의 산본을 논하지 말라고 했고, 중국의 어떤 시인은 원출 고려국일견고려 금강산(願出高麗國一見金剛山) 태종실록이란 시(詩)로서 금강산을 마음껏 구경하기 위해 고려인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평생의 한으로 삼아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신앙으로 금강산 선경을 한번 구경하면 죽어서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옛부터의 예찬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조선후기의 유명한 방랑시인 김삿갓이 금강산 골짜기를 시로 메꾸어 보려고 막상 그 천하 절경에 들어서서平生詩鳥 金剛山 及경金剛不귀時(내일생 금강산 읊으려 시를 애겨왔건만 금강산을 만나보고 시조차 들

켰네)라고 읊은 것이라던가 술을 좋아하고 많이 먹는 崔北이 금강산 구룡포 밑에서 술에 만취 그 절경에 도취하여 천하의 명인 최북이 천하명산에서 죽노라 라는 말을 남기고 구룡포 속으로 뛰어 들기도 했던 민화 등이 널리 전해지고 있다.

한편 양봉래(揚逢來)는 그의 호가 암시해주듯 금강산을 죽을때까지 사랑했던 풍류객으로 전국명소를 찾아 다니며 풍월을 즐겼었지만 해금강에 이르러 처음으로 그 곳에 자리를 정하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육당 최남선은 금강예찬 권두에서 금강산을 보고 느끼거나 할 것이요, 형언하거나 본떠 낼 것은 못된다. 하느님의 의강중에서도 지극히 공교한 이것을 어느 사람의 변변치 아니한 재주를 어데다가 시험한다고 하겠는가 하였고, 어떤 화가는 금강산의 경치는 전연 상상이상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구상할 수 없는 그림이다. 우리들은 이 진경에 접하면서 드디어 당황하게 되며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된다. 「화가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실존의 산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금강산이다.」라고 한 것은 금강산을 대할때의 느낌을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금강산은 동서남북으로 발달된 구조선에 따라 형성된 좁고 긴 계곡과 수직거리 수백미터에 달하는 평풍같은 면을 이루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수직의 절리를 갖는 흑운모 화강암을 주체로 해서 화강편마암이 오랫동안 풍화작용의 침식을 받아 암봉과 암능이 각양각색의 이끼낀 기암괴석을 이루어 하늘로 깎아지르듯 솟아 툽니같은 바위 봉우리들이 뒤섞여 엉클어지듯 서있고 그사이 수많은 냇물을 흐르게 하면서 크고 작은 폭포, 늪, 여울, 연못 등을 만든 장관들이 어울려 산수경관의 절묘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암석의 미, 계곡의 미, 봉우리의 미는 사철의 자연을 따로 정취의미를 발휘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황홀의 극치를 맛보게 하고 아울러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예술의 자취인 고찰의 건축미와 전설미를 곁들여 금가의 무궁한 조화에 감정의 갈피를 못차리게 한다. 금강산의 명승지로는 이 산의 최고봉인 비로봉 1,638m를 비롯하여 영광봉 1,601m, 일출봉 1,552m, 월출봉 1,580m, 룡허봉 1,465m, 차일봉 1,529m, 내무재령

1,275m, 외무재령 1,197m, 지장봉 1,381m, 십왕봉 1,147m, 독대봉 1,331m, 장군대 1,372m, 상등봉 1,222m, 집선봉 1,351m, 국사봉 1,385m, 호용봉 1,424m, 옥여봉 1,424m, 선창산 1,224m 등의 산봉과 자연의 걸작인 만물상을 비롯하여 구룡연, 무봉폭, 비봉폭, 수렴폭, 옥류동, 만폭동 등의 여러 폭포와 담수망군대, 명경대, 괴면대, 삼선암, 마석암 등의 기암망대가 곳곳에 주경을 이루고 있다. 금강산의 전설미로는 화엄경에 동북해중 유금강 일만이천봉 담무갈보살주기중이라 한 것을 미루어 보면 금강산은 삼천년전 석가시대로부터 알려졌으며 전기 어느 청경국사(淸涼國師) 황제계 상소하기를 세계에는 팔금강이 있는데 그 중 칠금강은 해중에 잠기고 일금강만이 해동 조선에 출현하였다고 되어 있다. 금강산 속의 여러 지명을 보더라도 불교적인 것, 석가봉, 법기봉, 관음봉, 극락봉, 산불암, 십왕봉, 세존봉, 철불동, 달마암, 보덕굴, 불암, 묘길상, 금강폭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금강산의 전설로서는 내팔담의 보덕각씨전설 구룡연의 천여전설 은선대의 청의 동자전설 영원동의 영원민씨전설 유점사의 구룡전설로서 멀리 인도에서 도래한 53佛의 전설을 가진 점사 명언담의 중 나화와 금동굴사와의 애화, 구룡연에 몸을 던진 젊은 중, 정서깊은 천선대의 천여전설 등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신라의 화랑들은 이 산에서 심신을 닦고 국토 통일을 위한 위업을 이룩했으며 고운 봉래 같은 선인의 수택 서산과 사명같은 뛰어난 스님들의 유적 울곡 같은 유현의 유적 그리고 비로봉 숲사이 용마석에 천년 신라사능의 종말을 슬퍼하여 금강산에 몸을 숨겼던 마의태자의 비통한 행적 등 고금명류(古今名流)의 자취와 함께 전설의 옛말로 전해져 온다.

금강산은 시시각각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신비현묘(神祕玄妙)한 변화가 무쌍하여 사철에 따라 면모가 다른 산 모습으로 꽃피는 금강, 녹음 짙은 금강, 단풍피는 금강, 自雪의 금강으로 열 개 이상의 다른 이름이 있지만 흔히 사계의 금강을 이름하여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등으로 불리어 온다.

즉 금강은 고유의 산명인 동시에 춘색(春色)이 짙은 산자수명을 말한

것으로 불당의 이른바 금강전(金剛殿)리의 화려한 거생 비유한 봄의 명칭이고, 봉래(逢來)란 만산(滿山)이 짙은 녹음 속에 잠겨 버린듯한 여름의 금강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라는 의미에서 봉래라 불렀고 풍악(楓嶽)이란 구름 한점없이 개인 푸른 하늘에 첩첩히 쌓인 기봉(奇峰)이 서로 높이와 자태를 다투듯 각양각색의 단풍으로 장식되는 점에서 풍악이라 불렀고 겨울에는 앙상한 산체(山體)가 흰눈으로 덮여 백골로 화한다고하여 개골(皆骨)이라 불리게 되었다.

금강산의 미는 실로 드높은 만학청봉과 기암이 중첩한 유곡에 있으며 외관은 극히 은밀하게 보이나 석리(石理)는 비교적 거칠어서 침식풍화작용을 받아 절리(節理)가 잘 발달되어 있다. 금강산에는 삼한시대 초기에 이미 108개의 사찰이 있었다는 말이 있고 한 사찰에 수백명의 승려가 거주하고 있어 멀리 중국 동지로부터 순례자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금강산의 경관에 가장 웅위함을 보여주는 것은 주봉인 비로봉에서 보는 장관이다. 동해의 푸른 물결이 한없이 구비치는 해금강의 해안 경치는 수려함이 단연 으뜸이고 구름과 안개 비와 눈의 기상현상이 계절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모습은 무한한 감격을 맛보게 한다.

실로 글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의 다양함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금강산 풍경에 현묘한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야말로 금강산은 한국이 갖는 산의 최고 풍경이며 더욱이 세계에 그 유래가 없는 독자적인 일대 경승이 아닐 수 없다. 내금강은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하여 남북으로 흐르는 산맥 봉선과 다시 비로봉에서 동쪽으로 뻗은 선에 의해 구분되는 세부분중에 서쪽 부분이다.

내금강은 비로봉 1,638m, 영광봉 1,601m, 월출봉 1,580m, 일출봉 1,552m, 차일봉 1,529m, 지장봉 1,381m, 장군대 1,372m, 백마봉 1,510m, 준허봉 1,465m, 내무재령 1,275m, 외무재령 1,197m, 십왕봉 1,147m, 축대봉 1,331m 등을 잇는 산능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하며 수계는 동금강천과 금야천의 두역으로 나누어진다. 동금강천의 상류는 수많은 봉우리와 계곡이 조화된 아름다운 계곡미를 나타내고 이곳저곳에 유서깊은 사찰

이 점재하여 있다. 장안사를 비롯하여 표훈사, 정양사, 마하연암, 영원암 등이 대표적인 사찰이며 삼불암, 명연암 보덕굴 등 불교와 연유된 전설적인 명승이 유명하다.

산봉 계곡을 장식하고 있는 산림은 주로 활엽수이고 장안사 부근에는 잣나무 전나무 등의 침엽수림이 우거져 심산 유곡의 풍경을 더해주고 있으며 외금강의 암석미에 비하여 이곳은 산림미로 대표된다.

조선왕조 4대 명필중의 한 사람인 양사언(1517~1584)이 쓴 逢來楓嶽 天化同天이란 말이 담긴 만폭팔담 명경대 등으로 대표되는 계곡의 경관이 다양하고 절묘하여 여성적 계곡미를 이루고 있다. 내금강 탐승은 10km의 지역이 제1코오스를 도중에서 영원암 백마봉 방면로 가는 코스와 갈라지며 이 방면에는 명경대·수림동·백담동·망군대 등의 명승지가 있다.

제2코오스는 마하연암 왕복의 역시 약 10km의 지역으로 도중에는 명연암·삼불암·표훈사·정양사·만폭팔담·보덕굴·묘길상 등의 名寺가 줄지어 있으며 다시 마하연암 부근에서 북쪽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백운대 수미암, 선암, 내원통암 등의 유서깊은 사찰이 있다. 내금강에서 외금강으로 가려면 일반적으로 비로봉 내무재령 등을 넘는 세코오스가 있는데 비로봉 쪽 통로는 장안사에서 만폭동 마하연을 지나 사선교(四仙橋)에서 북쪽으로 약 10km지점의 비로봉을 넘어서 구룡연쪽으로 내려가 온정리(溫井里)에 이르는 약 10km의 코스로 내외금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경승지(景勝地)를 통과하는 셈이며 동시에 이 통로는 내외금강을 연락하는 짧은 첩경이기도 하다.

다시 비로봉에서 월출봉 채하봉의 능선을 따라 발연소를 지나 온정리에 이르는 약 23km의 탐승로가 있으며 채하봉 장군성에서의 외금강 조망은 실로 웅장하고도 장엄한 경관이다. 다시 비로봉 정상에서 월출봉, 일출봉을 지나 내무재로 빠지는 약 6km의 코스가 있는데 이곳에 서쪽으로 가면 금강산에서 제일 큰 사찰인 유점사(楡岾寺)가 있고 이곳을 지나 개잔령(開殘嶺)을 넘고 백천교리(百川橋里)에서 자동차 편으로 온정리에 이르는 내무재령의 통로가 있다. 또 비로봉에서 구성동(九城洞)

으로 가는 탐승로는 용마석 마의태자묘 부근에서 구룡연(九龍淵)으로 가는 통로와 갈라져 북쪽의 구성동 계곡에 이른다. 이 계곡의 규모는 그리크지 않으나 크고 작은 수많은 폭포 여울 등이 거의 9km에 걸쳐 계곡미의 신비성을 나타낸다. 온정통로는 온천구령에서 2km의 온천령을 넘어 구만물상의 입구인 만물정에 이르며 이곳에서 배후에 계곡을 약 1km 올라가면 신오만물상의 절경이 전개된다. 만물상에서 한하계의 골짜기를 약 2.5km 내려오면 육화암(六花岩)에 이르고 이곳에서 온정리까지는 약 6km 거리이다. 도로는 한하계의 절경을 지나고 관음연봉(觀音連峰)의 수려한 산봉을 바라보는 장관이 전개된다. 다음은 내무재령 통로로 앞의 비로봉 통로의 사선교에서 동쪽 약 2.5km 지점의 내무재령에서 약 9m정도 내려오면 유점사(楡岾寺)에 이르게 되고 도중에 12폭 구룡소 만경동 절경이 펼쳐지며 유점사에서 백천교를 거쳐 자동차로 해금강 또는 온정리에 이르게 된다.

3. 마의태자능(麻衣太子陵)

금강산 비로봉의 북방 10리허에 있으며 신라말엽 경순왕은 고려태조 완연에게 호국하여 명실공히 신라는 망하고 말았을 때 경순왕의 태자는 부왕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일천년 사직을 경하게 내놓을 수 없다하여 항의하다가 실패하니 비빈(妃嬪)과 부하(部下)를 인솔하고 개골산(금강산)에 들어가 끝끝내 고려왕조에 굴복하지 않고 바위로 집을 삼고 마의(麻衣)로 옷을 삼고 초근(草根)을 식량삼아 가진 고해를 당하다가 종신하였으니 마의태자(麻衣太子)란 이름이 비로 인하여 생기였다. 임종당 시에는 지옥문으로부터 영원암에 들어와 세상을 떠났다 한다. 이 능묘는 이조정조 신진년에 우상 김은직이 송암의 종암원에서 고능묘지를 얻어서 본 결과 비로서 현능이 태자능으로 증명되었다 한다. 태자의 위국 혼은 춘풍추우천년(春風秋雨千年)을 간들 변할 길이 없을 것이다. 금강산에서 마의태자를 뵈을 때 회고(懷古)의 감(感)을 금할 수 없고 한 움큼의 거친 흙에 오늘날도 오히려 그 어른의 자취를 찾아보면 분명 각성함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천여년전 일이다. 경주에 서울을 둔 신라조가

개성에 서울을 둔 고려조에 대하여 무조건으로 항복하게 되어 국가 최후의 운명이 결정될 때 신라의 군신이 모두 고려의 푸른 서슬을 저어하여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판에 마의태자 한분이 홀로 일어나 반대하였으되 나라를 남에게 가볍게 넘겨주어 물거품으로 돌아감을 보고 마의태자는 비빈과 부하를 데리고 개골산(금강산) 들어가 마의 초식으로 일생을 마치었다 한다.

4. 마의태자 유적지비

우리관내에 마의태자와 관계되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앞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마의태자가 경주에서 떠나 금강산에 들어가 일생을 마치고 그 곳에 무덤까지 있다고 한바, 그러면 금강산에 들어가는 도중 이곳 우리 관내에 충신 열사들과 같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인지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아울러 언제인가는 사학자들에 의하여 연구조사하여 밝혀야 할 과제이다.

마의태자 후손 부안김씨 대종회에서 87년도에 건립한 유적지비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길을 바꿔 동쪽으로 약 4십리쯤 가면 상남면 김부리 마의태자 神殿大王閣에 이른다. 성이 金, 휘가 濫 자가 言兼用인 태자는 신라 56대 경순왕과 竹房王后朴氏 사이에서 왕의 9남 3년 중 첫째 왕자로서 917년에 태어났다. 927년 공의 아버지 김부가 신라 56대 왕이 되어 공도 태자로 책봉되고 이어서 시중 김유렴의 딸 김영란을 태자비로 맞았다. 경순왕 9년에 이르러 후백제와 고려의 세력에 눌려 국력이 쇠약해지자 왕은 나라를 고려에 양국하려 하였다. 이때 태자가 나서서 천년사직을 하루아침에 남에게 줄 수 있느냐고 반대했으나 왕의 뜻대로 나라는 왕건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태자는 어머니 죽방왕후를 모시고 자신을 따르는 충신열사들과 처자를 거느리고 개골산에 들어가 망군대와 한계산성을 쌓고 조국신사의 광복투쟁에 들어갔다. 신라 유민들에 의해 대왕으로 추대된 태자는 나라가 강한 것을 자책하고 조국광복의 결의를 굳게하기 위하여 삼

베옷을 많이 입었으므로 마의태자 또는 마의대왕이라 하였다. 항려 유적지 한계산성 갑둔의 5층석탑 김부리의 옥쇄바위 대왕각 대왕井 술구미재 다물장병 총 등이 지금까지 남아 공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태자가 승하하시자 유민들은 신전대왕각을 세워 위패를 모시고 해마다 음력 5월5일과 9월9일에 제사를 지냈는데 천년이나 계속됐다. 공은 태자비 김비와의 사이에 네아들을 두었다. 맏아들은 箕箒 둘째는 較 셋째와 넷째는 출가하여 보림대사와 보현대사라 하였다. 태자가 승하하자 큰아들 箕箒公은 正元大師의 法名으로 부안 벽산 울금바위에 찾아가 신라를 부흥시켜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며 부령땅에 부리를 내리니 그 자손들은 마의태자를 시조로 모시고 扶寧金氏를 創氏하여 大姓으로 번창했다.

곧 춘은 부령 부원군 坵는 고려 평창사가 되었다. 둘째아들 較는 通川 金氏 시조 作辛은 부령김씨 시조가 되었다. 공의자주 독립정신은 후예들에게 이어져 이들이 고구려의 옛땅 만주 대륙을 되찾는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

〈扶寧후예 鍾元 삼가씀〉



손 흥 기
문학평론가

해방공간의 정치세력과 노선에 대한 고찰

< 문을 열며 >

1945년 8월 15일.

이제 이 땅의 민중은 더 이상 일제의 수탈 대상이 아니었다. 40여 년 간의 폭압적인 식민통치 체제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끈질기게 싸워온 결과, 마침내 외세의 지배가 없는 가운데 민족이 하나되는 새 나라를 건설할 희망에 가슴이 벅찬 순간이 찾아왔던 것이다.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일제가 남긴 식민통치의 온갖 찌꺼기를 말끔히 청산하고 탄압과 착취를 당하며 신음해 온 민중의 생활을 하루바삐 복구하여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과제를 이루기 위해 그 동안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동포를 팔아 자기 한 몸 배불리기에 급급했던 친일민족반역자를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했다. 나아가 일제와 일본인이 가진 재산, 그리고 친일 매관 자본가와 지주가 가진 재산을 몰수하여 원래의 주인인 노동자와 농민등 민중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은 새로운 조국의 물질적 기반이 될 민족자립 경제의 터전을 마련하고, 친일 민족 반역자를 제외한 대다수 민중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인 독립정부를 세워야 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일제를 몰아내지 못하고

외세의 힘에 의존한 점은 8·15해방의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해방직후 남북한을 분할 점령한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뜨겁던 민족의 희망과 다짐은 결국 좌절되었고, 우리 민족은 분단의 질곡이라는 아픈 역사를 이어오게 되었다.

1. 건국을 위한 민중의 진군

-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선포까지.

일제의 패망을 굳게 믿고, 나라 안에서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을 준비를 한 세력은 여운형이 이끈 「건국동맹」이었다. 여운형은 이미 해방전인 1944년 8월에 「건국동맹」을 결성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나라밖의 항일무장단체와 연합하려 하기도 하였다.

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여운형은 즉각 「건국동맹」원들을 중심으로 특히, 일제 말기의 혹독한 탄압으로 지하에서 활동해 오거나 감옥에서 석방된 민족해방운동가들과 결합하여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를 결성하였다.

「건준」은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산파역할을 떠맡을 건국준비기관이었다. 건준은 우선 치안을 확보하고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당면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건준」의 활동은 대중에게 널리 지지를 받았으며 민족주의·사회주의 세력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세력과 많은 민중이 참여하였다.

해방이후 급격히 고양되는 민중의 정치적 진출과 건국운동에 대한 그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건준」의 정치적인 활동에 힘입어 1945년 9월 6일 전국에서 1000여명의 인민대표들이 모여 새 조국 건설의 방향으로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건준」을 이끌어 왔던 여운형은 이 자리에서 ‘조선은 완전히 해방될 것이 아님’을 밝히고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일제와 민족반역자의 토지몰수와 무상분배, 일제 봉건제 잔재일소, 독립국가건설, 사회경제적 개혁, 우방과의 협력, 생활필수품의 공정·평등한 배급제도 확립, 국가 부담에 의한 의무교육제등 당시 해방

과 더불어 우리 민족에게 제기되었던 당면과제를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건국을 위한 민중의 움직임은 우리 민족의, 그리고 일제의 착취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 해방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계속해 온 이 땅 민중의 드높은 정치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삼천만 민중의 민족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한결같은 바람은 여운형의 연설에서 처럼 이제 출발이지 결코 8·15해방,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조선인민공화국의 강령이 발표되자 한편에서는 크게 반발하였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 남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하고자 하는 친일 민족 반역자와 매관 자본가, 지주 등의 반발과 방해책동도 만만치 않았으며, 여기에다 남북을 점령해 들어온 외세까지 있어 8·15는 민중의 앞날에 결코 밝은 해방의 빛만은 아니었다.

2. 미·소의 분할 점령, 부정되는 민중의 권력

- 「한국은 미국의 적이며, 그러므로 항복군대와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다」
남한점령군 사령관 하지, 1945. 9. 4

1945년 9월 8일, 주한점령군 사령관 하지가 이끄는 미군 24군단의 병력이 미공군의 엄호와 일본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입국함으로써 마침내 한반도의 점령군으로서 미국이 진주한다. 곧이어 이 땅을 36년간 지배해 온 침략자 일본의 상징이었던 일장기가 중앙청 국기 게양대에서 내려지고, 미국 국가가 은은히 연주되는 가운데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가 새롭게 게양되었다. 그리고 미군정의 실시가 선포됨으로써 남한은 이제 일제의 식민지에서 미국의 점령지로 되었다.

‘한국을 점령한 점령군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감행한 자에 대해서는 점령군의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판결할 것이며 군법회의의 규정에 따라 사형 또는 그 밖의 형벌에 처할 것임’이라는 복종과 굴종만을 강요한 포고문으로 시작된 미군정은 남한의 유일한 정부는 ‘미군정’ 뿐임을 천명하고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민중과 민족지도자들의 건국노력을 ‘의심할 만한 괴뢰극’이라고, 그리고 민족 지도자들을 ‘이런 괴뢰극을 막후에서

조종하는 사기꾼' 이라고 규정하고 탄압을 가하였다.

반면 미군정은 '미국판 총독부' 인 군정청과 미 경찰기구, 그리고 조선 경비대등에 친일민족 반역자들과 친일 식민관리, 친일 식민경찰들을 대거 기용하여 관리로 임명하였으며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내세워 친일파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

그렇다면 '해방군' 으로 들어온 미군은 왜 우리민족과 민중의 진정한 뜻을 짓밟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 이었던 친일파들을 급속히 재등장시키고 육성했는가?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 자본주의의 최대 강국으로 등장하게 된 미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와 적대되는 사회주의의 팽창을 막고, 외세의 간섭에 반대하는 식민지 국가의 민족해방세력을 탄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후 남한에서 전개된 민중을 비롯한 변혁세력의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운동과 의지는 그러한 미국의 입장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대체세력으로서 친일파와 친미인사들을 자신들의 영향력하에 광범위하게 포섭하고 그들을 앞세워 민중과 변혁세력을 부정하고 탄압함으로써 친미적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미군정청의 여론조사(여론조사국) 1946. 8. 28

미군정에 대해 - 잘한 점 : 있다(2%) 위생시설, 없다(98%)

희망하는 정치체제는? 자본주의 : 2%

공산주의 : 8%

사회주의 : 70%

3. 왜곡 · 조작된 「모스크바 삼상회의」

- '반공' 질곡의 시대 서곡

해방공간기의 민족 최대의 분열극이었고 이후 민족분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신탁통치파동, 「모스크바 삼상회의」결정안은 결코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소의 협력으로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고 일제 잔재를 신속히 청산하기 위해서 임시 조선민주정

부를 수립한다'라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미·영·중·소 4개국이 협력·원조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탁통치제안'은 미국이, '즉시 독립'과 위의 내용은 소련이 제안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국정교과서인 국사 책에는 '반탁으로 애국', '찬탁은 공산주의'라 하여 신탁통치를 제안한 쪽이 소련이라고 하고 있다. 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왜곡된 역사가 지금까지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이 전달되는 과정의 진상을 살펴보자. 남한에 그 결정 내용을 처음 전한 것은 45년 12월 27일 워싱턴발 합동지급기사를 실은 「동아일보」였다.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이라는 터무니없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소련의 한국 신탁통치 주장과 각 방면의 반대 봉화”를 실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도 않은 채 ‘신탁통치, 소련주장’만을 대서 특필했다. 이러한 왜곡된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그야말로 청천하늘에 날벼락이 다름 아니었다. 신탁통치, 그것은 또 다른 신민지였기 때문이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사항을 곧바로 신탁통치로 받아들인 우익세력은 즉시 독립을 갈망하는 민중의 민족감정을 내세워 반탁운동을 벌어나갔고, 반면에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진보적 세력들은 보도를 처음 접하였을 때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상세한 내용을 접한 뒤 「삼상회의」의 결정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더라도 당시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결정을 지지하였다.

한민당과 이승만 등은 「동아일보」의 왜곡 보도를 근거로 삼아 신탁통치를 주장한 장본인은 소련이라고 선전하면서 박헌영을 비롯한 이른바 찬탁세력(실제로는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이며 소련의 꼭두각시’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왜곡된 보도를 접한 남한의 민중은 회담과정과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채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은 소련의 사주를 받은 자, 그리고 소련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로, 반면에 반

탁세력은 애국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모스크바 삼상회의」안이 왜곡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방공간의 최우선과제였던 ‘친일 잔재의 청산’이라는 문제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반공을 앞세우며 반탁을 주장하는 한민당과 이승만이 줄지에 애국세력으로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으며 우리 민족은 ‘반공제일주의’ ‘반공이 국시’인 기나긴 피의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질곡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 해방공간의 각 정파의 노선과 정책

우익	한국민주당 (김 성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사장 · 친일행위자(국민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이사) · 토지개혁 : 유상몰수 유상분배 · 친일파 처단반대 ·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 : 반탁 · 정권형태 : 친미 반공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 건준 · 인공타도 · 미군정에 적극협조
	대한독립촉성 중앙회 (이 승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위임통치건의(1918) · 상해 임정 초대 대통령(1919) · 위임통치 건의로 탄핵됨(1925) · 미국에서 재미교포사회 분열조장 · 토지개혁 : 유상몰수, 유상분배 · 친일민족반역자처리 : 반대 ·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 : 반탁 · 정권형태 : 친미 반공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좌익	조선인민당 (여 운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동맹조직(1944) · 친일민족 반역자 즉시 처단 · 토지개혁 : 유상몰수, 유상분배 ·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 : 지지 · 정권형태 :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좌우합작)
	조선공산당 (박 현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조선공산당 고려 공청 책임비서(1925) · 친일 민족 반역자 즉시 처단 · 토지개혁 : 유상몰수, 무상분배 · 삼상회의 결정안 : 지지 · 정권형태 : 인민정권

중 도 파	한국독립당 (김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오농민전쟁과 의병투쟁에 참여 · 임시정부 주석 · 친일 민족반역자 즉시 처단 · 토지개혁 : 무상몰수, 국유화 · 삼상회의 결정안 : 초기 반탁, 후기 찬탁 · 정권형태 : 통일정부 수립
	민족자주연맹 (김 규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파 민족주의 · 임정활동 · 미소공위에 대한 전면적 지지(중도노선) · 좌우합장위원회 주도(여운형 등과) · 남북연석회의 제안(2차 미소공위 결렬 뒤) · 정권형태 : 통일민주국가 수립

< 김성수와 한국 민주당 >

한민당은 대개 일제 말기에 변절한 친일파, 식민관료, 매판자본가, 그 가운데서도 친일지주 세력을 대표하던 집단이었다. 한민당은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자 미군정에 대한 적극 협력 및 참여 방침을 결정했다. 그리하여 김성수 등은 미군정 고문(11명중에 9명)에 취임하고 한민당 총무였던 조병옥은 친일경찰의 소총이었던 미군정 경찰의 우두머리인 경무부 부장에 취임했다. 이후 한민당은 이승만과 결탁하여 미군정 정책에 참여하여 친일파의 입장을 대변한다.

< 이승만과 ‘대한독립촉성 국민회’ >

이승만은 ‘과거청산’을 위한 친일파 우선 제거를 ‘민족분열’이라고 비판하면서 ‘무조건 단결’을 주장, ‘대한독립촉성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해외활동을 하면서 그는 ‘미국에 조선의 통치위임’, ‘미국에 의한 조선문제 해결’이라는 ‘외교론’ 등으로 인해서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없던 이승만은 독실한 ‘친미적 성향’과 미국을 앞서가는 ‘반공노선’으로 맥아더와 같은 미국내 강경파들의 지원을 받아 입지를 펼친다. 이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펴기 위해서 한민당과 손을 잡는 한편 친일파들에게 면죄부가 되는 ‘대동단결’을 슬로건으로 내

세우며 자신들의 주위에 친일파들과 친미인사들을 결집해 나간다.

미군정은 남한내 변혁세력을 대체할 ‘친미’ 인사를 육성하는데 한민당과 이승만이 필요했고, 한민당은 지원세력으로서 미군정이, 그리고 자신들의 친일 행각을 포장할 인물로서 이승만이 필요했으며 이승만은 자신의 허약한 국내 기반을 보완, 확충하는데 이들이 필요했다.

< 박헌영과 조선공산당 >

일제 때부터 변절하지 않고 민족 해방과 사회주의 운동을 벌여 왔던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을 결성하고 남한의 변혁운동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봉건잔재, 식민잔재 청산’을 내세우고 ‘인민정권’의 수립을 주장하며 대중 속에서 급속히 확대해 나갔다. 이들이 주장하는 친일파의 철저한 제거와 민중정권의 수립이라는 건국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이들은 미군정과 그들의 앞잡이 한민당, 그리고 이승만으로부터 철저히 탄압, 배척 당하면서 남한 내에서 소멸되어 갔다.

< 여운형과 조선 인민당 >

1944년 가을 여운형에 의하여 조직된 비밀결사인 ‘건국동맹’은 일제의 패망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된다. 그러나 이 조직이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편되면서 조선공산당으로 주도권이 넘어가자 여운형은 1945년 11월 조선인민당을 결성하였다. 그 후 인민 등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협정이 발표되자 조선공산당과 함께 좌익의 연합체인 ‘민주전선’에 참여하여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총체적 지지’ 입장을 보인다.

초기에는 조선공산당과 함께 좌익진영에서, 1946년 이후에는 김규식과 함께 중도파의 진영에서, 때로는 북한의 지도자들과 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여운형의 정치 노선은 좌익 진영에 속하면서도 민족 통일전선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민당은 민족반역자와 극좌, 극우의 편향자를 제외한 전 인민의 정당으로 위치 지었으며 노동자, 농민, 도시소시민등 기층민중뿐 아니라 중간계급, 자본가, 지주까지 포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운형은 해방 정국의 좌익으로 분류되는 지도자들 중에서 정치세력간의 연합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었다. 그가 '인민당'을 좌익과 우익의 연합을 위한 '매개체'로 규정하였던 것은 무엇보다 『자주적 민주국가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사상적인 배경일 것이다.

그가 김규식, 안재홍과 손을 잡은 것을 조선 공산당은 '우익 투항주의'라고 비난하였지만, "우리의 큰길은 민주주의이겠고 우리의 최고 이념은 우리 민족의 완전한 해방에 있다"라고 생각한 여운형에게 민족의 통일을 앞세우는 사람들과의 연합은 당연한 것이었다.

< 김구의 한국 독립당 >

미국에 의해 임시정부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개인자격'으로 뒤늦게 귀국한 김구를 중심으로 한 상해임시정부 세력은 상해 임정의 '법통성·정통성'을 내세우며 활동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남한의 유일 합법정부임을 천명한 미군정에 의해 탄압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이들의 귀국으로 강력한 통일세력이 형성되기를 기대했던 민중들의 기대는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왜곡된 모스크바 결정안이 전달된 초기에 이승만과 함께 반탁운동의 집결체인 '국민회의'에 참여했던 김구의 독립당은 이들이 반공·반탁운동의 본질이 남한 단독정부수립과 민족분단에 있음을 깨닫고 후기에는 단정·단선반대운동에 발벗고 나서며 민족통일국가건설을 위한 남북협상을 북한에 제의하고, 온갖 방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삼팔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서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등 마지막까지 분단을 막고 통일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 >

이승만과 김구와 달리 중도노선을 표방하였던 미소공동위에 대한 전

면적인 지지를 표방한 김규식은 여운형이 암살된 직후 중간파들을 결집하여 ‘민족자주연맹’을 결집하였다. 이 ‘민족자주연맹’은 그 동안의 좌우익이 아닌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던 중간파 세력의 결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김규식의 정치노선의 특징은 대미협조노선을 취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규식의 대미협조노선은 이승만과 한민당의 대미협조노선과는 구별해 보아야 한다. 이승만 세력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자주독립을 외치면서 미군정에 협조하지만, 단독정부 수립의 주체가 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자주독립이라는 것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였으나 김규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일민주국가의의 수립이라는 민족적인 과제가 정파적인 이해에 우선하였다.

그것은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우리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모든 민주적인 정치세력의 통일에 의한 통일민주국가의 수립이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좌우파 민족주의 세력들은 해방 직후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그들 자체의 기반 부재와 이념의 부재로 인하여 민족적 과제의 해결을 선도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선과 활동은 당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민족통일전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 문을 닫으며 >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금의 이곳으로 몰고 왔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도 걸아가야 할 이정표이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살기 위한 길은 바로 이 멀지 않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군정이 우리 현대사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들은 남한 사회를 친미 반공국가로 만들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8·15해방이후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던 우리민족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고, 민족의 요구를 외면하고 친일파가 다시 등장하는 길을 열어 주었으며 이는 결국 식민잔재와 민족반역자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좌절하게 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분단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겪어내고 살아야 하는 질곡의 역사를 가져다주었다.

《참고교재》

- 구로역사연구소, 「바로 보는 우리역사」, 거름 1990
- 윤대원, 「한국현대사」, 거름 1990
- 한국역사연구회, 「한국현대사 1」, 풀빛 1991

■ 손 흥 기

- 경기 이천 출생. 한신대학교문예창작학과 수학
- 「한맥문학」신인상에 〈문학평론〉
「원초적 생명성의 대지에의 귀의」-신동엽론 당선,
평론으로 「해방 50주년 친일문학을 논하다」등이 있으며
현재 내설악 인제에서 〈목계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제이씨(麟蹄李氏)

〈인제문화원 제공〉

시조(始祖)

휘(諱): 이 원 철(李原哲)

관직(官職):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 고려 문종 때 중서 문하성의 정2품직)

◎ 관향의 유래(貫鄉由來)

江原道 중동부에 위치하는 地名인 麟蹄는 高구려때 猪足縣이었고, 현의 소재를 서화에 두었다. 統一新羅때에는 희제(稀蹄)라 고치고 楊麓郡의 領縣으로 삭주(朔州)의 관할 밑에 두었다.

고려 때 麟蹄로 개칭되어 처음에는 춘추(春川: 춘천)에 속하였다가 후에 회양(淮陽)에 속하고 공양왕 원년(1389년)에 縣(縣)으로 되면서 監務(監務)를 두었다.

太宗 13년(1413년) 縣의 所在를 麟蹄로 옮기면서 縣監을 두었고 高宗 32년(1895년) 춘천 유수군(春川 留樹郡)이 春川府로 되면서 이에 豫속된 人제현이 되었으며, 1896년에 人제군이 되었다.

◎ 창씨연유(創氏緣由)

麟蹄李氏의 始祖 이원철(李原哲)은 고려때 太師(太師) 수문전 대제학(修文殿 大提學)을 거쳐 門下平章事를 지냈다.

그러나 선계(先系)가 실전(失傳)되어 확인되지 못하고 선조(宣祖)들이 세거(世居)하던 麟蹄를 본관(本貫)으로 하여 世系를 이어왔다.

◎ 씨족사개요(氏族史概要)

始祖 原哲의 孫子인 백(伯)은 조선때 上將軍을 지냈고 이조 판서

에 추증 되었으며 그의 아들 견의(堅義)는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정랑(禮曹正郎),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을 거쳐 보문각 직제학(普門閣直提學)을 지냈다. 이외에 계석(癸碩)과 을석(乙碩)이 부사과(副司果)를 수방(秀芳), 대영(大榮), 의종(毅宗), 영종(榮宗)이 각각 참봉(參奉)을 지냈다. 1985년 경제기획원의 통계에 의하면 남한에 살고 있는 인제 이씨의 총수는 68가구에 291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역대인물(歷代人物)

이덕림(李德林) : 고려때 도침의 정승(都僉議政丞)을 역임하였다.

이 백(李伯) : 조선조(朝鮮朝)에 강원도사(江原都事), 전의부정(典醫副正), 상장군(上將軍) 등을 지냈으며, 아들 견의(堅義)가 공을 세워서 죽은 후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 되었다.

이견의(李堅義) : 號는 회헌(晦軒), 시호(諡號)는 숙경(肅敬), 1429년(세종11) 생員으로 무과에 급제한 후 예조정랑(禮曹正郎),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을 거쳐 사예(司藝)를 지낼 때 국서(國書)를 받들고 대마도(對馬島)에 들어가 도주(島主)의 죽음을 조문하였다. 그후 지여산군사(知礪山郡事)겸, 권농사(勸農使)를 지냈고, 전라도 관찰사 겸 병마단련사(兵馬團鍊使)를 거쳐 보문관 직제학(寶文館直提學)에 이르렀다.

이계석(李癸碩) : 조선 때 부사과(副司果)를 지냈다.

이을석(李乙碩) : 조선때 부사과(副司果)를 역임 하였다.

이수방(李秀芳) : 조선에서 參奉을 지냈다.

이대영(李大榮) : 조선조에 參奉을 지냈다.

이의종(李義宗) : 조선조때 參奉을 지냈다.

이영종(李榮宗) : 조선조에서 參奉을 지냈다.

이정필(李廷弼) : 자는 성보(聖甫), 호는 오서재(鰲西齋), 조선때 부

사용(副司勇)을 지냈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世人의 칭송이 자자했다,

이수순(李壽順) : 초명(初名)은 수직(壽稷), 字는 순필(順必), 조선조에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하였다.

◎ 집성촌(集姓村)

전남 장성군 일원 2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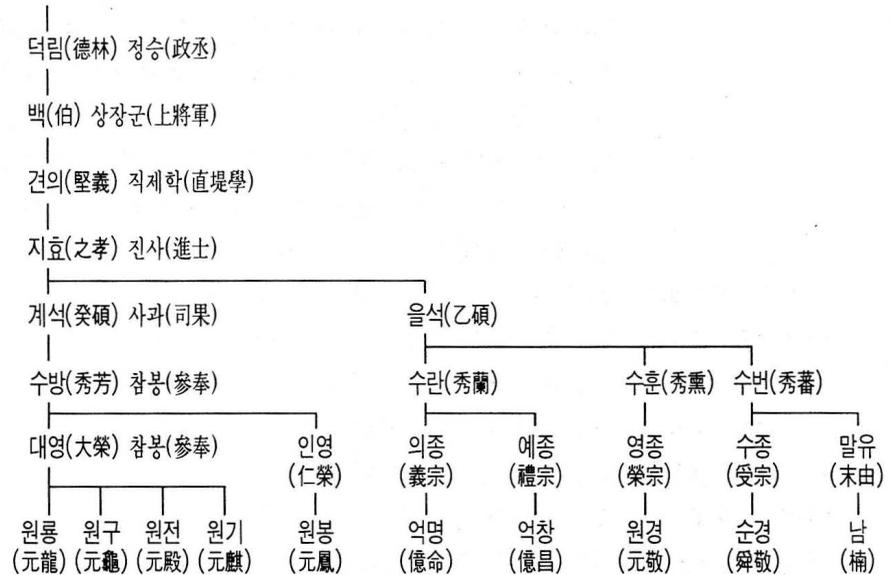
◎ 행렬표(行列表)

世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항렬자	환	기	진	구	병	희	균	철	호	영	병	채
行列字	煥	基	鎭	求	秉	熙	均	鐵	浩	榮	炳	採

◎ 세계표(世系表)

시조(始祖)

이원철(李原哲) 평장사공(平章事公)



상장례(喪葬禮)

〈인제문화원 제공〉

1. 상장례의 의미

상장례(喪葬禮)는 죽음을 맞이하여 시신을 갈무리하고 매장이나 화장에 이르기까지의 의식(儀式) 절차를 말한다. 상장례는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고쳐 할 수 없으므로 후회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인 당사자가 주검을 예감하면 스스로 준비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 나이가 많은 부모는 자손이 미리 수의, 관 등을 준비해 놓고 본인의 유지를 받들어 매장지나 화장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2. 상장례의 변천

광복이후 서구 문물의 유입과 산업사회의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의 증대와 의료제도의 발달 빠른 정보사회의 기능에 적응해야 하는 현대인에게 상장례의 절차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허례허식에 의한 과도한 상례비 지출의 전통상례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며 개선되고 있다.

3. 장례의 기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탈상은 100일로 한다.

4. 상장례의 기본 정신

- 1) 엄숙하고 경건하게 주검을 맞이 한다.
- 2) 사자의 인권도 산자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 3) 주검 앞에는 한이 남지 않도록 슬픔을 다하며 정성을 드려 장례를 치른다.
- 4) 모든 장례 절차 중 시신을 다루는 것은 남에게 맡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유족이 직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자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근본에 보답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
- 5) 사자의 유언이나 유훈, 유업은 지키도록 노력하고 유품은 없애는 것보다 잘 건수하여 자손에게 연대의식과 교훈이 되도록 해야 한다.
- 6) 주검은 귀천이 없으므로 국립묘지가 되었건 공원묘지이든 묘역의 크기가 같은 것이 바람직하며 혼화 묘등은 지도층부터 솔선 수범하여 삼가야 한다.

5. 상장례의 절차

- 첫째날 -

1) 임종준비

- ① 운명직적의 환자방을 비우지 않고 지킨다.
- ② 환자가 거처하던 방을 깨끗이 정돈하고 깨끗한 이불과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힌다. 머리를 헤뜨는 동쪽으로 가도록 눕힌다.
- ③ 자손들과 환자가 평소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여 임종하도록 한다.
- ④ 유언에 대비 기록 또는 녹음 장치를 한다.
※ 요즈음 풍속에 따르면 위독한 상황에 병원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운명을 앞둔 어른은 영안실에 안치할 목적으로 옮기는 것은 극히 례(禮)에 어긋나는 행위임으로 마땅히 집에서 편안하게 주검을 맞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자손된 도리일 것이다.

2) 운명(숨을 거둠)

① 운명하면 운명한 년 월 일 시를 기록해 둔다.

②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받는다.

③ 조용한 가운데 슬픔에 잠긴다.

3) 시신을 거둬(收屍)(주검을 반듯하게 갈무리하는 절차)

① 남자시신을 남자, 여자시신을 여자 근친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눈을 쓰러내려 잘 잠들도록 한다.

③ 발 끝을 모아 묶는다.(창호지나 한지가 적절)

④ 무릎을 펴서 묶는다.(창호지나 한지가 적절)

⑤ 두손을 배 위로 모아 묶는다.(창호지나 한지가 적절)

⑥ 코, 입, 귀 등을 솜으로 막는다.

⑦ 방의 편리한 곳으로 시신을 모시고 병풍으로 가리고 향(香)상을 차리고 촛불을 켜는다.

4) 상주 정하기(立主喪主婦)

① 부모상엔 장자내외가 주상, 주부, 장자 내외가 없으면 장손자 내외가 주상 주부가 된다.(承重)

② 부재모상(父在母喪)일때 부(夫)가 주상, 며느리가 주부.

③ 큰아들이나 큰며느리가 죽으면 아버지가 주상이고, 어머니가 주부이다.

④ 남편의 죽음에는 큰아들이 주상, 아내가 주부이다. 다만 삼우제가 지나면 큰 며느리가 이어서 주부가 된다.

⑤ 기타의 죽음에는 가장 가까운 근친 중 연장자 부부가 주상 주부가 된다.

5) 옷차림

① 상제이하 근친들은 화려한 옷차림이나 화장을 지우고 액세서리를 떼고 단조로운 옷차림을 한다.

② 죽은이에게 입힐 옷과 소렴 대렴 쓰이는 이불 등의 수의 근친들이 입을 상복 준비를 한다.

※ 오늘날에 대부분이 장례사에 의뢰하는데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6) 부고(訃告)

- ① 신문지상에 부음을 알리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전화로 부음을 알리고 연쇄적으로 연락을 하여준다.
- ② 부고 일자(죽은날, 발인일시, 장소, 장지를 쓰고 호상명으로 뱀으로 남편의 상에 미망인이라 쓰면 실례이다.

7) 수의, 상복, 관을 준비 함.

- ① 수의는 죽은이에게 입힐 옷과 소렴, 대렴 때 쓰일 이불.
- ② 상복은 흰바지 저고리, 흰두루마기, 행전과 두건, 흰치마 저고리 흰상자, 검은 양복을 입을 경우 삼베 완장을 준비한다.

8) 매장에 대한 준비

- ① 묘지는 땅의 소유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곳에 선정.
- ② 습기 있는 곳이나 홍수에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
- ③ 화장이 바람직하다.

9) 영좌와 상좌 설치

- ① 영좌와 상좌를 함께 설치한다.
 - ※ 영좌 : 손님이 죽은이에 슬픔을 나타내는 장소
 - ※ 상좌 : 주상이하 상주들이 조문객을 맞는 장소
- ② 상제는 슬픔으로 손님을 맞이하며, 상차(喪次)를 비워서는 안된다.
- ③ 언제든지 곡을 해야 하나 소리내어 곡을 하지 않아도 되며, 표정에 슬픔이 젖어 있으면 된다.

10) 호상소 설치

- ① 호상은 주상을 대신해 상을 관리하는 책임자, 죽은이나 주상을 잘 알고 예절을 잘 알고 있는 사람.
- ② 호상은 각종 문서(조문록, 금전출납장, 물품수불부, 축문, 부고발송, 인명부 등)를 관리하고 안내와 집례를 주관한다.

11) 조상(弔喪)과 문상(問喪)

남자가 죽었을 때는 조상이고, 여자가 죽었을 때는 문상이라 하는데, 요즈음은 분별없이 조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 ① 조문객은 먼저 호상소로 가서 조문록에 서명하고, 안내를 받아

영좌 앞에 나아가 분향, 재배한다.

- ② 조문객은 상제에게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또는 “얼마나 슬프십니까?”라고 조문을 하고, 상제는 “슬픈 마음 금할 바가 없습니다.” 또는 “슬플따름입니다.”하고 대답한다.
- ③ 조문 후 부의금품을 상제들이 보지 못하게 호상소에 전달한다.
- ④ 부의금을 상제나 영좌앞에 놓는 것은 부의금을 요구하는 인상을 준다.
- ⑤ 조문객 대접:차나 청량음료로 하고, 술을 먹고 따르는 것은 삼가야 한다.

12) 명정조제(銘旌造題)

관이 누구 관인가를 표시하는 것.

- ① 명정은 죽은 이를 관에 넣은 다음 그 관이 누구의 관인가를 나타내는 표지깃발이다. 따라서 입관 후에는 관의 동쪽(발치쪽, 조상석에서 보이는 오른쪽)에 세우고, 관을 옮길 때는 그 앞에 먼저 가고, 묘지에 매장할 때는 관이나 시체 위를 덮는다.
- ② 현대는 붓을 이용해서 은분(銀粉) 또는 백색 물감으로 쓴다.
- ③ 명정서식 : “書記官 ○○郡守 金海金公
諱 ○○之柩”(남자)
“孺人(夫人)安東權氏 言○○柩”(부인)

※ 직명, 본관, 성명은 사실대로 쓴다. 남자에게 직명이 없으면 ‘學生’이라 쓰고 부인이 벼슬있는 이의 아내이면 ‘夫人’이라 쓴다.

- 둘째날 -

- 목욕, 습, 염, 입관 : 직계자손이나 근친이 해야 한다. 주검의 의미를 실감하고, 쌓였던 한이나 정을 씻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1) 목욕(沐浴)

- ① 목욕시킬 사람이 없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하되, 그의 지시에 따라서 죽은이가 남자이면 남자근친이 목욕시키고, 죽은이가 여자

이면 여자근친이 목욕시키는 것이 좋다.

- ② 시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홋이불 아래에서 씻고 닦는다.
- ③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되 칼, 가위, 수건 등 기구들이 시체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2개씩 준비)
- ④ 소독이나 방부처리가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가진 염사제도가 요청된다.

2) 습(襲)

- ① 죽은 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써, 습할 사람이 없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하되, 그의 지시에 따라서 옷을 입히는 일도 죽은 이가 남자이면 남자근친이 하고 여자이면 여자근친이 하는 것이 좋다.

3) 염(殮)

이불로 주검을 싸고 맬끈(東布)으로 묶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가의 지시로 자손이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자의 시신을 남자가 하거나 남자의 시신을 여자가 하는 것은 무례하다.

※ 고례에는 소렴 대렴 입관 후 30~90일 만에 매장했으므로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작은 이불과 큰이불로 묶었으나(소렴, 대렴) 오늘날은 3일장이므로 같이 해도 된다.

4) 입관(入棺)

- ① 입관 후 출입문 쪽에서 보아 관이 머리가 서쪽(좌측)으로 가도록 안치하고 관 앞에 병풍을 둘러친 다음 발치쪽(東)에 영정을 세운다.

■ 상복(喪服)

1) 상복제도

- ① 남자는 한복일 경우 흰바지저고리, 흰두루마기에 행전을 치고 두건을 쓴다.
- ② 여자의 경우 흰·검은 치마저고리에 머리에 흰 상장을 껍는다.
- ③ 양복일 경우 흑색 복장으로 하고 삼베 완장을 치고 두건을 쓰

지 않는다.

- ④ 상복을 입는 기간은 삼우제까지로 상장은 100일 탈상까지 부착한다.

■ 치장(治葬)

1) 장례의 시기

3일장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3일을 초과해도 나쁠것이 없다.

2) 묘지의 규모

현행법은 24평이나 정부에서 6평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화장이나 납골묘가 바람직하다.

3) 묘지조성

부부를 합장할때는 남편의 왼쪽에(東) 아내를 묻는다.

4) 묘지조성 축문 : 묘지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의 산신(山神)에게 아뢰는 예를 올린다.(산신제)

- ① 산신제를 지내는 사람은 상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평상복으로 지낸다.
- ② 산신제의 제수는 술·과일·포·젓(酒實脯醢)을 차린다.
- ③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묘지에정지 내의 동북(東北)쪽에 제단을 차려 제수를 차리고 남쪽에서 북향해 지낸다.
- ④ 산신제축문 한글서식

“이제

단군기원 4330년 5월 22일에 幼學 金吉董은

토지의 신에게 감히 아뢰나이다. 이제○○고등학교 교장 김경배의 아버님 ○○군수 金海金公의 무덤을 지으려 하오니

神께서는 보살피사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삼가 술과 음식을 차려 정성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어여삐 여기사 음향하시옵소서.”

※ 가정의례 준칙엔 없으나 실제로는 행하여지고 있다.

- 셋째날 -

■ 천구·발인·성분제·반곡·초우제

1) 천구(遷柩)

- ① 영구차에 죽은 이를 모시는 일이다.
- ② 조전상을 물리고 집례가 아된다.
- ③ 천구고사 한글서식

“이제 옮겨서 관을 영구차에 모시겠기에 감히 아뢰나이다.”

- ④ 관을 조심스럽게 영구차에 싣는다.

2) 발인(發靱) 또는 견전(遣奠)

- ① 영구차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상을 차린다.
 - ② 주상 이하 모두가 정한 자리에 선다.
 - ③ 집례가 술을 올리고 아된다.(상주들은 곡만한다.)
- ※ 견전고사 한글서식

“혼령을 이미 영구차에 모셨사오니 이제 가오시면
영면하실 모지이옵니다.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올리오니 이제 가시면 영원하사이다.

- ④ 장지에 가지 않고 남아 있을 사람만 절을 한다.
- ※ 노제는 특별한 연고가 없으면 하지 않는다.

3) 장례행렬(柩行)과 묘지도착(柩至)해서 하는 일.

- (1) 장례행렬은 맨 앞에 명정, 다음에 혼백과 사진, 영구차(상여)의 순으로 가고 다음에 주상과 복인, 호상과 손님이 차례로 따른다.
- (2) 묘지에 도착하면 묘지의 남쪽에 상(上)이 북쪽을 향하게 모시고 관의 서쪽에 영좌를 설치하고 영정으로 관을 덮는다. 장소가 마땅치 못하면 관의 상(上)이 서쪽을 향하게 모시고 그 앞에 영좌를 차리고, 손님을 맞는다.

4) 하관(下棺), 성분(成墳)

- (1) 주검을 묘지 광중에 모시고 봉분을 짓는 일이다. 화장을 했을 경우는 납골당(또는 납골묘)에 안치한다.

5) 성분제 또는 반혼제

(1) 묘지 앞에 혼백을 모시고(신주를 모시기도 함) 상을 차리고 지낸다.

(2) 모든 절차는 제례와 같고 축문서식은 다르다.

(3) 제주축문 한글서식

“이제
단군기원 4330년 5월 22일 외로운 아들 敬培는
아버님 ○○군수부군 앞에 감히 아뢰나이다.
남기신 몸은 무덤에 묻히셨사오니 혼령께오서는
집으로 돌아가사이다.
신주를 이미 이룩하였사오니㉠
혼령께오서는 옛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좇으시어
㉠신중에 깃드시고 신주에 의지하소서.”

㉠ 신주를 만들지 못했으면 ‘신주는 이루지 못하셨사오니’ 라고 쓴다.

㉡ 신주를 만들지 못하고 사진을 모셨으면 ‘사진을 좇으시어’ 라고 쓴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위패(지방)함에 지방을 써서 붙이면 신주가 되므로 신주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6) 반곡(反哭)

① 주상 이하 복인들이 신주를 모시고 묘지로 갔던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이다.

※ 집에 돌아오면 영좌를 케연(机筵)에 모시기도 한다.

㉠ 케연(机筵)은 주상이 상복을 입는 기간동안 혼백과 신주(사진)을 모시는 장소로서,

㉡ 조용한 방에 병풍치고 교의놓고 교의위에 혼백과 신주(사진)을 모시며 그 앞에 제상 향안을 배설하고

㉢ 죽은 이가 평소에 쓰던 물건들을 케연에 놓는다.

㉣ 일주일에 하루쯤(주말)하되 적절히 시간을 조절하여 상을 차려 올리고 고인을 추모하여 나들이 할 때는 살아계실 때와 같

이 받들도 좋을 듯하다.

- ※ 고례에서 상식(上食)은 궤연을 모시는 동안 조석으로 상을 차려 올리는 일이고 삭망(朔望)은 초하루와 보름에 상식보다 낮게 상을 차려 올리는 일이다. 조석과 나들이 할 때는 살아계실 때와 같이 만들었다.

7) 답조장(答弔狀)

- ① 삼우제를 지낸 후 조문왔던 손님들에게 인사장을 보낸다.
- ② 답조장의 한글서식(서식참조)

■ 상중제의(喪中祭儀)

1) 현대의 상중제의

현대는 복상기간이 짧고, 사당도 없으며, 궤연을 모시지도 않는 사람이 많으며, 사찰에 위패를 붙이고 49일만에 탈상하기도 하고, 궤연을 모셔도 100일만에 탈상하는 경우도 많아 현대 복제에 의한 상중제의를 권장한다.(가정의례준칙 제12조 참조)

- ① 우제(虞祭) 초우제는 장례식날 집에 돌아와서 지내는 최초의 제사이다. 제우제는 초우 다음날이나 다음 다음날 지내기도 한다. 삼우제는 장례후 첫 공휴일 아침에 지내고 성묘함으로서 장례절차가 끝난다.
- ② 상복을 벗는 제사는 탈상하는 날로하고, 1주기 제사를 지낸다.

■ 답조장 한글서식 ■

삼가아뢰옵니다.

지난번 아버님(또는 어머님 등)의 상을

당하엿을 때 바쁘신 와중에도 상장례에 참석하여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황망한 가운데 우선 글로써
인사를 대신하려 하옵니다.

단기 ○년 ○월 ○일

중대복인 ○○○아름.

_____님

■ 한글 부고서식 ■

부 고

(본관) (성명) 공 [(본관) (성명)] 씨께서 ○년 ○월 ○일 ○시에
[사망사유]로 별세하셨기에 이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발인일시 : ○년 ○월 ○일 ○시

발인장소(영결식장) :

장 지 :

주상 큰아들 ○○

주부 부인 ○○○

아들 ○○

며느리 ○○○

딸 ○○

사위 ○○○

손자 ○○

손자며느리 ○○

손녀 ○○

손녀사위 ○○○

단기 ○년 ○월 ○일

호상 ○○○상

○○○님.

제의례(祭儀禮)

〈인제문화원 제공〉

I. 제의례의 의의

제사는 죽은 조상의 은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그 자손이나 친족, 친지들이 정성으로 기념하는 의례이다. 그러나 이 제례는 복잡한 형식보다 그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대문물에 의하여 조상에 대한 현대인들의 공경심이 희박해진 결과라 할 것이다.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조상없는 자손이 있을 수 없다.”는 옛 사람의 교훈이 있듯이, 나를 낳아 길러 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이나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끔 해 주신 조상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고 예로써 모시는 것은 자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인간이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까닭은 효(孝)를 계속하기 위함이며, 효란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이다. 그래서 제례를 보답하는 의례라는 뜻으로 보본의식(報本儀式)이라 한다.

효는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인간의 온갖 행실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모나 조부모등 자기출생의 근원에 대해 알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모심을 극진히 하는 것이다. 생활이 복잡하고 일에 쫓기는 현대인일지라도 1년에 한번 돌아오는 기

일만이라도 보은(報恩)의 뜻으로 예를 지켜야 할 것이다.

Ⅱ. 제의례의 유래와 변천

제사의 근원은 먼 옛날에 천재지변, 질병, 맹수의 공격을 막기 위한 자기보존의 본능에서 비롯하였다. 그러나 근세에와서는 유교사상으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애모의 표시로 변하게 되어 가정마다 제사를 지내왔고, 이것이 '동방예의 지국'이라 불리어온 우리 민족의 자랑이기도 했다. 제사는 남의 이목이나 체면 때문에 많은 제수를 차려 놓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형편에 따라 정성껏 지내면 된다.

현대에 와서는 제사가 고작 기제, 묘제, 절사에 한하고 있다. 그것도 기제의 경우 조부모, 부모의 2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제사 기간도 기일 일몰후에 지내고 있으니, 모든 것이 편의 위주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기제에 있어 고위의 제사때는 고위만 지내고 비위의 제사때는 비위만 지내는 것이 옳다는 설도 있고, 고위와 비위를 같이 지내야 한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인정으로 보아 함께 모시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Ⅲ. 제의례의 종류

1. 기제(忌祭)의 뜻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이다.

기제의 봉사 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에는 가정의례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이내의 존·비속에 한해서만 기제를 지낸다.

제사 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첫 새벽에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었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집안의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이른 아침에 지내면 더욱 좋다. 제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

의 장자나 장손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제한다.

장자나 자손이 없을때는 차자나 차손이 주관한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 하며, 가까운 친척도 참석할 수 있다. 「주자가례」, 「사례편람」에는 기일을 맞은 당사자 한 분만을 모신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두 분을 함께 모셔왔으므로 이 관습을 무시할 수 없다. 가정의례준칙에서도 부모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 합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기제의 절차

- 1) 재계 : 기제사에 참례할 모든 사람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근신해 오로지 조상만을 기린다.
- 2) 청소
- 3) 지방, 축문 쓰기
- 4) 신위봉안(神位奉安) : 제상 위에 흰 종이를 깔고 제수를 진설한 뒤, 비장을 써서 붙인다. 제주가 분향하고, 모사에 술을 부은 뒤 제주와 참사자가 일제히 신위 앞에 두 번 절한다.
- 5) 초헌(初獻) : 고인에게 첫 술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술잔을 채워 두 손으로 받들고 밥그릇과 국 그릇 사이 앞쪽에 놓는다. 그리고 제주(祭主)는 독축 후 재배한다.
 - ※ 계반개(啓飯蓋) : 반(밥)과 갱(국)의 뚜껑을 연다.
 - ※ 독축(讀祝) : 독축자가 축판을 들고 축문을 읽으면, 모든 참례자는 묵념을 한다.
- 6) 아헌 : 주부가 두 번째 술잔을 올린다. 주부만 네 번 절한다.
- 7) 종헌 : 친족이나 손님이 세번째 술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 8) 유식(侑食) : 조상에게 많이 잡수시라고 권하는 절차이다.
 - 첨작(添酌) : 잔에 술을 가득히 채운다.
 - 삼시정저 : 시접의 젓가락을 조상이 드시게 꿈 음식위에 올린다.
- 9) 합문(閣神) : 낙시저와 합반개를 한 후 참사자 일동이 일제히 신위 앞에 큰절을 올린다. 안녕히 가시라는 작별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 10) 헌다(獻茶) : 송농(혹은 냉수)을 국과 바꾸어 놓고, 수저로 밥을 조금씩 세번 떠서 물에 만 다음 수저를 물그릇에 가지런히 놓고, 참사자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잠시 동안 부복하였다가 일어선다.
- 11) 사신(辭神) : 낙시저와 합반개를 한 후 참사자 일동이 일제히 신위 앞에 큰절을 올린다. 안녕히 가시라는 작별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 12) 철상(徹床) : 지방을 거두어 축문과 함께 불사르고, 제상위의 모든 제수를 뒤쪽에서 부터 차례로 물린다.
- 13) 음복(飲福) : 참사자들이 제사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

3. 제수의 진설

1) 제수진설의 일반법칙

제상에 제사음식을 차리는 것을 제수진설이라 한다.

제수의 진설은 옛 예서에서도 통일되지 못하였고, 현대에도 각 지방의 관습이나 풍속, 그리고 가문의 전통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가가례’라고도 한다. 제주가 제상을 바라보아 오른쪽을 동, 왼쪽을 서라한다. 전설의 순서는 신위를 기준으로 제1열에 메와 갱, 제2열에 탕, 제3열에 적과 전, 제4열에 포와 나물, 제5열에 과일을 놓는다.

- 사자의 방위는 산자와 정반대가 되어 신위를 기준으로 그 오른쪽(右側—西)이 윗자리가 되고 왼쪽(左側—東)이 아랫자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설하는 경우 신주(지방)는 남서(男西, 오른쪽), 여동(女東)이 되고, 제1열의 메(飯) 국(羹)의 순서로 놓고, 우반좌갱(右飯左羹), 제2열의 탕은 어·계·육탕의 순서로 어동육서(魚東肉西), 제3열의 포(생선말림), 해(생선젓 : 소금에 저린 조기), 서포우해(西脯右醢), 나물은 고사리·도라지·배추 등 3가지를 한 접시에 담는다. 제5열 과일은 서쪽으로부터 대추, 밤, 감, 배, 약과 순으로 하는 집이 많으나 여기서는 동쪽에 대추, 서쪽에 밤으로 한다.

동조서울(東棗西栗)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올리는 것도 좋다.

4. 제수(祭羞)

1) 표준 제수

제사에 쓰이는 물건을 가리키며 제찬(祭饌)이라고도 한다.

제찬에는 고춧가루와 마늘을 쓰지 않는다. 제수 음식 장만은 형식에 치우치기보다 정성스럽게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

제수는 지방과 가정에 따라 달라지나 여기에서는 표준적인 종류와 그릇 수를 예시한다. 그러므로 형편에 따라 조절할 수도 있다.

(1) 반·메(飯·밥) : 식기에 수북하게 껌(담)고 덮개를 덮는다. (신수 위대로)

(2) 갡·메탕(羹·국) : 국이다. 쇠고기와 무를 네모로 납작하게 썰어 끓인 국을 그릇에 담고 덮개를 덮는다. (신수위대로)

(3) 편(餅·떡) : 현란한 색깔을 피한다. 팔고물을 쓸 때도 접질을 벗기고 흰빛깔이 되게 한다. 대개 시루떡을 해서 정4각형의 접시에 담는다.

(4) 편청(餅淸) : 꿀이나 조청 또는 설탕을 작은 접시에 담는다. (떡접시 수대로)

(5) 적(炙) : 구이이다. 제의 음식 중에서 중심이 되는 특별식으로서 3(어적·육적·계적)가지를 마련해 원칙적으로 술을 올릴 때마다 바꾸어 올린다. 적 4각형의 접시에 담는다.(3접시)

※ 육적(肉炙) : 쇠고기 구이이다. 쇠고기의 각 부위를 대꼬치에 꿰어 굽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쇠고기를 손바닥 너비로 30cm 정도의 길이로 토막내어 칼집을 내고 소금이나 간장만으로 양념해 익힌 것 2~3개를 적 4각형의 접시에 담는다.(1접시)

(6) 전(煎)

※ 육전(肉煎) : 고기를 다져서 두부와 섞어 동그랗게 만들고 계란노른자를 묻혀서 기름에 부친다.(1접시)

※ 어전(魚煎) : 생선을 납작하게 저며서 노른자를 묻혀서 기름에 부친다.(1접시)

(7) 탕(湯) : 찌개이다. 탕은 홀수, 그릇수를 쓰는데 대개 1탕 쓰고 여

유가 있으면 3탕을 쓰기도 한다.

※ 어탕(魚湯) : 생선을 재료로 한다.

※ 육탕(肉湯) : 쇠고기를 재료로 한다.

※ 계탕(鷄湯) : 닭을 재료로 한다. 계탕 대신 소탕이라 해서 채소나 두부를 재료로 하기도 한다.

위 1가지가 기본이고 3탕을 하여도 무방하다.

(8) 포(脯) : 생선 말린 어포나 고기 말린 육포를 직 4각형의 접시에 담는다. 생선 말린 어포를 올릴 때는 등이 뒤로 되게 담는다.(1접시)

(9) 숙채(熟菜) : 익힌 나물이다. 대개 고사리, 도라지, 배추나물 등 3가지를 곁들여 둥근 접시에 담는다.(1접시)

(10) 청장(淸醬) : 간장을 종지에 담는다.(1종지)

(11) 과실(果實) : 나무에 달린 생과와 곡식으로 만든 과자이다. 종류마다 다른 둥근 접시에 담는데 1접시에 담는 개수는 적당히 하여도 된다.

※ 제수엔 주(酒)·과(果)·포(脯)만 올리고 제사를 모셔도 예(禮)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제사엔 정성과 청결함을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12) 제주(祭酒) : 술이다. 가급적이면 맑은 술을 병이나 주전자에 담는다.(1병)

2) 제수의 조리법

(1) 모든 제수의 조리에는 향신료인 마늘·고춧가루·파 등을 조미료로 쓰지 않고 간장과 소금으로만 조미한다.

(2) 제수를 조리할 때는 몸을 깨끗이 하고 기구를 청결한 것으로 쓰며, 침이 튀거나 머리카락등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3) 제상에 올릴 제수는 자손이 먼저 먹어서는 안된다. 제상에 올릴만큼 따로 담아놓고 남는 것을 먹는 것은 괜찮다.

(4) 밤·배는 껍질을 벗기고, 기타의 과실은 껍(담)기 편하게 아래와 위를 도려낸다.

(5) 배·사과와 같은 과실은 꼭지부위가 위로 가게 담는다.

5. 지방·축

1) 고인의 사진으로 대신하거나 현대식의 지방을 써 붙인다. 지방은 너비 6cm, 길이 22cm 정도의 한지나 백지위에 검정색 글씨로 쓴다.

※ 축 쓰는 법

축문은 신명께 고하는 글로서, 그 내용은 추모의 정과 간소하고 보잘 것 없는 제수나마 흠향하여 주시라는 의미를 담으면 된다.

▶ 부모(조부모) 기제사의 경우

년 월 일

아버님(또는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니님) 신위 전에 삼가 고합니다. 아버님(또는 할아버님)께서 별세하시던 날을 다시 당하오니 사모의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강림하시어 흠향하소서.

▶ 남편 기제사의 경우

년 월 일

주부 ○○○는 당신의 신위 앞에 고합니다. 당신이 별세하던 날을 당하니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흠향하소서.

▶ 아내 기제사의 경우

년 월 일

남편 ○○○는 당신의 신위 앞에 고합니다. 당신이 별세하던 날을 당하니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간소한 제수를 드리니 흠향하소서.

※ 祝文을 읽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식에는 축문을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차례(茶禮)

1) 차례의 뜻

음력으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이다. 보통 아침이나 낮에 지낸다.

요즈음에는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와 추석절의 절사가 이에 해당된다. 차례의 봉사 대상은 자기 집에서 기일제를 모시는 모든 조상이 된다. 정월 초하룻날은 집(가묘)에서 한 번의 절차로 지내고, 추석절에는 각

조상의 묘지에서 지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에서 지낼 수 있다.

2) 차례와 기제사의 차이점

	차 례	기 제 사
지내는 날	명절(설·한가위)아침	조상이 돌아가신 날 밤
지내는 대상	기제사를 받드는 모든 조상	그날 돌아가신 조상의 내외분
지내는 장소	집이나 묘지에서	장손의 집에서
차리는 제수	설(떡국), 한가위(송편)	밥(메), 국(갱)
지내는 절차	술을 한번(단헌)올린다.	3번(3헌) 올린다.

3) 지내야 할 명절 차례

(1) 설 차례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로서 봉사 대상은 원래 4대조까지 였으나 요즘은 2대조까지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4대조까지 지내는 가정이 많다.

차례 드리는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분을 한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하는 경우 한 종이에 나란히 쓴다.

메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2) 한가위 차례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제사이다.

차례를 지내는 봉사 대상은 연시제와 같고 제수는 새로익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한다.

전통혼인례

〈인제문화원 제공〉

I. 혼인의 의의

1) 혼인의 혼(婚)은 남자가 장가간다는 뜻이고, 인(姻)은 여자가 시집간다는 말로 남녀 평등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 민법 등의 법률제도나 관습적 의례 절차상에도 이 평등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혼인의 의미는 첫째 남녀가 몸을 합하는 것으로 육체적 결합에 의한 종족 보존과 性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누구하고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제한적 의미가 있다.

둘째로는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지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 하며 피차 주인으로 섬기는 인격적, 정신적 결합을 의미한다.

셋째는 사회의 기초에 단위한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된다. 조상과 본인 당사자 그리고 후손으로 연결되는 영원한 가정의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공동 운명체이다.

따라서 혼인이란 남녀 두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행복일뿐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생활을 통해 자기 인생의 성취와 보람으로 삶의 완성을 이루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륜대사의 경사로 축복 받아야 한다.

2) 오늘날 우리가정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및 여성 교육의 확대에 의한 여성사회 진출의 증가 등으로 구조와 형태 기능면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가정의 기초가 되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에 직접 관여하는 신성하고 순수한 인정으로 사회로부터 공적인 승인을 받는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는 혼인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나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혼인 풍속을 서구화가 선진화인 것으로 착각하여 현재(신식)혼인으로 격식과 범절보다는 간소화, 편리성, 자기과시 등의 부작용은 혼인 경시풍조로 나타나 독신이 증가하고, 이혼, 결손가정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혼인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되살릴 수 있는 건전한 혼인 문화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혼인례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혼인의 변천과정

1) 원래 혼인의 혼(婚)자는 혼(昏)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혼례는 어두울 때 행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었다.

대대례(大戴禮)라는 책에 보면, 관혼(冠昏)은 사람이 시작이라 했다. 혼인은 곧 인륜의 시초라는 뜻이다. 또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보면 얼음이 녹으면 농상(農桑)이 시작되고 혼례를 치르면 사람의 일이 시작된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 혼인 제도는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의 혼인 전례는 중국 주례(周禮)의 육례(大禮)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사례(四禮), 우리나라 사례편람의 사례와는 혼인절차에 차이가 있는 고유의 혼인 풍습으로 관습적으로 행하여진 육례로 되어 있다.

주례의 육례는 지금부터 3000년전의 주나라 때의 혼인절차인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 등이

며 주자가례는 약 800년전의 송나라 학자 주희(1130~1200)가 간소화하여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 등 사례로 조정하였다. 주자가례가 전래된 후 조선왕조에서는 사례로 조정한 주자가례를 전거(典據)로 하여 가례준람, 사례편람 등의 예서(禮書)를 편찬하여 의혼, 납채, 납폐, 친영 등의 사례로 친영례를 바탕으로 혼인례 절차를 마련하였으나 일정 여건 하에서 자생 정립되어 오랫동안 관습화된 혼인례는 풍속이 다르고 인종이 합치되지 않아 왕가나 사대부와 같은 상류층에서만 적용되었을 뿐, 제도로 바뀌어지지 않고 일반적 혼인풍습은 중국의 육례, 주자가례나 우리 사례편람의 의혼, 납채, 납폐, 친영 등의 사례와는 내용상 차이가 있는 혼담(婚談), 사주(四柱), 택일(擇日), 납폐(納幣), 대례(大禮), 우귀(于歸)등 육례로 혼인 절차가 다르게 정착되었다.

우리나라 혼인예식은 신식 혼인이 도입될 때까지 육례, 주자가례, 사례와는 달리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혼인 예식을 올린 후에 얼마 지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오고 신부가 시가(媿家)로 들어가는 남귀여가(男歸女家), 우귀(于歸), 신행(新行)이라고 하는 서류부가제(留婦家制)가 유지되었으며 혼인례의 각 절차의 명칭도 고유한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현대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종교의례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대체로 혼담, 약혼, 택일, 사주 및 함, 혼인식, 신혼여행, 우귀순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활풍속은 삶의 과정에서 그 시대의 사회, 정치, 문호, 종교 등의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문화유산이나 한 나라, 한 민족이라든가 시대에 따라 개인이 처한 사회적 계층과 경제, 종교 등의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Ⅲ. 혼인절차

1) 혼담(婚談)

중매를 통하여 남자 측에서 청혼서로 청혼을 하고, 여자 측에서 허혼

서를 보낸다. 상호간 동등하고 조화로운 교환관계로 단순한 개인 중심의 부부 결합이 아닌 가문과 가문간의 맺음으로 환경과 문화 배경을 중시하여 인성과 성격의 조화를 이루었다.

2) 사주(納采)

신랑의 생년, 월, 일, 시를 적어 신부집으로 보낸다.

사주는 사주함에 넣어 음, 양을 상징하는 청, 홍 겹보로 싸서 중매인이나 친척을 통해 보낸다. 합의된 혼약을 확인하고 혼인례를 올릴 것을 알리는 절차이다.

3) 택일(納期)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 혼인 날짜를 받아 백지에 써서 연길(涓吉) 편지와 함께 신랑집에 보내는 절차이다. 장소는 신부댁을 원칙으로 하며 어떤 장소에서도 가능하다. 초대는 친족과 친지로 50명이며 화환은 필요없다. 축의금을 받지 않으며 간단한 소지품 정도의 기념품을 주는 것이 좋다.

4) 납폐

청, 홍단 1끝이면 족하다. 선비가 여사에게 보내는 간단한 예물이어야 한다.

5) 식순

(진행은 집례자가 한다)

■ 혼인례 선언

집축(집례자 훗불켜기)

서부모례(초자례, 초녀례)

전안례(기러기 드림)

고배례(상 견례)

서천지례(하늘과 땅에 맹세)

서배우례(혼인서약, 합환주)

근배례(혼인선언, 표주박 합침)

양가부모 내빈께 큰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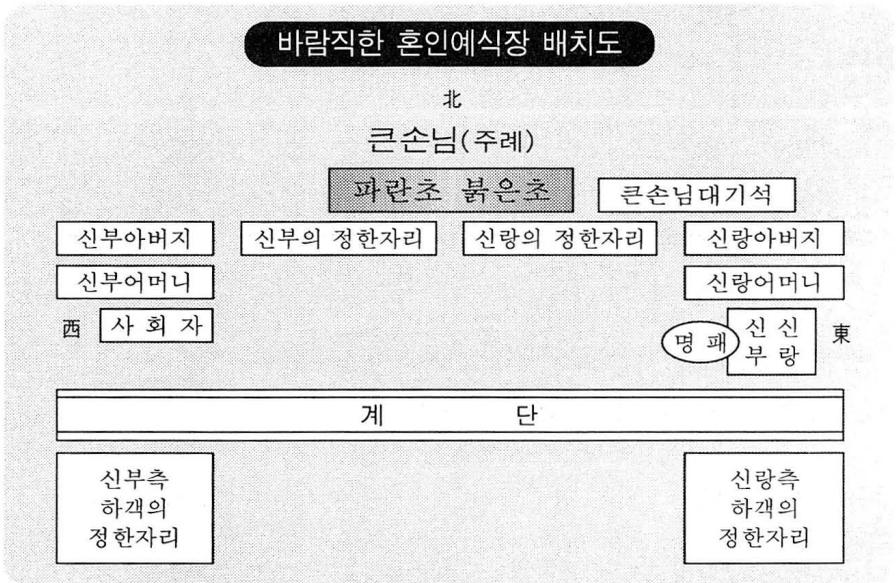
양가 대표인사

- ① 촛불켜기 : 신랑, 신부의 집사가 한다. 어머니가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 ② 자리매김 : 신랑은 큰손님을 기준으로 좌측(동쪽), 신부는 우측(서쪽)에 서고 양가부모도 같은 위치에 앉는다(신랑, 신부 양가 부모는 단위에 배석한다.) 하객은 예식이 끝날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 ③ 부모님께 인사 : 신랑, 신부 각각 자기 부모님께 큰절을 인사하고 부모의 교훈을 받는다.
- ④ 신랑은 신부댁(부모님께)에 신부를 맞아 금술 좋게 살겠다는 뜻으로 큰절이나 나무기러기를 드려 서약함이 좋다. 이렇게 해야 혼주가 혼례의 중심역할이 된다.
- ⑤ 신랑, 신부의 맞절장소가 단 아래있는 것은 옳지 않다. 혼인 당사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야 한다. 가급적이면 돛자리를 깔고 전통 큰절을 하는 것이 좋다. 부부는 서로 주인을 맞아 처음 인사하는 것이므로 가장 정중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술잔을 들어 하늘과 땅에 고함은 사람으로 태어났음이 더없는 은혜요, 음과 양이 하나가 되어 순리대로 살겠다는 약속이다.
- ⑦ 혼인 서약은 몸을 굽혀 정중히 예를 표하고 술잔을 교환하는 것이다. 혼인 서약문을 읽을 경우에 큰손님의 주문에 답하기보다는 본인이 써서 읽고 일시, 성명, 날인하는 것이 좋다.
- ⑧ 성혼 선언을 할 때는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짝을 의미하는 표주박을 합쳐 놓거나(무덤에 갈 때까지) 현대식으로 다정한 표현도 무방(포옹)하며 하객은 경하하는 박수로 답한다.
- ⑨ 신랑, 신부가 하객께 인사할 때는 하객은 기립 답례해야 한다.

※ 주례사는 혼인의 뜻이 절차 속에 명명백백하게 들어 있으므로 굳이 중언 부언할 필요가 없다.(주례사를 하는 곳은 한국의 일반예식장에서 현대 혼인례 할 때뿐이다.)

특히 큰손님이 잘 알고 있는 친지들 앞에서 신랑, 신부의 인적 사항을 소개하거나 양가부모를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큰 실례이며, 하객에게 인사하는 것은 더욱 큰 실례이다.

주례는 큰손님이기 때문이다. 인사는 혼인주인 양가 부모가 해야 마땅하다.



■ 혼인서약 (신랑 · 신부 · 본인이 한다)

◆ 신 랑 ◆

나는 ○○○양을 아내로 맞아 나의 주인으로 공경을 다하여 사랑하고 존중하며,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자손을 창생하고 감사와 성취로 보람과 행복이 충만한 가정을 이룰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 ○ ○ (싸인)

◆ 신 부 ◆

나는 ○○○군을 남편으로 맞아 나의 주인으로 공경을 다하여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자손을 창생하고, 감사와 성취로 보람과 행복이 충만한 가정을 이룰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 ○ ○ (싸인)

■ 성혼선언 (큰손님, 주례)

이제 신랑 ○○○군과 신부 ○○○양은 양가 부모님께 서약하고, 하늘과 땅에 고하고,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마음과 몸을 합하여 고락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온 천하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년 월 일
주례 ○ ○ ○ (싸인)

■ 폐 백 (현구고례)

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신부댁에 먼저 들러 폐백음식을 장만하고, 신부의 생활 필수품을 챙겨 시댁으로 간다.

② 폐백은 시댁부모님께 음식을 올리는 禮로 시아버님께서는 밤과 대추를, 시어머님께는 육포를 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대 혼인예식장에서는 폐백을 올리는 것은 당치 않은 무례이다.

※ 시아버님께 올리는 음식의 의미 : 대추는 아침을 상징하는 것으로 부지런함을 뜻하며, 밤은 두려운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며느리로서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 시어머님께 올리는 음식의 의미 : 육류는 적절한 간으로 요리해야만 참 맛을 낼 수 있으므로, 평소 집안에서의 음식솜씨를 자랑함 이요, 며느리로서 시댁의 음식 만들기를 배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복 식 (예복)

신랑·신부의 예복은 형식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양가의 형편에 맞추어 정성껏 준비한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 랑 ◆

	전통 혼인례복	현대 혼인례복
대 레 복	사모, 관대, 관복, 목화	한복 또는 양복 정장으로 한다.
폐 백 복	양복, 한복 정장	양복, 한복 정장

◆ 신 부 ◆

	전통 혼인례복	현대 혼인례복
대 레 복	원삼, 족두리, 적색저고리에 황색치마 (한복)	웨딩드레스 또는 한복정장으로 한다.
폐 백 복	한복 정장	한복 정장

IV. 신 행

1) 신행(新行), 우귀(于歸)

신부가 신랑의 집인 시가(媿家)로 들어가서 며느리로서 치르는 의식 절차를 신행(新行)이라고 한다.

신부 측에서는 시부모를 처음으로 뵈는 현구고례때 올릴 폐백을 준비한다. 시아버지에게는 밤과 대추를 준비하고, 시어머니에게는 육포, 편포, 닭 등 여러 가지 기원과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 음식을 마련하여 가지고 간다.

시대에 들어갈 때는 귀신을 쫓고 부정풀이를 하기 위하여 짚불을 양쪽에 피워놓고 지나가게 하였으며 손이 있는 날이면 소금, 콩, 팥 등을 뿌리고 들어가는 풍습이 있었다.

혼인 예식은 현대 혼인례로 치르면서도 함, 폐백, 예단 등을 드리는 의식은 대부분 우리 전통의례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혼

인문화의 형태이다. 현구고례시 올리는 폐백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으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예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폐백을 이해하여 드리는 시기와 장소 등이 제고되어야 한다.

신행의 의식 절차는 현구고례(見舅姑禮), 구고예지(舅姑禮之), 현우존장, 제친(見于尊長, 諸親), 케우구고례(饋于舅姑禮), 구고향지(舅姑饗之), 현우사당(見于祠堂), 조석문안(朝夕問安) 등이 있다.

① 현구고례(見舅姑禮)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폐백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는 절차로 효도와 순종을 다짐하며 시댁으로부터 가족임을 인정받는 절차이다.

② 구고예지(舅姑禮之)

시부모가 새며느리를 맞이하여 축복과 훈계를 하는 절차이다.

③ 현우존장(見于尊長)과 제친(諸親)

신부가 시부모외의 다른 어른을 뵈고 친족과 서로 인사하는 절차이다. 이때는 음식을 올리지 않는다. 현행 관례에서 시부모외의 사람에게 폐백음식을 올리는 것이나 또 다른 어른이 대추를 던져두는 일은 잘못된 관행이므로 하지 않도록 한다. 시조부모가 있으면 절을 올리도록 한다.

웃세대 어른에게는 큰절을 하고 같은 세대의 웃어른에게는 신부가 서쪽에서 동향해 서서 맞절로 평절한다.

같은 세대의 아랫사람에게는 신부가 동쪽에서 서향해 서서 맞절로 평절한다. 아랫대 사람들은 서쪽에서 동향해 신부에게 절을 하고 신부는 선 채로 답례한다.

2) 구고향지(舅姑饗之)

시부모가 신부에게 큰상을 차려주는 절차로 어른이 아랫사람에게서 받기만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전통 혼인례는 일방적이 아닌 상대적임을 알 수 있다.

신부의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은 송복(頌福)의 의미로 여러 사람과 나누어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상부상조의 분위기로 건전한 공동체 윤리가 형성되도록 한다.

3) 재행(再行)

신랑이 친가에 왔다가 처음처가에 가는 것을 재행이라 한다.

서현부지부모(暫見婦之父母)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처음 인사하는 절차이다.

동상례(東床禮)

신랑이 신부집에서 신부집의 어른과 친척들에게 인사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현재는 신랑 다루기라는 이름으로 장난이 섞인 놀이가 지나치게 곁들여 지고 있는데 잘못된 관행이다. 처음 만나는 사이의 인간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위한 것이므로 도가 지나치면 악행이 된다.

4) 근친(觀親)

신부가 신행 왔다가 시가에서 처음으로 친가에 가는 절차로 근친갈 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가는 것을 차반이라 한다.

친정에서 시댁에 돌아 올때도 음식을 가져온다.

따라서 근친을 갔다 음으로써 혼인례에 따른 모든 절차는 끝난다.

수연례(壽筵禮)

〈인제문화원 제공〉

I. 수연례의 의의

수연(壽筵)이란 어른의 생신에 아랫사람들이 상을 차리고 술을 올리며 장수하시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고례(古例)에는 수연례(壽筵禮)란 말이 없고 현수가장례(獻壽家長禮)라 했다.

II. 수연례의 종류

아랫사람이 태어난 날을 생일(生日)이라 하면, 웃어른의 생일은 생신(生辰)이라 한다. 웃어른의 생신에 자제(子弟)들이 술을 올리며 장수를 바라는 의식이 수연이므로 아랫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수연례를 행할 수 있다.

요즈음 의학 및 의술의 발달로 질병없이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어른들이 많다. 사회활동을 하는 아들이 부모를 위해 수연의식을 행하려 하면 아무래도 어른의 나이가 60세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름있는 생일은 60세부터이고, 구태여 종류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육순(六旬) : 60세 때의 생신이다. 육순이란 열(旬)이 여섯(六)이란 말이고, 육십갑자(六十甲子)를 모두 누리는 마지막 나이이다.

2) 회갑·환갑(回甲·還甲) : 61세 때의 생신이다. 60갑자를 다 지내고 다시 낳은 해의 간지가 돌아왔다는 의미이다.

3) 진갑(陳·進甲) : 다시 60갑자가 펼쳐져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62세 때의 생신이다.

4) 미수(美壽) : 66세 때의 생신이다. 옛날에는 66세의 미수를 별로 의식하지 않았으나 77세 88세 99세와 같이 같은 숫자가 겹치는 생신을 이름 붙였으면서 66세를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현대 직장의 21개가 만 65세를 정년으로 하기 때문에 66세는 모든 사회활동이 성취되어 은퇴하는 나이이면서도 아직은 여력이 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나이이므로 ‘美壽’라 하고, 또 ‘美’자는 六十六을 뒤집어쓰고 바로 쓴 자이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5) 칠순·희수(七旬·稀壽) : 70세 때의 생신이다. 옛 글에 “사람이 70세까지 살기는 드물다.(人生七十古來稀)”라는 데에서 희수라 한다면 “어른이 너무 오래 살았다”는 의미가 되어 자손으로서의 죄송한 표현이다. 열이 일곱이 라는 뜻인 칠순(七旬)이 좋다.

6) 희수(喜壽) : 77세 때의 생신이다. ‘喜’자를 초서로 쓰면 七十七이 되는 데서 유래되었다.

7) 팔순(八旬) : 80세 때의 생신이다. 열이 여덟이라는 말이다. 산수(傘壽)라고도 한다.

8) 미수(米壽) : 88세 때의 생신이다. ‘米’자가 八十八을 뒤집고 바르게 쓴데서 유래되었다.

9) 구순·졸수(九旬·卒壽) : 90세 때의 생신이다. ‘卒’자를 초서로 쓰면 九十이라 쓰여지는 데서 졸수라하는데 ‘卒’이란 ‘끝나다, 마치다’의 뜻이므로 그만 살라는 의미가 되어 자손으로서의 입에 담을 수 없다. 오히려 열이 아홉이라는 구순(九旬)이 좋다.

10) 백수(白壽) : 99세 때의 생신이다. ‘白’자가 ‘百’자에서 ‘一(하나)’를 뺀 글자이기 때문에 99로 의제해서 말하는 것이다.

Ⅲ. 회혼례(回婚禮)

회혼은 수연과는 다른 의미이나 부부로서 한 평생을 살아가는 역경 중에 그 의미를 높이 부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치르는 예이므로 정성스럽게 받아들인다.

1) 회혼례의 명칭 : 혼인한 해를 기준으로 66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혼인예식과 비슷하게 올리는 의식이다.

2) 회혼례의 절차 : 모든 절차와 방법은 수연례 의식과 같으나 다만 다음 몇 가지가 다르다.

- 부부가 모두 살아 있어야 한다.
- 당사자의 복장은 혼례복으로 한다.

3) 혼인기념일의 명칭 : 우리나라는 혼인과 관계된 경사를 회혼례에서만 찾았는데, 요즘은 부모에 대한 극진한 정성에 여러 가지로 나뉘어 치르고 있다.

- 30주년 → 진주혼(眞珠婚)
- 35주년 → 산호혼(珊瑚婚)
- 40주년 → 녹옥혼(綠玉婚)
- 45주년 → 홍옥혼(紅玉婚)
- 50주년 → 금 혼(金 婚)
- 60주년 → 회혼(回婚) · 금강석혼(金剛石婚)

Ⅳ. 수연례 장소의 배치와 상차림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회갑연의 장소 배치와 상차림은 전통적인 방법과 상당히 다르다. 전통적인 의례방법은 어느날 갑자기 의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관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립되어 꾸준히 행하여지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현대생활을 하는 오늘날도 우리의 현대적인 생활 여건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 한국적인 방법으로 자리매

김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올바른 수연례 장소의 배치상차림에 대하여 살펴보자.

1) 바람직한 수연례 장소의 배치도

(1) 수연 당사자의 웃어른이 살아 계신 경우

상좌(上座·북쪽)에 병풍을 치고, 병풍의 중앙남쪽의 동쪽에 남자어른 서쪽에 여자어른의 좌석을 마련하고, 어른 앞 남쪽에 큰상을 차린다.

수연 당사자에게 웃어른이 계시면 큰상의 동쪽에 서향해서 따로 상을 차려 암자 웃어른이 위치하고, 서쪽에 동향해서 따로 상을 차려 여자웃어른이 위치한다. 큰상의 남쪽중앙에 술상을 놓고, 술상의 동쪽에 남자집사, 서쪽에 여자집사가 서고, 술상의 남쪽에 절하는 자리를 깔고, 자리의 동쪽에 남자자손, 서쪽에 여자자손이 위치하고, 큰상의 서쪽에 집례(사회)가 자리잡고, 자손들은 남쪽을 기준으로 동쪽에 남자손님, 서쪽은 여자손님의 상을 차린다.

(2) 바람직한 수연례 상차림

수연례의 큰상은 형편대로 차리는 것이 합당하나 대개 격식을 차리는 것이 좋다.

V. 수연례의 절차

수연례는 자손들이 어른에게 술을 올리는 절차로 가족행사와 외부손님을 대접하는 연회절차로 나누어서 행한다.

1) 헌수(獻壽) 절차

- ① 남녀자손들이 성장하고 정한 자리에 복향해 산다.
- ② 수연 당사자에게 웃어른이 계시면 아들들이 남자 웃어른을 인도해 동쪽의 자리에 서향해 앉게 하고, 며느리들이 여자 웃어른을 인도해 서쪽의 자리에 동향해 앉으시게 한다.
- ③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수연 당사자 내외를 큰 상 앞으로 와서

남자어른은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여자어른은 서쪽에서 동향해 마주선다.

- ④ 남자어른과 여자어른이 평절로 한번 맞절을 한다.
(만일 주악이 있으면 이때부터 올린다. 회혼례에서는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의 큰절을 한다.)
- ⑤ 남녀어른은 큰아들 내외의 인도를 받아 동쪽의 남자 웃어른 앞으로 가서 술을 한잔씩 올리고 절을 한다. 담배해야 할 경우 웃어른은 담배한다.
- ⑥ 다시 서쪽으로 가서 여자웃어른에게도 그렇게 한다.
- ⑦ 남자어른은 큰아들의 인도를 받아 큰상의 동쪽으로 여자어른은 큰며느리의 인도를 받아 큰상의 서쪽으로 돌아 각기 정한 자리에 앉는다.
- ⑧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물러나 정한 자리에 선다.
- ⑨ 모든 자손이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를 한다.
- ⑩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술상 앞으로 나아가 아들은 동쪽, 며느리는 서쪽에 북향해 꿇어앉는다.
- ⑪ 남녀집사가 잔반을 들어주면 큰아들 내외가 받고, 남녀집사가 큰아들 잔과 큰며느리 잔에 술을 따른다.
- ⑫ 큰아들은 일어나서 술잔을 받들어 남자어른에게 올리고, 큰며느리는 일어나서 여자어른에게 올린 다음, 공수하고 서 있다.(집사가 받아서 올리기도 한다.)
- ⑬ 어른이 술을 마시고 잔을 주시면 받아서 술상 위에 놓고 큰아들은 재배, 큰며느리는 4배한다.
- ⑭ 큰아들 내외는 꿇어앉고, 큰아들이 축수(祝壽) 한다. “아버지, 어머니 만수무강하옵시고 오복을 누리시며 저희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 ⑮ 남녀어른이 대답한다.
“오냐, 고맙다. 너희들이 효성이 지극해 우리가 즐겁구나!”
- ⑯ 만일 헌수 할 자손이 많으면 큰아들 내외가 헌수 할 때 큰아들

의 자손들은 그 뒤에 늘어서서 함께 절한다.

⑰ 이어서 작은아들, 딸, 동생, 조카, 기타의 손으로 나아가 헌수한다.

⑱ 헌수가 끝나면 어른이 일하는 사람에게 명한다.

“아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⑲ 일하는 사람들이 음료와 안주가 담긴 쟁반이나 작은 상을 날라다 자손마다 한 장씩 차려준다.

(자손이 많으면 아들, 며느리, 딸, 사위에게만 주어도 된다.)

⑳ 자손들은 두 손으로 주안상을 받아 바닥에 놓고, 모든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한다.

㉑ 모두 앉아서 음료를 마신다.

㉒ 남녀어른이 교훈이나 소감을 말한다.

㉓ 남녀어른이 자손에게 말한다.

“이제 나아가서 오신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라.”

㉔ 남녀자손이 일어나서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하고 각기 상을 들고 나간다.

2) 연회(宴會) 절차

■ 사회자가 진행한다.

① 개회선언 : “지금부터 ○○○선생님(여사님)의 ○○회 생신축하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자자손은 큰상의 동쪽, 여자자손은 큰상의 서쪽에서 차례대로 남향해 선다.

· 당사자와 웃어른도 일어선다.

② 일동경례 : “모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선자리에서 앞을 향해 경례하겠습니다. 경례! 바로!”

· 어른과 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 자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앉는다.

③ 약력소개 : “○○○씨가 ○○○선생님(여사님)의 약력을 말씀 드

리겠습니다.”

- ④ 모시는 말씀 : “○○○선생님(여사님) 큰아드님 ○○씨가 손님
을 모시는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 ⑤ 축하·송사 : “○○○선생님께서 축하를 하시겠습니다.”
- 큰아들 내외가 축하할 손님을 정중히 맞아드린다.
 - 축하, 송사, 축전 등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 ⑥ 기념품, 선물증정 : 사회자가 소개하는 대로 준비된 기념품이나
선물을 증정한다. 자손들이 먼저하고 손님이 다음에 한다.
- ⑦ 답사 : “○○○선생님(여사님)께서 감사하는 뜻에서 답사를 하시
겠습니다.” 수연 당사자가 인사한다.
- ⑧ 송수건배(頌壽乾杯) : “○○○선생님의 선창으로 건배를 하겠습
니다.”
- 모두 잔을 높이 든다.
 - “○○○선생님 내외분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건배하겠습니다.”
 - 미리 정한 손님이 앞으로 나와 잔을 높이 든다.
 - 모두 잔을 높이 든다.
 - “○○○선생님 내외분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건배하시겠습니다.”
“만수무강을 빕니다.”

~ 음식을 먹으며 즐긴다 ~



향 토 문 예

1. 수필 - 상지촌 옥녀 이야기
2. 수필 - 약장수
3. 시조 - 木 園 作
4. 시 - 동자석

별무리 하얗게 모여도
눈 먼 자의 등불
썩부쟁이 꽃

상지춘 옥녀 이야기

한 용 운

옥녀는
어깨까지 곱게 따내린
긴 머리 꽃 땀기
이쁜 지지배

아주 조금씩
그리운 세월 너머로
그 흔적을 지우며
모든걸 잊으려 했었다

찔레꽃 하얗게 흩날리는
내를 건너
버들피리 소리 흘러가는
논두렁 밭두렁은
꿈을 쫓던 나의 고향

철딱서니 없던 하교길
우거진 보리 밭에서
되지도 않는 장난질하다
한 이랑 건너가
봐- 오줌 누던 지지배야

지금도 긴 긴머리
여인의 뒷 모습을 볼 때면
가슴속에 일렁이며
꿈틀거리는 그리움

언젠가
그 언젠가는
꼭 오마던 모습
피빛으로 젖어 온 마음속에
뼈 아프게 어린다.

오늘 따라 일요일인데,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창밖에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막 새파란 잎들이 아주 조금씩 돋
어나기 시작하는 뿔안 미루나무 위에서 까치 한쌍이 반가운 손님이라도
오기나 하는 듯 청량한 목소리로 지저귀고 있다.

“정말 누가 오려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연신 창 밖을 바라보
며, 오래동안 서랍속에 넣어두었던 옛날의 사진첩을 꺼내 놓고 빛바랜
추억을 들추고 있었다.

이거는 용삼이, 이애는 길순이, 그리고 애는 개구장이 선동이……
하면서 연신 사진첩을 넘기면서, 흘러간 날들을 마음속에 주워담고 있
었다.

언제 찍었는지 눈부신 햇빛때문에 잔뜩 얼굴을 찡그리고 내 앞에
쫓그리고 앉아 있는 옥너 사진 한장! 아마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우
리 삼촌이 그때 가지고 있던 사진기로 운동장 앞 층계에서 찍은 기억이
생각나는 그런 사진이었다.

“삼촌! 조금만 있다가 찍어”

“왜 그러니?”

“응, 내 짝궁 옥너와 같이 짝어야 하니까 그래”

“옥너가 어디 있는데…”

“내 빨랑 교실에 가서 데리고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래 빨리 갔다 와”

나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그 어린 나이에도 상지촌에 사는 김옥너에게, 요즈음 말로 훌쩍 반해 있었던 것 같았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면서….

그 옥너네 집은 우리집을 지나서 2마장 정도 거리인 상지촌 대장간 건너편 언덕위에 있었다. 그 집 앞으로 작은 개울물이 맑게 졸졸 흘러내리고, 언덕 뒤로 뽕나무밭이 있었다.

그처럼 나는 옥너가 좋아서 학교를 오갈때면 우리집에 꼭 들러서 놀다가게 했다. 실은 우리집은 잡화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용품이며, 과자랑 먹을것을 많이 주기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집집마다 매일 끼니 걱정을 하면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다싶이 하던 1960년도 초였으니, 흠어머니 슬하에서 자라고 있는 옥너네의 살림살이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다. 옥너 아버지는 옥너가 5살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 당시 재산이라고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미군부대에서 쓰레기장으로 나오는 깡통을 뜯어 가지고 판자위에 엮어지은 깡통집 한채가 전부였다.

8·15 해방이 되기 몇해전까지만 해도 옥너 아버지는 그의 작은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독립군의 군자금을 만들기 위해 만주지방을 자주 왕래하며, 아편장사까지 하셨단다. 함경북도 회령군 화동면에서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일년반동안 청진에서 옥살이를 하시다가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었다. 그때 감옥에서 모진 고문으로 생긴 결핵으로 오래 사시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인지 우리집에서도 옥너네 모녀를 끔찍이 생각하며, 옥너가 오며는 특별히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곤 했다. 어떤 때는 아버지께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양식을 구해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어머니도

생활에 필요한 옷가지며, 그외 다른것들을 많이 도와 주시는것을 곁에서 늘 볼 수 있었다.

옥너는 나보다도 머리가 매우 영특해서 우리 반에서는 늘 1등을 독차지했다. 그리고 남이 잘하지 못하는 재간도 상당히 있어서 그림그리기와 노래 부르는 것을 썩 잘 했었다.

특히 윤석중 작사 홍난파 작곡인 “낮에 나온 반달”과 최순애 작사 박태준 작곡인 “오빠 생각”을 잘 불러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의 노래 듣기를 좋아하셨다. 4학년때 우리반 담임선생님이셨던 김석중 선생님은 의례히 첫시간부터, “김옥너의 낮에 나온 반달 노래를 한곡조 듣고 공부 시작하기로 하겠다… 여러분 박수를……”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햇 - 님이 쓰다버린 쪽박인가요
꼬 - 부랑 할머니가 물길러갈때
치마끈에 달랑달랑 채워줬으면-

그리시고는 또 수업을 마치고 종례시간이 되며는 “오늘 마지막으로 김옥너의 오빠생각 노래를 들으면서 돌아가도록 하겠다. 야, 박수를 쳐야지, 박수를……”, 그럴때마다 교무실에 남아 계시던 선생님들도, 그리고 아직까지 공부가 남아있는 5, 6학년 언니들도 우리반 창문쪽으로 우르르 몰려들어 옥너의 그 고운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재미있게 듣고했다.

땀북 땀북 땀북새 눈에서 울고
뼈꼭 뼈꼭 뼈꼭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옥너는 노래를 부를때마다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일어서서는 먼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피고리소리 보다 더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했었다. 나는 옥너가 매일 그 고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이 하

도 좋아서 멍하니 그의 얼굴만 보고도 이내 눈물을 찔끔짜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지금도 그 어린 옥녀의 눈가에 보일듯 말듯한 눈물 이슬이 초롱초롱 맺혀있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선생님과 우리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옥녀를 중학교에 보낼려고 했지만, 그때 옥녀의 어머니께서 폐결핵 3기가 되어 더는 손을 쓸 수 없었던 것 같았다.

내가 중학교를 다닐때까지는 우리집을 중심해서 이웃어른들이 여러모로 보살피고 해서, 그럭저럭 같은 동리에서 살았다. 고등학교를 외지에 나가서 다니다가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와보니 옥녀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옥녀는 이웃집의 주선으로 서울에 있는 모 공장에 취직되어 떠나가고 없었다. 그리고는 1년이 다 지나갈 무렵 편지한장이 발신자의 주소도 없이 옥녀로부터 왔었다. 그 편지내용은 현재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 착실히 저축하고 있는데, 얼마 안가서 목돈이 마련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산소를 돌보고, 마음으로도 신세진 동네 어른들께 다소의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고싶은 마음 너무나도 간절해서 달려가고 싶지만, 그때까지 이 옥녀를 꼭 좀 기다려 달라는 부탁의 말을 적으면서 끝을 맺지 못하고 있었다.

낡고 낡을대로 낡은 사진첩 첫장에, 이거는 용삼이, 이애는 길순이, 그리고 애는 개구장이 선동이…….

그런데 상지촌의 김옥녀는 지금도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얼굴은 왜 찡그리고 있어야 하나?

낮에 나온 반달은 안 반달은
옥-녀가 쓰다버린 쪽박인가요……………

약장수

김 신 향

한여름날 밤, 약장수 구경을 갔다.

얼마 전 원통지역에 들어와서 한 달 기한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던 터였다. 예나 지금이나 약장수의 모습은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 아침 저녁마다 전용버스로 시골 곳곳에서 한가로운 노인들을 실어나르며 약장수 특유의 구슬픈 음악을 틀어놓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관객을 끌어들이는 표정들이 세월이 흘러도 여전했다.

천막 입구에는 ‘무료’ ‘대환영’ 이라는 휘장이 걸려 있었다.

마치 빈민가 천막촌에 온 듯했다.

붉은 조명을 드문드문 켜놓았으나 조금은 어두웠는데도 사람들이 마치 콩나물 시루같이 뻗뻗하게 들어찼다.

나는 왼쪽 앞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고개를 슬며시 돌려 장내를 훑으니 젊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듯했다. 새파랗게 젊은 게 무슨 할일이 없어 약장사 구경이냐며 노인네들이 한 마디씩 하는것만 같았다. 혼자 들어올 때부터 멧쩍었는데 앉아 있는 뒤 통수에까지 화살이 꽂히는 듯했다. 마치 요지부동인 돌비석같이 앞만 쳐다보았다.

상설무대 위는 펑 초라했다.

깡마른 몸집에 검은색 안경을 쓴 50대의 남자가 7, 80년대 풍인 낡은 기타로 혼자 노래반주를 도맡았다. 여섯 명의 여자들의 개성있는 차림

으로 차례차례 무대 앞으로 나왔다. 트로트 음악을 메들리로 부르며 약장은 시작되었다. 「비 내리는 호남선」, 「여자야 여자야」를 합창으로 서곡을 띄웠다. 그중 40대 가량의 여자가 사회를 보았다. 개인 순서로 첫번째, 두번째 출연자가 노래를 부른 다음 세번째 50대의 출연자가 일명 키메라 화장을 하고선 무대 위로 나왔다. 「첫정」이란 곡을 불렀다. 스텝까지 밟으니 마치 댄스홀에 온 느낌이랄까. 객석에서 휘파람을 불자 「흑산도 아가씨」를 재창했다.

그러자 나만의 가슴 아픈 사연이 묻어났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었다. TV에서 어느 가수가 「흑산도 아가씨」를 부르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구수한 목소리와 그에 따른 풍모에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그날로 테잎을 구입했다. 낮이고 밤이고 카세트를 틀어놓고 목숨을 걸다시피 그 노래를 배웠다. 1, 2절을 메모지에 적어가며 열심히 외워 부르곤 했다. 어머니와 내가 감정을 잡아가며 연습을 한 끝에 어느새 그것은 애창곡이 되어버렸다.

‘남 몰래 서러운 세월은 가고 물결이 천번 만번 밀려오는데 못건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가까이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젠 모녀간의 사랑도 물안개처럼 아련한 추억이 되어 버렸는데.

다섯번째 출연진까지 노래가 다 끝나자 악단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무대위로 올라와서 소위 일장연설을 했다. 단원들은 약을 들고 관중석으로 나왔다.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그 약은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병이 나기전에 몸과 기를 보호하는 신비의 보약으로서 약 이름은 ‘장녹삼’이라고 했다. 인삼, 녹용, 로얄제리, 영지버섯 등 6각원소를 넣어 만든 대한민국 특산품이라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 말 그대로 믿는다면 무조건 만병통치였다.

무슨 고려인삼회사의 연구 개발원들이 2년간 걸쳐 발명해낸 특허로서 약을 팔고자함이 아닌 죽어도 신도불이 건강식품을 광고 선전하는 단체

라고 수없이 뇌까렸다. 가격은 19만원, 지금부터 1개월간 먹어본 후 돈을 지급하는 할부거래였다. 부담이 되는 가격이어서 그런지 몇 사람 안 사는 것 같았다. 일장연설은 장장 30분 이상 계속되었다. 무슨 사실이 그리 장황한지 지루하기 그지없었다.

이어서 2부가 시작되었다.

네 사람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우리 춤, 우리 가락으로 흥겨운 한마당 놀이잔치를 벌였다. 소중한 우리만의 정서로 전통민요를 불렀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다.’

‘초로 같은 우리 인생, 멋지게 우리 돌아보자.’

메들리로 계속 부르고 장내에는 장구소리와 함께 신명이 났다. 흥이 나자 여기저기 자리에서 일어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덩실덩실 민속춤을 추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민속예술단이 따로 없지 않았다.

다음 악장 순서였다.

요즘 같은 스피드시대에 부모를 잘 모시자, 사람 됨됨이를 보려면 가을철 벼이삭을 보면 안다. 우주의 자명한 이치로 너도나도 다 늙기에 부모에게 효도하자는 요지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단원들은 또 무대 아래로 내려와 바이오 양말을 판매했다. 멀미나는 사람, 무좀 있는 사람, 동상 걸린 사람, 악취가 나는 사람, 두루두루 좋다는 효능을 설명했다. 한 켤레에 3천원, 두 켤레는 5천원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이었다.

웬지 이 양말만큼은 팔아 주어야 될 것만 같은 기본적인 양심이 발동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도 싶었다. 시작부터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고 창을 부르는 것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화려한 불빛 속에 덕지덕지 두꺼운 화장으로 가려진 눈가의 주름, 입가의 미소는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 꽤나 힘들고 찌들었던 세월의 풍파를 여실히 말해주는 듯했다. 마치 빼에로의 삶같이. 그런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한 듯이 노인네들은 거의가 다 양말을 한두 켤레씩 샀다. 사

실 요즘 어디 3, 4천원 안 쓰고 놀 데가 있는가.

그만하면 귀 즐겁고 눈요기도 하고 들을수록 빛이 나는 덕담이 있기에 본전을 빼고도 남을 성실했다. 실지로는 환심을 사기 위한 말일지라도 말이다. 비록 약품홍보라는 목적을 내걸고 상업을 하지만 우리 인간 심성에 많은 교훈을 주었다.

옛날 약장수 하면 일명 판따라 또는 서커스단이라고 했었다. 주로 나이 어린 소년 소녀들이 나와 곡예를 했다. 오줌싸개 어린이약을 팔고 거시(회충)약을 팔곤 했었다. 공중 줄타기, 외발 자전거묘기 등 아슬아슬해 떨어질것만 같은 무서움에 눈을 가리며 불쌍하게 여겼던 기억들이 생생했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진 듯했다.

그러나 광대들의 밑바닥 삶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한 발버둥으로 그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 모아서 한 푼이라도 더 벌까.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무진 애를 썼다.

마지막 순서로 고급 스탠드바에서나 볼 수 있다는 어우동쇼를 하는데 무척 애처로워 보였다. 낭군님을 기다리며 그리움의 밤을 지새우는 기생의 심리묘사로서 애절한 무언극이었다.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장면으로 도저히 제정신 가지고는 그 쇼를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어쩌면 환각제를 미리 복용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또한 그런 쇼는 약을 팔기 위한 흥행목적으로 지나치게 외설을 연출하는 것이 아닐까도 싶었다. 마지막 순서의 연극 또한 현대의 풍속과 인정, 비화 등을 다룬 통속적인 것으로 몹시 슬펐다. 시사하는 바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인간성 회복이었다. 너무나 인간적인 스토리에 감동되었다.

이 밤이 지나고 일정기간이 끝나면 철새처럼 또 어디론가 정처없이 떠나야 하는 광대들의 착잡한 마음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흐르는 물처럼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가슴의 혼이 닿는 곳마다 슬픈 이야기를 뿌리는 약장수야말로 진정 이 시대에 살아 있는 신파극이 아닐는지.

밤하늘의 별들도 그들의 무거운 삶을 껴안은 듯 유난히 빛났다.

上南面 昇格 祝詩 (상남면 승격 축시)

木園作

鶴峙下之馬里上(학치하지마리상)
美山金富坵東南(미산김부탁동남)
命名區曰上南面(명명구왈상남면)
特有龍潭兼藥水(특유용담겸약수)

■ 주(註)

학치령 아래요 마리골 위하(서북의 변경을 가르키는 뜻)
미산과 김부리는 동남으로 탁 터져있네
지역구를 이름하기를 상남면이라 명명한다.
특별히 용소암과 개인산 약수까지 곁하고 있구나.

彌 矢 嶺(미시령)에서

木 園 作

語聞高峰彌矢嶺(어문고봉미시령)
行友併睨眞壯觀(행우병현진장관)
茫茫東海碧未玄(망망동해벽미현)
大小漁舟閑假永(대소어주한가영)
蔚山本鄉蔚山巖(울산본향울산암)
何故緣有東峽立(하고연유동협립)
北防聳立雪嶽山(북방용립설악산)
倅軍百萬不爲羨(괴군백만불위선)

■ 주(註)

말로만 들던 미시령 재에
행정 동우들과 어우러져 보니 참으로 장관일세.
망망한 동해바다는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이고
크고작은 고기 잡이배 한가로이 자막질하네.
울산이 고향이라는 울산바위는
무슨 연고와 인연있어 강원도 땅에 서 있는 고
북을 막아 우뚝 성 있는 설악산은
괴뢰군 백만명도 부럽지 아니하구나.

老 恨 (노한)

木 園 作

不老常靑禱心中(불로상청도심중)
嗚呼何瞬빈霜下(오호하순빈상하)
宇宙萬像都盈휘(우주만상도영휘)
獨不將軍今何在(독불장군금하재)

■ 주(註)

늙지 않고 늘 청춘으로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는데,
슬프다 어느순간 귀 밑에 서리가 내렸구나.
우주의 만상이 모두가 찾다가 이즈러 지는데,
독불장군이 지금 어디 있단 말인가.

郡琪 · 郡木 · 郡花 · 郡鳥
(군기 · 군목 · 군화 · 군조)

木園作

無窮發祥一幅載(무궁발상일폭재)
常靑節儀縣民性(상청절의현민성)
江畔躑躅裏繁榮(강반척축이번영)
關關白鷗歌太平(관관백구가태평)

■ 주(註)

무궁히도 발전할 상서로운 뜻을 기록에 실었고
주목의 늘 푸른 절개와 의는 군미의 성품 상징하네
북한강반 철쭉꽃은 번영을 뜻하고
구룩구룩 백비둘기는 태평을 노래하네

合江文化際 祝詩 (합강문화제 축시)

木 園 作

合江原頭年復讌(합강원두연부연)
圈域建脚會雲集(권역건각회운집)
自區掛名爭優劣(자구괘명쟁우열)
同和郡民拍啻聲(동화군민박가성)
誰勝誰負敢勿計(수승수부감불계)
盡日也於樂過爲(진일야어낙과위)
各散歸家是祭億(각산귀가시제억)
大同和合永續行(대동화합영속행)

■ 주(註)

권역의 건각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네
자기 구역에 명예를 걸고 우열을 다투는데
동화된 군민들은 박수치는 소리로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구태여 따지지 말고
오늘해 다하도록 즐겁게 지나면 되는 것
각기 흩어져 가도 합강 문화제를 기억하다가
대동 화합하여 이 행사를 기리어어 감시다

登太隙亭 (등태극정)

木園作

天極起龍倚半空(천극기룡의반공)
合江一望彩雲中(합강일망채운중)
太極亭上憑軒看(태극정상빙헌간)
千古蒼顏古今同(천고창안고금동)

■ 주(註)

기룡산은 하늘높이 솟았는데
합강 흐르는 물은 한눈에 들어오누나
태극정 난간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높이 솟은 기룡산 봉우리는 고금을 두고 갔기만하다

懇望小大夫任 (간망소대부임)

草根民主苗新青(초근민주묘신청)

七朶自治花灼灼(칠타자치화작작)

無私公존正論伸(무사공존정론신)

五萬主權報願心(오만주권보원심)

■ 주(註)

풀뿌리 민주주의 새싹이 푸르렀다.

일곱떨기 자치화야 활짝 피려무나.

사심을 없애고 오르지 공을 쫓아 정론을 펴시어,

오만군민의 원하는 마음들을 보답해 주오.

警察力 (경찰력)

風塵世波 是與非(풍진세파 시여비)
蜂群亂事 誰何防(봉군난사 수하방)
天下皆依 警察力(천하개의 경찰력)
堂堂忠義 日月輝(당당충의 일월휘)

■ 주(註)

어지러운 세상은 시비뿐인데
벌떼처럼 일어나는 어지른 일들을 어느 누가 막으랴
천하가 다 - 경찰력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당당한 충의(충성과 의리)는 일월 같이 빛난다.

祖國頌 (조국송)

猛虎氣像 大韓國(맹호기상 대한민국)
檀君聖祖 都邑地(단군성조 도읍지)
百頭漢拏 三千里(백두한라 삼천리)
無窮花繡 祖國領(무궁화수 조국령)

■ 주(註)

맹호의 기상을 갖춘 대한민국은
단군 성조께서 도읍을 정한 땅이로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삼천리 강산은
무궁화로 수 놓은 조국의 영토로다

鄉 愁 (향수)

關山千里 隔相心(관산천리 격상심)
茫茫滄海 同鄉風(망망창해 동향풍)
南北風塵 是誰平(남북풍진 시수평)
雲集三南 芳勇士(운지삼남 방용사)
鬪志滿腹 眞丈夫(투지만복 진장부)
霜風威伏 北胡秋(상풍위복 북호추)
他日洗釣 歸家後(타일세조 귀가후)
菜山釣水 更何求(채산조수 갱하구)

■ 주(註)

천리 고향 산천 마음이 서로 막히어
망망한 창해에는 고향바람 불어옴다.
남북의 이 전쟁을 누라서 평정할고
구름처럼 모여든 삼남의 꽃다운 용사가 있지 않나
투지가 충천에 있는 참다운 용사들아
서리발 같은 위세에 복귀는 항복하리라.
저 - 훗날 칼을 씻고 집에 돌아가
산에가 나무뜯고 물에서 낚시질 하는 일 다시 돌아 올건가.

登扶蘇山 (등부소산)

木園作

扶蘇山光美人鏡(부소산광미인경)
碧水白馬悠悠去(벽수백마유유거)
落花巖上百花亭(낙화암상백화정)
三千冤鬼共徘徊(삼천원귀공배회)
皐蘭鐘聲慰孤魂(고란종성위고혼)
西崖水北呼旅心(서애수북호여심)

■ 주(註)

부소산 경치는 미인의 거울과 같고
푸른물 백마강은 유유히도 흘러가네
낙화암 절벽위에 백화정에는
삼천궁녀의 원혼귀가 배회하고 있는 듯하고
고란사 종소리는 궁녀들의 외로운 혼을 위로하는 듯 하며
서쪽 멀리 수북정(水北亭)은 나그네 마음을 누르고 있네

大同八難 (대동팔난)

木 園

難之難中 大同難(난지난중 대동난)
我母青春 寡婦難(아모청춘 과부난)
十歲童子 失父難(십세동자 실부난)
無主家庭 生活難(무주가정 생활난)
母親淚恨 忍見難(모친루한 인견난)
父親不御 歸家難(부친불어 귀가난)

■ 주(註)

어렵고 어려운 중에 대동돈이 어렵고
내어머니 청춘에 과부되기도 어렵다
십세 동자가 아버지 잃기도 어렵고
주인 없는 가정에는 생활하기도 어렵다
어머니 눈물과 한숨소리 참아보기도 어렵고
아버님을 모시지 않고는 집돌아 가기도 어렵다

※ 대동돈(지금으로 농협·은행·시민금고 등)쓰고 값을 길이 없게 되자 관아에서는 무책임한 소이들 죄로 다스리고자 체포 구금한다.

끝내는 사형에까지 이르게 될 때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면회를 간다.

살려줄 것을 애원을 하자 원님도 그 정경을 가상히 보시고 사형에까지 이른 죄수를 그대로 방면하기는 어렵고 해서 십세동자를 바라보며 “지금 글을 읽고 있느냐”고 묻는다.

동자는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하자 원님은 글을 지어 올리기를 명령하면서 지금 너의 부친은 삼재팔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운자를 “어려운 난”자를 여덟번을 넣어서 글을 지어 올려라. 어떤 방법으로든 여덟자의 “어려운 난”자가 들어가야 한다.

이말을 들은 동자는 서슴없이 팔난자의 시를 지어 원님 앞에 내놓는다. 원님은 시를 읽어 보니 그 가정의 현실 난관이 그대로 표현되고 여덟자의 난자를 배열시킨 재능에 감복하여 사면 귀가 시킨다.

이때에 원님은 시의 끝소절에 죄인을 데려 가는데, “모실 시(侍)자면 되지 모실 어(御)자는 왜 썼느냐”고 묻자, 동자는 “원님은 저를 죄인으로 보시지만 저의 집으로는 가왕(家王)임으로 모실어 자를 썼습니다.”라고 하였다.

원님은 너의 말이 정녕 옳구나 하고 감복했다는 시입니다

童子石 (동자석)

한 용 운

풀빛 향기 그윽한
두땀 길 섞
웬 童子石인가

돌이끼 푸른 세월
부대 꺼 오는 비 바람에
저 홀로 할키고도

회한(悔恨)의 눈물
포근히 깔고 앉은
전설의 혼불인가

망각 저편에서
서리 서리 울고 간
어는 동자(童子)의 애환이여

꿈 속으로 그 세월을 가면
풀빛으로 아픈대는
풀꽃들의 외로움만 즐고

지천으로 한없이 깔리는
정적만이 남아
마른 울음을 삼키고 있어라

<시>

별무리 하얗게 모여도

한 용 운

잊혀진 그 이름속에
채 식지 않은 미물처럼
아직 남아 있는 정분인가

눈 시울에 일렁이는
그리움 한 조각마저
다 태우듯
붉은 얼굴처럼
노을이 지면

먼 하늘가에
별빛 띄우는
내 하얀 마음속으로
별 무리 하얗게 모여도

왓지
그 날 밤
강 언덕 가시풀밭 바람은
깜깜하게 울고 있었다

눈 먼 자의 등불

한 용 운

그 누군가
절망하면 넘어지고
또 불안하면
보이지 않는 낭 떨어지로
떨어진다더니

왜 종일
창가에 졸고 있는
난 꽃 향기

한 줄기 빗물처럼
하얀 향내로
기침은 왜 하고 있을까

저녁 어둠이 꿈틀거리는
바람길을
바람만이 가도 있어라

쭈부쟁이 꽃

한 용 운

나뭇잎도
붉게 물 드는 해질녘
노을 타는 산자락 바위틈에
피빛한을 멍울로 지우는
쭈부쟁이 꽃
당신

찾는 이도 없는 기다림에
혼자 지쳐버린 침묵도
푸른 세월속에 나 앉아
꽃향기를 풀어 마시고

쪽빛 하늘 너머
눈빛처럼 서성거리는
늪녘한 가을빛까지도
빨갭게 태우는가

■ 韓 龍 雲

- 강원 인제 출생
- 江原문학, 광주시 낭송회, 한맥문학가회, 삼포문학, 발원문학 회원
- 한맥문학 신인상으로 문단등단
- 內麟문학회 회장
- 한국복지재단 강원지부 지역후원회장
- 수상 : '81 대통령 표창, 삼성문화재단 효행상, 고황재단 밝은사회 선행
모범가족 금상, 강원 새마을 미담상, 弘盛社 작품공모 우수상
- 현재 인제군청 근무
-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43의 1번지(내설악타운 102동 403호)
전화 직) 0365-461-2303 자) 0365-461-2623



제1회
거리시화전
작품

1. 거리시화전을 개최하며...
2. 신홍사 단풍 外 52편

1998년 9월 25일 ~ 27일
원통중로서점 사거리



김 신 향

제1회 거리 시화전을

개최하며...

인제지역에 향토문학의 뿌리를 내린 것이 9년이란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며 사람사는 이야기인 만큼 그 정신세계를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아름다운 정서라 생각합니다.

제1회 거리시화전을 열게된 취지는 늘 문화공간이 없어서 목말라 했던 우리북면 지역에 순수한 뜻을 지닌 문학의 회원들이 거리문화제 위원회를 구성해 회원작품 30여편과 원통고등학교 학생 작품 10편 그 외 속초 영북 문학회 그리고 갈피문학회에서 6편의 작품을 초대 시인 작품으로 모셔 총 45여편의 작품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원통거리에서 풍요롭게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냥 그 광경이 좋아서 또 그 정서가 좋아서 자신도 모르게 “좋다. 좋다.” 감탄사를 뿌리는가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깨알같은 글씨로 시를 베껴적는 모습도 너무 이쁘고 가족동반은 물론 아버지와 딸이 손을 나란히 잡고 정겹게 시를 읽는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 파와 부식류 담은 비닐봉투를 든채 시에 심취한 어머님들, 지팡이를 짚어야만 거동할 수 있는 70~80세 노인들이 국화차를 마시며 가을 햇살 따라 구경하시는 모습. 끝시간에 나와서 어둔 불빛아래 그 글을 쓴 사람만큼이나 고뇌하며 감상하는 젊은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한 폭의 그림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 이웃과 이웃의 벽을 허물고 숨통막힌 마음을 열어 문학은 특정한 사람만의 모임이 아닌 누구든 관심만 있

으면 참여 할 수 있다는 문학의 개념도 허물어져 자유롭게 시화(詩畵)를 공감했던 이번 거리문화제 행사는 예향의 한자리 메김으로써 문화의 격을 차원있게 끌어 올리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나아가서는 건전한 예술 환경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꿈을 심어주고 기성세대들에게 현실이 가까워 무디어진 감성을 되새겨 보는 계기로 지역민 남녀노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마지막날 아침에는 합강 민속예술제에 참가했던 태백시 사물놀이 팀 최진환 선생님을 비롯하여 20여명이 한바탕 축하의 풍악을 울려 주어 행사장은 더욱 훈훈하게 무르익었습니다.

한편으로 혼자 좋아 글을 쓴 것 뿐인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숨쉬며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무척이나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특히 '98 거리문화제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강원도지사님과 군수님 그외 지역인사님 회원님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처음 치룬 행사만큼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힘겨운 이 시대에 우리 서로가 그 첫발을 내딛었다는 것만으로도 높은 자긍심을 지녀도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점으로 인제지역문화에 새역사로 기록되어지는 만큼 예촌(藝村) 인제의 향토문화가 거듭나는 한 뿌리로 푸르게 일어나기를 바램하는 작은 마음입니다.

■ 김신향

- 1) 경북대구출생
- 2) 인제 내린 문학회원
- 3) '96년 문예사로 시 당선
- 4) '98년 거리문화제 원원장
- 5) 주소 : 인제군 북면 원통 2리 1번 ☎ (0365) 461-3437

신흥사 단풍

권 정 남

차라리 정지된 시간으로나 머물까?
열에 들뜬 몸
수천년 흥역을 알아도
속세 껍질 못 벗은 산 승(僧)
노을을 토하듯
아직 몇 억겁
불로 제 살 지저야
진정 해탈 할 수 있을까?

홀로 속초에 남아

권 정 남

스쳐가는 도시인줄 알았다

살붙이 같던 인연들 다 떠나고
홀로 속초에 남아

실족한 한쪽 발목
동해바다에 빠져있고
대청봉 바람 내 허리 감아쥐고
막무가내 살 섞고 살자한다

유배지 처럼 그렇게 살다보면
내 머리카락에도 끈적한
소금냄새 나겠지

단풍이 불 뿜는 날
적막으로 앉았는 빈 방
인연의 밧줄
툑툑 끊어지는 소릴 듣는다

紀 行

김 명 기

버려진 것은 아니다
모두 돌아 갔을 뿐

잃어버린 것도 아니다
영원을 잡으려고 존재를 버렸을 뿐

혼자 있을 땐 촛불을 켜다.
참으로 홀로라고 말하면 종이배를 만든다
그러나 문득, 나를 잃어 버리면
밤바람 위에 종이배를 띄운다.

종이배 타고, 한 뼘 한 뼘
밤바다 속 깊이를 재어보면
그 끝에는 동강난 겨울이 있다.

나는 안다
겨울은 기차가 떠난 철로 사이로
징검다리 밟으며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우리의 생(生)위에
보이지 않는 교차로를 올려 놓는다

그 속을 스쳐가는 나와 나
손 흔들 시간마저 잃은 채 하늘을 머금고
그렇게 우러러 보니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내가 아플 땐 나를 위하여
내 아픔 나의 것으로 받아 주리니

나와 나만은
서로를 버리지 않아도
영원히 사랑 할 수 있다.

속초역 - 序 詩 -

김 창 균

기차가 온다
떠나야 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기적같은 기적을 울리며,
기차가 온다.
서로들 얼굴도 모르는
그대와 나를 한 몸에 태우고
이땅을 전복할 듯, 전복 시킬 듯
아슬아슬하게
기차가 온다.

속 초역 - 2 -

김 창 균

기차를 보면
문득 그립지 않을 것조차 그리워 진다.
오랫동안 구석에 쳐 박아 두었던 장난감 같은 새들이
부활하며 휘이휘이 산맥을 넘어가고
두량짜리 기차는 그리움 사무친 사람들의
가슴을 관통하며,
철커덕 철커덕
칠순 노모의 기침처럼
이 마을과 저 마을을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으며 간다.

속 초역 - 3 -

김 창 균

나는 지금 내 모세혈관의 끝까지 가고 싶다

그 곳에 서면 언제나
내 몸에 새 살이 돋고,
오랫동안 덧난 생과,
아직도 낫지 않는 상처와,
죽도록 기적을 울리며

다음 역을 향해 달리는
기차가 있다.

사다리

김 춘 만

사다리를 지붕에 걸치고 아버님이 오르신다
지붕 꼭대기에 오르내리는 텐 아직한 내가 낮지야
장성한 아들을 올려다 보게 하고
일흔 일곱 아버님이 가볍다
우드커니 사다리를 붙잡고 서서 아버님의 무게를
느낀다
하늘이 맑다
맑은 하늘로 그대로 솟구칠 것만 같은 아버님
아버지는 아들을 딛고 어지럼을 뺏는다
기억 하시는가 정정하시던 날
사다리를 붙잡아 주시며 어린 아들 오르게 하시던 일
그날도 맑았다.
사다리를 붙잡고 서로를 오르게 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이 짙막한 시간들이
오래 생각난다.

별

이 상 국

해질녘 설악에는
많은 산들의 집이있고
어둠이 첫등 내거는 미시령에는
내 아는 별이 사는데
오늘은 날이 흐려 만나지 못하고
그 이름만 부르다 돌아 왔습니다.

농 심

이 만 진

버려진 쭉대밭
속 울음
풀고 가는 바람

돌 냇물 소리
세월은 서럽고

마른 입술 속에
가래처럼 끓는 노을
농심 목줄기
노랗게 태운다

한계령 밤안개

김 신 향

수도없이 넘나든 산천의 사연을
연륜의 아린 가슴으로 안은 한계령
아픔만이 아픔을 서로 꺼안 듯
문상(問喪)의 상처로 인해 맺어진 우리
먼 하늘벽 층층이 못 질러 우는 마음으로
십이월의 고개턱에서 언등 비비는 슬픔
침묵의 한이 몹시도 적막해
하늘이 되어 흐르고
바다가 되어 흐릅니다
하늘은 다시 어둠 깊이로 감기고
바다는 다시 목마름으로 길게 누워서
어긋난 추억에 몸부림칩니다.

사랑이 겨워
그리움의 한쪽 끝으로만 축축히
번지는 짙은 눈물

무 공 화

김 신 향

함께 거(居)하는 날

서로 가슴이 무너져 물구슬로 아파올 때
우리는 하나되어 뜨거운 새아침을

목이 타는 마음 실명으로
세상이 어두워 올 때
우리는 하나되어 영화로운 꽃을

그리하여
봄날로 흐르는 영혼의 십자가가 쓰러져 올 때
우리는 한마음 한뜻되어 절대 사랑으로

광 경

김 신 향

1998년 1월 어느날 오후 춘천 명동거리
가까이 눈 앞에 펼쳐지는 한쪽의 수채화는
온통 무채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영금 영금 십자가 걸머진 육체
찬기 가지지 않은 지구에 끈질긴 목숨걸고
영혼의 들림으로 생존하는 너의 모습
고무때기로 잘려나간 생채기 꿰매지은 옷
되는 대로 걸치고 들려주는 고단한 아리아는
인생의 진한 향내음 몽클하며
살아있음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애
움직이는 의지 유채색으로 토해낸다.

웅성거리는 좁은길
가면속에 동전 한 닢 툭 던지는 사랑
쌀쌀한 겨울바람이고 눈멀은 양심으로 스치는 사랑
에덴동산의 원죄로 회개하는 참회의 눈물인 양
혈벗은 자 위해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사랑이 숨막히게 호흡한다

좁다란 대광주리 이음새마다

울음찬 먹구름 폭폭 맺혀
눈에는 눈물이 흔들리는 볼줄기 타고
꼬옥 다문 입술을 적신다
아 고르지 못한 현실 공기
사악으로 무관심 속에 영영 버려지는
처절한 아픔을 그네들은 아는가

대 나무

김 신 향

한 마음의 물동이는
늘 비어 있습니다.
그리움의 이슬을 따서
저 산굽이를 손짓하건만
바람의 낙엽을 모아
묵화를 그려보건만
한 마음의 물동이는
늘 비어있습니다.

가까올수록 상처가 깊다

김 신 향

하늘이 열린 만남의 향기로
너와 나의 마음이 멀지 않다고
늘 그리웁게 믿어 왔는데
순간순간 서운한 울림이 소리죽여
언 강물로 부서진다
목숨 잃어도 좋을 푸르른 오늘로
세상 품안에서 눈물 거둔 별이 되길 바라
꽃같이 믿었던 꽃같은 날들만큼
돌아온 아픔의 자리가 너무도 깊어서
그 상처 여민 노래 밝혀 우는 노을
천형(天形)으로 외로운 사랑을 떠나 보내며
꽃잎으로 흔들리는 숨결을
굳게 끌어 안는다.

이 야 기

김 규 중

어설푼 솜씨로
끓어 먹기도 많이 하고
수 없이 잇고 이으며
우리 가족 이야기를 곱게 물들여
무명 보자기에 수를 놓는 그대
화려하지도 맵시도 없지만
정성으로 심어가는 이야기를 보노라면
그 어느 곳에 있던
“우리 애기 오늘 엄마라고 불렀어”
낭낭한 목소리가
아침을 터트린다

가위 바위 보

김 규 중

돌만이 갖는 행복
돌만의 속삭임

이기고 지고 비기고
또,
이기고 지고 비기고

그 속에 진실이 숨쉬고 있다
미워하지도
증오하지도 않는다

가위 바위 보

우리들의 밀어가
오선지를 차곡차곡 채운다

기억

김 규 중

싸릿대 꺾어 낚시매어
메기 바위, 빠가사리 굴, 찾는 아이들
내린천이 좁다

허물이 벗겨져
희무꺼무한 등짝으로
하루해를 받아내며
버들가지 꿈지에 꿈을 꿰어 가는
보쌈 속의 셰리 보다 빛나는 눈 빛의
아이들이 보고 싶다

추억

김미애

타향살이 하던 바람
누가 볼새라
간밤
소리없이 찾아 왔건만

기다린다던 그는 없고
후회스런 눈물 뿐
미농처럼 얽은 숨결로
미명의 대지에 촉촉한 몸짓으로
내려 앉는다

아니었다고 묻어놓았던 추억
생각만해도 병긋이 웃음이 묻어
나오는 그때, 그니
아름다웠지...

만성환자

김 미 애

이유없는 가슴처럼
처방약이 없다

이 계절이 지나면
또 다른 증세의
가슴처럼

먼 기억속

김 미 애

어릴적 별로
이쁘지 않은 덧니와
쏘아보는 눈빛으로
우울증에 걸려있었지

동심의 모습이 아닌
현재의 내가 싫어
반항하듯
거친 머스매들 하고만
뛰어 놀았지

주목받지 못한
소심 함으로
늘 외토리

그래도
조그만 가슴속
작은 불씨 하나
키우고 있었지

딱정벌레

박 돈 구

검은 안개 휘날리며
거리로 거리로
도시 숲을 헤치고 달리는 딱정벌레

밤이면 하루의 피로를 잊으려
찬란한 네온 뒤에 기대어
화려한 춤들을 추어대지

술은 인생을 빼앗고
미래를 예언하는 마약
취하면 헤어나지 못하는
도시의 열정같은 올가미

사람들은 저마다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고
밤거리 뒷골목 누비며
헤엄치듯 광란의 추배를 올린다

축복같은 어둠은
거리를 묻어버리고

기다리지 않는 신호등
슬며시 얼굴 내미는 불청객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싸늘한 아스팔트
외로이 불타오르는 딱정벌레

만 남

박 현 순

저 낮으막한 키에 온달같은 얼굴
생명부지한 나에게 몸을 구부려
낮게 낮게 구부려
정을 주는 그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싶어 했던 이 사람
내마음을 읽은 듯
포근히 안겨도 보고 싶고
사랑을 받고도 싶다고

가슴에 담은 단 한마디
내어찌 심금이
철렁 안할손가

남은 세상 쪽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남은 인생 쪽
그렇게
살고 싶다고

美山里에 가면

서 충 규

설악산 기슭 천혜의 비경

美山里

청정 계곡수가 꼬리치며

용트림을 한다

번지동에서 고목동을 우회하여

구름타고 구비구비 해쳐나가니

백년목은 老松이 천둥에 놀라

쓰러져 있고 깊은 계곡 기암사이

청정수가 정적을 깬다

소개인동 지나 대개인동

천년목은 주목 가문비에

병풍처럼 둘러 싸여

아늑히 자리잡은 개인동 약수

위장병에 효험있어

알려진지 오래다

첩첩산중에 車道가 열렸으니

피서지, 등산코스 각광받는

숨겨진 신비를 벗는다.

자반고등어

윤 영 희

자반고등어 한손 사들고
번듯한 카페와 유혹의
가요주점을 지나
처마 밑 좌판에 앉았다.

에누리, 흥정
인정치, 덤이 사라져가는 세상
시장골목 좌판에 앉아
정씨 아줌마 손수 내다 파는
올챙이 국수, 열무 김치 곁들인
순대국에 인제 막걸리 놓고
무진무진 취해보고 싶다.
살기 힘들어 졌다는 요즘
올 추석 명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나
삶에 지친 우리들 모습에서
정씨 아줌마 인정미, 속사정에
들고 있는 무엇인가라도 토막내어 주고 싶은
가난한 이 세상 술을 마신다
원통 저잣거리 애뜻한 삶이 저며 버린곳
가을비, 찬비가 내린다.

이비 가고나면 저녁노을 해진 너머로
단풍뿔 하나둘 기억 끝으로 사라 지겠지
길 잃은 철새들은 못내 아쉬운 슬픈 눈을 하고
험한 안개속 어디로
떠나가야 하는가
자반고등어 한손 사들고
시오리 빛길을 걸었다.

합 강

윤 영 희

백담에 굽이치는 물굽이 흘러흘러
불가에 일념불생 시련은 온데 없고
합강에 긴머리 풀어 업고가는 인북천

깊은골 내린천에 별들은 흘러나와
덧 없는 긴긴밤을 하얗게 비추는데
볼시린 시인의 아내 삶 만큼 아름답다

인북천 내린천이 합강에서 끌어안 듯
사랑에 번뇌없는 달덩이도 합장하니
속세의 고된 몸짓이 너희처럼 닮았다.

어한기

이 창 준

아직도 그대가 떠나지 못한 그 곳엔
겨울이 일찍 왔다
어한기 길어질수록
낫술 붉게 달군 바다 근처 사람들
살아가는 일에 대해
조개처럼 입을 달고
공으로 먹는 풋풋한 삶을 떠 놓으며
마른 눈물을 삼켰다
어한기 묶인 목선
긴 겨울나기 동안
그대의 겨울은 이렇게 깊었나 보다
그해 겨울
푸른 잠 속으로 등대 없이
아버지는 어맥을 찾아 깊은 곳으로 천천히 흘러 가셨다
누가 말하고 싶었겠는가
바다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러 해
하늘 저쪽 길 일러준 사람 없어도
오늘 바다의 노을은
늙은 수부의 일생을 닮은 것인가
여보게
출항은 언제 하는가
안부 같은 인사가 그리워진다

사람의 집

이 창 준

날품 팔고 귀가하는 구부정한 어깨너머
산동네 반딧불만한 고만고만한 불빛들
저기 낮설지 않은 집 한채
일찍 돌아온 누군가 불 밝혀 놓았구나
언제 부터였던가
겨울 올 때마다 외출을 꺼려
마른 몸 웅크린 달팽이 잠에 더는 키가 크지 않고
내일의 무게 위에 희망이란
부풀다 터지는 고무풍선 같아서
한번 자리를 옮겨 앉을 때마다
어둔 골목 모양 없이 세워진 가로등
그 가로등 길을 가장은 쓰러질 수 없다며
귀가 시간 늦어지는 오늘, 우리 아버지

방 한칸 늘리기 위해 고개 많이 꺾기 셧구나
거북등을 닮으셧구나

지상에 집 한채 세운다는 것
방앗간 참새 이야기도 아니고
갑자기 부자가 된 보물선

그 섬에 들어가 보물 찾는일 더욱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손에 못 박히고
지문 다 닳도록
정직한 일상에서 얻어지는
짐 진자의 수고 임을 알기에
집들은 그런 아름다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구나

패랭이 꽃

이 창 준

인적드문 산과들
척박한 땅위에
볼품없이 흔해 빠진
키 작은 패랭이 꽃
눈물 다 타버린 자주빛 멍
모질게 예쁘게도 피었구나
우리네 민초(民草)들의 열
하여가(何如歌) 부른 세상에서
아리게 아리게 아픈 좃만
毒처럼 폼었구나

물치항에서

이 정

소금기만 먹고자란
방파제에 서면
머언 남아프리카 어디쯤에서 내민
낮설지 않은 손을 잡고 싶다

뻘 맞고 돌아누운
멍든 방파제에 앉으면
산바람 바닷바람 대작하는 자리
허리 휘감고 떠도는
술취한 바람만이 사는데
하루에 한 뼘씩 자라는
방파제 따라 걷다보면

어디쯤에서
내민 손 부여 잡고
삭은 콘크리트 옛길 걸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물 봉 선

이 정

샘가에 피는 꽃은
샘을 닮는다

뿌리 타고 풍풍 솟아오르는
꽃망울
쪽바가지에 띄운 꽃잎
입술 스치면
가슴에는 보랏빛
불이 붙겠다.

샘가에 지는 꽃은
눈물도 많아
흘로서면 가슴시려
무리져 살면서도
저마다 고개돌려
눈물 길어 올리는 꽃
보랏빛 눈물받아
한모금 마시면
가슴에는 새까만
재만 남겠다

샘가에는
기다림에 익숙한 꽃만
피고 지겠지.

가을

임 동 수

나에게 모든 것은 떠난다
습관은 애써 문을 닫는다
또 다시 문을 닫을 때까지

언제나 가을은 별에 걸린
달력의 풍경사진에서 구름을 만든다
전염병처럼 단풍은 낮은
곳으로 떨어지며 하루하루
날짜 위로 건조한 사연은
아주 낮게 단풍잎 색깔로
세상에 버려진 가을 강물에 흘러간다.
습관은 참으로 무섭다
몇번이고 적은 편지를 강물위에
버리며 다짐을 한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어쩌다 한번 편지 화장시키는
중대한 사건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습관은 다짐 뒤에 은빛하늘
낮은 구름에 내려 놓으며 비를 던진다.

나는 비의 노예
어쩔수 없이 가을 종이
위에 비로 울타리를 만든다.
조금 후면 울타리 안에
온통 낙엽으로 가득차고
오르가즘 게릴라 98
사람들은 저마다 한권씩
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낙엽을 주워 책 속에
박제를 만들고 책속의
거리에서 사랑을 한다.
사랑을 하고 싶다.
구름처럼 메달린 단풍나무
아래서
단풍잎이 물들면 나는 아주
빨간 사랑을 하고 싶다.
가을 하늘을 기둥처럼 버티고
누군가의 나무 아래 석양을
담아 차를 끓이는 찻집에서
사랑을 하리라.

내년에도 가을은 또 세상을
걸어다닌다지만
가을 향기는 나만의 것은
아니다.
가을, 나는 가을에 습관을
배웠다.
습관 속에 들어 있는 가을

가을은 종이 상자
상자에 머물던 바람이
거리를 떠난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임 동 수

이곳의 건물과 공장은 낯설다
이곳의 거리와 사람들은 낯설다

어색한 눈은 특징있는 간판 몇 개 주머니에 넣고
여인에게 메모된 주소를 묻는다.
낮선 음성은 짜갑다
낮선 바람 속에 소금이 섞여있다.
모든 것이 저려 있는 것 같다
가로등에 불이 켜지자 어디서 날아온 비늘과 소금은 등등
함지에 별과 달로 포위당한 거리에 공장들은 기계를 멈추고
사람들은 우르르 철문을 나온다
저들에 의해 내 그림자는 형체가 결릴 것이다
저들 피하기엔 이곳은 너무 낯설다
골목을 지나는 지름길은 저들 만의 보행이 허용되리
여공들은 월급을 받은 듯 락 카페와 부츠를 선택하고
내 그림자를 밟고 골목으로 사라진다.
제법 큰 골목. 서너 대의 자동차가 정차한 대낮같은
어딘가에 오늘 밤을 즐기리라.
익명의 얼굴들 익숙하게 나를 지나 택시를 탄다
목적지를 향해
나도 택시를 탈 이유가 있음은 수첩에 적힌 주소가

빠르게 떠 오르지만 목적지는 미로
이곳에 나를 아는 단 한 사람 있지만
낮선 어디에서든 즐기지 못하리
그는 이곳을 떠나 먼 지방에 있다.
가슴에서 뜯겨지는 비늘이여
자정이 넘었다
여관 창문으로 어찌다 자동차 상향등 낡은 조명에
부딪 친다. 쓸쓸하게
옷걸이에 걸린 틀린 바지 길이는 슬프다
낮에 본 공원 베치 허름한 노파의 등 굽은 슬픔을
나는 이해한다.
많은 날을 엮으려 잠드는 이유
굽은 등은 볼록한 바닥이 그리울 것이다
상향등 노출된 바지에 쏟아진다.
그러나 어찌랴 저 옷 만이 몸에 딱 맞는
내 것임을 알고 입어야 한다.
비록 이곳은 낮설어도 친숙한 것 만이
내 것이겠지

인천 광역시 서구 가좌3동
처음 와 보는 낮선곳

사랑하므로

조 해 숙

사랑하므로 얻어진 기쁨
고뇌하여도 좋을
세월의 늪을 거쳐
백년동안의 침묵을 깨고
등불 환히 밝힌다.

나는 너에게서
너는 나에게서
가까이 있음에 더욱 행복해
멀리 있음에 더욱 숨차 오르는 사랑
영혼은 노래 부른다

그대 돌아서지 말고
바로 걸어서 가라
우리 살아가는 동안
서로의 흔들림 조차
사랑하므로...

사랑은 사랑으로

조 해 숙

사랑은 사랑으로 받는다
사랑하는 만큼 받는다

내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달 될 때 받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나를 생각해 보라

사랑은 줄 줄 아는 자만이
누릴수 있는
영원할 수 있는 자의 기쁨

五 月

조 해 숙

새 물 바람 한 단 풀어
향기로 마셔대던
그을린 손등의 보리이삭
사이로 배어나온 젖은 속살
책갈피에 소복히 자리
살구꽃 피듯 핏기가 돌고

어느 간이역
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내 그림자에 포개어진
낮선 그림자 하나
열병을 앓고

인생노름이나 하자 즐라던
믿음 하나 들고
소망하나 들고 사랑으로 빚어올린
긴 머리 빗질해 주던
옥색 어깨를 가진 불빛 웃음에
영혼의 땀땀 나누어
향기로 묻어난 두 장의 꽃잎이
내 빈 손에 넓은 앞의 속죄를 쥐어주고
두 그루의 나무가 되어 자란다

떼

정 준 교

기억 저편 끝에 뿌려진
씨앗에서 잉태된

희망으로 지어지고 활력으로 내달으며
사랑으로 결실맺어 영원으로 떨어진
초자연의 섭리에
찌들린 떼를 나는 입힌다.

내 영혼을 파는 만큼의 떼는
가벼운 바람에 실려
틈바구니 마다에 희석되지 않는
작은 흔적을 남겨 놓는다

흔적으로 벌어지는 고통이 울부짖음이
텅빈 껍데기로 남겨진
내 육신의 살점을 도려낸다

대청봉으로

정 준 교

나지막이 처놓은 울타리
그 너머로 사랑이라는 가명의
반질반질한 내 발을 옮긴다.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가만히 숨만 내쉬고 있는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기만을 바라는
그 모습이 탐스러워

짓누르고, 꺾고, 찌르고
내가 가지고, 먹고, 베풀다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본다.

“내가 침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모든 것에 대한 보답뿐” 이라고...

어느 날

한 성 산

꽃 물든
옷 벗어
종일 말리다
노을에 먹감고
돌아오는
날

진 달 래

한 성 산

그대 가슴에
滿開한
꽃
꽃
꽃

不眠의 밤

한 용 운

옹이진
속앓이를 감싼
아픔
아직
자투리로 남아
깊은 밤으로 흐르면
모닥불 처럼 타고
피고름 같은
흔적으로
뿌리가 삭는다

고 향

황 민 숙

거울 속에 고향 하나 있다
거울 밖에 고향 하나 우뚝 있다
백색 무명으로 맘 흘리는 고향
웃고 있는 그 사람도
울고 있는 그 사람도
하루 이틀
한 두 번씩
가슴 속에 사무치는
희미한 얼굴
조선무명으로 오직 사는
고향의 어머니가 그립다

그늘

황영희

미풍의 부드러운 손길에
싱그르르 푸른 잎들이 미소 짓고

뜨거운 태양이
녹음 짙은 그늘밑을 찾게 하듯이
어둠과 시련은
예수 그늘을 찾게 하나니

예수 그늘 아래에는
미풍의 보드라운 살결과
벼꾸기의 울음에 맞춰 지지귀는
방울새, 카나리아, 종달새의 기쁨겨운 소리가 있고
아카시아 향기가 날리고
시냇물의 조잘 거림이 있다.

예수 그늘 밑에는
솟아나는 샘이 있고
세미한 바람의 속살 거림이 있다.

시냇물속의 둥근 조약돌이

시련을 견디는 법을 말해주고
헤엄치는 고기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나 언제나 그 그늘 밑에 있어
안식을 누리리
영원히 그 그늘에 피하여
자유를 누리리

“어이! 어이! 애덜 나와라”

황 영 희

내가 살던 초가 집 위로
동근 달이 떠오르고
달덩이 만큼이나 큰 박들이
달 빛에 하이얀 꽃봉오리를 여는 밤

이웃집 아이들 소리
“어이! 어이! 애덜 나와라”

T.V 없어 그 소리 잘도 들리고
하나둘씩 아이들은 잘도 나오고

작은애 큰애 다 함께 편을 가르고

한 편은 감나무가 집
한 편은 팽나무가 집

같은 편 끼리 손을 이어 잡고
상대편을 막아 내며

상대편 집을 만지고 오면

한 살 더 먹는 나이 먹기를 한다

어느새 달은 중천에 떠 있고
아이들은 박꽃웃음 하얗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친구야

황 영 희

친구야
우리 옆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음악을 듣는거야
어깨에 손을 얹어도 좋아
이 험한 세상 살아 가는데
의지 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야
기쁨도 아픔도 나눌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잔잔한 기쁨이요
감동의 눈물이며
삶의 의미이고 싶다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너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손을 잡고 뛰어 줄 수 있는
두손 모아 기도 해주는

친구야! 너는
여름날의 산들 바람과도 같아여라

계곡을 흐르는 시냇물과도 같아야라
가슴 저 밑 바닥을 울리는 감동어린 음악과도 같아야라

내게 있어 너는
바람이는 꽃 보리밭 그 그리움의 물결이어라
낙엽지는 오솔길 이어라
산새소리 해 맑은 옹달샘이어라

우리 영원히 함께 걸어가자
황량한 들판이나
들꽃 웃는 동산 길이나
험준한 산골짜도
심금을 울리는 펜 파이프의 음색을 들으며
함께가자
사랑하는 내 친구야!

행복

김 규 남

오늘 따뜻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어깨위에 나를 놓고
하늘로 달리시던
아빠가 생각납니다.

흙먼지 보안손으로
과자 나눠먹던
그 친구도 생각납니다.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날
기다리시는 엄마를 보면
피곤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햇살이
곱디곱게 웃습니다

먼산이 비취는
앞강 영롱함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힘한 세상이 지칠 때
나는 이들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내말은 환해집니다

오늘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중독

김애림

이젠 내게 부탁해
울어도 막힌 타는 가슴 미쳐 버려가는 나에게
넌 다시 돌아와
그렇게 편한 미소로
내눈 멀게 했어
네게 이미 중독 되버린 난
어떻게 난 살수가 없어

내가 다시 설때면
너는 내가 닿을 수가 없는 만큼 뒤로 물러나
안타깝게 해
이미 지쳤을 땐 언제 그랬냐는 듯 살며시 다시
다시 다가와 나를 이리저리 흔들어 놓는 너
그래도 미워
할수 없는 너 네게 중독되었어

세상에 뿌린 사랑

계 정 희

이세상에
사랑이라는 씨가 뿌려졌네

누가 뿌렸는지, 누가 거들는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씨앗이
우리네 마음의 화단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으로 채우고 있네

씨앗이 흩어진 곳은

가족이 모인 자리의 작은 화단에
연인이 속삭이는 마음속의 화단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땀흘리는 자들의
머리위의 화단속에
사랑의 씨앗이 자라고 있네

사랑의 씨앗이 자라날
화단이 모인 그 자리에

사랑의 씨가 돌아날 곳이

이세상 곳곳에 들어 섰을 때

이세상을

사랑의 피로 묶고 있기를...

더 작은 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박 하 영

작은 종이배 하나 가지고 싶습니다
종이로 고이 접은 작은배 하나
두손 가득 전해오는 그리움으로
바다의 끝으로 떠나가는 그 모습
지켜보고 싶습니다

시들어 버린 작은꽃 한송이 가지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쁨위한 노력의 아름다움
손끝으로 고이 감싸
영원한 아름다움의 그 모습
지켜보고 싶습니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회색빛 세상
그 속에 홀로 서있는 작은 것들의 눈물
그 눈물이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커다란 하늘아래 잃어버린 순수…
어느 한곳에 자리잡은 그 얼굴 밝혀,

그 소박함 담아, 그 기쁨담아……
더 작은 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동 심

송 유 경

논두렁 버드나무 밑으로
뱀새걸음
꼬마녀석이 달려간다

삐걱이 싸릿문을 걷어차는 꼬마는
송글송글 맺힌 땀을
삼베수건에 문지르고는
우물속 꼬마얼굴을 길어올린다

썩아~ 겨드랑이 사이로
썩아~ 목덜미 사이로
얼음골이 따로 없다

그리고 대청마루엔
우물물을 흠뻑 머금은
수박 한덩이

꼬마는 햇님다운 수박을
서산은 수박다운 햇님을
삼켜버렸다

까만 크레파스로 칠한
하늘 가득히 반짝이는 별들이
햇님을 대신하고
꼬마는 어느새
할머니 무릎 위에서
눈을 감아 버렸다.

내 곁엔

신혜빈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
공허한 느낌
아무도 없는 이 느낌
누굴 찾아 헤매며 다닌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았던
마음이었지만…… 떠나 버린다
하지만 나에겐 늘 곁에서 지켜주는
많은 이들이 있다
그 이름 바로 친구라는
나 슬프고 외로워도 감싸주는
그런 친구가 있기에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반성 - 체념에 대한 반성 -

이 윤 미

시간이 지날수록
체념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

체념의 등 뒤로
더욱더 무너져 가는 우리들

우리들의 현실이 힘겨워
삶에 쓴 눈물을 비취본다

풍요가 가득하던 그때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매서움

결국 우린
실패와 좌절에
빠져 버렸다

하지만

힘겨워 흘리는 쓴 눈물보단

가뭄을 이겨내는 단비처럼
내딘기를 멈추게 하는 한숨보단
구슬 땀을 닦아주는 사랑 바람처럼

어딘가에 있을
우리들의 행복을
되찾기 위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체념하는 사람들이
이 순간을 빨리 잊는다면
정말 행복이란 두글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나무

이 정 선

한가지를 향하던 탄탄한 가지는
옛처럼 푸르고 곧은 가지가 아니다
단지 연약함과 다름 바가 없다

바람불던 방향이 바뀌면 머리가
달라지는 갈대를 어느새 닮아가는
모습이 옛날의 명성도 잊은 듯 싶다

앞서서 힘들던 어려움도 이겨냈는데
잠시의 혼동을 이기지 못하니
한결같던 의지는 어딜가고 없는가

푸르디 푸르던 한결같던 의지를 다시 찾는날
우리는 밝은 빛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멀디먼 그 날이 오늘만은 아쉽다

낙엽

정 훈 실

한세상
푸르게 살다
조용히 사라지는
삶의 한 조각이여
그대는
허망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은
영원한 푸르름이라
그대와 같은 길을
나, 함께 걸으며
삶의 노래를
부르리라.



제4회
'98
년
환경문예
공모
입선
집

1. 시 - 어젯밤 꿈
 맑은 공기
 자연을 위한 비망록
2. 수필 - 아름다운 강원도의 힘
3. 산문 - 지구가 아프데요
4. 수필 - 자연과 더불어 모든것을
 사랑해야지
5. 동화 - 다시 태어나거든
6. 동화 - 행복마을의 만세소리

어젯밤 꿈

상병 김 현 규
(제125 야공대대 1중대)

어젯밤 꿈을 꾸었다.
푸른 하늘에 날아다니던 철새들
파란 잔디위에서 뛰노는 아이들
맑은 시냇물에 떠다니는 물고기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나무 그늘에 앉아
아카시아 향을 맡으며
나는 풀피리를 불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쾌쾌한 공장매연 희뿌연 하늘
검은 아스팔트 위에 수많은 자동차들
메마른 시냇물에선 악취냄새…
오늘도 잠을 잔다.
어제밤 꿈을 꾸고 싶다.

< 시 >

맑은 공기

이 자 현
(인제 초등학교 3년)

깨끗한 마을
맑은 아침

산들이
맑은 공기 이불 걷어차며
깨어났어요.

아이 시원해
기분이 좋아

우리 마을 푸른 강산
걱정 없이 살 수 있네

“맑은 공기야 고마워
깨끗한 마음을 지킬게.”

자연을 위한 비망록

병장 김 성 진
(제3135부대 203중대)

동녘에 떠오르는 태양의 강건함을
태고적 조물주가 예술로 승화시켜
이 땅에 찬란한 자연 창조의
조각 꿈이 탄생 되었나니
어루만지듯 부드러운 손길로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이 세상에 무한히 부려주고 싶어라.

수려한 금수강산의 기상과
사시사철 변모하는 화려한 자태가
오천년 민족의 영혼이 되어
역사의 발자취를 형성시키는

싱그러운 햇살의 기운을 잉태하며
미백의 산소방울로 가슴을 정화시키고
향토색 물씬 풍기는 흙내음에 취해
자연 예찬의 극치로 변모하는

사치스럽지 않은 순수함을 전시하며

때론 성난 폭풍우에 화를 표출해도
아김없는 희생을 숭고한 심정으로
지상의 만물을 굶어살피는 그대.

현세의 허황된 과욕과 무관심에
돌이누운 실개천이 피를 토하고
천상의 샛별로 자취를 감추어 버린 채
천하는 포악스러운 발버둥을 친다.

매캐한 먼지 속에 잃어버린 진실과
추잡한 수증 속의 일그러진 아름다움
빛 바랜 황토 빛에 타락해 버린 윤리가
자연의 생명력을 빼앗아 버리고 마는.

다시금 피어나는 환경을 만들고져
살아있는 세상과 호흡하며
변함없는 愛情의 속삭임으로
산천초목은 푸르름을 더 해 가리라.

아름다운 강원도의 힘

병장 홍 성 현
(제3135부대 203중대)

내가 회색빛 도시를 떠나 이곳 강원도에 와서 푸른 제복을 입고 맞이하게 된 계절도 벌써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다시 봄이 지나간다. 처음 이곳에 올때만해도 그저 여름철이면 한번쯤 놀러가는 곳, 막연하게 산을 좋아하는 나는 그대 산이 있어 산에 왔듯 이곳에 왔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첩첩산중의 아침과 새벽을 맞이하며 자연의 신비함에 한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책에서만 보아온 별자리, 이름 모를 풀들,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까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기한 자연박물관이라고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신비하고 아름다운 산하를 못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고 버린 많은 음식쓰레기, 길거리에 나뒹구는 담배꽂초, 누가 볼까 두려워하며 몰래버린 많은 사람들의 양심들...

이것은 버린 사람의 양심뿐 아니라 자연 즉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땅 지구, 물론 지금은 우리의 것이지만 다시 우리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듯이 언젠가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리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급급해서 잊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나는 군에 입대해서 운이 좋게 부대에 전입해와서는 환경관리를 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운 학문을 실제생활에 옮겨 직접 느껴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되어 무척이나 기뻐다. 여러 부대를 돌아다니며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나 개선 및 조언을 해주고 또 처리시설의 물을 채취하여 환경기준법에 맞는 방류수 수질인지를 평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진정 우리의 환경에 무관심한 것을 또 실천보다는 생각에만 급급해 하는 것을 보며 조금은 씩씩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또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환경에 관한 문제는 비단 군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다시금 맘속에 새겨야 한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환경관리기술이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하고 폐자재의 재활용기술, 환경오염 방제기술 등 첨단기술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또 국가의 공공관청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절실한 필요와 욕구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들이 숨쉬고 생활하는 환경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해서 환경에 무관심한 채 기업체에서는 이윤추구가 최고의 목적이므로 환경이야 어찌됐든지 오직 돈만 벌면 되고, 가정에서는 설거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귀찮으니까 젖은 것, 마른 것 구분하지 않고 마구 모아버리기, 또 '나만 버리나' 하는 안일한 이기주의가 우리의 환경의 숨통을 조여오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우리인간의 존재 여부에 까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목숨을 값아내고 있다. 나는 한때 취업을 하기위해 환경부문을 지원하면서 갈등을 한 적이 있었다. 제약회사나 건축회사에서 주력업종이 아닌 관리업종인 환경부문으로 그 회사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없어 그 조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 또한 그렇듯이 여러 사람들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은 실지로 환경보호의 일선에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군부대 수질측정을 하면서 어느 부대를 가보게 되었는데 비록 많은 돈을 투자하여 세운 자동화된 표준시설이 아니라 사병들의 노력으로 벽돌 하나하나, 자갈과 모래로 반듯하게 만든 간이 오수처리시설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과 정성이 깃들어 있음을 보았다. IMF로 줄어든 부대운영자금이지만 작은 정성과 관심으로 오·폐수의 처리단계를 늘리고, 중금속이나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부레옥잠, 미나리짱, 갈대 등의 수생식물을 심어놓고, 여러 겹의 망을 설치하여 음식물 찌꺼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스폰지나 왕겨, 신문지를 이용하여 기름을 제거하려고 하는 하나하나의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군부대에 해당되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작은 실천으로 행동하여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든데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음식물 찌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남은 쓰레기는 흙과 섞어 발효시키면 질 좋은 화훼용 유기질비료가 될 것이고, 폐식용유를 모아 비누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고, 폐지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분리하는 작은 성의를 잊지말아야 할 것이고, 기업체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폐자재의 재활용기술의 도입 또 제품생산 효율증대를 통하여 버려지는 원자재비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에 관심을 더욱더 쏟아야 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준 자연의 유산을 가진 강원도, 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은 이곳에서는 좀더 이 좋은 유산을 보전하고 아끼는 노력이 조금만 더 기울여졌을 때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의 강과 산 그리고 하늘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난 올해 마지막으로 수질측정을 마치며 첫휴가를 나갔을 때의 생각을 해보았다.

강원도에서 생활을 하다가 서울의 탁한 공기를 마시고 두통약을 사먹어야만 했던 일, 또 흔들리는 네온사인 속에서 새벽녘이면 보아왔던 반짝이는 샛별의 아름다움.....

이제 몇 달 있으면 나는 다시 회색빛 빌딩 숲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 새벽이슬 맞으며 보초설 때 머리와 마음까지 맑게 해주던 강원도

의 푸르른 밤의 내음, 뭉게뭉게 산자락을 휘어감던 산안개, 여기저기 종알대는 산새들의 지저귀는 잊지 못할 것이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색깔의 옷을 갈아입고 다소곳이 우리를 반기던 크고 작은 산봉우리도 밤하늘에 떠있는 북두칠성만큼이나 오래 아주 오래 나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언젠가 내가 생활에 지쳐 문득 희뿌연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 볼 때 내 마음,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날 반기는 곳, 강원도. 그것은 진정 아름다운 강원도의 힘을 것이다.

지구가 아프데요

김 보 영
(인제남초등학교 6년)

내가 4학년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이다. 우리 가족은 도시락과 간식거리를 싸서 들고 강가로 놀러갔다. 그런데 그곳은 꼭 하수구 물같이 오염되어 있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깨끗했었는데……. 그때 물엔 기름이 뽕뽕 떠 있었고 개구리도 못살 것 같이 오염되어 있었다.

우리는 살면서 자연과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자연의 고마움을 모르고, 자연을 마구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다.

얼마 전에 TV에서 물이 모자란 나라를 보았다. 우리나라는 씻고 싶을 땐 언제든지 씻을 수 있고 목이 마를 땐 언제든지 마실 수 있지만, 그곳은 달랐다. 그런 물이 없어서 펌프를 돌려 물을 뽑아내어 쓰는데 그런 곳도 몇 군데 밖에 없어서 한참이나 걸어서 몇 시간이나 기다려서 물을 길어갔다. 또 펌프도 고장이 잘나서 물이 끊길때가 한 두 번이 아니고 깨끗하고 맑은 물도 아니었다. 이 프로를 다보자 엄마께서는

“보영아! 우리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돼. 저런 나라 봐라. 물이 귀해서 씻고 싶어도 맘대로 씻을 수도 없잖니? 너도 목욕하기 귀찮다고 할 때도 가끔 있지?”

창피한 일이지만 사실 나도 목욕하는 날인데 목욕하기 싫고 귀찮아서 피부린 적도 전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나도 그런 생각을 반성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물이 있는 나라라는 것에 감사해야겠다.

전에 벌써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우리의

자연을 힘들게 하고 있다. 나도 알고는 있었지만 ‘나 하나 버린다고 뭐 이곳이 더러워지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쓰레기를 버린 적이 있다. 정말 끝이 안보이는 바다에 국민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하고 생각하며 사이다 1캔을 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1캔 아니, 1순가락씩만 버린다면 바다는 상하고 말 것이다. 반대로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한다면 자연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너도나도 버리는데 나하나 한다고 자연이 깨끗해지겠어? 나 하나 한다고 우리 자연이 깨끗해진다 하면 하겠지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나 하나하면 자연이 살아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그런 생각으로 생활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요즘 TV에서든지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쪽지 등의 「라면국물 1컵을 깨끗하게 하려면 물 몇 톤이 필요합니다.」 「우유 1컵을 정화시키려면 얼만큼의 물이 필요합니다.」하는 말들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집에는 개가 2마리가 있어서 우유나 라면국물이 남으면 개들이 다먹어준다. 그래서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이라면 최대한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여름방학 때 아빠, 오빠와 물가에 놀러갔었다. 그런데 아빠께서 막하려고 할 때 오빠에게 쓰레기를 주며 올라갈 때 가져가라고 하셨다. 그런데 오빠가 귀찮아서 버리고 왔다. 그러자 아빠께서는

“국민 하나 하나가 너도나도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의 자연은 어떻게 되겠니? 우리라도 자연을 살리는 데 힘써야지…….”

하시면서 오빠에게 다시 내려가서 가져오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나도 오늘 이 글을 쓰면서 다시 다짐해 본다. 우리를 살리고 보호 해주는 자연! 생명수인 물을 오염시키지 말고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후손들까지 영원히 자연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자연을 보호하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였다.

병들어 가는 지구, 우리 손으로...

이 현 정
(월학 초등학교 6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얻는다. 가구나 책상 등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목재를 얻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맑은 공기와 맑은 물도 얻는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자연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던 자연이 점점 더러워지고 아파하고 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자연을 도와줘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자연이 더러워지고 아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이 아파하고 있는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소상히 밝혀보자.

첫 번째로는 대기오염이 있다.

머리에 바르거나 뿌리는 스프레이, 무스, 젤에서 나오는 프레온 가스가 공기중으로 올라가 비가와도 없어지지 않고 지구의 보호막인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구멍을 통해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자외선이 마구 들어와 오존층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던 피부염이 생겨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과 공장에서 쓰고 남은 연기를 정화시키지도 않고 공기중으로 내보냄으로서 대기오염을 더욱 부추이고 있다.

두번째로 수질오염이 있다.

옛날에는 물만큼은 마음놓고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까지도 의심

하고 정수기에 걸러먹는 등 물이 오염되었다.

그리고 수질오염으로 인해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폐죽음을 당하고 등이 굽은 물고기가 생겨나며 갖가지 희귀 물고기와 천연 기념물인 귀중한 물고기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지난번에는 유조선에서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가 나라 안에 논쟁이 되었다. 그 때문에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죄없는 많은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했다. 또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합성세제 때문에 물이 더욱더 오염되었으며 공장의 더러운 폐수를 정화시키는 비용 부담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수구로 내보내는 습관화된 버릇이 우리 자연을 망가뜨려 놓은 것이 아닐까?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도 있듯이 환경보호에 어긋난 행동을 고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둔다면 언제까지 자연을 병 속에 빠뜨려 놓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세 번째로 토양오염이 있다.

농촌에서 농약을 아무데나 마구 버리고 땅에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어서 점차 땅이 썩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곳에 쓰레기를 가져다가 묻으면 몇 백년이 지나야 썩는 비닐, 캔 등이 토양오염을 더욱 심각한 상태로 몰아내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인해 엘니뇨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채 지낸 것과 같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온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공장도 많이 들어서서 우리들의 생활은 무척 편리해졌지만 자연의 건강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자연이 숨쉬는 소리,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서로 힘을 모아 병들어 가는 지구·자연을 살려내야 한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손상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수질 측정을 하면서…)

상병 이 류 환
(제3135부대 203중대)

내가 태어난 곳은 산골 두메마을, 태어난 바로 그 해에 대도시로 이사 와서 자연과는 친숙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빌딩 숲 사이의 아스팔트를 헤메이다 지쳐 집에 들어가고 잔디밭 한 번 번번이 밟아보지 못하면서 살아왔다. 그런 나 이기에 자연의 소중함을 몰랐다. 하늘은 회색빛, 물은 암흑색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 뉴스에서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왔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회사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어느 지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고,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고, 동해 바다에는 적조 현상으로 어·패류들이 폐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설 곳을 잃은 철새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살 곳을 잃은 물고기들은 기형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면 ‘쫄쫄, 저러면 안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때 뿐, 이런 것들이 나에겐 전혀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하루는 중학교때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냇가를 오랜만에 찾았는데 냇물은 검은 거품이 일고, 악취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여서 코를 두손으로 막고 ‘한때 친구들과 먹을 감고 놀던 곳이었다는데 이렇게 까지 오염이 심각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산업이 발달하려면 어쩔 수 없겠지.’ 라는 짧은 생각으로 등을 돌려 나와야만 했다.

이런 방관과 무관심 속에서 살아온 나였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현실 속에 살아왔고 살고 있을 것이다.

먹고살기 바쁜 시절의 과오가 아니었나 싶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몇 년 전부터 환경 단체의 목소리를 빌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실천할 수 있도록 앞장서며 그 결과 누구나 한번쯤은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작은 행동을 큰 소리로 되고자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와야만 했다. 그 환경 단체의 목소리가 요즘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IMF체제의 여파인지 경제 살리기에만 여념이 없고, 환경·자연 살리기에는 안중에도 없다. 자연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을 살리며 함께 경제를 살리는 것이 IMF체제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앞길을 내다보는 현명한 국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나도 현명한 국민이 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환경 단체의 목소리를 더 키우지 못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도 해 보게 된다. 내가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된 것은 군에 입대한 후였다.

훈련소에서 마치고 집과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 부대로 왔을 땐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산과 나무 계단식 논과 밭 뿐인 곳. 강원도가 싫었다. 나에겐 아마 빌딩 숲이 더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까? 하여튼 집과 가족, 친구들이 너무나도 그리웠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서 맑은 공기, 지저귀는 새들, 푸르게 푸르게 변해가는 내 주위의 모든 것들에 대해 나도 모르게 마음과 눈이 열리는 것 같았다. 이것이 자연의 힘일까? 사람은 자연의 일부일 뿐일까? 라는 생각마저 듣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군에 적응을 하고 군 생활에 정신이 없을 때 우연히 수질 측정이란 임무를 맡게 되었다. 자연의 일부인 물에 대해 좀 더 친해 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군에서 한가지라도 더 배워 간다는데 내게는 더 큰 의미가 있어 수질 측정이란 걸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내게 환경 오염을 막아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줄 거라고는 몰랐다.

97년도 후반기부터 군단 예하 부대의 오·폐수 처리장의 시설을 돌아 보고 처리수를 채취하여 수질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장려 사항을 알려 주는 수질 측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질 측정에 필요한 실험. COD, BOD, SS등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배우고 더러운 물이 처리 시설을 거쳐 어떻게 정화되는지 하나, 둘 배워 갔다. 나는 주로 부대 내의 실험실에서 각종 실험을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시료 채취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었다. 하루는 드디어 타 부대로 가서 말로만 듣던 오·폐수 처리 시설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 않았던가! 작은 돌 사이에 물이 흐르듯 설치한 스크린조, 폭포와 같이 물방울을 일으키는 폭기조, 호수와 같은 침전조 등,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옮긴 것들이었다. 역시 우리는 자연을 이용하고 원리를 따른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은 표준 오·폐수 처리 시설이고 이런 시설을 갖추기 힘든 곳에서 초라해 보이는 간이 시설을 사용한다는 걸 알았다. 간이 시설을 보고 이런 것도 정화가 될까 싶었는데 방류수를 보고 약간 놀랐다. 어떤 것은 상당히 깨끗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부대로 돌아와서 직접 실험을 했다. 예상외의 결과가 나온 것도 있었다. 어떤 간이 시설은 표준 시설보다 수질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 수질 측정을 같이하는 선임병이 관리를 잘하고 시설을 똑바로 설치하면 간이 시설도 정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반면 제대로 된 표준 시설을 가지고도 운영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냥 방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물론 표준 시설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뛰어나다. 단지 정화시설에 대해 똑바로 알고 관리를 잘 할 때 자연의 힘은 우릴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창 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람이 자연의 가치를 똑바로 알고 그것을 이용하여 제대로 돌려주면 푸른 자연은 한결 같을 것을 ... 푸른 나무들이 내게로 달려오며 방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직 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연이 물을 정화시키고, 더러운 공기를 깨끗이 바꿔 주듯 자연이 스스로 풀어 간다고해서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 방관과 무관심이 이제는 범죄이다. 범죄에서 완전 범죄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완전한 성공도 완전한 실패도 없다. 그러나 자연은 완벽하다고 난 생각한다. 잎이 떨어진 만큼 그 다음 해에 또 새싹이 나고, 바다로 흘러간 물은 또다시 비가 되어 돌아오고, 이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자연의 힘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완벽한 자연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문명, 편리를 위해서 그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쓰고 버리면 그만이라 아니라 자연은 분명 우리에게 되돌려 준다. 썩어가는 물과 시들어 가는 공기를 보라.

후세에 물려줘야 할 공기, 물, 이 푸르름을 이제는 걱정할 때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바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난 고등학교때 배운 이 시를 좋아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시이다. 오늘 난 이 시를 이렇게 풀어보고 싶다. 우리는 정직한 자연에 부끄럼 없이 대해야 하며 모든 죽어가는 하찮은 물과 공기, 식물이라도 사랑하고, 자연에 대한 어떠한 것도 훼손하려 하지 말며, 우리가 주어진 길,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자라는 뜻으로 말이다. 그리고 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바캉스 시절이 되면 사람들은 산과 바다로 모두들 간다. 왜 회색 빌딩 숲에서 떠나려 하려는 걸까? 자연을 동경해서 일까?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운동주의 서시에서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받아들이고 저질러 놓은 것을 똑바로 처리할 때 우리는 자연에게서 항상 똑같은 푸르름을 느낄 수 있고, 편안할 안식처를 받을 수 있으며 자연과 동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다.

다시 태어나거든

상병 최 성 모
(제3135부대 203중대)

꽃이 살기 힘들단다. 아침 신문을 가지러 갔다가 엇듣게 된 얘기였다. 마당을 작은 화단에 심어놓은 우리 집 꽃들은 저마다의 투정을 늘어 놓다가 나를 발견하자 입을 다물었다. 나는 뭐라고 말하려다가 고개를 흔들고는 집으로 들어왔다. 우리 집에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얼마나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아마도 나이가 상당히 많을 할아버지 나무였다.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곳에 있었다고 했다. 뿌리가 하도 깊어서 뽑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도 함께 들었다. 할아버지 나무 옆에는 제 작년에 심은 작은 나무가 한 그루 있다. 동생과 나는 그 나무를 토끼나무라고 불렀다. 해서 우리 집에는 우리 식구들을 제외하고도 할아버지 나무와 토끼나무 그리고 여러 송이의 꽃들이 같이 살고 있다. 식구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 이 나무와 꽃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 아침을 먹고 TV를 보다가 마당엘 다시 나갔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할아버지나무의 팔에는 푸른 이파리들이 잔뜩 생겨났고 토끼나무에도 작은 잎들이 생겨났다. 꼭 아기의 치아와 같이 작고 귀여운 연두빛의 잎이었다. 토끼나무가 갑자기 재채기를 하며 말을 걸었다.

“에취... 에취... 아~ 내 앞좀 닦아줄래? 뭐가 잔뜩 묻어서 도무지... 에취... 재채기를 멈출수가 없어.”

“그래?”

나는 얼른 집으로 들어가 마른걸레를 들고나와 토끼나무의 팔 언저리

를 닦아주었다. 그러다가 나는 토끼나무의 작은 잎새 하나를 그만 떼어 내고 말았다. 나는 마치 내가 아픈 듯 느껴져 눈을 질끈 감고 어깨를 움츠렸다.

“왜 그래?”

토끼나무가 물었다. 토끼나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안 아파?”

“뭐가?”

“허허… 이거 많이 나빠졌는걸… 어흠… 이렇게 가다가는 큰 일 나겠어.”

“뭐가요?”

토끼나무와 내가 동시에 할아버지나무에게 물었다.

“아니다… 너희는 모르고 있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구나. 꽃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어흠.”

할아버지나무는 헛기침을 자꾸하며 혼잣말을 했다. 무엇인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친구와의 약속이 가까워서 나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번화가는 항상 나를 들뜨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여자친구와 나는 영화를 보고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왜 그래? 어째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예전같지 않은 내 표정을 보고 친구는 걱정스레 물었다.

“아니야… 아! 오래 전에 너희 집 마당에 심었던 나무 잘 자라니? 왜 같은 날에 우리 집이랑 같이 심었던 나무 말이야.”

“아~ 그거?... 오래 전에 죽었어. 물도 꼬박꼬박 주고 거름도 줬는데 금새 죽더라. 너희 집 나무도 죽었니?”

“아니... 근데 많이 아픈 것 같아. 꽃들도 그렇구, 큰 나무도 요즘 들어서 기침을 많이해.”

“꽃은 물을 많이 주고 큰 나무에게는 영양주사를 놓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

“아마도 금새 좋아질꺼야.”

친구와 거리를 걷다가 물었다.

“어째서 이곳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아마도 이곳이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들이 나무들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것일꺼야. 밤이 되거나 새벽이 오면 아마도 크게 들리지 않을까?”

친구와 헤어지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식사를 하고 마당에 나갔다.

할아버지나무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할아버지나무에게로 다가갔을 때 토끼나무는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별써 모두들 자는 거야?”

“아니... 모두들 아픈거란다.”

“예?”

“모두 아파서 힘이 없는 거야.”

“어디가 아픈데요?”

“우리들은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단다. 그것은 너희들과도 다를 것이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더 맑은 공기가 필요하거든. 꽃들이나 토끼나무같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구.”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해 보았다. 변화가에서는 목이 좀 칼칼했지만 밤이 온 마당에서 들이키는 공기는 상쾌하게 느껴졌다.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주 상쾌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란다.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속에는 해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같은 나무나 수물들에게는 큰 아픔을 주는 거란다.”

“아~ 할아버지... 그러면 주사 맞아보지 않을까요? 사람들도 아프면 주사를 맞잖아요. 나무들이 맞는 주사가 있어요.”

“생각은 고맙다만 괜찮단다. 언제까지고 약에 의지해서 살수는 없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당혹스럽게 이야기했다.

“글쎄다...”

“자동차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 자동차가 뿜어내는 연기들은 눈과 코를 무척 따갑게 하니까!”

“그럼 물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뿌리가 받아먹기에 요즈음 물은 너무 쓰고 칼칼하니까.”

“그렇다고 모든 자동차와 물을 없앨 수도 없는데…”

“그러게 말이다… 어흠!”

다음 날에는 비가 왔었다. 많은 비는 아니었지만 나무와 꽃들이 젖기에는 충분하리만큼 시원스런 비였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나왔을 무렵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고 있는데 꽃들이 소리를 질렀다.

“따가워 죽겠어… 왜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안그래도 힘든데…”

“너희는 좋지 않니? 비가 오면 너희들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야? 요즈음 비가 얼마나 해로운데, 빗물이 몸에 닿으면 너무 쓰라리단 말이야. 그리고 먹지도 못해. 좀 칼카해도 수돗물이 훨씬 좋다구.”

꽃들은 많은 투정을 했다. 그러나 투정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투정이었다. 할아버지나무의 발밑에는 많은 잎사귀들이 떨어져 있었다.

“괜찮으세요?”

“으음… 나는 괜찮단다.”

“할아버지도 얘기 좀 하세요. 밤마다 기침하시느라 잠도 못 주무시면서 왜 맨날 괜찮다고만 하세요?”

꽃들은 할아버지나무에게 말했다. 내 생각에 할아버지나무는 많이 아픈 것 같았다. 옆에 있는 토끼나무는 아주 파랗게 질려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던 우리 집의 작은 마당이 마치 병원의 응급실 같았다. 할아버지나 무슨 그 큰 팔로 토끼나무를 감싸고 있었지만 내리는 비를 다 막지는 못했나보다. 오히려 할아버지나무의 잎사귀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마음이

아프기만 했다.

그렇게 한달 이상이 지나가고 할아버지나무의 어깨에 매미가 쉬고있는 이름이 오고 말았다. 장난삼아 매미를 잡으려고 할아버지나무의 팔을 잡았을 때 ‘우직’ 할아버지의 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앗!’ 나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으음, 너로구나…”

“안 아프세요?”

“괜찮단다. 이제는 별루 아프지도 않아… 힘이야… 별루… 없는 것 같아.”

할아버지나무는 너무 아파서 아픔을 느끼지 못할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런 약한 말씀일랑 하지 마세요.”

“나보다는 화단에 사는 꽃들과 토끼나무를 잘 돌봐주렴. 아직은 그리 늦지 않으니까 잘 보살펴 준다면…”

할아버지나무는 말끝을 흐렸다. 금새 가을이 다가왔고 할아버지나무는 그 큰 덩치에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 토끼나무도 기침이 심했으나 매번 잎새를 닦아주고 어루만져 주어서 그나마 건강한 편이었다. 꽃들에게는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여주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했다. 날씨는 더욱더 싸늘해졌다.

나는 할아버지나무에게 지푸라기 겨울옷을 입혀 주었고, 토끼나무에게도 그랬다. 꽃들은 작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첫눈이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버렸다.

마당에 사는 식구들에게는 눈까지도 힘겨운 것이었나 보다. 나는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할아버지나무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나무는 아직까지 그대로 그곳에서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겨울동안 몇 송이의 꽃들이 고개를 숙였고, 간신히 셀 수 있을 정도의 꽃들만 내년엔 만나기를 약속했다.

바람이 조금씩 불어왔고 새벽 늦게까지 토끼나무가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다. 마음이 아파왔다. 조금씩 천천히 할아버지나무를 따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토

끼나무는 밤하늘의 하얀 달이 되어있는 할아버지나무에게로 떠나갔다.
토끼나무는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유성이라도 떨어지길 바랬다.

마음속에 소원을 마냥 외우고 있었다.

“토끼나무야, 다음에는 계수나무로 태어나렴. 꽃들아, 다음에는 예쁜
별들로 태어나렴.”

행복마을의 만세소리

장 보 영
(기린중학교 2년)

행복마을이라는 작고 깨끗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맑게 흐르는 시냇물과 푸르디푸른 꾸러기 언덕이 있어서 다른 동네가 부러워 할 정도였답니다. 이 마을에 사는 곰돌이와 토순이, 야옹이와 꿀꿀이 그리고 염소할아버지와 하마아주머니도 행복마을을 항상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모두가 이 행복마을을 좋아해서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였답니다.

그러나 심술마을의 사자왕은 언제나 행복마을을 미워하였습니다.

“에이~ 뭐가 좋아서 저렇게 깔깔 대는 거야?”

매일매일 심술이였습니다. 사자왕은 꼬꼬와 함께 살았습니다. 꼬꼬는 사자왕을 미워했습니다.

“에이~ 뭐가 불만이지? 매일 저렇게 화만내고...”

매일매일 들은 불만이였습니다.

올해 학교에 들어간 토순이와 야옹이는 원하던 초원학교에 들어가서 참 기분이 좋았답니다. 학교에서 행복마을로 오는 길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순아, 야옹아, 너희들도 이리와서 목욕해. 너무 시원하다.”

큰취돌이가 목청 높여 말하였습니다.

“어머, 염소할아버지가 아시면 어찌려고 그러니? 그리고 그 거품봉지 뭐니?”

토순이가 취돌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에이~ 촌스럽게 아무 것도 모르니? 이건 심술마을 사자왕이 꾸러기 언덕에서 팔고있는 사자왕 보글비누야!”

꾸돌이가 자신있게 대답하였습니다. 토순이와 야옹이는 꾸러기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선 사자왕이 꼬꼬와 함께 샴푸를 팔고 있었습니다.

“아~ 행복마을 주민여러분! 이 비누로 말할 것 같으면 한번만 써도 몸이 개운해지는 그런 비누입니다. 특히 저 시냇가에서 목욕하시면 건강에도 아주 좋고, 절세미인이 됩니다.”

사자왕의 말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비누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모두 목욕을 했습니다.

한편 사자왕과 꼬꼬는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히히히... 시냇물이 더러워지면 모두가 여길 떠날꺼야. 그러면 이곳은 내 차지다. 하하하.”

그러나 나무 뒤에서 곰돌이가 이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곰돌이는 너무 슬펐습니다. 이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염소할아버지도 이 사실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알리없는 행복마을 사람들은 시냇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네요.”

“맞아요. 전 두 개나 샀어요.”

“그런데 시냇물이 더러워지니 어찌죠?”

“에이~ 우리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목욕이나 계속하자구요.”

뽀글뽀글 거품을 내면서 사람들은 목욕을 하였습니다. 사자왕이 이 모습을 보고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때, 곰돌이는 토순이에게 찾아가서

“토순아, 시냇물이 더러워지고 있대... 이걸 어찌지?”라고 말했습니다.

토순이는 야옹이에게 찾아가서

“야옹아, 시냇물이 더러워지고 있대. 그러면 우린 이사가야 된대… 이걸 어찌지?”라고 말했습니다. 야옹이는 꿀꿀이에게 찾아가서 “꿀꿀아, 시냇물이 더러워지고 있대… 그러면 우린 이사가야 된대… 이사가게 되면 갈 곳이 없어지잖아. 이걸 어찌지?”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욕을 정지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꾸러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염소할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행복마을이 더러워질순 없습니다. 모두 이곳을 떠나서도 안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행복마을을 지킵시다.”

모두가 ‘와아’ 하고 합성을 질렀습니다.

“행복마을 만세!”

그 뒤로 행복마을은 더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져서 이사오는 사람도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 그 뒤로 행복마을 그리고 심술마을에선 사자왕과 꼬꼬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반성했는지 또 다른 곳에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송수리의 바람

손 진 숙
(원통중학교 2년)

안녕하세요? 저는 1.5cm, 갓 태어난 송사리입니다.
제 이름이 송사리냐구요? 아니요. 송수리입니다.
며칠전, 저는 도랑이라고 불리는 물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돌이 있는 도랑은 깨끗한 물이였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도 여기서 태어나셨대요.
어제 헤엄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걸 해야만 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
데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무얼 하느냐구요? 꼬리를 흔들고 있는 중이에요. 신기하게도 꼬
리를 흔들면 계속 움직이네요.

엄마가 그랬어요.

“수리야, 이제부터 헤엄을 열심히 해서 도랑 대장 할아버지를 쫓아다
녀야 한다. 안그러면 큰 일나요!”

참 이상했습니다. 왜 송사리들은 큰 송사리를 앞장세우고, 다른 송사
리들은 그 뒤를 따라야만 하는지….

도랑 대장, 송사리 할아버지는 항상 똑같은 곳만 가셨습니다.

그러곤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셨고, 절대로 할아버지가 지적
해주신 곳이 아닌 다른 곳을 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 중 가장 말쑥꾸러기인 송철이는 내게 말했습니다.

“수리야, 너…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니? 매일 똑같은 곳에만 있

고..., 지겹지 않니?”

“응...? 아...아니...”

솔직히 그랬습니다. 매일 똑같은 곳...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송철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수리야, 우리 옆마을 도랑에 놀러가지 않을래? 거긴 새로운 것들 뿐 일꺼야. 자, 어때? 사내라면 이런 것도 좋을텐데...”

“아냐, 됐어. 우리 아빠한테 혼나...”

“사내 녀석이 그게 겁나서 가지 않는다는 거니? 짜짜하게 시리... 짜샤. 넌 사내도 아냐!”

“아... 알았어. 가면 될 것 아냐...”

“진작부터 그렇게 나와야지...”

돌 하나를 지나서 또 돌 하나를 지나서...

드디어 옆동네 도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내가 살고있는 도랑은 맑고 투명했는데 이곳에 오니 앞도 제대로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도랑이라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한참있다 주위를 보니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온 저는 온통 앞이 보이질 않아 그만 길을 잃었고, 그 두려움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엉엉엉...”

그러던 중 어느 한 아주머니가 제 곁에 오시더니,

“애야. 왜 그러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동안에 생긴 일을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참 안됐구나. 근데 꼬마야. 여기를 꼭 떠나야 한단다. 아주머니를 봐라. 비늘이 벗겨지고 온통 상처뿐이잖니..., 아주머니도 이렇게 오염된 곳,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서 살아서 이렇게 됐단다. 아줌마도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 앞도 제대로 보이질 않고, 몸도 성치 못해 그럴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좋은 일이 있길 바란다. 그럼...”

이렇게 말하시곤 뿌연 안개가 낀 곳을 헤쳐나가듯이 물에서 조금 지

나니 보이질 않았습시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 길을 찾아보자.”

길을 한참 찾던 중...

“수리야, 수리야” 하는 소릴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도랑 대장 할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예요! 저 여기 있어요.”

“그래. 우리 수리, 여기 있었구나. 으흐흐...”

“할아버지, 전 괜챦아요. 울이 마세요.”

“그래...”

그때였습니다. 전 모든 긴장이 풀리며 전에 오염된 물을 마셔 쓰러졌 습니다.

눈을 떠보니 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한테 가야지!”

“...수리야, 하...할아버진 없다.”

“네? 무슨 말이에요? 좀 전에 두 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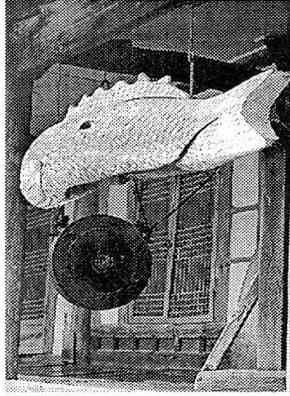
“진정해라. 넌 3일전에 할아버지가 안고 들어왔다. 눈을 뜨지 않는 너 를 2틀 동안 꼬박 밤을 새우시며 널 지켰고, 네가 없어지던 날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널 찾느라 좋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오염된 물을 마시며 널 찾으셨다. 그 때문에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질 않으신다.”

“엄마! 아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왜 나 때문에... 아... 아닐꺼야. 저 혼내 주시려고 그러시는거죠? 그렇죠? 빨리 대답해 주세 요. 앙...앙”

하지만 나중에 난 그게 사실이란 걸 알았죠. 이제부터 나 혼자서 허락 없이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송수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 요즘 이 물이 사람들의 일부 검은 손에 의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모든 환경을 내 몸같이,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소중한 물건 같이 생각하며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재 용어 해설

1. 건축
2. 탑 파
3. 불 상
4. 고분유물
5. 자 기
6. 공 예
7. 서화·전적

가구(架構) : 공간을 형성하는 목조 건물의 골격구조. 가구의 법식에 따라 단층(單層)·중층(中層)·통층(通層)으로 구분되고, 규모에 따라 삼량가(三樑架)·오량가(五樑架)·칠량가(七樑架)·구량가(九樑架)등으로 구분된다.

간살이(柱間) : 건물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둥이 중요한 것이므로, 기둥이 몇 개 섰느냐에 따라 집의 규모를 계산하였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하나의 단위로 삼았는데, 그것을 간(間)이라 불렀다. 간을 들보가 걸리는 방향과 도리가 걸리는 간격에 따라 량간(樑間)과 도리간(道里間)이라 부르는데, 지금은 정면, 측면 몇 간이라 계산한다. 또한, 간의 위치에 따라 어간(御間), 래간(來間), 퇴간(退間)이라 부르고, 안팎의 구조에 따라 외진(外陣)·내진(內陣)이라 한다.

갑석(甲石) : 돌 위에 다시 포개어 얹는 납작한 돌, ‘갑돌’이라고도 한다.

겹처마 : 처마 끝 서까래가 2단 이상으로 된 처마. 처마 끝에 처마 서까래와 부연을 걸어 꾸미게 된다.

계자각(鷄子脚) : 한옥에서 누마루나 대청의 난간 중간 중간에 풀무늬를 새겨서 세워진 가늘고 짧은 동자기둥

고막이 : 온돌 구조에 있어서 하인방(下引枋) 또는 토대 밑의 벽, 벽돌, 돌등을 모르타르 또는 진흙으로 쌓는 일. 보통 이 부분은 벽면보다 약 1~3cm쯤 걸으로 나오게 된다.

고복형(鼓腹形) : 고복(鼓腹)은 세상이 안락하고 태평하여 의식이 풍부해서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고복형은 배가 볼록 나온 형을 말한다.

고주(高柱) : 평주(平柱)보다도 키가 큰 기둥. 흔히 안통에 서있으므로 내진주(內陣柱)라 한다. 여러 층으로 된 건물에서는 평주와 통주(通柱), 사천주(四天柱)와의 사이에 있다. 통주나 사천주는 필요한 높이가 되도록 기둥 나무를 접착시켜 만드는 것이지만, 고주는 긴 나무 하나로 만들어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고주는 위치에 따라 평고주(平高柱)와 우고주(隅高柱)로 나누는데, 건물에 따라 우

고주는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

공포포: 다포(多包)집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짜 놓은 공포(拱包). 한국의 공포 양식에서 다포계(多包系)에 속하는 한 조립체(組立體)이다.

공포(拱包·貢包): 처마 끝의 무게를 받치고 하려고 기둥머리 같은 데에 짜맞추어 댄 나무쪽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흔히 주두(柱頭)·소루(小累)·침차(침遮) 등으로 짜인다. 포작(包作)

광창(光窓): 햇볕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창

교두(翹頭): 분합문 위에 가로로 길게 짜서 끼우는 빛받이 창. 창살을 45도 각도로 교차시켜 효자(爻字)모양으로 되었다. 구창(構窓)이라고도 한다.

굴도리: 한식 목조 구조체에서 단명이 둥그렇게 된 도리. 원형(圓桁)

굴도리집: 단면이 원형인 도리로 꾸며진 집.

굴림백토: 백토를 깨뜨려 왕모래를 추려낸 것. 사벽(砂壁) 치는데 쓰이는 재료이다.

귀마루: 지붕의 귀에 있는 마루. 추녀 위에 있는 마루. 추녀마루

귀면(鬼面): 내림마루나 귀마루, 또는 사래 마구리에 붙인 동물 모양의 장식. 일본과 중국의 귀면와(鬼面瓦)가 무섭게 성난 얼굴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나라 귀면와는 삼국시대 이래 웃고 있는 모습이다. 신시(神市)시대에 환인(桓因)을 도와 인간사(人間事)를 다시리던 참모 중에 군신(軍神)과 공신(工神)을 맡은 치우(蚩尤)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귀면와는 그의 동두가면(銅頭假面)을 닮은 것이라고 한다.

귀살미: 건축에서 사방 귀통이에 있는 살미를 말한다.

귀솟음: 건물의 우주(隅柱)를 어간(御間) 양편 평주(平柱)보다 높게 하는 일

귀틀(耳機): ① 마루청을 놓기 전에 먼저 가로 세로로 짜 놓는 굵은 나무. 가로 들이는 것을 '동귀틀', 세로 들이는 것을 '장귀틀'이라 한다. ② 천장의 주변에 있는 천장틀. ③ 천장의 새막이 틀 중에서

길게 된 부분.

깃돌: 축대 등의 모서리에 세워 댄 돌

그레질: 기둥이나 재목 같은 것에도가 그 놓일 자리의 바닥의 높낮이를 그레로써 그리는 것. 요컨대, 기둥을 반듯하게 세우는 기법을 말한다.

기단(基壇): 건물, 비석, 탑 따위의 밑에 한층 높게 만들어진 지단(地壇). 여염집에서는 ‘죽담’이라 부른다. 튀는 빗물을 막고 땅의 습기를 피하며 건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건물 아랫도리에 돌을 쌓거나 다른 자재를 써서 쌓아 올린 단인데, 기와와 벽돌로 쌓기도 하고, 돌로만 쌓기도 하며, 돌과 벽돌을 섞어 쌓기도 한다. 법당(法堂) 건축에서는 불교가 전래한 용선(龍船)을 법당에 비유하여 기단을 용선의 선체(船體)인 듯이 상징하여 구성하기도 한다.

기단석(基壇石): 기단에 쓰이는 돌. 기지석(基址石)이라고도 한다.

기둥(柱): 건축물의 간살을 표준하여 주춧돌 위에 세워서 보, 도리 등을 받치는 나무. 기둥은 흔히 둥근 기둥이나 모기둥이 쓰이는데, 절의 건물에는 대부분 원주(圓柱)가 쓰인다. 또한 기둥은 그 위치나 쓰임에 따라 평주(平柱)·우주(隅柱)·내고주(內高柱)·우고주(隅高柱)·사천주(四天柱)·찰주(刹柱)·동자주(童子柱)·활주(活柱) 등으로 나누고, 기둥을 짚는 기법에 따라 통기둥·홀림기둥·배홀림기둥 등이 있으며, 그밖에 귀솟음·오금법 등의 법식도 있다.

기둥머리: 기둥의 윗부분. 다듬는 기법에 따라 막기둥과 궁글린 건지기둥으로 나눈다.

기둥몸(柱身): 기둥의 몸체 부분. 중방(中枋)이 짜이는 부분이며, 토벽선 등과 접합하는 몸체이다.

기둥뿌리(柱脚): 기둥이 주춧돌에 닿는 밑부분.

기와(蓋瓦, 디새): 지붕을 이어 빗물이 흐르게 만든 제품인데, 차진 흙이나 시멘트를 구워 만든다. 한식 기와에는 암키와 수키와가 있고, 그밖에 일식 기와인 평기와, 서양에서 쓰이는 약식기와 등의 종

류가 있다.

기왓골(蓋瓦谷·瓦溝) : 기와지붕에 빗물이 떨어졌을 때 쉽게 흘러 내리도록 암키와를 깐 바닥에 수키와를 덮어 골을 이루어 준다. 이런 기왓골 때문에 ‘골기와’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닥 기와는 세 겹이 겹치도록 하여야 빗물이 골에 넘쳐도 새지 않는다. 기왓골이 용마루나 내림, 귀마루 등에 접합할 때 착고매기, 부고 등을 써서 정리한다.

꽃살문 : 문살에 꽃무늬를 놓아 만든 문.

기눈(蟹眼) : 박공널이나 추녀 끝에 소용돌이 모양으로 새겨지는 장식 무늬

나비장 : 재목을 서로 이을때에 쓰이는 나비모양의 나무조각. 예로부터 가장 많이 쓰이는 이음새 기법의 하나이다.

낙양 : 기둥의 위쪽 측면과 창방(昌枋)의 밑에 돌려 붙인 파연각(波蓮刻)으로 된 장식

난간(欄干·欄杆) : 층계나 다리 등의 가장자리에 가로 세로 나무나 쇠를 건너 세워 놓은 살.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또한 장식으로도 삼는다.

날개집(翼舍) : 주건물 좌우에 붙어 뻗어나온 부속건물. 주되는 건물이 중앙에 있고, 그 좌우에 부속실 또는 부속사(附屬舍)가 배치되어 있는 집을 말한다.

납도리(角桁家) : 기둥 위에 사각형 단면으로 된 도리를 얹어 꾸민 집. 소루(小累)를 받칠 때도 있다.

내목(内目) : 기둥의 안쪽

내목도리(内目桁) : 한식 건물에서, 공포를 파고 건물 안으로 출목하여 얹힌 도리.

너새 : ① 문의 올가미를 짜고, 그 안에 널을 붙인 문. ② 띠장을 대고, 널을 그 한면에 붙여 댄 문. 널대문.

누하주(樓下柱) : 다락집 구성에서 마루 밑으로 세우는 기둥. 건물에 따라 목주(木柱)나 석주(石柱)를 세우기도 하는데, 돌기둥의 유구

(遺構)로는 경복궁 경회루가 가장 유명하다. 사원 건축의 유구 중에는 석주(石柱)로 된 예가 드물다. 목주(木柱)일 때, 누하주는 누상주(樓上柱)와 한 몸인 경우와, 각각 따로 세우는 경우의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따로 세울 때에는 누상주보다 누하주를 굵은 목재로 세운다.

다포집(多包閣) : 공포(拱包)로 기둥 위와, 기둥과 기둥 사이를 꾸며 놓은 집. 갓은포집. 조선시대 이후에 많이 쓰였다. → 포(包)

단귀틀 : 장귀틀과 장귀늘 사이를 가로지를 짚은 귀틀.

단집(唐家, 寶蓋) : ① 법전(法殿)안의 옥좌(玉座)위에 만들어 다는 집의 모형. ② 법당(法堂)의 불좌(佛座)위에 만들어 다는 집의 모형. 감실(龕室). 흔히 기둥, 낙양각, 갓은포작의 다포, 겹처마, 지붕 등으로 구조되며, 용과봉, 그리고 비천상(飛天像) 등이 장식된다.

당골벽 : 형(桁)레 걸린 서까래 사이사이를 막아 바른 벽. 찬고벽.

당기와(唐蓋瓦, 唐瓦) : 막새기와의 단 이름. 암막새와 수막새를 통틀어 일컫는 말.

대공(臺工) : 대들보 위에 서서 종보와 중도리를 받치거나, 종보 중앙에 서서 종(마리)도리를 받치는 구조물. 중도리를 받치는 것을 중대공. 종도리를 받치는 것을 마루대공이라 한다. 또한 대공의 모양에 따라 동자(童子)대공, 복화반(覆花盤)·양화반(仰花盤)대공, 파연대공(波蓮臺工), 판대공(板臺工), 포대공(包臺工) 등이 있다.

대들보(大樑) : 기둥 위에 얹힌 들보 중에서 가장 큰 지붕보 이 대들보는 건물 부재(部材)의 모든 짐과 지붕의 무게까지도 받아 지탱한다. 대들보를 거는 법칙과 깎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청(大廳) : 관아나 사шат집의 주장되는 집채 가운데에 있는, 바닥을 마루널로 꾸민 널찍한 마루. ‘대청 마루’ 또는 그냥 청(廳)이라고도 한다.

댓돌(臺石) : 지대(地臺)의 갓둘레에 쌓은 돌. 흔히 화강석을 가늘고 길게 다듬어 쓴다. 이 댓돌을 1단만 설치하면 외벌대, 2단이면 두벌대, 3단이면 세벌대라 부른다. 일주문(一柱門) 등에서 외벌대,

사천왕문이나 요사(寮舍)에선 두벌대, 법당에는 세벌대로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댓돌로 구성되는 기지나 기단위에 단층인 것과 상·하 중층인 것의 두 가지가 있다.

덤병주초(- 柱礎) : 둥글넓적한 자연석을 다듬지 아니하고 놓은 주춧돌.
도리(柱, 楯) : 기둥과 기둥 위에 돌려 얹히는 굽은 재목. 그위에 서까래를 얹게 되는데, 굴도리·들도리·뿔도리·삐도리 등의 종류가 있다.

돌란대(廻欄) : 난간의 맨 위에 가로 댄 부재(部材). 단면은 원형·팔각형·각형 등 여러 가지이다. '난간두겹대'의 옛말.

동귀틀(童耳-) : 마루의 장귀틀과 장귀틀 사이에 가로질러 청널의 잇몸을 받는 짧은 귀틀. 장귀틀.

동무(東武) : 문묘(文廟)안에 유현(儒賢)들을 배향하는 동쪽의 행각(行閣).

동바리 : ① 가로재를 받쳐 고일 때 수직으로 세우는 아주 짧은 기둥. 동바리기둥. ② 지면에 가까이 있는 마루 밑의 멍에. 장선받이 따위를 받치는 짧은 기둥.

동자(童子) : 목재 구조에서 쓰이는 짧은 세로재. 동자기둥·난간동자·머름동자 등이 있다.

동자주(童子柱) : 한식 지붕틀에서 대들보 위에 세워 중도리와 종부를 받치는 짧은 기둥. 쪼구미·동자기둥.

두공(頭工) : ① 한식 나무 구조에서 공포를 익공으로 쓸 때에 주두(柱頭)에 끼우는 도리 방향의 첨차(檐遮). ② 주심포계(柱心包系)의 주두 위에 따이는 공포(貢包)의 총칭.

두리기둥 : 둥근 기둥. 원주(圓柱).

들보(樑) : 간과 간 사이의 두 기둥을 가로질러 도리와는 'ㄱ'자 모양, 마룻대와는 '十'모양을 이루는 나무. 보.

띠살문 : 세전(細箭)으로 된 문의 상·중·하·에 띠 모양으로 가로살을 댄 문.

마룻대 : 용마루 밑에 서까래가 걸리게 된 도리. 상량(上樑). 상량도

리. 마룟도리.

마룟대공(宗臺工): 종량(宗樑)위에 마루를 받쳐 세운 동자기둥.

마룟보(宗樑): ① 두 겹으로 엮는 보에 있어서 마룟대가 되는 보. ② 마룟대의 밑까지 높이 쌓아 올린 보.

막새(莫斯): ① 처마 끝을 잇는 수키와. 한 끝에 둥그런 혀가 달려 있고, 전자(篆字), 물형(物形)의 무늬가 있다. 막새기와, 화두와(花頭瓦), 묘두와(貓頭瓦). ② 보통 기와로서 처마 끝에 나온 암키와 나 수키와. 막새기와.

망새: ① 큰 기와집의 대마루 양 끝에 세운 장식. 매 대가리처럼 쭉 불거지고 모가 난 두 뺨에 눈알과 깃 모양의 선과 점이 새겨져 있다. 보통 집에는 내림새가 쓰인다. 취두(鷲頭)·취와(鷲瓦)·치문(鷓鴣吻) ② 망새 같은 집의 합각 머리나 너새 끝에 엮는 용머리 처럼 생긴 장식. 용두(龍頭). 바래기

망와(望瓦): 지붕의 마루 끝에 세우는 우뚝한 암막새.

맞배지붕: 건물의 측면에서도 지붕면이 용마루까지 올라가게 되어, 측면에 삼각형의 벽이 생기는 지붕. 해방 후 고건축에 쓰인 용어. 네모난 큰 생철을 130도로 막 꺾어서 씌워 놓은 것 같은 지붕. 뱃집지붕. 박공지붕.

맞배집: 지붕이 맞배지붕으로 된 집. 박공집

맞보: 옥심주(屋心柱)에 두 개의 보가 마주 끼어 걸린 들보.

머름(遠音): 창 밑의 하인방과 머름방 사이에 머름동자를 세우고 그 사이에 머름참고를 끼운 구조부.

머름동자: 머름중방 사이에 세워 댄 짧은 동자기둥.

머름중방: 두 기둥 사이의 머름에 가로 건너 낀 중방에 대는 널조각.

머름참고: 하인방, 머름중방 및 머름동자 사이에 끼어 대는 널. 머름참고널. 머름청판.

머리초(頭草): 보·도리·서까래·기둥 등의 부재(部材) 끝부분에 그려진 단청(丹青)의 무늬.

명: 동바리 돌 또는 동바리 기둥위에 얹히어 장선을 받치는 부재.

모기둥 : 모가 나게 만들어진 기둥. 네모기둥(사각기둥) · 팔모기둥(팔각기둥) · 육모기둥(육각기둥) 등이 있다.

모끼연(木只椽) : 지붕의 좌우 마구리에 다는 부연(婦椽)의 서까래. 모끼. 목지연(木只椽).

목어(木魚) : 불교의 경전을 읽을 때 두드리는 제구(諸具). 길이 1m 가량 되게 나무로 잉어처럼 만든 것인데, 속은 비어 있고, 겉에는 비늘이 새겨져 있다.

문얼굴 : 문짝의 상하 · 중간 · 좌우에 짜맞춘, 뼈대가 되는 부재(部材). 문광(門框).

문인방(門引枋) : 문얼굴의 위아래 중간에 가로 건너지른 부재(部材).

문중방(門中枋) : ① 문을 들이는 가로 낀 인방(引枋)의 총칭. 문틀이 되는 인방. ② 문틀이 되는 벽 중간에 있는 중방(중인방)

문지방(門地枋) : 문설주 사이의 문밑에 가로 놓인 나무.

문지방돌(門地枋石) : 출입문 밑에 문지방으로 댄 돌. 하인방석(下引枋石).

문짝 : 끼워서 여닫게 된 문의 한 짝. 문비(門扉) · 문선(門扇) · 문호(門戶)라고도 한다. 널문짝이 외짝이면 판비(板扉), 두 짝이면 판선(板扇)이라고 하며, 철갑(鐵甲)을 씌우거나 역사상(力士像) 등을 그리기도 한다.

문판(門板) : 반달이의 앞면 위쪽에 붙어 있는, 짓히어 열게된 문짝의 널.

민도리집 : 한식 나무 구조에서, 도리와 장혀로만 꾸며진 집.

민흘림 : 기둥 등의 상부 직경이 가장 작고, 중간의 단면 직경이 이보다 크며, 하부 직경이 가장 크게 깎아 다듬는 기법이 한가지.

민흘림 기둥 : 민흘림 기법에 의하여 아래로 내려올수록 직경이 커지게 다듬어진 원기둥.

바라지 : 바람벽의 위쪽에 낸 작은 창. 쌍바라지 · 약켓바라지 등이 있다.

바라지창(望窓) : 누각 등의 벽 위에 바라보기 좋게 뚫어 놓은 창.

바라지.

박공(朴工·膊拱·樞拱) : 마루머리나 합각머리에 ‘ㅅ’자 형상으로 맞붙인 두꺼운 널. 박풍(박風) 또는 박공널이라고도 한다. 두 널빤지가 합쳐짐에 따라 맞이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에 지네철이나 현어(懸魚)로 장식하기도 한다. 이 박공널 위로 목지연(木只椽)을 걸고 너새판을 얹어 기와를 받게 한다.

박공각(膊拱刻) : 박공널 끝에 새김질하여 장식한 것.

박공널(膊拱板) : 맞배지붕(박공지붕)의 측면에 ‘ㅅ’자 형으로 맞붙인 널. 까치박공널·처마도리·중도리·마룻대 등에 못박아 대고, 평고대는 장부로 꿰뚫어 넣기도 한다. 박공(膊拱). 박공판(膊拱板).

박공마루 : 박공에 평행으로 지붕마루에서 처마까지 내려오는 지붕마루. 박공내림마루.

박공벽(膊拱壁) : 박공지붕 밑에 이루어지는 삼각형 모양의 벽

반자 : 방이나 마루의 천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 거기에 사용하는 자료와 모양에 따라 목반자·빗반자·소란반자·장반자·우물반자·지반자·철반자·토반자·평반자 등 여러 종류로 구별된다.

반자들 : 반자를 드리느라고 가늘고 긴 나무로 가로 세로로 짜서 만들 틈. 반지대·반지대반이·달대·달대반이 등을 총칭한다.

방풍판(防風板) : 맞배지붕의 좌우 마구리에 박공널 아래로 비바람을 막기 위하여 박공벽에 붙여낸 널빤지. 널빤지를 대목(帶木)에 의지하여 붙이고, 판자와 판자 사이는 줄대를 덧대어 붙인다. 방풍널.

배흘림 : 기둥의 중간이 가장 굵게 되고, 상하로 가면서 점차 가늘어지게 하는 기법. 기둥 높이의 3분의 1되는 부분이 가장 굵고, 위는 밑둥보다도 더 가늘어지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같은 기법은 기둥의 구조상의 안전성과 시각성의 착오를 시정하고자 하는 착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엔타시스(Entasis)’라고도 한다.

법수(法首) : 난간의 귀퉁이나 또는 중간에 세워 놓은 어미기둥의 상부에 쇠시리를 하여 장식적으로 만들어진 부분.

벽석(壁石): 넓고 얇은 널빤지처럼 다듬어 갈아서 벽을 꾸미는 장식용 돌.

벽선(壁楹·壁線): 기둥의 좌우에 세우는 각재(角材). 벽 속에 있어서는 인방과 중방을 버티게 되고, 문호(門戶)에 있어서는 문선(門線)이 된다. 일주문(一柱門)이나 일각문(一角門)에서는 지붕의 가중(苛重)을 지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나, 보통은 기둥을 부식에서 보호하고 축부(軸部)의 구성을 위하여 설치한다.

보개천장(寶蓋天障): 궁전이나 불전 등에서 중앙부를 높게 하여 보개를 장치한 천장.

보뿔목(樑頭): 기둥을 뚫고 나온 보의 끝머리. 보머리.

보아지(樑奏): 기둥머리 또는 주두에 끼어 보의 짜임새를 보강하는 짧은 부재(部材). 화반이나 동자주에 짜여 중보를 받거나, 기둥이나 두공(頭工) 또는 공포에 짜여 대들보를 받거나 하는데, 공포에 짜일 때는 살미가 발달하여 보아지가 되는 수도 있다.

복화반(覆花盤): 화반의 모양이 아래쪽이 넓고 위쪽이 좁게 만들어진 것.

봉두고임(鳳頭公): 전각(殿閣)의 기둥머리에 대는 봉황의 머리 모양을 한 꾸밈새. 쇠서받침 위의 대들보 머리에 끼운다. 봉머리·봉두각(鳳頭刻)·봉두

부고: 지붕마루의 착고막이 뒤에 옆세워 대는 수키와.

부고마루: 착고 위에 수키와를 옆세워 쌓은 지붕마루. 부고를 써서 지붕마루를 튼 것.

부연(附椽·婦椽·浮椽): 처마 서까래 끝 위에 덧엮는 네모진 짧은 서까래_나 처마를 위로 들리게 하여 날아갈 듯한 곡선을 이루게 하는 구실을 한다. 부연초리는 처마 서까래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정도이다. 부연이 있는 집은 삼국시대 이래로 고급에 속했으며, 사원 건축의 대부분은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다. 머느리서까래·사연(師椽)·비침(飛檐).

부연개판(附椽蓋板): 부연 위에 덮어서 가는 널조각.

부연뱃바닥(附椽腹面) : 부연의 밑면. 여기에 단청을 할 때는 먹긋기·색긋기 등을 한다.

부연착고(附椽着固) : 한부연과 부연 사이를 막는 널.

부연초(附椽草) : 부연에 그린 단청.

분합문(分閤門) : 대청 앞에 드리는 네 쪽으로 된 긴 창살문. 걸창과 같이 되고, 아래쪽에 통널 조각을 댈다.

불발기 : 장지의 한가운데에 가는 살을 짜 대고, 창호지를 붙여 채광이 되게 하는데, 위아래 부분은 안팎을 종이로 두겹게 짜 바르는 문. 불발기문.

빗반자 : 바닥이 한쪽으로 경사지게 만든 반자.

빗살문 : 세살문의 한 가지인데, 가는 살을 엇비슷하게 어긋매겨 촘촘하게 짜서 만든 문.

빗살완자창 : 살을 엇비슷한 ‘근’자 모양으로 짜서 만든 창.

빗천장 : 삿갓모양으로 경사진 천장.

뿔목(枋頭) : 부재(部材)의 머리가 다른 부재의 구멍이나 홈을 뚫고 내는 부분. 보통 그 부재의 크기보다 가늘게 만들어진다. 맞배집에서는 도리와 장혀가 길쭉하게 빠진 긴 뿔목이 되고, 다포집에서는 네 귀퉁이에서 창방(昌枋)·평방(平方)의 뿔목이 +자형으로 짜인다.

사래(蛇羅) : 추녀 끝에 설치하여 겹처마를 이루게 하는 굵은 부재(部材). 부연의 선자서까래가 사래 좌우에 배설된다. 사래는 추녀 끝에 있으면서 끝이 들리게 되므로 비와 이슬에 노출되어 썩을 염려가 크므로 토수(吐首) 등을 씌우거나 귀면와(鬼面瓦)를 박아 방지시켜 준다. 추녀와 사래를 설치할 때 그 곡율(曲率)을 얼마나 잡아주느냐에 따라 처마의 양곡(仰曲)과 안허리가 잡히는 것이므로 그 제작 기법은 까다롭다.

사모지붕 : 네모 반듯한 정방형의 평면인 건물에서 형성되는 지붕이다. 작은 비각(碑閣), 종각(鐘閣)에서 정자(亭子)나 측간에서, 또는 탑과(塔婆)와 같은 건축물의 지붕이다. 사면의 기왓골이 지붕

의 정상부에 모이는 구조인데, 작은 집에서는 절와통(節觥筒)으로 그 부근을 정리하고, 탑파에서는 상륜(相輪)을 설치하여 마감한다. 평면에 따라 육모·팔모의 지붕이 형성될 수 있는데, 현존하는 사원 건축에서는 보기 드무나 상대(上代)에는 팔각목탑(八角木塔)등의 구조가 있었다.

사모집: 지붕이 네모난 집.

사벽(砂壁): 모래와 흙을 섞어서 만든 벽.

사천왕문(四天王門): 절을 지키는 의미에서 동서남북의 사천왕을 만들어 좌우에 세운 문.

살대(支木·箭木): ① 기둥이나 벽이 넘어지려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버티어 대는 나무. 살잡이대. 지주(支柱). ② 반자널 밑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댄 나무 오리.

살미: 궁궐이나 성문 등의 기둥 위 도리사이에 장식하는, 촛가지를 짜서 만든 물건. 첨차(檐遮)에 직교(直交)되며, 외부는 쇠서형으로 조각하고, 내부는 교두형(翹頭形)이나 또는 초엽(草葉)·연화 등을 새긴다. 산미(山彌).

살미살창: 촛가지를 짜서 살을 박아 만든 창문.

살창: 울거미 없이 인방(引枋) 또는 문틀에 살대를 나란히 세워 댄 창.

삼량가(三檁架): 도리가 3개 있는 지붕. 가구(架構).

삼량집: 전후 처마도리와 용마루도리로 구성된 지붕틀로 꾸며진 집. 곧 도리3개로 짜인 집. 세마루집.

삼문(三門): 대궐이나 공해(公廳) 앞에 있는 문. 정문(正門), 동래문(東來門), 서래문(西來門)의 셋이 있다.

삼제공(三諸貢): 2제공 위에 짜인 3단짜의 제공.→제공(諸貢)

삼화토(三華土): 재사벽(再砂壁)을 하는 데 쓰이는 고급의 니장(泥匠) 재료. 모래·흙·강회를 1:1:1의 비율로 섞어 이겨서 사용하는 것. 굳으면 매우 단단하여 떨어내기조차 힘이 든다.

상인방(上引枋): 창이나 문짝의 상부에 가로지르는 인방·윗중방·상방(上枋).

서까래 : 지붕 경사에 따라 도리에서부터 처마 끝까지 건너지를 나무. 그 위에 산자(散子)를 얹게 된다. 둥근 통나무를 그냥 쓴 서까래를 연(椽). 다듬어 각재(角材)를 만들어 쓰면 각(桶)이라 한다. 서까래는 지붕을 구조하는 일에서 갈비뼈에 해당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부재이다. 지붕의 물매를 잡아 주기 위하여 야연(野椽)·통서까래·단연(短椽) 등을 쓰고, 우진각이나 팔작지붕에서 네 귀를 들어주기 위하여 선자서까래나 엇선자·말굽서까래 등을 만들어 설치하고, 덧서까래도 쓴다. 연목(椽木).

서무(西廡) : 문묘(文廟)안에서 유현(儒賢)들을 배향하는 서쪽의 행각(行閣). 곧, 대성전(大成殿)의 서쪽 아래채.

선자(扇子) : ‘선자추녀’의 준말. 서까래를 부챗살 모양으로 댄 추녀. 선자서까래 : 기와지붕을 구성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법식을 완성하기 위하여 처마 모퉁이추녀 옆에 나란히 부챗살 모양으로 배치한 서까래. 선자연(扇子椽).

소란(小欄) : 문지방이나 소반 같은 데에 나무를 가늘게 오려서 돌려 붙이거나 제 바탕을 파서 턱이 지게 만든 물건.

소란대 : 귀·모서리·테두리 등에 오려대는 작은 나무. 소란으로 쓰이는 목재. 소란목(小欄木).

소란반자 : 반자의 한 가지. 반자를 ‘井’자 여럿을 모은 것처럼 소란을 맞추어 짜고, 그 구멍마다 네모진 널조각의 개판(蓋板)을 얹어 만든다. 우물반자·화반자·목반자·천화판(天花板)·조정(藻井).

소로(小累·小朶) : 두공·침차·제공·장여·화반 등의 사이에 틈틈이 끼우는 네모난 사각재(四角材). 작은두공·접시받침·소루(小累).

소로굽 : 빗깍거나 둥글게 굴러 도려 낸 소로의 아랫부분.

소로아귀(小累口) : 소로에 침차나 살미를 끼우기 위해 깎아낸 부분.

숫을대공 : 인자형(人字形)으로 두 부재(部材)를 맞버티게 짜고, 그 위에 거는 대공.

숫을대문 : 지붕이 좌우간 또는 행랑채의 지붕보다 높이 숫게 만든

대문. 고주대문(高柱大門) · 고설주대문(高設柱大門).

솟음: ① 보에 하중(荷重)이 작용할 때 보가 휘어서 일직선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제작 당시에 미리 위로 휘게 하는 일. ② 한식 건물에서 우주(隅柱) · 회첨주(會檐柱)를 평주(平柱)보다 조금 높게 한 것. 귀솟음.

쇠살문(鐵箭門): ① 성곽의 수구(水口) 등에 사용되는 쇠로 만들어진 철문. ② 쇠창살을 댄 대문.

쇠서(牛舌): 한식 목구조 공포에서 보 방향으로 첨차에 직교하여 거는, 끝을 소의 혀모양으로 장식하여 오려낸 부재(部材). 양설(仰舌) · 수설(垂舌) 등이 있다. 쇠서받침.

쇠시리: 나무의 모나 면을 깎아 밀어서 두드러지게 또는 오목하게 하여 모양지게 하는 일.

수막새: ‘막새’로 된 수키와.

수서(垂舌): 한식 목구조 건축의 공포(拱包)에서 쇠서 끝이 아래로 삐죽하게 처진 모양으로 된 것.

수연(水煙): 불탑에서 상륜(相輪) 위에 보개(寶蓋)와 보주(寶珠) 사이에 있는, 불꽃 모양으로 된 장식 부분.

수장(修粧): 주요 구조재가 아닌 중방 · 벽선 · 반자 등 내부 치장이 되는 것.

수장기둥: 처음부터 주춧돌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수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세우는 기둥. 수장주(修粧柱).

수키와: 두 암키와 사이에 얹어놓는 기와. 속이 빈 원기둥을 세로 반으로 쪼갠 것과 같이 생겼는데, 지름이 작고 곡율(曲率)이 강한 기와인데, 남근 같다고 하여 양와(陽瓦)라고도 한다. 수키와는 암키와가 이룩한(排水形) 바닥이나 바닥기와 사이의 잇잡을 막기 위하여 덮는 데 쓰이며, 방수(防水)를 마무리짓고 낙수구(落水溝)를 확실하게 하여 기왓골을 형성한다.

신방(信防): 일각문(一角門)등의 기둥 밑 좌우 쪽에 받친 짧은 토대.

신방석(信防石): 일각문(一角門)의 지대(地臺) 위에 기둥 및 용지판(龍枝板)을 받친 돌.

심제공(心諸貢): 귀제공에 있어서 기둥의 수직상에 짜여진 제공.

심주(心柱): 다층 건물의 중심에 세우는 기둥. 옥심주(屋心柱).

안초공(按草工): 기둥머리의 내외에 끼여 기둥 사우의 공포를 받치는 부재.

암막새(女莫斯): 처마 끝의 암키와 막새. 내림새. 삼국시대에는 잘 사용되지 않다가 통일신라시대부터 성행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암키와 끝을 조금 두껍게 하여 무늬를 놓았고, 다음에는 차츰 발달하여 내림새가 따로 만들어져 무늬판이 되었으며, 신라때 것은 그 무늬가 섬세 정교하고 구도가 활달하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무늬가 대범해지고, 조선시대에는 내림새가 아주 커지게 되었다.

암키와(女瓦): 지붕의 고랑이 지게 짓혀놓는 기와. 평면이 장방형이고 단면이 원고(圓孤)로 되어 있는데 수키와 밑에 깎다.

앙서(仰舌): 끝이 위로 삐죽하게 올라간 쇠서반침. 앙설. 앙혀.

어새: 비스듬히 깎아 지붕귀. 회침(會檐) 등에 쓰이는 암키와.

어이동자: 머름의 간막이에 있어서 기둥에 붙여 세운 동자기둥.

연목초(椽木草): 연목(椽木)과 네모진 각(桶)의 장엄을 위하여 단청할 때 베풀어야 할 무늬의 원본을 정한 형태. 초상(草像)의 한 유형인데, 서까래 끝에만 무늬를 놓는 법과 서까래 몸체 전부에 무늬를 놓는 법 두 가지가 있으며, 그 밖에 무늬 엷이 선으로만 굿기를 하는 방식도 있다. 서까래 끝 마구리에는 연단초(椽端草)라 하여 별도의 무늬가 구성된다.

연함(椽檻): 서까래 끝의 평교대 위에 기왓골을 받기 위하여 암키와가 놓일 만하게 반달 모양으로 총총하게 엔 나무

용성(甕城): 성문밖에 빙 둘러 있는, 성문을 방어하는 작은성. 원형 또는 방형(方形)으로 만들어진다. 월성(月城)·곡성(曲城)·곶은성

왕지: 추녀 또는 박공 솟을각에 암키와를 삼각형으로 깎아 맞춘 것.

왕지기와: 박공 솟을각 끝이나 추녀 끝에 쓰이는 암키와.

왕지도리: 모서리 기둥 밖으로 내민 도리.

외목(外目): 기둥의 바깥쪽.

외목도리(外目桁): ① 포작(包作) 바깥에 서까래를 얹기 위하여 가로 얹는 도리. ② 기둥의 중심선 바깥쪽에 낙 걸리는 도리.

용두(龍頭): 지붕 장식의 한 가지. 용머리 → 망새.

용마루(檣城): 기와지붕에서 가장 높은 마룻대. 마룻대는 기와만으로 쌓거나 삼화토(三華土)로 짜바르거나 한다. 종마루.

용지판(龍枝板): 일주문(一柱門)·일각문(一角門)의 기둥 앞뒤로 담이 무너지지 않게 붙여 세우는 재목. 판재(板材)를 세우면 용지판이라 하고, 각재(角材)를 세우면 벽횡(壁檣)이 된다. 용지판에는 당초(唐草)를 초각(草刻)하거나 단청(丹青)으로 용을 그리기도 한다.

용화석(龍華石): 댓돌에 올라서기 위하여 꾸며진 층층게 좌우 소맷돌에 용의 머리와 몸뚱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무늬가 베풀어진 화려한 구조물.

우동(隅棟): 탑 옥개석(屋蓋石)의 귀마루 부분. 귀마루·내림마루.

우물마루: 짧은 널을 세로 놓고 긴 널을 가로 놓아 ‘井’자 모양으로 짜인 마루.

우물반자(藻井): 다포계 법식을 대표하는 구성중의 한 가지. 주심포계에서는 천장을 구조하지 않는 대신에 다포계에서는 거의다 반자를 설치한다. 반자는 구조 방식에 따라 빗반자·층급(층단)반자·우물반자·소란반자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소란반자가 화려한데, 우물반자의 기본 구성에 소란 하나를 첨가한 것이다. 우물반자는 반자틀로 ‘井’자 형으로 울거미를 만들고 정방형 청판을 덮은 구조이다.

우물천장: 소란반자로 된 천장. 곧, 바둑판처럼 ‘井’자 형으로 된 천장.

우미량(牛眉檣): 주도리와 중도리, 중도리와 중중도리 사이를 건너지르는 각재(角材)인데, 각각의 도리는 위치에 따라 낙차(落差)가 있어서 강하게 휘어 굽은 나무라야 양쪽 도리에 결구(結構)될 수

있다. 크게 휘어 만들고 보니, 그 형상이 튀어오르는 새우 모양 같기도 하고, 파리 쫓는 황소의 꼬리가 휘어 오른 듯 한 모습 같기도 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미량은 주심포(柱心包)집에서만 사용된다.

우주(隅柱) : 건물의 귀퉁이에 세워진 기둥, 귀기둥.

우진각 지붕 : 지붕의 측면 구성에서 팔작지붕과 같은 합각을 두지 않고 용마루로부터 바로 기왓골이 시작되는 유형의 지붕이다. 현존하는 법당 건물에서는 보기 두무나, 금강산 등지의 사원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해인사 장경판고(藏經板庫) 등에서 볼 수 있다. 관실(官室) 건축에서는 서울 남대문을 비롯하여 창덕궁의 돈화문(敦化門), 창경궁의 홍화문(弘化門), 덕수궁의 대한문(大漢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전(正殿)이나 법전(法殿)에는 잘 쓰이지 않는 지붕이다.

운공(雲工) : 이익공(二翼工)에 있어서 화반(花盤)상부에 얹혀 장여와 도리를 가로 받친 물건.

운장(輪藏) : 법당 복판에 축(축(軸)을 세우고 여덟 개의 면을 가진 경가(經架)를 만들어 여기에 일절경(一切經)을 넣어 자유로이 돌아 가게 만든 장치. 전륜장(轉輪藏).

음각(陰刻) : 조각 모양이 움푹 들어가게 파는 기법. 요조(凹彫).

이수(이首) : ① 용 모양을 새긴 비석의 머리돌. ② 궁전의 섬돌이나 도장 또는 종정(鐘鼎) 등의 뿔 없는 용을 새긴 돌.

이익공(二翼工) : 기둥 위에 덧붙이는 쇠. 촛가지가 둘로 된 익공. 도리 및 장여를 화반(花盤), 기둥 위에는 두공으로 받치고 창방과 두공 또는 보아지가 쇠서 모양으로 바깥에 내민 부재(部材), 또는 그렇게 꾸미는 일.

이익공 주삼포집(二翼工柱三包 -) : 주심포가 삼포로 되어 촛가지가 두 개로 된 집.

이제공(二諸工) : 주삼포(柱三包)집 기둥에 덧붙이는 쇠서받침. 오포(五包)와 칠포(七包)집에는 각각 3제공, 4제공이라 한다.

익공(翼工) : 익공집에서, 침차(침遮)위에 얹혀 있는 짧게 아로새긴 나무. 초방(草防) 끝이 쇠서로 되어 내부는 초각(草刻)되어 있다. 임진왜란 후에 급격히 보급된 것인데, 주삼포(柱三包)의 약식인 것처럼 보이는 구조이다. 초익공(初翼工)·이익공·3익공 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

익공집:기둥 위에 이공을 얹어 지은 집.

익실(翼室):본체의 좌우 편에 딸려 있는 방.

인방(引枋):기둥과 기둥, 또는 문설주에 가로질러 벽체의 뼈대 및 문틀이 되는 가로재. 상인방·중인방·하인방이 있다.

일각대문(一角大門):좌우에 기둥을 하나씩 세우고 지붕을 인 대문.

일각문(一角門):기둥 두 개로만 끼워진 문.

일주문(一柱門):절의 입구에 기둥을 일렬로 세워 만든 문.

장선(長線):마루 밑에 한 자 가웃 가량의 사이로 가로 대어서 마루 청을 받치게 한 나무. 장산(長山).

제공(諸工·諸貢):공포(공包)에 있어서 침차와 살미가 층층으로 짜인 것.

줄대:얇고 좁게 오려 벽이나 천장 등에 박아대는 나무오리. 나무외.

종량(宗樑·重楹):지붕틀 위에 있어서 대들보 위에 동자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건너대어 대공을 받는 가로재. 대량(大樑)만 있을 때에는 삼량(三樑)의 가구법(架構法)이 쓰이지만, 종보가 더 있으면 5·7 량가(樑架)가 되고, 중종보가 하나 더 있으면 9·11 량가(樑架)가 된다. 종보가 대들보 길이와 어떤 비례를 지녔냐에 따라 이분변작(二分變作), 사분변작법(四分變作法)이라고 하는데, 이 법식에 따르면 서까래의 각도와 처마의 깊이도 함께 의장(意匠)된다. 천장 구성에 따라 종보는 노출되기도 하고 천장 위에 숨겨지기도 한다.

주두(柱頭·柱料):기둥머리 위에 놓여 포작(包作)을 받아 공포를 구성하는 대접처럼 넓적하게 네모난 나무. 상부의 하중(荷重)을 균등하게 기둥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의 축소형을

소루(小累)라 부른다. 다포(多包)에서는 주두가 기둥머리를 떠나 평방 위에도 놓이는데, 이것을 특히 좌두(坐頭)를 떠나 평방 위에도 놓이는데, 이것을 특히 좌두(坐頭)라고 한다. 대접 받침.

주심포(柱心包·拱牙·花斗牙) : 기둥머리 바로 위에서 받친 공포(貢包). 다포(多包)의 구성이 고려말·조선조에 성행되었다면, 주심포는 모든 시대에 걸쳐 구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선조 초기 이전의 시대에는 주심포만이 있었을 뿐이지만, 그 유형은 여러 가지이다.

주의(柱衣) : 기둥머리를 장식하기 위하여 그린 단청(丹青). 기둥머리에 비단을 감아 늘인다는 옛 기법에 따라 단청할 때에도 그와 같도록 무늬로 장식한 것인데, 아름다운 비단 자락이 표현되므로 머리초 중에서는 화려한 종류에 속한다.

주초석(柱礎石·礎石) : 기둥을 받치는 여러 가지 모습의 돌. 주춧돌. 산석(山石)을 떠다가 자연석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말끔히 다듬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 설치하기도 하는데, 시대에 따라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 신라의 주춧돌은 주좌(柱座)를 룡기(隆起)시키는 유형임에 반하여 백제에서는 방형(方形)의 판석(板石)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어느 건물보다도 사원 건물의 주춧돌이 가장 아름답고 장식적이다. 주춧돌.

중귀틀 : 동(棟)귀틀 사이를 막아 낀 귀틀.

중대석(中臺石) : 석등(石燈)의 화사석(火舍石)을 받친 대석(臺石).

중도리 : ① 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으로 된 도리. ② 중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에 놓인 중간도리.

중연(中椽) : 중도리와 중도리에 거는 서까래.

중인방(中引枋) : 벽 한가운데에 가로지르는 인방(引枋). 중방.

중종보(中宗樑) : 대들보와 마루보 사이에 있는 보.

지대석(地臺石) : 지대를 쌓은 돌. 지대의 갓 둘레에 쌓은 돌. 지대 돌·섬돌·덧돌.

지붕(屋蓋) : 가옥의 꼭대기 부분을 덮는 덮개. 비나 눈이나 햇빛·

이슬 등을 막는 구실을 한다. 이 지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하여 건축술이 발달해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붕은 가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삼국시대 초기에 기와 굽는 일이 시작되면서 기와 지붕 구조법이 발달하다가 불교 건축이 활발해지면서부터는 와전사(瓦博士)를 두어 전담시킬 만큼의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그 기술을 외국에까지 전해 주었을 정도였다. 지붕은 구조하는 형태에 따라 집의 격조와 시대적인 특성을 지니다.

지붕널(蓋板): 지붕이나 서까래 위를 덮는 널.

착고(着固): ① 적새밀의 기왓골을 막는 수키와 · 착고기와 · 차꼬. ② 높이가 낮고 너비가 짧은 빈 곳에 끼어 댄 널, 또는 그 자리. 부연착고 · 마름착고 등.

착고막이: 기와집 용마루의 양쪽으로 끼우는 수키왓장. 차꼬막이.

착고판(着固板 · 浮椽間板): 부연 뒷목의 사이사이를 막아 낀 널쪽. 부연착고 · 당골판.

찰주(擦柱 · 剝柱 · 心柱): 탑의 중심 기둥. 상륜의 심주(心柱). 여러 층으로 된 목조탑자(木造塔姿)의 중심에 있는 높은 기둥인데, 사리(舍利)를 장치한 심초석(心礎石)에 세워져 상륜부를 구조하는 철반(鐵盤)까지 이르게 한다. 아무리 높은 탑이라도 이 기둥은 목재를 이어 가면서 받쳐 올라간다. 황룡사(皇龍寺) 3층석탑과 같은 다층(多層)의 심주(心柱)는 그 지름도 대단히 크고 자체의 무게 또한 대단하여서 그 기둥을 받쳤던 탑지(塔地)에 남아 있는 심초는 그 무게가 200톤이 넘을 정도로 대규모이다.

창(窓): 공기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벽에 만들어 놓은 작은 문. 창은 그 모양에 따라 화창(花窓) · 월창(月窓) · 사창(死窓) · 들창 · 교창(交窓) · 광창(光窓) · 살창 등으로 나누는데, 대개 여닫이 형이다.

창방(昌枋): 대청 위의 장여 밑에다는 넓적한 도리. 오량(五樑)집에 모양을 내느라고 단다.

창방소로(昌枋小累): 익공집에서 창방 위에 놓인 소로.

창살: ① 창틀 안에 구획하거나 장식하여 댄 가는 살. 장살과 동살로 구분된다. ② 비각·종각·사룡(斜龍) 등의 벽 같은 데에 세로 죽죽 내리지른 나무 오리.

처마(檐下): 지붕이 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 이것은 지붕을 구성하기 위하여 베푼 기반 구조인데, 서까래만으로 구조되면 흘처마, 부연까지 구조되면 겹처마라 한다. 처마 구성은 얼마나 뻗었느냐에 따라 처마 깊이라 하여 기둥 높이와 비견되는데, 처마 깊이는 중국이 한국보다 얇고, 한국은 일본보다 얇은 경향을 지녔다. 이는 강우량과 태양의 남중고도(南中高道) 때문이다.

처마도리(檐桁): 변두리 벽 위에 걸어 서까래를 받는 도리.

처마돌림: 서까래 마구리가 보이지 않도록 대는 부재.

처마추리: 처마 건물 바깥으로 내민 부분. 또 그 내민 길이. 처마 내밀기. 처마길이.

침차(檐遮): 한식 나무 구조 건물의 주두(柱頭) 또는 소로 위에 도리와 평행 방향으로 얹힌 짙막한 공포 부재의 한 가지. 초제공·이제공들의 가운데에 어긋 매겨 짚다.

청판(廳板): ① 마룻바닥에 까는 널. 청널. ② 구조물에 쓰이는 널의 총칭.

초익공(初翼工): 한식 나무 구조 건축의 가장 간단한 공포 구조에서 익공이 한 개인 것. 기둥 위에 끼어 보의 밑을 받치는 보아지 외부 끝머리는 쇠서형으로 하거나 초엽이 마린 것처럼 한다.

초제공(初諸貢): 제공 중 제일 밑에 짜여진 침차와 살미의 한 층.

추녀: 처마 네 귀의 기둥 위에 끝이 번쩍 들린 크고 긴 서까래. 또, 그 부분의 처마. 짧은 장재(長材)를 써서 저 깊은 곳에서 부터 뒷몸을 걸어 처마의 무게를 떠받게 만드는 특수한 것. 곡율(曲率)의 유지를 위하여 알추녀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추녀는 겹처마일 때 사래를 받아 주고, 좌우로 선자서까래를 배설한다.

출목(出目): 공포에 있어서 침차가 주심(主審)으로부터 돌추되어 도리나 장여를 받친 것. 주삼포(柱三包)에서 주심도리 밖으로 외목

(外目)을 한 가닥 내거는 일과, 다포 구성에서 주심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 바깥쪽으로 내미는 외출목(外出目). 건물 안쪽 내출목(內出目) 등을 일컫는다. 내외출목에선 외출목이 내출목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다. 집에 따라서는 내외가 같을 수도 있다. 출목의 수는 포작(包作)을 말하는데 2출목은 5포작, 3출목은 7포작, 4출목은 9포작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삼출목(外三出目).

충량(衝樑) : 집채의 좌우 쪽에서 상량과 동렬로 짜이는 단량(短樑). 바깥머리는 대량(大樑) 모양으로 기둥위에 짜이고 안 머리는 대량 허리 위에 걸친다.

충방(衝枋) : 9량이나 11량집 가구(架構)에서 종중도리와 종도리 사이의 뜬도리에 걸치는 직개(直材). 화반(花盤)에 지탱되는 수가 많다.

취두(鷲頭) : 용마루 좌우 끝에 설치하는 장식기와. 시미(鷓尾)와 방불한 의미를 지녔으나 취두는 독수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큰 새로서 모든 잡귀와 화마를 제어하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상징된다. 고려 중기 이후에 성행하기 시작하는데, 금박을 입히고 제(祭)를 드리기도 하였다. 오늘날 전해지는 취두 중에는 서울 남대문의 것이 장엄하다.

치마널(裳板) : 난간 밑 테두리에 돌려 붙인 넓고 얇은 널.

치미(치尾) : 용마루 좌우 끝에 장식하던 상상의 날짐승 꼬리 모양의 고대 장식기와. 이것은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중기까지 성행되다가 취두가 도입되면서부터 점차 쇠퇴하여 조선시대의 지붕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황룡사지(皇龍寺址)에서 수습된 치미는 그 키가 2m가 넘는 대규모의 것이고, 기림사(祇林寺)에는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치미가 보존되어 있다.

탁의(卓衣) : 법당에서 탁자를 배설할 때 그 장엄을 위하여 덮거나 늘이는 직물. 보통 직수(織繡)로 아름답게 장식한다.

토수(吐首) : 기와의 한 가지. 전각 네 귀의 추녀 끝에 끼우는 용두형(龍頭形)이나 귀두형(鬼頭形)의 장식. 사례의 나무 끝이 허공을

향하여 들려 있어서 비바람에 부식될 염려가 크므로 그것을 덧짜기 위하여 와질(瓦質)로 구워 만들기도 하고, 동판(銅版)을 오려서 씌우기도 한다. 팔뚝에 끼는 토수 같은 형상이어서 이런 이름이 생겼으나 본뜬 모양은 이무기를 닮았다. 동판(銅版)으로는 귀면(鬼面)이나 화훼(花卉)를 장식하기도 한다.

통기둥(通柱): 2층 이상의 집에서 내진(內陣)에 위치하면서 가장 높은 층까지 뻗어 올라가 대량(大樑)을 받치는 기둥. 건물안에서 가장 긴 기둥. 한옥은 바깥이 2, 3층이나 내부는 통층(通層)이므로 이렇게 긴 내진의 고주(高柱)가 소용된다.

통머름: 여러 조각으로 짜지 아니하고 긴 널을 통째로 가로대어 막은 머름.

퇴간(退間): 집체의 원간살밖에 댄 기둥을 세워 붙여 지은 간살. 퇴(退).

퇴량(退樑): 뒷기둥과 안기둥에 얹힌 짧은 보 뒷보.

파련대공(波蓮臺工): 한식 나무 구조에서 판대공(板臺工)에 파연각(波蓮刻)을 한 대공.

팔작지붕(八作屋蓋): 기와지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성미를 지닌 지붕. 좌우 측면에 합각(合刻)이 있는 4면 구성의 지붕이다. 합각이 있으므로 마루도 용마루·내림마루(합각마루)·추녀마루(귀마루) 등이 형성되고 각각 마루에 장식 기와들을 장치하여 의장(意匠)과 화엄(華嚴)도 화려하며 합각에도 현어(懸魚)·지네철·회면벽(繪面壁) 등의 치장이 있어 더욱 장중하다. 현존하는 중요 법당의 대부분은 팔작기와지붕의 구조로 되어 있다.

팔작집: 네 귀의 모두 추녀를 달아서 지은 집. 팔작가(八作家).

평고대(平高臺): 처마·서까래·부연 등의 끝에 걸쳐 대는 가로재. 처마 서까래 위에 대는 것을 처마 서까래 평고대(초막이). 부연 위에 대는 것을 부연 평고대(2막이)라고 한다. 상대에는 평고대와 부연사이의 착고막이를 한 나무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후대에 오면 따로 만든다.

평방(平枋): 공포(拱包) 등을 받치기 위하여 기둥 위에 초방(初枋)

을 짜고, 그 위에 수평으로 올려 놓은 넓직한 나무. 평방은 다포(多包)집에서는 반드시 설치되는 부재(部材)인데, 보통 두껍고 굵은 각재(角材)를 쓴다.

평주(平柱): 건물 외곽에 세운 기둥. 외진주(外陣柱)·변주(變奏)라고도 한다. 키는 귀기둥. 고주(高柱)보다 짧은 것이 보통이다.

포(包): 동양식 목조 건축에 있어서 처마를 길게 내밀기 위하여 기둥 위 처마도리 밑에 짧은 부재를 써서 장식적으로 받게 한 부재(部材)의 총칭. 공포(拱包)와 산미(山彌)의 총칭.

포대공(包臺工): 대들보나 마루보 위에 포작(包作)형식으로 세운 기둥.

포벽(包壁): 공포와 공포 사이에 있는 평방(平枋) 위의 벽.

풍경(風磬·風鐸): 추녀 끝에 달아 바람에 흔들리는 날개를 달아 둔 작은 종. 보통 구리나 놋쇠로 만들어 추녀 끝이나 사래 끝에 단다.

풍판(風板): 비바람을 막기 위하여 박공벽이나 합각벽을 가린 널빤지. 띠장·널·툼막이대로 구성된다. 방풍판의 준말. 차양의 한 가지.

하방(下枋): 하인방(下引枋)의 준말.

하엽(荷葉): 연잎.

하엽동자(荷葉童子): 난간 두겹돌을 받치는 꽃 모양으로 조각된 장식물을 쓴 동자기둥.

한대(限大): 팔작집 모퉁이의 촛가지에 모로 나온 나무토막.

합각(合閣): 지붕 위쪽의 옆에 박공(박공)으로 ‘人’자 모양을 이룬 각.

합각마루: 박공 위에 있는 마루. 합각 내림마루.

합각머리: 합각 지붕의 삼각형으로 된 윗부분. 이 부분에는 가지의 장식으로 꾸민다. 솟을각.

합각벽(合閣壁): 박공 머리의 삼각형으로 된 벽.

합각지붕(合閣屋蓋): 지붕 위에 까치박공이 달린 삼각형의 벽이 있는 지붕. 팔작지붕. 처마 끝은 모임 지붕처럼 되고 용마루 부분에 3각형의 벽을 만든 지붕. 팔모지붕.

행공(行工): 한식 나무 구조 건축의 공포에 있어서 외목도리(外目道

里)와 장설(長舌)을 받친 침차.

협간(夾間): 정간(正間)의 좌우 양측에 있는 주간(柱間).

협사(脇侍):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 협사(脇士).

홍살(紅箭): ① 솟을대문 등의 문 바로 이에 창살 모양으로 공간을 막아 세워 댄 화살. ② 홍살문 위에 댄 살. 대개 빨간 단청을 한다.

홍살문(紅箭門):릉(陵)·원(園)·묘(廟)·궁전·관아 등의 정면 입로에 세우는 붉은 칠을 한 문. 둥근 기둥 두 개를 세우고 지붕에 붉은 살을 죽 박았다. 홍문.

홍예문(虹霓門·虹예門): 문얼굴의 윗머리가 무지개같이 반원형이 되게 만든 문. 아치, 홍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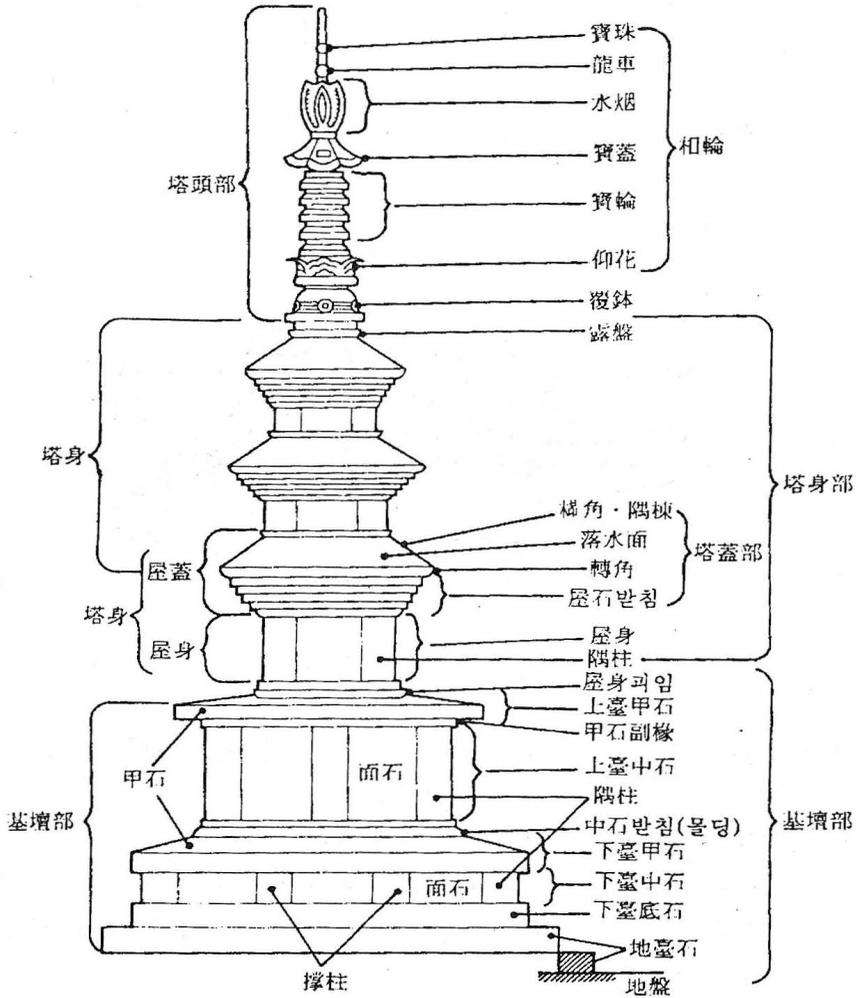
홍예보(虹蜺樑): 아치형으로 굽은 보.

홀처마: 처마 서까래만으로 된 처마. 부연을 달지 아니한 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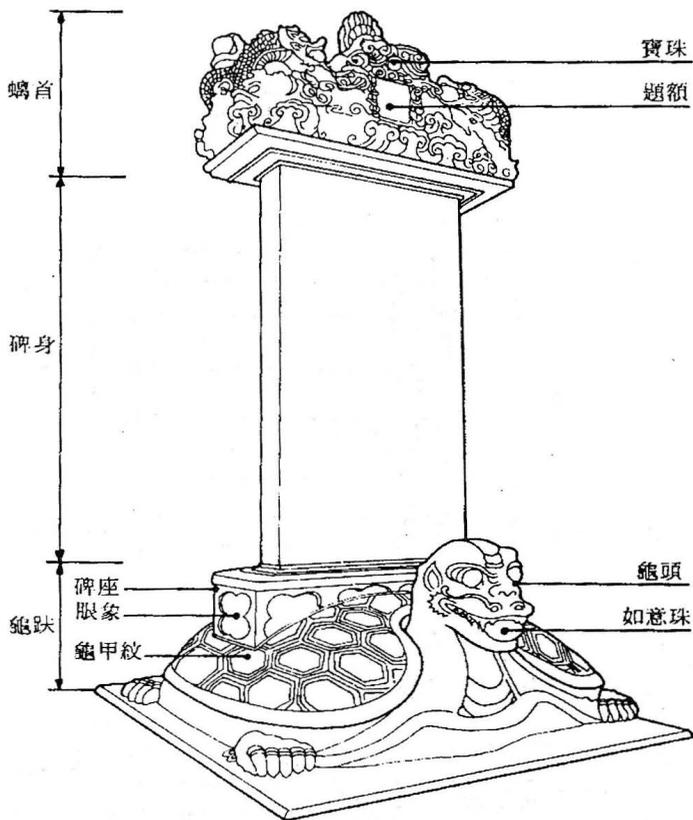
화반(花盤): 초방 위에 장여를 받치기 위하여 화분·연꽃·사자 등을 그려 끼우는 널조각.

활주(活柱): 추너뿌리를 받친 가는 기둥. 활주에는 단면이 원형인 것과 팔각형인 것이 많다.

II. 탑 파 (塔婆)



탑의 각부명칭



석비의 부분명칭도

간석(竿石) : 석등의 하대석과 중대석 사이에 있는 기둥 모양의 부분. 보통 8모 기둥 돌로 되어 있다.

감실(龕室) : ① 벽에 조그마하고 우묵하게 만든 자리. 또는 큰 방의 한쪽에 작게 낸 방. ② 사당안의 신주를 모셔두는 방. ③ 불교에서 부처님 등을 모셔두는 방. ④ 천주교에서 제대위에 성체(聖體)를 모셔두는 작은 방.

갑석(甲石) : 돌 위에 다시 포개어 얹은 납작하고 판판한 돌.

갑석부연(甲石副楹) : 갑석이 계단을 이루어 받치고 있는 돌.

개석(蓋石) : ① 석실 위를 덮는 돌. 한 쪽이나 두 쪽으로 되어 있다.

② 비석이나 석등 위에 지붕 모양으로 만들어 얹은 돌. 개두(蓋頭). 가담석(加담石).

계단(戒壇) : 중이 계(戒)를 받는 단. 흔히 흙과 돌로 만드는데 대승(大乘)계단과 소승(小乘)계단의 두 가지가 있다.

귀부(龜趺) : 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의 받침돌. 신라 초기부터 쓰기 시작한 것인데 파고다 공원의 대원각사 터에 있는 비나 경주 서악(西岳)에 있는 무열왕릉의 비등에 받쳐진 것이 대표적이다.

귀꽃 : 돌탑 등의 귀마루 끝에 새겨진 초화형(草花形)의 장식.

기(基) : 묘석. 탑 등을 세는 단위. 비석 5기. 탑 3기 등.

낙수면(落水面) : 탑이나 비의 옥개석 지붕면.

난탑(卵塔·蘭塔) : 사각 또는 팔각 대좌 위에 달걀 모양의 탑신을 세운 탑. 흔히 선승(禪僧)의 묘표(墓標)로 쓰인다. 무봉탑(無縫塔).

노반(露盤) : 탑의 상륜을 받치는 최상 옥개상 위에 놓는 석물. 탑신 부의 맨 위에 해당하며 이 노반 위에 복발(覆鉢)이 있다.

노주(露珠) : 당(堂)밖의 정면에 세운 두 기둥.

다라니(陀羅尼) : 선법(善法)을 갖추어 악법을 막는다는 뜻인데 범문(梵文)으로 된 긴 구(句)를 번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독송하는 일을 말한다. 한 자 한 구에 한없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진언(眞言) 또는 밀어(密語)로서 이를 독송하면 스스로 광대 무변한 의미를 터득하며 가지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각종의 공덕을 받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짧은 것을 진언(眞言)이라고 한다.

다비(茶毘) : 불에 태운다는 뜻. 불교에서 화장을 뜻하는 말.

당(幢) : 사찰에서 기도나 법회 등의 의식이 있을 때 절의 문앞 당간(幢竿)에 다는 불화(佛畫)를 그린 기(旗). 속칭 괘불(掛佛).

당간(幢竿) : 사찰 앞에 당(幢)을 달아 세우는 데 쓰이는 대. 짐대. 나무. 돌. 쇠등으로 만든다.

대반석(臺盤石) : 돌탑을 세울 때 기단의 밑바닥에 까는 반석.

대좌(對座) : 불(佛)을 안치하는 받침대. 불상의 대좌에는 연화좌(蓮

- 華坐) · 암좌(巖座) · 수미좌(須彌座) · 조수좌(鳥獸座) 등이 있다.
- 두입(斗入) : 산세가 유난스럽게 굽어 바다 쪽으로 쭉 들어간 형세.
- 두출(斗出) : 산세가 유난스럽게 바다 쪽으로 쭉 내민 형세.
- 대석(臺石) : ① 받침돌. ② 동상 같은 것의 밑받침.
- 면석(面石) : 석탑 등에 있어서 기단의 대석과 갑석 사이를 막아 낸 넓은 돌.
- 명기(銘記) : 탑이나 비석 등에 새겨진 기록.
- 모각(模刻) : 돌이나 나무에 본떠 새기는 일. 책 따위를 판목(版木)에 새김을 한 인쇄물.
- 모전탑(模塼塔) :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쌓아올린 탑. 안산암(安山巖)을 벽돌과 같은 크기의 모양으로 깎아 쌓은 경주 분황사의 탑이 그 대표적인 유물이다.
- 몰딩(moulding) : 건축이나 공예에서 창틀, 가구 따위의 테두리 장식.
- 묘탑(廟塔) : 불상을 안치해 두는 묘우(廟宇)의 탑.
- 문비(門扉) : 문짝
- 문주(門柱) : 문기둥.
- 미석(楣石) : 석성(石城) 맨 윗부분에 얇은 판석을 약간 돌출시켜 쌓은 돌.
- 반곡(反哭) : 뒤로 구부러짐. 반대로 휨. 반굴(反屈).
- 반룡(蟠龍) : 지상에 서려있어 아직 승천하지 않은 용.
- 반전(反轉) : 반대로 구르거나 굴리는 일. 또는 반대로 뒤집거나 돌아가는 일.
- 방분(方墳) : 고분 분류의 한 가지. 받침돌. 모양이 네모진 무덤.
- 방좌(方座) : 네모진 대좌(臺座).
- 방주(方柱) : 네모진 기둥.
- 보개(寶蓋) : ① 상륜(相輪)의 보륜(寶輪)과 수연(水煙) 사이에 있는 달집 모양의 부분. ② 보주(寶珠) 같은 것으로 장식된 천개(天蓋).
- 보관(寶冠) : ① 보석으로 꾸민 관. ② 보배가 되는 왕관.
- 보륜(寶輪) : 탑에서 상륜(相輪)의 중심이 되는 부분. 노반(露盤)위

의 양화(仰花)와 보개(寶蓋)와의 중간에 있는 9개의 바퀴 모양으로 된 부분. 구륜(九輪).

보주(寶珠): ① 불교에서 위가 뾰족하고 좌우 양쪽과 위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형상으로 된 구슬. ② 불교에서 말하는 여의보주(如意寶珠). ③ 탑이나 석등 같은 것의 맨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의 부분.

보협인탑(寶協印塔): 원래 보협인타나니(寶協印陀羅尼)의 주문을 넣어 두는 탑. 후에는 공양탑. 묘비탑으로 세워졌다.

복련좌(覆蓮座): 연꽃을 엮어놓은 모양의 무늬를 새겨 넣은 대좌(臺座).

복발(覆鉢): 상륜(相輪)등의 노반위에 있는 발(鉢)을 엮어놓은 모양으로 된 부분. 그 형태는 흙을 쌓아 올린 분묘형(墳墓形)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다.

부도(浮屠): 이름난 중이 죽은 후 그 유골을 안치하여 세운 둥근 돌탑. 삼국시대부터 있었으며 그 형태는 단층에 8각형으로 되었던 것이 보통이다.

부연(附椽): 처마서까래 끝 위에 덧 얹는 네모진 짧은 서까래. 처마를 위로 쳐들리게 하여 모양이 나게 하는데 부연초리(내밀기)는 처마서까래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가 되게 한다.

비신(碑身): 비문을 새긴 비석의 주장되는 돌.

비좌(碑座): 비신과 비대석과의 연결 부분.

사리(舍利): ① 불타나 고승의 유골. ② 부처나 고승이 죽은 후에 화장하면 구슬이 남는다고 하며 그 구슬을 사리라고 한다. ③ 송장을 화장하고 난 뒤에 남은 뼈.

사리용기(舍利容器): 사리나 불제자 또는 성승(聖僧)의 유골을 넣은 용기. 불탑 안에 안치하여 매장되었던 것이 불탑의 파괴 혹은 발굴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일명 사리함(舍利函).

사리탑(舍利塔):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여 모셔둔 탑.

산개(傘蓋): 탑 꼭대기에 있는 우산 모양으로 장식된 부분.

상대갑석(上臺甲石): 석탑에서 옥신석을 받는 크고 넓적한 돌. 상대

중석 위에 있다.

상륜(相輪): ① 불탑 꼭대기의 수연(水煙) 바로 밑에 있는 청동으로 만든 아홉층의 원륜(圓輪). ② 불탑의 꼭대기에 있는 장식부분. 노반·복발·양·보륜·보개·수연·용차·보주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을 상륜부 또는 탑두부(塔頭部)라고 한다.

석부(石趺): 돌을 새겨서 만든 부좌(趺坐). 비 받침. 귀부(龜趺).

석수(石獸): 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든 짐승.

석인(石人): 왕릉이나 지체 높은 사람의 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 문석인(文石人). 무석인(武石人) 등이 있다.

소루(小累): 두공·침차·장여·화반 등의 사이에 틈틈이 끼우는 네모난 나무.

수연(水煙): 불탑에서 보개(寶蓋)와 용차(龍車) 사이에 있는 불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장식.

안상(眼象): 격간이나 혹은 석물 좌대의 8면에 새김질 하여 파낸 조각의 한 가지.

양련(仰蓮): 꽃부리가 위로 향한 연꽃 모양의 무늬.

양련좌(仰蓮座): 양련을 새긴 대좌(臺座).

양화(仰花): ① 꽃이나 잎이 위로 솟은 듯이 표현된 모양. ② 탑 꼭대기의 보륜(寶輪) 밑에 꽃이 위로 피어난 듯이 조각된 부분.

양각(陽刻): ① 모양이나 형상을 배경의 평면에 도드라지게 새긴 조각. ② 동상 같은 것.

엔타시스(Entasis): 기둥의 중간이 배가 약간 나오도록 한 건축 양식. 고대 그리스·로마·이집트 등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데, 기둥의 조화·안정을 위한 역학적인 필연을 건축에 응용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선 이를 ‘기둥의 배흘림’이라고 한다. 기둥의 중간이 굵게 되고, 상하로 가면서 점차 가늘게 된다. 기둥 높이의 3분의 1 지점이 가장 굵고, 위는 밑둥보다 더 가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연목(椽木): 서까래

연함(椽檻): 서까래 끝의 평교대 위에 기왓골을 받기 위하여 암티와

가 놓일 만하게 반달 모양으로 총총하게 엮 나무.

연화대석(蓮華臺石): 연꽃 무늬가 새겨진 받침돌.

연화탑(蓮華塔): 연꽃 무늬를 새긴 탑.

오륜탑(五輪塔): 오륜을 상징하는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 탑. 맨 밑은 땅을 상징하여 방형(方形)이고, 다음은 물을 상징하여 원형이며, 그 위는 불을 상징하여 삼각형, 그 위는 바람을 상징하여 양월형(半月形)이고, 맨 위는 하늘을 상징하여 보주형(寶珠形)으로 되어 있다. 공양탑(供養塔)·묘표(墓標)·사리탑(舍利塔)으로 쓰이며, 돌이나 금속 또는 진흙으로 만들기도 한다.

옥개석(屋蓋石): 탑의 옥신석 위에 덮은 지붕 모양의 돌. 옥개.

옥신(屋身): 불탑에서, 탑신부 하부에 있는 옥개(屋蓋)를 받치고 있는 돌.

옥신뿔: 석탑에서, 옥개석과 옥신석을 연결시키는 뿔돌. 옥신괴임.

용차(龍車): 석탑 상륜부의 수연(水煙)과 보주(寶株) 사이에 있는 일종의 장식물.

우각(隅角): 모퉁이·구석.

우동(隅棟): 건물이나 탑의 귀퉁이에 세운 기둥.

운룡문(雲龍文): 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오르는 용의 무늬. ② 구름과 용의 무늬.

원탑(圓塔): 둥글게 깎아 다듬은 돌을 쌓아 올려 세운 탑.

음각(陰刻): 물건의 표면에 무슨 무늬나 형상이나 자획 등을 움푹 들어가게 요형(凹形)으로 새기는 조각.

이수(이首): ① 용 모양을 새긴 비석의 머릿돌. ② 도장, 궁전의 섬돌. 종정(鐘鼎) 등의 빨 벗는 용을 새긴 돌. 이두(이頭).

인왕상(仁王像): 인왕의 모습으로 된 상(像). 인왕은 불법의 수호신인데, 절문 또는 수미단(須彌壇) 전면의 좌우에 안치하는 한 쌍의 금강역사(金剛力士)를 말한다. 왼쪽 것을 밀적금강(密迹金剛), 오른쪽 것을 나나연(那羅延) 금강이라고 한다. 둘 다 용맹하고 험악한 얼굴로 되어 있다.

- 장대석(長臺石) : 섬돌 층계를 놓거나 축대를 쌓는 데 쓰기 위하여 길게 다듬어 만든 돌. 장대.
- 적심석(積心石) : 축석(築石)의 안쪽에 심을 박아 쌓는 돌. 적심돌.
- 적심재(赤心材) : 나무의 심에 가까운, 색깔이 붉고 단단한 부분을 켜 낸 제재목(製材木). 심재(心材).
- 전액(篆額) : 전차(篆字)로 쓴 비갈(碑碣)의 두액(頭額).
- 전탑(塼塔) : 흙벽돌로 쌓아 올린 탑. 벽탑(壁塔).
- 조탑명(造塔銘) : 탑을 세우게 된 연유 등을 밝힌 글. 조탑기(造塔記).
- 좌(座) : 불상을 세는 말. 1좌, 2좌 등.
- 좌불(座佛) : 앉아 있는 부처 또는 그런 조각품.
- 중대석(中臺石) : 석등(石燈)의 화사석(火舍石)을 받친 대석.
- 지대석(地臺石) : 지대를 이루는 돌. 지대의 갓 둘레에 쌓은 돌. 지대 돌. 섬돌·댓돌.
- 지반(地盤) : 건물 등을 앉히는 토층 부분.
- 지석(誌石) : 죽은 사람의 성명, 생몰 연월일, 행적, 무덤의 좌향(座向) 등을 기록하여 무덤 앞에 묻는 판석(板石) 또는 도판(陶板).
- 찰간(刹竿·擦竿) : 큰 절 앞에 세우는 깃대와 비슷한 물건. 예전에 도덕이 높은 중을 십방(十方)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세웠는데, 나무나 쇠로 만들었다. 충남 계룡산(鷄龍山)의 갑사(甲寺) 등지에 있다.
- 찰간주(刹竿柱) : 절 앞에 세우는 당번(幢幡)을 달기 위한 간주(竿柱).
- 찰주(擦柱) : 상륜(相輪)의 심주(心柱). 곧 탑의 중심 기둥.
- 천부상(天部像) : 팔부중(八部衆)의 하나인 천상계(天上界)에 사는 것들의 모습을 그리거나 새긴 것.
- 천인상(天人像) : 비천상(飛天像), 비천(飛天)은 하늘 곧 상계(上界)에 살며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상상의 선인(仙人).
- 철간(鐵竿) : 쇠로 된 찰간(刹竿).
- 청석탑(靑石塔) : 점판암(粘板巖)이라는 석재(石材)로 된 탑. 기본 양식은 얇고 작은 석재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 같은 소형탑이다.

신라시대부터 건조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에 유행한 탑인데, 그 유례(遺例)는 많지 않다.

탑개부(塔蓋部): 탑의 기단부(基壇部) 위에 있는 탑신부(塔身部)의 일부로서 옥석(屋石)반침·전각(轉角)·낙수면(落水面)·양각(仰角) 등이 포함되어 있다.

탑기단(塔基壇): 탑의 맨 밑반침이 되는 기부(基部).

탑두부(塔頭部): 탑의 맨 위층이 되는 부분. 탑두부에는 노반·복발·양화·보륜·보개·수연(水煙)·용차(龍車)·보주 등이 있다.

탑륜(塔輪): 불탑의 맨 위층에 있는 상륜(相輪).

탑신부(塔身部): 탑의 기단부와 탑두부 사이에 있는 탑의 몸체를 이루는 부분.

탑신괴임: 탑신 밑에 단을 이루어 탑신을 받치는 돌. 옥신괴임. 상대갑석(上臺甲石)과 옥신(屋身)과의 사이에 놓인다.

탑지석(塔誌石): 탑이 세워진 연유와 내역을 밝혀서 새긴 돌.

탑지판(塔誌板): 탑을 세우게 된 내역과 연유 등이 적혀 있는 판자.

탑파(塔婆): ① 탑(塔) ② 묘(墓) ③ 줄도파(줄堵婆).

탱석(撐石): 탑 기단의 면석 사이에 세우는 기둥. 탕주.

투각(透刻): 조각 방법의 하나. 재료를 뚫어 파서 모양을 나타낸다.

팔각원당형부도(八角圓堂型浮屠): 기단·탑신·옥개가 모두 8각형이고 단층인 부도. 옥개와 기왓골 등 세부는 목조 건물의 양식을 모방하여 돌로 만들어졌고, 기단이나 탑신부에는 사자·신장(神將)·비천(飛天) 등이 새겨져 있다. 8각형부도는 우리 나라 부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신라말과 고려초에 걸쳐 제작된 우수한 작품이 많이 남아 있다.

팔부중(八部衆): 불법을 지키는 여덟 신장(神將). 곧, 천(天), 룡(龍), 야차(夜叉), 건달파(乾달婆)·아수라(阿修羅)·가누라(迦樓羅)·긴나라(緊那羅)·마후라가(摩後羅迦)·천룡팔부(天龍八部).

팔부중상(八部衆像): 팔부중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나 새겨 만든 조각.

평두(平頭): 탑 상부의 산개(傘蓋)와 복발(覆鉢) 사이에 놓이는데,

신성한 곳을 둘러싸는 울타리라고도 한다.

풍령(風鈴): 풍경(風磬). 처마 끝에 다는 경쇠. 작은 종 모양으로 만들고, 그 속에 쇳조각으로 붕어 모양을 만들어 달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

하대갑석(下臺甲石): 탑 기단부에서 중석 받침과 하대중석 사이에 있는 받침돌.

하대석(下臺石): 석등이나 또는 간의 건석(竿石), 혹은 상대석(上臺石) 밑에 받친 대석.

하대중석(下臺中石): 탑 기단부에서 하대갑석을 받치고 있는 대석.

하대저석(下臺底石): 탑 기단부의 하대중석을 받친 대석으로서 지석(地石)위에 있다.

화사석(火舍石): 석등의 중대석(中臺石) 위에 있는 불을 켜는 부분.

Ⅲ. 불 상 (佛像)



불상 세부명칭도



보살상 세부명칭도



신장상 세부명칭도

가릉빈가(迦陵頻伽) : 칼라빙카.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새. 히말라야 산에 사는데, 매우 미묘한 소리를 내고, 특히 것이 아름답다고 한다. 또한 극락 정토에 산다 하여 극락조(極樂鳥)라고도 하는데, 상반신은 새의 모습으로 생겼으며,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가사(袈裟) : 중이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 밑으로 걸쳐 입는 법복(法服)인데, 종파(宗派)와 계급에 따라 그 빛깔과 형식에 엄밀한 규정이 있다.

거신광(擧身光) : 두광(頭光) · 신광(身光)과 함께 부처의 몸에서 나는 광배(光背)중의 한가지, 부처의 몸 후면에서 전신에 걸쳐 나오는 빛을 말한다. 이 빛은 입상(立像)이든 좌상(座像)이든 대좌 위에서 시작하여 머리 위까지 부처의 몸 전체를 휩싸게 된다. 불신(佛身)에서 발하는 빛을 표현할 때 광배(光背) 주위에 불꽃을 표현하는 수가 많은데, 불꽃의 모양은 위가 뾰죽해지므로 그러한 불꽃의 형태로 표현한 두광(頭光)이나 거신광은 모두 위의 끝은 뾰죽해진다.

건칠불상(乾漆佛像) : 질흙으로 골을 만들어 삼베를 감고, 그 위에 질흙가루를 바른 다음에 숯돌가루를 섞은 칠을 바르고 나서, 속에 들어 있는 골을 빼내어 버린, 속이 빈 소상(塑像). 이러한 불상은 목조 불상이나 소조 불상보다도 내구성이 더 적어서 현재 남아 있는 예는 경주 기림사(祇林寺)에 보살상이 1구 남아 있을 뿐이다.

결가부좌(結跏趺坐) : 완전히 책상다리를 하고 앉는 가부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른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얹어 놓은 다음에 왼발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얹어 놓는 것을 향마좌(降魔坐)라 하고, 그 반대를 길상좌(吉相坐)라고 한다.

계인(契印) → 수인(手印) · 인상(印相)

관음전(觀音殿) :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모신 불전(佛殿). 관음보살은 아미타불(阿彌陀佛)의 좌협시(左脇侍)이다.

광배(光背) : 부처의 초인성(超人性)을 형용하여 불신(佛身)의 배면

(背面)에 광명을 표현한 원광(圓光). 머리 뒤의 원형의 것은 두광(頭光), 등뒤에 있는 것은 신광(身光), 몸 전체를 싸고 머리 위로 뻗어오르는 것은 거신광(舉身光)이라고 한다.

교각상(交脚像): 부처의 여러 좌상(坐像) 중의 하나인데, 두 다리를 밑으로 늘어뜨리되, 양 발목을 서로 교차시키고 단(檀)에 걸터앉은 모습을 본뜬 불상. 중국에서는 남북조 시대에 유행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형식이다.

군(軍): 부처가 입는 아랫도리 내복. 군의

귀배(龜背): 거북의 등 또는 거북의 등 모양으로 가운데가 볼록한 것.

금강신(金剛神): 불교의 수호신으로서 사문(寺門) 양쪽에 안치해 놓은 한 쌍의 화암신장(華巖神將), 여래(如來)의 비밀사적을 알아서 5백 야차신(夜叉神)을 부린다고 한다. 왼쪽에 있는 밀적금강(密迹金剛)은 입을 벌리고 있고, 오른쪽의 나나연(那羅延) 금강은 입을 다문 모습을 하고 있다. 금강역사. 인왕(仁王).

금강좌(金剛座): 석가가 보리수 밑에서 성도(成道)했을 때에 앉았던 자리.

금당(金堂): 황금·백금을 칠하여 지은 불당(佛堂). 본존(本尊), 불상, 혹은 고승의 영정을 모셔 두는 곳.

금동불상(金銅佛像): 청동 불상 표면에 도금(鍍金)을 한 불상. 황금불(黃金佛)을 만들기 어려운 점과, 주조하기가 쉽고 표면상 동일한 효과가 있는 점 때문에 불교 세계에서 널리 제작되고 있다.

길상좌(吉祥坐): 항마좌(降魔坐)와 함께 결가부좌 형식의 한가지. 왼 발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놓은 다음에 오른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얹어 놓는다. 부처가 보리수 밑에서 정각(正覺)을 성취했을 때 몸은 길상좌를 취하고 손은 강마(降魔)의 인을 취했다고 한다. 따라서 부처의 좌법으로는 길상좌를 으뜸으로 삼고, 때에 따라서 항마좌를 한다고 한다.

나발(螺髮): 나사 모양으로 된 부처의 머리털. 나계(螺髮). 나모(螺毛).

나한상(羅漢像): 나한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불상. 나한은 아나한

(阿羅漢)의 준말인데, 소승불교(小乘佛敎)의 수행자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성자(聖者)를 말한다.

나한전(羅漢殿): 16나한이나 5백 나한을 만들어 모셔 놓은 집. 응진전(應眞殿).

난순(欄楯): 층계난 다리 등의 가장자리에 종횡으로 나무나 쇠를 건너 세워 놓은 살.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또한 장식으로도 삼는다. 난간(欄干).

납의(衲衣): 중이 입는 겹겹 옷.

노주(露柱): 당(堂) 밖의 정면에 세워 둔 두 기둥.

당초문(唐草文): 여러 가지 덩굴풀이 비껴어 뻗어 나가는 모양을 그린 무늬. 당초무늬. 당초(唐草).

대웅전(大雄殿): 본존불상(本尊佛像)을 모신 법당의 이름.

대의(大衣): 부처가 입는 삼의(三衣)중의 한 가지인데, 삼의란 대의·칠조의(七條衣)·오조의(五條衣)를 말한다. 대의는 삼의중에서 가장 큰 옷인데, 왕궁이나 마을에 갈 때나 또는 설법을 할 때 맨 겉에 걸치는 옷이다.

대적광전(大寂光殿): 비로자나상(毘盧遮那像)을 모신 법당. 비노전(毘盧殿).

두광(頭光): 신광(身光)·거신광(舉身光)과 함께 부처의 몸에 나타나는 광배(光背)의 한 가지. 부처의 머리 전체에서 발하는 빛을 두광이라 한다. 그런데 머리 부분에서는 육계(肉髻)·백호(白毫)·이마·눈 등에서 빛이 난다고 하며, 백호는 얼굴의 거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그 곳에서 발하는 빛이 가장 강렬하다. 두광은 흔히 선·태양 같은 밝은 빛, 불꽃같은 강렬한 빛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그림으로 그릴 때에는 수레바퀴의 살과 같은 머리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치는 빛을 나타내기도 하고, 둥근 원 주위에 화염을 나타내기도 하여, 빛이 비치고 있는 형상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으나 조각일 경우에는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머리를 중심으로 한 둥근 원을 후두부에 붙여서 표시하는 수

밖에 없다. 이때의 원의 중심은 역시 가장 강렬한 빛을 발하는 백호(白毫)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마애불(磨崖佛) : 암벽에 선각(線刻) 또는 부각(浮刻)한 불상.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중국에서는 당대의 것이 많다.

명왕(明王) : 밀교(密敎)에 나오는 불상인데, 교화나 구제가 어려운 악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여래(如來)나 보살이 무서운 형태로 변신한 것이다. 따라서 명왕들은 무섭고 노발한 형상을 하고 있다. 대일여래(大日如來)의 화신인 부동명왕(不動明王), 아미타불의 화신인 대위덕명왕(大威德明王) 등이 있다.

미륵전(彌勒殿) : 미륵불을 모신 법당. 용화전(龍華殿).

미타정인(彌陀定印) :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의 수인(手印)중의 한 가지. 묘관찰지정인(妙觀察智定印)이라고도 한다. 그 모양은 무릎 위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왼손을 밑에 놓고 그 위에 오른손을 포개어 놓은 다음 각각 집게손가락을 꼬부려서 엄지손가락 끝을 마주 대며, 집게손가락의 등이 서로 맞닿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인은 좌상(坐像)일 때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입상(立像)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 : 불상 조각 가운데서 앉은 자세의 하나.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의 무릎위에 얹고 앉아서 한 손을 뺨에 대고 생각하는 상인데, 미륵보살이나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반가상(半跏像) : 두 다리의 모양이 결가부좌(結跏趺坐)에서 한쪽 다리가 결가부를 풀고 밑으로 늘어진 반의 가부좌라는 뜻에서 그러한 명칭이 생겼지만, 이는 하반신만 가지고 하는 말이다. 결가부좌에서 한쪽 다리만 결가부를 풀었다고 해서 반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반신은 소위 반가(半跏)의 자세인데, 둥근 의자에 앉아 있는 몸 밑으로 천의(天衣)가 의자를 덮으면서 늘어져 있고, 그 밑에 연화좌(蓮華坐)가 있다. 상반신에는 나형(螺形)이 많고, 목과 팔에는 장신구가 있다. 상체의 특징은 두 팔에 있는데, 왼손은 오

른발의 발목을 잡았고, 오른손은 구부린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에 얹고 손가락을 약간 수그린 볼에 대어 사색의 형상을 취하였으며,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런 형식의 불상을 미륵반가상(彌勒半跏像)이라고 하여 보살의 얹은 모습으로 삼고 있다.

백호상(白毫像) : 부처의 32상(相) 중의 한 가지. 양쪽 눈썹 사이에 난 흰 터럭으로 가장 중요한 길상(吉相)인데, 보살상에도 있을 수 있다. 이 터럭은 오른쪽으로 말려 있고 빛을 발하며 부드럽기가 도나면(都羅綿) 같고, 정결하기가 눈 같다고 형용되어 있다. 부처가 탄생하였을 때, 아사타선인(阿私陀仙人)이 이 흰 터럭을 당겨서 재어 보니 15척이었고, 무량한 빛이 났다고 한다. 교리적으로는 이 백호상은 부처의 길상 중에서도 가장 공덕이 큰 것이며, 어떠한 상의 공덕도 이 백호상이 지닌 공덕의 아주 작은 부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범종(梵鐘) : 중국의 고악기(古樂器)의 일종이며 절에 걸어 두는 종. 대개 종대에 걸어 놓고 당목(幢木)으로 친다.

범천(梵天) : ① 바라문교의 교조(教祖)인 조화(調和)의 신 우주 만물의 창조신으로서 사바 세계를 주재한다. 특히 불교 보호의 신으로서 불교도의 존중을 받고 있다. ② 제석천(帝釋天)과 한가지로 불상의 좌우에 모시는 신. 범천왕의 준말. 바라문천. 우리 나라에서는 예가 많지 않으나 경주 석굴암 굴내의 범천상(梵天像). 은 가장 유명하다.

법계정인(法界定印) : 대일여래(大日如來)가 부처 수인(手印) 중 선정인(禪定印)을 결하고 있는 모습을 말한다.

법의(法衣) : 종이 입은 옷. 곧, 가사·장삼 같은 것. 법복.

보주형 광배(寶珠形 光背) : 불신(佛身)의 광배 중에서 신광(身光)과 거신광(擧身光)이 없이 두광(頭光)만 있을 경우에는 그 광배 전체의 모양이 보주와 같은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주형광배(舟形光背).

본생도(本生圖) : 부처가 과거 영겁에 여러 가지 생을 얻어 보류도(寶薩道)를 행하였다는 본생경(本生經)을 제재(題材)로 하여 그

린 그림. 중국·인도 서역의 유적에 많다.

불사리(佛舍利): 석가의 유골. 불골(佛骨)·사리(舍利).

불전도(佛傳圖): 석가의 전생 이야기를 본생담(本生譚)이라고 함에 반하여, 석가의 금생의 이야기에 관한 그림이나 조각을 불전도라고 한다. 즉, 석가모니가 탄생해서부터 열반(涅槃)에 들어 갈 때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나 조각을 말한다. 그 주요 내용은 대개 탄생(誕生)(연꽃으로 상징)·성도(成道)(보리수)·초전법륜(初轉法輪)·열반(涅槃)(불탑으로 상징) 등이다.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연화장(蓮華藏) 세계에 살며, 그 몸은 법계(法界)에 두루 차서 큰 광명을 비춘다고 하는 부처. 이 비로자나불은 법(法)이나 진리 그 자체이며 형이상학적인 존재로서 진리의 구형체(具形體)인 석가의 본신이기도 하다. 이 여래를 중심으로 하여 불교 철학의 체계를 세운 것이 결국 밀교(密敎)이다. 인(印)은 지거인(智擧印)이 특색이다.

비로전(毘盧殿) → 대적광전(大寂光殿).

비표(碑表): 비신의 걸면.

사천왕(四天王): 사방을 진호(鎮護)하며 국가를 수호하는 네신. 수미산(須彌山)의 중턱에 있는 사천왕의 주신으로서 동방의 지국천왕(持國天王), 남방의 증장천왕(增長天王), 서방의 광목천왕(廣目天王), 북방의 다문천왕(多聞天王)을 말한다. 각각 두 장군을 거느리며, 위로는 제석천(帝釋天)을 섬기고, 아래로는 팔부중(八部衆)을 지배하면서 불법에 귀의한 중생을 수호한다고 한다. 이를 사대천왕(四大天王)·사왕(四王)·사왕천(四王天)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천왕은 바위 위에 서거나 잡귀를 깔고 앉기도 한다.

삼굴(三屈): 부처의 입상(入像) 자세 중의 하나. 몸무게를 한쪽 다리에만 얹고 다른 다리는 무릎을 꿇고 발을 약간 앞으로 내놓은 자세. 앞에서 보아 몸이 무릎·엉덩이·목의 삼점(三點)에서 꺾이는 결과가 된다.

삼도(三道): 불상의 목에 음각되어 있는 두 줄기의 선.

삼십이상(三十二相): 응화신불(應化身佛)의 상중에 보통 사람과 다른 32가지의 길상(吉相)을 말한다.

상현좌(常懸座): 부처의 하의(下衣)가 수미단(須彌檀)을 덮도록 만들어진 불대좌(佛臺座)의 형식을 말한다. 부처가 앉는 자리는 대개 연꽃으로 되어 있으나, 때로는 연꽃 아닌 대좌가 사용되는 수가 있다. 그때의 전체적인 대좌 형태는 방형(方形)으로 되는데, 그러한 불대좌를 수미단이라고 한다.

석조(石槽): 큰 돌을 파서 물을 부어 쓰도록 만들어진 돌그릇. 큰 절에서 잔치를 끝내고 그릇 같은 것을 닦을 때 흔히 쓰던 것.

석조불상(石造佛像): 화강석으로 조각하여 만들어진 부처의 상. 우리 나라에는 순백양질(純白良質)의 화강석이 많아서 화강석으로 조각된 불상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화강석제(花崗石製)의 불상은 한국 불상의 대표적인 존재이며, 경주 석굴암처럼 화강석에 조각한 불상으로 이공의 석굴을 만들기까지 하였다.

석종기(石鐘記): 종 모양으로 된 부도(浮屠)를 만들게 된 연유 등을 밝힌 글. 석종은 고려 때 크게 발달하였다.

석좌(石座): 돌이나 바위로 된 부처의 대좌(對座).

선정인(禪定印): 부처의 수많은 수인(手印)중의 한 가지.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배꼽 앞에 놓고, 오른손도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겹쳐 놓되 두 엄지손가락을 마주 대는 형식을 선정인이라 한다. 손의 위치가 바뀌는 수도 있으나 오른손이 위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러한 손의 형식은 결가부좌를 할 때나 좌선할 때 취하기도 한다. 이 같은 자세는 인도에서는 예로부터 있었던 자세인데, 마음을 평등히 지니고 사념과 망상을 버리며,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삼매경(三昧境)에 들게 하므로 삼마지인(三摩地印)이라고도 한다. 석존의 보리수 밑 금강 보좌 위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취한 수인이 바로, 이 수인이다.

소발(素髮): 흰 머리칼. 백발.

소상(塑像): 점토(粘土)로 만들어진 인물의 모형(模型). 중국 당나라

때에는 불상의 소상이 유행되었으나, 지금은 주로 조각 주물(鑄物)의 원형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석고상(石膏像)도 이의 한 가지이다.

수인(手印) : 제불 보살과 제천선신(諸天善神)이 그 깨달은 내용을 양쪽 손가락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양. 그 수가 8만 4천 가지나 있고, 그 모양에 따라 깨달은 내용도 각각 다르다고 한다. 인상(印相) · 인계(印契) · 계인(契印)이라고도 한다.

시무외인(施無畏印) : 무외(無畏) 곧 두려움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베풀어주는 수인(手印).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보호하여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없애 주어, 우환과 고난을 해소시켜 주는, 대자대비의 덕을 보이는 인(印)이다. 오른팔을 꺾어 손 높이로 올리고 손바닥을 밖으로 보인 손의 모습이다. 가장 보편적인 수인 중의 하나이다.

신광(身光) : 두광(頭光) · 거신광(舉身光)과 함께 부처의 몸에 나타나는 광배(光背)의 하나. 부처의 몸에서 발하는 빛이므로 몸을 중심으로 하여 표현하게 된다. 두광과 신광을 따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두광만을 표현하는 수도 있지만, 신광만을 표현하는 일은 없다. 두광과 신광을 다 표현할 때에는 먼저 두광을 표현하고, 그 밑으로 신광을 표현하여 두광이 우선하는 형식을 취한다.

아미타불(阿彌陀佛) : 아(阿)는 무(無), 미타(彌陀)는 양(量)의 뜻. 무량광(無量光) · 무량수(無量壽)의 뜻. 서방 정토에 있다고 하는 부처의 이름이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원(大願)을 품은 부처인데, 이 부처를 염하면 죽은 후에 극락 세계에 간다고 한다. 이 아미타불은 설법인(設法印) · 미타정인(彌陀定印) · 구품인(九品印) 등의 수인을 취한다. 아미타여래는 아미타(阿彌陀)의 경칭.

암좌(巖座) : 바위 형상으로 만든 불상의 대좌(臺座). 바위자리라고도 한다. 불상을 모셔 놓고 기도 또는 법사(法事)를 행하는 단이다. 이 암좌는 힘을 표시한다. 부처는 자비로써 구제할 수 없는 중생들을 힘으로 조복시키는 방법을 쓴다. 부처의 권속 중에는 힘을

과시하는 존재가 있다. 언뜻 보아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상에는 부드러운 자리보다는 바위 같은 것이 적당하였던 것이다.

약사여래(藥師如來) : 약사유리광여래(藥師琉璃光如來) 준말. 십이대원(十二大願)을 발하여 중생의 질병을 구제하고 법약(法藥)을 준다는 여래. 보통 왼손에는 약병을 가지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을 맺고 있다. 그 약사여래는 신장(神將)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신장은 약사여래의 분신으로서 12대원에 따라서 나타난 신장이로고도 한다. 또한 약사여래의 뒤에는 십이지상(十二支像)과의 연관이 생겨 12신장의 머리 위에 12지상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불교 미술품, 즉 석탑·석등 등에 널리 조각되는 12지상은 약사여래 12신장과와의 연관에서 온 것이며, 모두 갑주를 입고 무기를 잡은 무사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엄액의(掩腋衣) : 군의와 함께 부처의 대의(大衣)속에 입는 의복의 한 가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내려가는 옷옷이다. 이를 지지(紙支)라고 한다. 부처는 아래에 군을 입고 위에 엄액의를 입은 다음, 그 위에 대의(大衣) 즉 가사를 걸치는 것으로 격식을 삼는다.

여래(如來) : ‘석가모니 여래’의 준말. 석가모니를 신성하게 이르는 말. 여래가 불상으로 나타날 때에는 우선 머리에 이중 머리같은 육계(肉髻)가 있고, 옷은 하반신에 군, 그 위에 가사를 걸친 모습으로 나타난다. 몸에는 일체의 장신구가 없고 머리 뒤에 두광(頭光) 또는 몸 뒤에 신광(身光)이나 거신광(擧身光)이 달린다.

여원인(與願印) : 부처의 수인(手印)중의 한 가지. 시여인(施與印)·시원인(施願印)·여인(與印)이라고도 한다. 부처가 중생에게 사랑을 베풀고,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게 하는 대자대비의 덕을 표시한 결인(結印)이다. 손의 모습은 왼팔을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고 손가락을 펴서 밖으로 향하게 한 수인이다. 시무외인(施無畏印)의 반대이다. 이 두 가지 수인은 우리 나라 삼국시대의 불상에서는 불상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다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수인을 합하여 통인(通印)이라고도 한다. 특히 우리 나라 불상의 여원인에서는 밑을 향한 손가락 중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꼬부리고 있는 형식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연화대(蓮華臺) : 극락 세계에 있다고 하는 대(臺).

연화좌(蓮華座) : ① 연꽃 모양으로 만든 불좌(佛座). ② 연꽃새김을 한 대좌(臺座).

열반상(涅槃像) : 부처의 자세 중의 한 가지, 석가가 입멸할 때의 모습을 본뜬 와상(臥像)이다. 두 다리를 가지런히 뻗고 모로 누운 상이다. 이것은 예배상(禮拜像)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상이며, 인도나 중국에서도 그 예가 드물고, 우리 나라에는 남아 있는 것이 한 점도 없다.

오인(五印) :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인 다섯 가지 수인. 즉, 선정인(禪定印) · 전법륜인(轉法輪印) · 시무외인(施無畏印) · 여원인(與願印) 등의 수인이다.

우견편단(右肩偏袒) : 통견(通肩)과 함께 부처가 가사를 입는 형식 중의 한 가지. 오른쪽 어깨는 가사를 벗어서 노출되고, 왼쪽어깨에만 걸쳐 있는 형식을 말한다. 공양을 할 때에는 우견편단을 하고, 복전(福田)을 만들 때에는 통견을 한다. 공양할 때, 부처를 볼 때, 스승에게 질문할 때, 자리를 깎을 때, 땅을 쓸 때, 자리를 전할 때, 꽃을 심을 때, 빨래할 때 등이다.

우협시(右脇侍) : 오른쪽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보살.

원광(圓光) : 부처의 몸 뒤로부터 내비치는 빛, 후광(後光)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상징하여 불상의 머리 뒤에 붙인 금빛의 둥근 바퀴. 정광(頂光) · 배광(背光) · 광배(光背).

유희좌(遊戲坐) : 부처의 자세 중의 한 가지. 한 무릎은 세우고, 한 무릎은 옆으로 뉘 자세.

육계(肉髻) : 부처의 32상 중의 한 가지. 부처의 정수리에 상투처럼 돌기한 살의 혹. 정계상(頂髻相)이라고 한다.

음기(陰記) : 비갈(碑碣)의 등 뒤에 새긴 글.

응신불(應身佛): 법신불(法身佛)·보신불(報身佛)과 함께 삼신불(三身佛)의 하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태어난 석가모니를 말한다. 화신불(化身佛).

의문(衣文): 옷의 무늬.

의상(倚像): 부처의 자세 중의 한 가지. 두 다리를 가지런히 하여 밑으로 늘어뜨리면서 걸상에 걸터앉은 상이다. 이 형식은 인도에서 비롯하여 중국에서는 북위(北緯) 이래 수(隨)·당(唐)에 이르기까지 조성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 보기 드문 형식이며, 삼화령미륵삼존상(三花嶺彌勒三尊像)의 본존이 대표적 작품이다.

인상(印相): 손가락을 여러 가지로 끼어 맞추어 부처나 보살의 깨달은 바의 덕을 표시한 것. 인계(印契) 또는 인(印)이라고 한다.

인화(人華): 불경(佛經)에 나오는 세 가지 연꽃 중의 한 가지. 세 가지 연꽃이란 인화(人華)·천화(天華)·보살화(菩薩華)이다. 인화는 10여 잎, 천화는 100잎, 보살화는 천 잎이다. 그러나 천호나 보살화는 상상의 연꽃이다.

입상(立像): 부처의 자세 중의 한 가지. 부처가 서 있는 모습을 그리거나 조각한 불상. 입상에는 직립상(直立像)과 삼굴상(三屈像)이 있다. 직립상은 두 발을 약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다. 삼굴상은 몸무릎을 한쪽 다리에만 얹고 다른 다리는 무릎을 꿇고 발을 약간 앞으로 내놓은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다. 앞에서 보아 몸이 무릎·엉덩이·목의 3점에서 꺾이는 결과가 된다. 입상을 등족립(等足立)이라고도 한다.

장륙상(丈六像): 높이가 1장 6척이 되는 불상. 장륙불(丈六佛).

전법륜인(轉法輪印): 석가가 성도(成道)한 후에 사체(四諦). 팔성도(八聖道) 등에 관하여 최초로 설법하였을 때에 손모양을 전법륜인이라고 한다. 전법륜의 수인(手印)은 제작지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전(經典)에는 왼손의 엄지와 집게손가락 끝을 서로 대고, 가운데손가락·약손가락·새끼손가락의 세 손가락을 편다. 오른손도 그와 같이 한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

로 향하게 하고 오른팔목에 왼손의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끝을 대되 오른손 손바닥은 밖을 향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전법륜인에는 3가지가 있다고도 하였다. 즉,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대는 법신의 전법륜인, 엄지손가락과 약손가락을 대는 화신(化身)의 전법륜인이라고 하여, 그 종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국은 손가락의 번호와 손의 위치 또는 손바닥의 방향에 따라 여러 종류가 생기게 된다. 설법인(設法印)이라고도 한다.

제석천(帝釋天) : 범왕(梵王)과 더불어 불법을 지키는 신. 또, 12천(天)의 하나로서 동쪽의 수호신. 수미산 꼭대기의 도리천(初利天)에 살고, 희견성(喜見城)의 주인으로서 대위덕(大威德)을 지니고 있다. 석가모니의 생전부터 그를 돕고 옹호하여 도움이 컸었다고 한다. 일찍이 간다라 지방에서 범천(梵天)과 함께 삼존상(三尊像)이 제작되기도 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경주 석굴암의 제석천이 가장 유명하다.

좌상(坐像) : 부처의 앉아 있는 모양을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 부처의 자세에는 입상·좌상·좌상 등이 있는데, 좌상에는 결가부좌(結跏趺坐)·교각의좌(交脚倚坐)·반가부좌(半跏趺坐)·유희좌(遊戲坐) 등이 있다.

좌협시(左脇侍) : 부처의 왼쪽에서 가까이 모시는 보살.

주기(柱記) : 지주(支柱)에 관한 기록.

주형거신광(舟形擧身光) : 부처의 광배(光背) 중 거신광은 전체 모양이 배 모양과 같은 데서 나온 말. 주형광배(舟形光背)라고도 한다.

중대(中臺) : 중존(中尊)을 안치하는 대(臺). 중존은 중앙에 있는 존상(尊像), 곧 석가불·삼존(三尊) 중의 아미타여래, 오불(五佛) 중의 대일여래(大日如來), 오대명왕(五大明王) 중의 부동명왕(不動明王)을 말한다.

지권인(智券印) : 대일여래(大日如來) 즉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 결하는 수인이다. 그 형상은 좌우 손으로 엄지를 속에 넣고 다른 네 손가락으로 주먹을 쥔다. 다음에 왼손을 가슴까지 올려 들고

집게손가락을 풀어서 세움 오른손 주먹 중의 새끼손가락으로 왼손 집게손가락의 첫째 마디를 잡는다. 그리고 오른손 주먹 속에서는 오른손 엄지 끝과 왼손 집게손가락 끝을 서로 댄다. 이러한 형식은 일체의 무명 번뇌를 없애고 부처의 지혜를 얻는다는 뜻, 또는 리(理)와 지(智)는 둘 같지만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은 같은 것이며, 미혹함과 깨달음도 본래는 하나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지장전(地藏殿): 지장 보살을 주로 하여 염라대왕 등 10대왕을 봉안한 절 안의 전각(殿閣). 명부전(冥府殿).

직립상(直立像): 두 발을 약간 벌리고 서되 몸무게가 두 다리에 똑같이 가게하고 선 자세로 된 불상.

탄생불(誕生佛): 부처의 특수한 자세의 하나. 석가모니가 탄생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한다. 몸은 전신이 나형이며, 직립하여 한 손은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늘어뜨려서 땅을 가리키고있는 형상이다. 세존은 탄생하자마자 7보를 걸으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는 자세는 바로 이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통견(通見): 우견편단(右肩偏袒)과 함께 부처가 가사를 입는 형식의 한 가지. 통견은 가사가 두 어깨를 모두 가린 형식이고, 우견편단은 오른쪽 어깨는 가사를 벗어서 노출되고 왼쪽 어깨에만 걸쳐있는 형식을 말한다. 이 두 가지 형식은 인도에서부터 모두 있었던 형식인데, 간다라 불상에서도 마투라 불상에도 이 두 형식이 나타나 있다. 통견으로 입는 형식은 복전(福田)을 만들 때 입는 것인데, 복전을 만들 때란 궁왕에게 먹을 것을 받을 때,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할 때, 좌선하고 경을 독송할 때, 나무 밑을 거닐 때를 말한다.

통인(通印): 부처의 인상(印相) 중 시무외인(施無畏印)과 여원인(與願印)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팔부중(八部衆) : 불법을 지키는 여덟 신장(神將). 곧, 천(天)·룡(龍)·야차(夜叉)·건달파(乾달婆)·아수라(阿修羅)·가누라(迦樓羅)·긴나라(緊那羅)·마후라가(摩後羅迦). 이를 팔부신장(八部神將)·천룡팔부(天龍八部)라고도 한다. 이상과 같은 팔부중은 모두 실존하지 않는 신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석탑 기단의 한 면에 두 쌍씩 조각하는 수가 많아,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유행하였으나, 석탑 이외에는 경주 석굴암의 전실(前室)에 들어서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팔상전(八相殿) : 석가팔상(釋迦八相)의 그림과 존상(尊像)을 봉안한 법당. 석가 팔상이란, 석가가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보여 준 여덟 가지의 상(相). 즉, 향두율(降兜率)·입태(入胎)·출태(出胎)·출가(出家)·항마(降魔)·성도(成道)·전법륜(轉法輪)·입멸(入滅)의 팔상성도(八相成道)를 이룬다.

하엽좌(荷葉座) : 부처의 대좌(臺座) 중의 한 가지. 천부상(天部像)·나한상(羅漢像) 등의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 연잎을 엮어 놓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만든 불상을 안치하는 대좌. 연꽃이 불좌(佛座)로서의 최상의 존재라면, 연에 딸린 연잎은 그 다음 가는 존재일 것이다.

항마좌(降魔坐) : 길상좌(吉相坐)와 함께 결가부좌(結跏趺坐)의 한 가지. 먼저 오른발을 왼쪽 다리 위에 언족, 다음에 왼발을 밖에서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 놓고 앉는 방법. 길상좌.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 석가가 보리수 밑에서 성도(成道)하려고 할 때 석가를 협박하고 유혹하려던 모든 악마를 굴복시켜 없애 버리는 모습이며, 석굴암의 본존상이 바로 항마촉지인이다. 항마인(降魔印)·촉지인(觸地印)·지지인(指地印)이라고도 한다. 그 모양은 선정인(禪定印)에서 위에 엮은 오른손을 떼어서 손바닥을 오른쪽 무릎에 대고 5지로써 땅을 가볍게 짚거나 가리키고, 왼손을 선정인 그대로 있는 형식이다. 이 항마인은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종류의 불상이나 거의 모두가 이 수인을 하고 있다.

Ⅳ. 고분유물 (古墳遺物)

각배(角杯) : 쇠뿔처럼 생긴 토기. 실생활보다는 의식용으로 제작된 것 같으며, 불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릇 받침과 같이 출토되거나 뿔잔 자체에 다리를 붙여 만들었다.

감대(埧臺) : 장경감(長徑埧, 밑이 둥글고 목이 긴 토기)을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든 토기 받침.

감실(龕室) : 고구려 무덤에서 앞방의 양 옆에 딸린 방.

갑주(甲冑) : 전투시 화살이나 창검을 막기 위해 입던 쇠로 만든 옷으로서 판갑옷과 비늘갑옷으로 나누어진다. 주로 가야·신라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다.

개배(蓋杯) : 굽이 없고 뚜껑이 있는 잔으로 고배(苦杯)에서 굽을 떼어 낸 것 같은 형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다.

개부호(蓋付壺) : 항아리 중 뚜껑이 덮혀 있는 토기. 뚜껑항아리.

검심(劍鐔) : 검자루와 검날 사이에 있는 돌출된 부분. 검코.

검초(劍鞘) : 칼의 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꽂아 넣는 집. 칼집.

검파형동기(劍把刑銅器) : 칼 손잡이나 대나무를 길이로 쪼갠 듯한 형태의 청동기로 쓰임새는 분명하지 않으나 의기(儀器)로 만들어진 듯하다.

격선문(格線文) : 짧은 선을 토기 바닥의 끝부분을 향해 세로로 시문한 것.

격자문(格子文) : 즐문토기의 구연부 모양을 선을 교차시켜 문살 모양으로 만든 무늬. 문살무늬.

견혈식(堅穴式) : 무덤을 만드는 방법 가운데 위에서 그 밑으로 주검

을 넣도록 되어 있는 형식.

경갑(經甲): 무릎 아래쪽 정강이에 대는 금속제로 된 갑옷의 일부.
정강이가리개.

경부(莖部): 살촉·칼·호미·낫 등의 끝에 달려 자루 속에 끼워 고정시키는 부분. 스페.

경식(頸飾): 가슴쪽을 장식하기 위해 목에 늘어뜨리는 장신구.

고배(高杯): 굽다리 달린 그릇으로 주로 신라나 가야 고분에서 출토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그릇 형태. 굽다리 접시.

곡옥(曲玉): 구부러진 모양의 옥으로 한쪽 끝에 매달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다. 굽은 옥.

곤룡포(袞龍袍): 임금의 입던 정복의 하나. 황색이나 붉은 빛의 비단으로 지었으며, 모양이 현재의 두루마기와 비슷하고 가슴·등과 두 어깨에 오조룡(五爪龍)이 금실로 둥글게 수놓였다.

공부(公斧): 자루를 도끼등에 만들어진 투겁속에 끼워 쓰는 도끼.
투겁도끼.

공옥(空玉): 금이나 은으로 만든 구슬로서 속이 비어 있다.

과(戈): 찌거나 베는 데 사용한 무기의 일종. 긴 자루가 옆으로 직각이 되게끔 끼워 사용한다. 꺾창.

과대(鈔帶): 옷의 허리 부분을 둘러매는 띠. 금제(金製)·은제(銀製)의 요관으로 연결된 장식용.

관옥(管玉): 구멍이 뚫린 짧은 대롱 모양으로 생긴 구슬로, 일반적으로 목걸이에 쓰인다.

교구(鉸具): 가죽이나 천으로 된 띠를 매기 위해 양 끝에서 서로 끼워 맞추는 고리쇠 장식.

금석문(金石文): 돌이나 쇠붙이에 기록된 글자. 중국 하(夏)의 우왕이 솥(鼎)을 만들고, 주나라의 선왕이 석고에 새긴 것을 시초로 한다.

기하학문(幾何學文): 점·금·동그라미 등의 기하학적 요소를 배합하여 무늬를 넣는 것. 빗살무늬 토기에 많이 보인다.

김해식토기(金海式土器) : 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진 토기. 토기 겉면을 무늬가 새겨진 두들개로 두드려 샷무늬·새끼무늬·문살무늬 등이 나타난 토기가 대부분이다.

내관(內冠) : 금속이나 자작나무로 만들어서 평상시에 쓰던 관모의 하나. 밑이 벌어지고 위가 좁은 반달 또는 사다리꼴 모양을 이룬다. 내모(內帽).

누금(鍍金) : 좁쌀알 같은 금알갱이를 만들어 붙여 장식한 금세공의 한 기법. 금알갱이붙임.

단갑(短甲) : 갑옷 가운데 전면을 금속으로 된 자른판을 못 등으로 박아 통판으로 붙여 만든 것. 판갑옷.

단도마연토기(丹塗磨研土器) : 토기 겉에 적색 안료를 바른 토기. 바탕 흙은 대부분 정선된 흙을 사용하였고, 그릇의 두께는 매우 얇고 정교하게 만들었다. 붉은간토기.

대부발(臺附鉢) : 굽다리가 달린 바리 모양의 토기로 주로 삼국시대 토기 중에 보이고 있다.

동검(銅劍) : 금속병용시대의 동(銅) 또는 청동제 무기.

두침(頭枕) : 주검을 눕힐 때에 머리를 괴는 것. 머리고임.

두형토기(頭形土器) : 접시나 대접의 형태에 높은 굽이 달린 토기. 무문토기 말기에 출현하여 삼국시대의 고배로 발전되었다.

등자(橙子) : 말을 땀을 때 두 발을 디디는 제구. 안장에 달아서 말의 양쪽 옆구리로 늘어뜨린게 되어 있다. 발걸이.

마노(瑪瑙) : 보석의 한 가지.

악(鏢) : 낫밀. 도검의 부속품으로 도신(刀身)과 자루의 경계에 끼워 자루를 잡고 손을 보호하는 금속 기구.

양익촉(兩翼鏃) : 활촉 중에 밑부분이 안으로 저며 들어가 양쪽에 날개가 생긴 것.

역석기(礫石器) : 자갈 돌로 만든 석기. 냇돌석기.

연리보주형뉴(蓮蕾寶珠形鈕) : 그릇 뚜껑이 달린 꼭지가 갓이나 연꽃봉오리 모양으로 생긴 것. 갓모양꼭지.

영락(瓔珞): 금관 등에 반짝거리도록 매달은 얇은 금속판으로 움직이면 흔들거리는 장식. 달개.

옹관(甕棺): 고대에 쓴 오지로 만든 관. 도관(陶棺)·와관(瓦棺).

요패(腰牌): 조선왕조 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허리에 차던 나무 패.

용범(鎔范): 금속을 녹여 부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래의 틀. 거꾸집.

우두식(芋頭飾): 깃대 또는 의장용 장대나 자루 끝에 매달거나 끼운 장식. 장대투겁.

운주(雲珠): 말갯춤의 하나로 주로 가죽끈이 엇갈리는 곳에 붙이는 것. 말띠꾸미개.

유(鈕): 원래는 그릇 뚜껑의 손잡이를 의미하나 구리거울에 붙은 흑모양의 돌기도 유(鈕)라고 한다. 꼭지.

유공고배(有孔高杯): 전형적인 굽 그릇 안에 가운데가 비어 있는 원통형 관이 붙어 있는 특수한 형태의 그릇.

유악토기(有鏢土器): 아가리가 곧게 끝나지 않고 목에 비해 옆으로 튀어나온 깔때기 식의 아가리를 갖춘 토기.

이당(耳璫): 귀걸이 구슬.

이식(耳飾): 금이나 은 따위로 만든 귀에다는 장식. 귀걸이.

인동문(忍冬文): 인동 넝쿨의 뺨어 가는 형상을 도안한 무늬. 신라 와당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입식(立飾): 관 테 위에 세워진 장식.

입형동기(笠形銅器·笠頭나팔형金具): 고깔 또는 버섯 모양의 머리 와 그 밑에 원통형의 곧은 몸체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는 한두개의 도드라진 띠가 돌려져 있는 것으로 그 용도는 수레굴대 위에 설치된 얇은 자리의 둘레에 세운 기둥 장식으로 추측된다. 멩에투겁.

작두(勺斗): 국 같은 것을 뜨는 긴 자루가 달린 것. 낙랑 고분에는 칠기로 된 국자가, 삼국시대에는 청동제의 국자가 출토되었다. 표자(杓子).

장니(障泥): 말을 탄 사람의 옷에 진흙이 튀지 않도록 가죽 같은 것으로 만들어 말의 배 양쪽에 늘어뜨려 놓은 물건. 말다래.

적석(積石): 선사 시대 무덤 가운데 고인돌이나 석관묘 둘레에 쌓아 둔 무덤 보호 시설로서의 구조물.

전과묘(塼槨墓): 벽돌로 만든 옛 무덤의 특이한 형태. 장방형의 벽돌로써 묘실을 만들고 그 위에 궁륭형(穹窿形, 활이나 무지개같이 놓고 길게 굽은 형)의 천정과 아치형의 입구를 만들었다. 낙랑 고분 중에 많다.

전통(箭筒): 화살을 넣어 두는 통. 가죽으로 만들어 뚜껑이 있으며 표면에 칠을 하였다.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 아가리 바깥 부분의 단면이 원형 내지 타원형 또는 삼각형의 덧띠를 말아 붙여서 아가리를 두껍게 만든 청동기 시대의 토기.

점판암(粘板巖): 석기 재료로 잘 사용되는 암석.

접형(蝶形): 나비 모양의 형태.

정(鼎): 다리가 셋 달린 작은 솥으로 흔히 두 개의 귀가 붙어 있다.

조문경(粗文鏡): 뒷면의 장식이 주로 세모꼴의 톱니 무늬 등 굵은 선으로 이루어진 거울로서 잔무늬거울(細文鏡)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나타난 것이다. 거친무늬거울.

족좌(足座): 눕혀진 주검의 발을 괴는 받침. 발받침. 족침(足枕).

주(冑): 전투시 갑옷과 함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쇠등으로 만든 단단한 모자. 투구.

줄문토기(櫛文土器): 그릇 표면이 빗살같이 길게 이어진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에 나타나는 토기. 빗살무늬토기.

지석(誌石): 묘지(墓誌)로 생각하기 쉬우나 묘지 아닌 매지권(買地券)의 일종.

착(鑿): 나무에 구멍을 파거나 다듬는 데 쓰이는 폭이 좁고 긴 네모난 연장.

찰갑(剝甲): 작은 쇳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갑옷. 비늘갑옷. 패갑

(패甲).

채문토기(彩文土器): 선사시대에 나타난 회백색 토기로서 어깨 부분에 검은색으로 가지무늬가 돌려 있는 토기. 가지무늬토기.

천(鈎): 팔지.

초두(초斗): 긴 자루손잡이가 달리고 다리가 셋있는 자루술으로 액체를 담아 데우는 데 사용하였다.

타제석기(打製石器): 전혀 마연한 흔적이 없이 돌을 깨서 만든 석기. 구석기·신석기시대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타석기.

탁(鐸): 편편한 종 모양으로 된 방울. 안에 혀가 달려 있어서 흔들면 안벽을 때려 소리내는 종방울.

탁잔(托盞): 잔과 잔받침이 한 벌을 이루는 그릇. 받침잔.

태환(太 환): 귀걸이에서 둥근고리 부분이 굽고 크며 속이 비어 있다. 굽은고리귀걸이.

토광묘(土壙墓): 구덩이를 파고 널에 넣은 주검을 묻는 무덤.

토우(土偶): 짐승 혹은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진 토제 소조품. 장식적인 용도 외에도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토제소상(土製塑像).

토장묘(土葬墓): 적당한 구덩이를 판 뒤 따로 널 따위를 쓰지 않고 직접 주검을 묻는 무덤 방식.

파상문(波狀文): 점을 찍어 연결하거나 선을 그어 만든 물결 모양의 무늬. 빗살무늬토기와 신라토기에 많이 시문되어 있다.

판갑(板甲): 갑옷 가운데 전면을 금속으로 된 자른판을 못 등으로 박아 통판으로 붙여 만든 것. 판갑옷.

패옥(佩玉): 조관의 조복 좌우에 늘어 차는 옥. 흰 옥을 이어서 무를 밑까지 내려가도록 한 것으로, 얇은 사(紗)로 긴 주머니를 지어 그 속에 넣어서 찬다. 중국 은나라 때 비롯되었는데, 그들은 손수건 또는 묶었던 노끈을 푸는 도구, 장식품 등 한벌의 물품을 혁대에 달고 다니는 풍속이 있는데, 이 물건을 패(佩)라 하고, 이 패에 달린 옥을 패옥이라 한다.

표(鏢) : 말재갈

행엽(杏葉) : 말띠에 달아 늘어뜨리는 넓적한 장식. 말띠드리개.

호액갑(護腋甲) : 갑옷의 부속품. 양편 겨드랑이에 대는 쇠로 하나씩 잡아매고 갑옷을 입었다.

홍도(紅陶) : 표면을 매끈하게 마연하고 산화철을 칠한 청동기 시대의 토기로, 석판묘에서 출토되는 저부가 둥근 것과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납작한 것이 있다.

홍문(虹文) : 4~8열의 선을 활 모양으로 한 문양. 신석기 주거지 유적에서 출토되는 즐문토기에 시문되었다. 무지개무늬.

환뉴(環鈕) : 고리로 된 손잡이.

환두도(環頭刀) : 자루 끝에 고리 모양의 장식이 달린 칼. 고리칼.

환옥(丸玉) : 구슬처럼 둥근 옥으로 보통 내부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끈에 꿰어 쓰도록 만든 것.

회색토기(灰色土器) : 환원염으로 구워진 토기로서 대개 회색계통의 빛깔을 나타낸다.

흉계(胸繫) : 안장을 말등에 고정시키기 위해 안장 앞턱에서 말의 가슴 앞으로 돌린 가죽으로 된 띠.

흉배(胸背) : 관복의 가슴 쪽과 등쪽에 붙이는 수놓은 표장. 학흉배·호랑이흉배의 2종이 있다.

흑요석(黑曜石) : 정확하고 세밀한 형태로 떼내기 쉬운 석재. 구석기·신석기시대에 활촉 등의 제작에 많이 사용되었다.

V. 자 기 (磁器)

- 각문(刻文): 새겨서 이루어진 무늬. 새김무늬.
- 각병(角瓶): 몸체가 구연부에서 각을 이루며 여러 면으로 되어 있는 병.
- 감(埴): 둥근 몸통에 짧은 목이 달린 단지. 호(壺).
- 갑(匣): 도자기를 소성할 때 사용하는 내화성(耐火性)용기. 일명 개비.
- 갑번(匣燻): 왕실에 바치려고 별다르게 구운 도자기.
- 거치문(鋸齒文): 톱니 모양의 무늬.
- 견부(肩部): 그릇의 목에서 몸통으로 이어지는 부분. 어깨.
- 경(頸): 그릇의 몸통과 구연부(口緣部) 사이에 수직으로 이루어진 부분. 목. 장경(長徑)은 긴 목. 단경(短頸)은 짧은 목. 직립경(直立頸)은 곧은 목. 내경경(內傾頸)은 오므린 목.
- 경질자기(硬質磁器): 900℃ 정도의 강한 열로 구운 다음 강한 유약을 칠하고 다시 1,400℃ 정도의 열로 구운 자기. 빛깔은 희고 약간 투명하며 질이 매우 치밀하다.
- 공문(孔文): 전그릇 아가리 밑으로 돌아가며 작은 구멍 같은 것을 같은 간격으로 내놓은 것.
- 과형(瓜形): 참외 모양. 과형병(瓜形瓶).
- 광구발(廣口鉢): 입지름이 바닥지름보다 아주 큰 형태의 바리. 입큰 바리.
- 구순(口脣): 아가리의 가장자리. 입술.
- 구연부(口緣部): 그릇 입술을 포함한 윗부분.
- 굽: 그릇 밑에 붙어서 그 그릇이 편편하게 놓여지게 하는 받침. 굽다리.

- 필수문(蕨手文)** : 고사리 모양처럼 생긴 무늬. 청동기와 삼국시대의 토기에서 거북등 모양의 무늬.
- 귀갑문(龜甲文)** : 여섯모 개체가 가로 세로로 연달아 나타나는 거북등 모양의 무늬.
- 귀얄** : 풀이나 옷을 칠할 때 쓰는 도구. 돼지털이나 말鬃을 널찍이 묶어 만든다.
- 귀얄문** : 그릇 표면에 귀얄로 백토 분장을 하여 귀얄의 자국과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태토가 색의 대조를 이루며 나타내는 문양.
- 규석(矽石)** : 백색의 반투명 암상(巖狀)으로 산출되는 원석.
- 기대(器臺)** : 밑이 둥근 항아리 등의 그릇을 올려놓기 위한 받침.
- 나선문(螺旋文)** : S자를 옆으로 뉘어 걸어서 갈고리 모양으로 연이어 시문한 무늬. 또는 소용돌이치는 것처럼 뱅뱅 돌아가며 감기는 무늬. 와문(渦文).
- 나선원추보주형뉴(螺旋圓錐寶珠形紐)** : 뚜껑의 꼭지가 소라껍질 모양으로 빙빙 뒤틀려 고랑이 진 상태로 올라간 모양. 서린꼭지.
- 낙승문(銘繩文)** : 새끼줄 모양을 나타낸 무늬새 기개나 또는 새끼줄 감은 두들개로 표면을 누르거나 두드려서 나타낸 무늬. 끈 무늬. 승목문(繩目文).
- 납석(蠟石)** : 잘 다듬어진 연질(軟質)의 돌. 조각품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 내화토(耐火土)** : 고열에 쪼뚝 녹거나 타지 않는 흙으로 도자기 가마나 내화 벽돌을 만드는데 쓰인다.
- 뇌문(雷文)** : 네모 또는 마름모꼴의 무늬를 여러 겹 초개서 만든 무늬. 번개를 상징하는데, 각종 기물, 특히 받이나 등매 등의 가장자리에 둘러놓았다. 돌림무늬.
- 누비문(樓緋文)** : 안팎을 맞춘 피륙의 사이에 솜을 두고 줄이 죽죽 지게 바느질을 하는 흠질에서 따온 것으로 줄무늬가 나 있는 무늬를 말한다.
- 눌(訥)** : 기와에 쓰이는 수량의 단위로 기와 천장을 한 눌이라고 한다.

- 능형문(菱形文): 줄이나 점으로 이루어진 마름모꼴 형태의 무늬.
- 다이호(多耳壺): 어깨 부분에 귀 모양의 고리 손잡이가 여러개 달려 있는 항아리. 여러귀항아리.
- 단경호(短頸壺): 둥근 몸통에 짧은 목이 달린 단지. 목의 높이가 전체의 5분의 1 이상 되는 것은 목단지라고 한다.
- 당초문(唐草文): 여러 가지의 덩굴풀이 서로 비껴 뻗어 나가는 모양을 그린 무늬.
- 도(陶): 낮은 온도에서 구운 그릇.
- 도자기(陶磁器): 장석(長石)·규석(矽石)·반토(礬土)를 부수어 여기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만든 그릇.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우리 나라는 일찍부터 도자기 연구가 왕성하였으며, 가장 발달된 때는 고려시대 였다.
- 도질토기(陶質土器): 유약 대신 옥철을 한 자기.
- 도침(陶枕): 도자기를 구울 적에 그 그릇을 피는 데 쓰는 물건. 도지미.
- 도토(陶土):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는 진흙의 총칭.
- 돌대문(突帶文): 그릇 몸을 돌게 하여 몸 둘레에 띠처럼 돌게 한 무늬. 돌을띠무늬.
- 동심원문(同心圓文): 하나의 중심점을 갖고 있는 둘 이상의 동그라미가 겹쳐진 무늬. 겹고리무늬.
- 두들개(柏子): 토기를 만들 때 바탕흙을 두드려 단단하게 해주는 연장.
- 등요(登窯): 산등성이 비탈면에 굴 모양으로 길게 만들어진 가마.
- 립(立): 대접이나 사발 같은 그릇을 쉘 때 쓰이는 수치.
- 마제형(馬蹄形): 말발굽처럼 된 모양. 요형(凹形) 같은 것.
- 망문(網文): 토기 표면에 그물을 짠 것처럼 무늬를 베푼 것. 그물무늬.
- 매병(梅瓶): 입이 작고 어깨 부분이 크며 밑이 훌쩍하게 빠진 모양의 병.
- 명: 그릇의 깊이가 얇고 납작한 그릇으로 입지름이 20Cm이하의 것.
- 무문기명(無文器皿): 무늬나 문채가 없는 그릇.

바리(鉢) : 바닥에서 아가리에 이르면서 올라가는 입지름 20Cm이상의 그릇으로 보통 입지름이 높이에 비해 길며 국이나 밥을 담는데 쓰인다.

박지문(剝地文) : 기면(器面)에 귀얄로 백토(白土)를 바르고 문양을 그려 구획한 후 여백의 백토를 모두 다시 긁어내어 생긴 문양으로서 문양은 백토색(白土色)이 되고 여백은 태토의 색이 그대로 드러난다. 분청사기에 쓰이는 시문(施文) 기법이다.

박편(剝片) : 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 석편(石片)·격지.

반(盤) : 그릇 깊이가 얇으며 약간 넓적한 그릇. 입지름 20Cm 이하의 접시와 구별된다. 쟁반.

반동심원문(半同心圓文) : 점을 찍어 중첩된 반원형을 만든 무늬로 주로 빗살무늬토기의 아가리무늬 바로 밑에 시문되고 있다.

반원권문(半圓圈文) : 콤파스를 대고 반원을 그린것처럼 반으로 잘린 동그라미 안에 점이 찍혀 있는 무늬. 활점무늬.

반토(礬土) : 산화알루미늄. 도자기 재료의 한 가지.

백자(백자) : 소토(素土)가 백색 또는 아백색(牙白色)인 자기. 고려 말기 송나라 정요(定窯)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우리 나라 백자는 조선왕조 때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백토(白土) : 빛깔이 흰 흙. 그릇을 만드는데 희게 하는 원료로 쓰인다.

번조(煔造) : 질그릇·사기그릇 등을 구워서 만드는 것.

법랑(琺瑯) : 광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유약(釉藥). 사기그릇의 겉에 올려 불에 구우면 밝은 윤기가 나고 쇠그릇에 올려서 구우면 사기그릇의 잿물과 같이 된다.

병대(餅臺) : 바닥이 판판하게 되어 있는 편을 피는 제기접시의 일종. 편과기.

병형뉴(鋌形紐) : 그릇 뚜껑에 달린 단추 모양의 꼭지.

보상화문(寶相華文) : 당초무늬의 주제로 사용된 가상적 오판화(五瓣花). 불교에서 쓰이는 이상화한 꽃으로 백연화(白蓮華)를 가리킨다.

보토가루 : 그릇을 가마에 앞힐 때 가마 위에 뿌려 주는 규석을 빻아

서 만든 가루로서 그릇이 가마 바닥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 준다.

본소(本燒):도자기에 유약을 씌워 소성하는 방법. 재벌구이.

부조(浮彫):모양이나 형상이 도드라지게 새긴 조각. 뜯을새김. 양각(陽刻).

분원사기(分院沙器):광주 분원에서 만든 도자기. 광주 분원의 설치 시기는 조선왕조 초기로 추측된다.

분채(粉彩):도자기에 그린 연하고 고운 그림의 빛깔. 연채(軟彩).

분청(粉靑):분청회청사기(粉靑灰靑沙器)의 준말로 청자와 같이 회색 또는 회흑색 태토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하고 그 위에 회청색의 유약이 시유된 사기.

비집눈:도자기를 포개 구울 때 유약이 흘러 서로 붙지 않도록 내화토를 비벼서 굽에 붙인 것.

사기(沙器):백토(白土)를 원료로 구워 만든 그릇.

사기소(砂器所):사기그릇을 굽던 요장(窯場).

사토(沙土):모래흙.

산화염(酸化焰):불 났 때에 가마 내부에 최대한으로 공기의 공급상태를 원활하게 해 주는 소성 분위기를 말한다. 산화염으로 토기를 소성하면 토기의 색이 붉게 된다.

삼각사선대문(三角斜線帶文):톱니무늬 사이의 빈칸을 빗금 등으로 채운 무늬. 맞톱니무늬·세모띠무늬.

삼엽문(蓼葉文):청자 유약 밑에 흑백으로 인삼 잎을 그려 넣은 무늬. 고려 매병 중에는 나는 학과 함께 시문된 것을 볼 수 있다.

상감(象嵌):기면(器面)을 파고 거기에 백토나 자토·진사를 메워 넣어서 문양을 내는 것.

상저(上底):그릇 바닥 가운데가 움푹 패여서 들려 있는 모양의 것. 들린 바닥.

상형(象形):형태를 본떠서 그릇을 만드는 수법.

서리기법:태토를 가래떡 모양으로 길게 빚어서 밀판에서부터 서리어 올라가면서 틀어올리는 방법.

석간주(石間硃) : 붉은 산화철을 많이 포함한 빛이 붉은 흙. 석회암·혈암 등이 분해된 곳에서 나는데, 제도용 및 산수화에 많이 사용하고 인물화에는 살빛에 쓴다. **혁토(赫土)·주토(朱土)**. **집** : 전석기(炆器) : 도자기의 일종. 잿물을 바를 때의 화도(火度)가 자기보다 약하고 잿물의 원료에는 철분이 들어 있어서 대개 적갈색·흑갈색으로 나타나며, 보통 토관·병·화로에 쓰인다.

설채(設彩) : 색을 칠하는 것. 부채(賦彩).

소래기 : 모양이 굽 없는 접시처럼 된 넓은 질그릇. 소래.

소문(素文) : 무늬가 없는 것.

소성(燒成) : 도토(陶土)를 높은 온도로 구워 내어 도자기를 만드는 것.

송하탄금문(松下彈琴文) : 소나무 아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인물을 표현한 것으로 고려 상감청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수날법(手捏法) : 자가은 그릇을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는 방법.

수비(水飛) : 조합한 원토(原土)를 물에 풀어 앙금을 체로 받아서 태토로 만드는 방법.

송석문(繩蓆文) : 삿자리 모양의 무늬로, 두들개에 새겨진 무늬 혹은 두들개에 감은 삿자리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 삿무늬.

시문구(施文具) : 무늬를 베푸는 데 쓰이는 도구. 무늬새기개.

십장생(十長生) : 장생불사한다는 열 가지 물건. 해·산·물·돌·구름·소나무·불로초·거북·학·사슴 등.

압날문(押捺文) : 눌러서 무늬를 넣는 방법. 눌러찍기.

압출문(押出文) : 눌러서 밀어내어 만들어진 무늬. 밀어내기.

약연(藥研) : 약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기구. 약연(藥讌)

양류문(揚柳文) : 버드나무의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양주(陽鑄) : 주금에서 기물이나 동판 등의 표면에 무늬·명문등을 표면보다 약간 높게 나타낸 것.

연리문(連理文) : 청자태토와 백자태토 그리고 황토색 흙을 혼합·반죽하여 그릇을 성형한 후 투명한 청자유(釉)를 입힐 때 세가지 태토가 각각 다른 색을 나타내어 생기는 문양.

- 연판문(連瓣文) : 연꽃 잎을 본뜬 무늬.
- 연화문(蓮花紋) : 연꽃을 도안화한 문양. 신라·백제와당의 문양으로 많이 쓰여진다.
- 오지 : 갈색의 유약을 입혀서 구워 낸 그릇.
- 와운문전(渦雲文壇) : 구름 문양이 있는 전(壇)으로 봉황문전·괴면전·산경문전과 짝으로 제작된다.
- 요(窯) : 불을 때서 도자기를 구운 후 말리기까지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노(爐).
- 요지(窯址) : 옛날에 기와·사기 질그릇 등 요기(窯器)를 만들던 곳. 우리 나라는 요업의 원료가 되는 토석(土石)의 함유량이 많아 요업이 성하였고, 특히 고려시대에 더욱 융성하였다.
- 우상문(羽狀文) : 새의 깃털 모양으로 생긴 무늬.
- 운학문(雲鶴文) : 둥둥 떠 다니는 구름 사이로 학이 날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문양으로서 고려 상감청자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 원권문(圓圈文) : 동그라미 중앙에 찍혀 있는 무늬. 고리점무늬.
- 원저(圓底) : 그릇 바닥이 둥근 것. 둥근 바닥.
- 유단형구연(有段形口緣) : 아가리 부분에 뚜껑을 받기 위해 턱을 지워 놓은 것. 턱전.
- 유약(釉藥) : 도자기를 구울 때 그 표면에 광택이 나고 기체나 액체의 침투를 막도록 덧씌우는 유리질의 약.
- 유호(油壺) : 기름을 담는 항아리.
- 은입사(銀入絲) : 은줄을 새겨 넣어 장식한 주석 그릇.
- 이부발(耳付鉢) : 바리의 어깨나 몸통에 귀가 달려 있는 것.
- 이중구연(二重口緣) : 토기의 입술을 뒤집어 겹으로 만든 것.
- 인화문(印花文) : 일정한 도장을 가지고 그림·꽃·글씨 같은 것을 눌러 그 무늬가 똑똑히 보이도록 나타낸 문양.
- 일운문(日暈文) : 햇무리를 형상화한 문양.
- 자(瓷) : 중국과 서양이 정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 중국인은 고온으로 소성하므로, 유약이 몸에 밀착되어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나며

울리는 것을 자기(磁器)라 하며, 서양인은 투명한 정도로 구분한다. 또 부셀은 자연에서 얻은 단단한 태토로서 유약과 태토가 정선된 것과, 부드러운 태토로서 여러 인공적인 재료들이 소성시(燒成詩) 뭉쳐 단단히 된 것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자주요(磁州窯): 중국 하북성 자주(磁州)에서 만들어 내는 도기.

자토(赭土):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는 진흙의 총칭. 장석(長石) 같은 것이 자연히 분해되어 흘러 쌓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빛이 희고 차지다. 도토(陶土) · 고령토(高嶺土).

작(爵): 제사에 사용하던 술잔의 일종

장경호(長頸壺): 목이 그릇 높이의 5분의 1 이상 되는 항아리. 목항아리.

장석(長石): 유약과 태토에 원료로 사용되는 돌.

장피(粧被): 토기를 굽기 전에 고운 진흙을 분물에 담가서 토기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히는 일. 적색(赤色)의 장식적인 효과와 흡수율을 낮추는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 덧칠.

재(灰): 유약의 원료.

적륜법(積輪法): 토기를 빚을 때 둥근 흙태를 또아리 모양으로 쌓아 올려가면서 만드는 방법. 태쌓기.

적사토(赤沙土): 적색(赤色) 사토질(沙土質)로 유약의 재료로 사용한다. 흑보라.

적토(赤土): 산화철이 많이 함유된 점토(粘土).

점토(粘土): 가장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흙. 석영(石英) · 장석(長石) 등의 암석이 풍화하여 직경 0.01mm 이하로 분해된 흙으로 물에 이기면 점성을 가진다. 철분의 다소에 따라 회색 · 갈색 등의 빛깔이 생기며 수분을 잘 흡수하고 마르면 구열(龜裂)이 된다.

접(接): 위가 넓적하고 운두가 낮은 국이나 송농을 담는 그릇.

정요(定窯): 중국 송나라 때에 정주(定州)에서 만든 자기.

제병(提甁): 납작한 원형의 그릇으로 몸에 짧은 목이 한 개 달려 있는 자라 모양의 병. 자라병.

조골문(鳥骨文) : 새의 뼈나 대나무 관으로 찍어서 낸 무늬. 붓두껍 무늬.

조문(爪文) : 아가리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손톱이나 손톱 모양의 무늬새기개로 눌러 찍은 것.

조화문(彫花文) : 가면에 백토(白土)를 귀얄로 바르거나 혹은 백토(白土)를 섞은 위에 선조(線彫)의 수법으로 백토를 긁어내어 바탕색을 나타낸 것으로 분청사기에 주로 사용된 기법.

주구(注口) : 안에 담긴 액체를 따를 수 있도록 그릇 입술의 한쪽을 빼죽이 내민 부리.

주자(注子) : 주전자.

지질박 : 그릇 내부의 표면을 균등하게 해 주는 둥그런 나무조각.

진사(辰砂) : 진홍색 육방정사(六方晶絲)의 광석의 한 가지. 빛은 진홍색으로 투명 또는 불투명한 적색 채료(彩料).

진사채(辰砂彩) : 기면(器面)에 진사(辰砂)로 시문하여 문양을 붉게 나타나게 하는 것.

찰과법(擦過法) : 토기 표면을 고르는 수법의 하나로 얇고 거칠게 긁는 것.

천목자(天目磁) : 고려 시대의 흑색 자기. 원래 중국 절강성(浙江省)에서 발달하였는데, 고려시대 때 우리 나라에 들어와 여러 종류로 발달되었다.

철사유(鐵砂釉) : 철분이 많은 흙으로 만든 잿물. 자기태토에 시유한다.

철채(鐵彩) : 자기태토의 기면 전체에 철사(鐵砂)를 입히고, 그 위에 백자유약을 시유하여 암갈색을 띤다.

철화문(鐵畫文) : 철회문(鐵檜文). 철분과 잡물이 많이 섞인 흑백색 또는 흑갈색 가면 위에 귀얄로 백토를 바르고, 그 위에 흑색이나 흑갈색 철회구로 그림을 그리는 것. 분청사기에 주로 사용한다.

청자(靑磁) : 중국에서 나는 푸른 물감의 한 가지. 나뭇잎·풀 같은 것을 그리는 데 쓴다. 당청화(唐靑華).

청화(靑華) : 중국에서 나는 푸른 물감의 한 가지. 나뭇잎·풀 같은

것을 그리는 데 쓴다. 당청화(唐靑華)

첩부분(貼附文): 그릇 몸에 띠 모양의 흙을 덧 붙여 만든 무늬. 덧 무늬.

초벌구이(素): 처음 태토를 소성하는 방법.

취철사문(吹鐵砂文): 회색의 그릇 표면에 상감 문양을 나타내고, 그 위 전면에 철회구액(鐵繪具掖)를 뿜어서 흑갈색의 반점이 점철되어 생긴 문양이 시문 된 것. 분청사기에 많이 사용한다.

칠보문(七寶文): 금(金)·은(銀)·유리(琉璃)·파리(玻璃)·마노(瑪瑙)·차거(차거)·산호 등 일곱 가지 금은 주옥으로 만든 것을 문양화한 것. 고려의 상감청자나 조선왕조시대의 백자 등의 문양으로 쓰였다.

타날문(打捺文): 토기의 몸통을 다지거나 부풀리기 위해 안쪽에 판을 대고 두들개로 두드릴 때 두들개에 새겨진 무늬에 의해 나타나는 무늬. 두드림무늬.

타제법(打製法): 그릇의 성형방법(成形方法)으로 테를 쌓아 두드려 만드는 방법.

태선문(太線文): 깊고 굵은 줄무늬로 누른 후 그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눌렀 떼었다가 또는 어느 한쪽에만 눌렀기 때문에 줄무늬의 양끝 또는 한 끝에 흠이 패어짐으로써 생긴 무늬. 굵은금무늬.

태토(胎土): 질그릇의 원료가 되는 흙. 바탕흙.

태호(胎壺): 왕가에서 태(胎)를 담아 태봉(胎封)하는 데 쓰는 항아리로 뚜껑꼭지에 네 개의 구멍이 뚫렸고, 항아리 어깨 부분에는 네 개의 고리가 있다.

토광(土鑊): 흑광의 산화대가 흙 같은 옅은 빛의 광석으로 변하여 금분(金粉)과 은분(銀粉)이 풍부한 광석.

토기(土器): 질그릇. 찰흙으로 만들어 유약을 입히지 않고 벌에 말리거나 구운 그릇. 오지 그릇.

토수(吐首): 기와. 전각 네 귀의 추너 끝에 끼는 기와. 용두형(龍頭形) 혹은 귀두형(鬼頭形)으로 되어 있다.

토우(土偶) : 흙으로 만든 인형.

토충(土靑) : 청화백자에 쓰는 우리 나라에서 나는 푸른 도료. 회청(回靑)에 대한 말.

퇴화문(堆花文) : 유색토(有色土)를 붓에 묻혀 도드라지게 무늬를 나타내는 것.

투각문(透刻文) : 그릇 안팎이 뚫리도록 조각을 한 문양.

투공(透孔) : 토기 굽에 뚫린 구멍. 굽 구멍은 소성시 기벽의 균열이나 일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같기도 하나 그와 함께 장식적인 의미도 중요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굽구멍. 투창(透窓).

투채(鬪彩) : 도자기 면에 그린 그림의 난만한 채색.

파상점선문(波狀點線文) : 점을 물결치는 모양으로 찍어서 시문한 것.

파수(把手) : 그릇의 몸통이나 어깨의 양쪽에 길게 달린 띠 모양의 손잡이.

파수부배(把手付杯) : 손잡이가 달린 컵.

팔괘문(八卦文) : 중국 상고 시대의 복희씨가 지었다는 우주철학을 상징한 여덟 가지의 괘를 상징하여 시문한 무늬.

편병(扁瓶) : 앞 뒤 양쪽 배를 두들기거나 양옆을 두들겨 평평하게 만든 병.

편복문(편복文) : 박쥐문. 박쥐는 장수의 상징이며, 조선 청화백자에 흔히 사용되었다.

평저(平底) : 편편한 바닥. 납작바닥.

표형병(瓢形瓶) : 표주박으로 생긴 병.

푼주 : 아래는 뾰족하고 위는 짝 바라진 사기그릇.

항(缸) : 항아리. 아래위가 좁고 배가 부른 그릇.

호로병(葫蘆瓶) : 조롱박 모양으로 만든 병. 두 개의 박이 연결된 모양으로 술이나 물을 담는 데 쓰인다.

홍도(紅陶) : 토기 겉에 적색 안료를 발라 간 토기.

화금청자(畫禁靑磁) : 소성된 순청자나 상감청자의 표면에 니금(泥

金)으로 문양을 장식한 것.

화룡준(畫龍樽):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술단지.

화승문(花繩文): 꽃을 끈으로 이어 매어 놓은 것 같은 무늬. 통일신라시대의 뼈단지의 겉면 장식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환상병(環狀瓶): 고리 모양으로 된 몸통에 짧은 목을 가진 아가리가 수직으로 달려 있는 병. 고리병.

환상파수(環狀把手): 그릇에 붙어 있는 고리모양의 손잡이. 고리잡이.

환원염(還元焰): 가마 내부에 공기가 최소한으로 공급되도록 차단해주는 소성 분위기를 말한다.

회도(灰陶): 소성 최후의 단계에 있어서 공기를 들이지 않고 요(窯)의 가운데서 환원하여 생긴 검푸른 회색을 띤 도기.

회유(灰釉): 목회나 석회를 용매로 하여 만든 잿물.

회청자(繪靑磁): 회청자(畫靑磁). 그릇 표면에 백색 또는 흑색 도료를 풀어 붓으로 그린 다음 청자 유약을 입혀 구워낸 것.

흑니(黑泥): 니탄(泥炭)이 공기로 말미암아 산화분해하여 검은 빛의 분말로 된 물질. 흑니토(黑泥土).

흑도(黑陶): 그릇 면이 검고 반들반들하게 간 토기. 검은간토기.

흑유(黑釉): 백자태토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유약을 쉼 후 번조하여 그릇 표면을 흑갈색 또는 암갈색으로 되게 한 것.

Ⅵ. 공 예 (工 藝)

감옥(嵌玉): 금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색의 옥(玉)을 박는 것.

감잡이: 대문 장부에 감아박는 쇠. 또는 기둥과 들보를 겹쳐 못을 박는 쇠.

개두(蓋頭): 왕비 이하 나인들이 국상(國喪) 때 머리에 쓰던 상복.

거치문(鋸齒文): 앞의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들쭉날쭉한 무늬.

격자문(格子文): 선을 교차하여 문살 모양으로 만든 무늬. 격문(格文).

결구(結子): 짜임새.

경상(經床): 원래는 불경을 읽을 때 사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서안(書案)으로 쓰인다.

경첩: 장·농·함 등의 문짝 또는 아래 위짝을 연결하여 여닫을 수 있게 맞물린 장식.

경통(經筒): 경전을 넣거나 경문을 새겨 경가(經家)에 묻는 통.

고비(考比): 벽에 걸어 놓고 편지나 간찰 같은 것을 옆으로 꽂아 놓는 기능을 지닌 방 세간의 하나. 벽을 장식하는 의의가 크다.

공장(工匠): 전문적인 수공업품(手工藝品) 생산에 종사하는 기술공. 공장은 이미 삼국시대 이전에 있었음을 석공품·금속공업품·건축·무기 등의 유물에서 알 수 있다.

관자(貫子): 망건에 달아 당줄에 꿰는 작은 고리. 망건의 상부를 줄라매는 데는 ‘당’이라 부르고, 하부를 줄라매는 데를 ‘변자(邊子)’라고 하는데, 변자의 귀 뒤에 관자를 단다. 머리를 다듬는 기능을 하나 실질적으로는 당줄을 걸어 넘기는 일을 맡기 때문에 권자(圈子)라고도 한다.

교피(鮫皮) : 상어 가죽을 말린 것을 말하는데, 칼자루에 감거나 물건을 닦는 데 사용한다.

금(錦) : 무늬를 넣어서 짠 비단.

금고(金鼓) : 절에서 쓰는 불구(佛具)로 북 모양으로 된 총. 종구(鐘具)라고 하기도 한다.

금봉채(金鳳釵) : 금으로 봉황을 새겨 만든 비녀.

나(羅) : 얇은 비단.

나전(螺鈿) : 자개 그릇 또는 자개로 만든 공예품. 칠지(漆地) 또는 목지(木地)에다가 광채나는 자개 조각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박아 붙여 장식한 공예품인데, 예로부터 중국에 보내는 공물(貢物)에도 중요한 품목의 하나이다.

낙죽(烙竹) : 대나무 위에 인두로 지져서 실같이 가는 선으로 그림이나 글씨를 쓰는 것.

노리개 : 금·은·주옥(珠玉)으로 만든 여자의 패물.

농(籠) : 주로 책이나 옷 같은 물건을 넣어 두는 상자형으로 한 층 한 층 따로 된 같은 크기의 것을 2층 또는 3층으로 포개놓도록 되었으며, 대개 장(櫳)보다 규모가 작고 농다리를 따로 만들어서 받쳐 놓도록 되어 있다.

다뉴경(多鈕鏡) : 동제거울의 뒷면에 고리가 2~3개 달린 것을 말한다.

당간(幢竿) : 절에서 당을 달아 세우는 대.

당간지주(幢竿支柱) : 당간을 받쳐 세우기 위한 돌기둥.

당좌(撞座) : 동종에서 종을 울릴 때 때리는 부분.

대구(帶鉤) : 혁대에 붙이는 장식. 교구(教具).

대모(玳瑁) : 바다거북의 한 가지. 등 껍테기가 삼각형이며, 빛깔의 변화가 많아 대모갑(玳瑁甲)은 공예 재료로 쓰인다.

대문(帶文) : 두 줄의 평행선을 그어 띠 모양으로 만든 무늬로 그 안에는 점·빛살무늬·뇌문·거치문 등이 채워져 있다.

도(鍍) : 금·은 등을 녹여서 물체의 거죽을 입히는 것. 도금(鍍金)·도은(鍍銀).

도철문(도철文): 중국 고유의 무늬. 중국 고대의 기물. 특히 동기(銅器)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두 개의 눈을 주체로 한 기이한 무늬.

독고(獨鈷): 밀교에서 사용하는 불구(佛具)의 하나. 금강저(金剛杵)이 양 끝이 뾰족한 철. 또는 동제(銅製)로 된 물건.

돌쩌귀: 문짝을 여닫게 하기 위하여 암짝은 문설주에, 수짝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게 된 쇠붙이로 만든 물건.

동경(銅鏡): 청동으로 만든 거울.

동발(銅鉢): 놋쇠로 만든 둥근 반(盤)으로 한복판이 조금 볼록한 악기의 일종. 한복판의 돌기부에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서 이곳을 잡고 두 장을 마주치면 소리가 난다.

등가(燈架): 기름을 켜는 등잔을 올려 놓는 받침대.

만산의걸이: 두 문짝을 마치 미단이 창살처럼 살창으로 만들고 창살을 사(紗)나 색종이로 바른 것.

문갑(文匣): 중요 문서나 귀중품 또는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를 넣는 낮고 긴 것으로 보통 장지문 밑에 위치한다.

문양(文樣): 무늬의 모양.

반단이: 넓은 네 개의 판으로 짜여진 것으로 앞쪽의 윗판을 아래로 젖혀 옷·제기·책 등을 넣게 되어 있는 실용과 장식을 겸한 일종의 궤(櫃).

반자(飯子): 불교에서 쓰는 북 모양으로 만든 종. 속이 비어 있으며 한쪽은 터졌고, 측면에 고리가 2~3개 달려 있다. 금고(金鼓).

범종(梵鐘): 절에 걸어 두는 종. 대개 종대에 걸어 놓고 당목(撞木)으로 치.

병경(柄鏡): 손잡이가 달린 거울.

복사(袱紗): 비단으로 만든 조그마한 보자기.

삭모(契毛): 기(旗)나 창(槍) 등의 머리에 이삭 모양으로 만들어 다는 붉은 빛깔의 가는 털. 상모.

서견대(書見臺): 책을 편히 읽을 수 있도록 비스듬히 세우 놓는 받침.

서안(書案): 서랍이 한 두 개, 선반이 하나쯤 마련된 조그마한 책상.

대개 양측에 판족(板足)을 붙이고 거기에 간소한 풍혈(風穴)이 하나씩 뚫려 있는 정도의 소박한 장식으로 되어 있으며,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한다.

석조(石槽): 큰 돌을 넓게 파고 물을 받아 사용하도록 만든 일종의 돌그릇.

선초(扇貂): 나침반이나 침통을 부채 끝에 매달아 장식하는 것으로 단단한 나무에 정교한 조각이 되어 있다. 선추(扇錘).

세문경(細文鏡): 뒷면의 장식이 세모·네모꼴 과 둥근 무늬 등의 가는 선으로 이루어진 청동제의 거울. 잔무늬거울. 정문경(精文鏡).

소상(塑像): 찰흙으로 만든 인물의 모형. 중국 당나라 때에는 불상의 소상이 유행되었으나, 지금은 주로 작은 주물의 원형으로 쓰는 것.

수미단(須彌檀): 사원의 불전에 불상을 안치하는 단.

수식(垂飾): 길게 매달아 늘어뜨리는 장식의 끝부분. 드리개.

수적(水滴): 벼루에 물을 붓는 기구. 연적(연滴).

시우쇠: 무쇠를 불려서 만든 쇠붙이의 한 가지.

실장: 수실과 바느질 실 등을 넣어 두는 조그마한 장.

약장(藥機): 일반가정에서 상비약을 넣는 장으로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넣기 위한 많은 서랍들이 알맞은 구성으로 배열되어 있다.

어피상자(魚皮箱子): 나무로 된 상자 위에 상어 껍질을 씌운 것.

연상(硯床): 일상필기와 한묵에 쓰이는 벼루와 먹, 붓을 놓고 쓰는 가구.

염죽(染竹): 자색 등 몇 가지 품위 있는 색으로 죽판(竹板)을 물들이거나 얼룩지게 해서 목공품 표면에 붙여서 쓴다.

영락(瓔珞): 목·팔 같은 곳에 두르는 구슬을 꿰 장식품.

오동(烏銅): 검은빛 나는 적동(赤銅). 장식품에 쓰인다.

와당(瓦當): 기와의 마구리. 기와의 한 쪽에 둥글게 모양을 낸 부분. 원형이나 헛바닥 같은 반원형으로 되거나 좁고 활 모양으로 굽은 긴 전이 붙어 있으며 무늬가 있다.

요령(搖鈴): 놋쇠로 만든 종과 같은 큰 방울. 불가에서 법요를 행할

매 혼드는 채횡보다는 좀 작은 기구.

요패(腰佩) : 옛날 장신구의 하나. 허리에 차는 것으로 과대에 달린 고리에 매어 늘어뜨리게 되어 있다. 대체로 금속으로 만든 타원주배형의 소판(小版) 6개 내외를 직사각형의 소판(小版)에 하나씩 건너 연결하고, 그 끝에 곡옥 등 여러 장식물을 붙였다. 띠드리개.

용뉴(龍鈕) : 동종을 매다는 고리를 용(龍) 모양으로 만든 것.

울거미(骨組) : 엮어 맨 물건의 거죽에 댄 테.

유기(鋤器) : 낫그릇.

유둔(油菴) : 기름을 먹인 두꺼운 종이.

은입사(銀入絲) : 은줄을 새겨 넣어 문양을 만드는 기법.

음통(音筒) : 동종의 꼭대기 부분에 붙어 있는 긴 통으로 음의 공명을 돕고 있다.

이수(螭首) : 종정이나 인장·대구·비머리 등에 뿔 없는 용의 서린 모양을 아로새긴 형상.

장(櫳) : 옷·책·그릇 등을 넣을 수 있는 가구로 보통 내실에 놓여지며, 2층 또는 3층을 이어서 하나로 만든 것과 독립된 단층장(單層櫳)이 있다.

장전(櫳塵) : 장롱 따위를 파는 가게.

정간(井間) : 바둑판 등과 같이 종·횡으로 여러 줄을 그려 정자(井字) 모양으로 된 간살. 사난(絲欄).

조문경(粗文鏡) : 거울 뒷면의 모양이 굵고 거칠은 거울. 청동기시대의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과는 의미가 다른 의식용구로 사용되었다.

조패법(彫貝法) : 넓은 자개로 외형을 오려낸 후 가는 선으로 음각하여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기법. 이 방법은 손쉬운 작업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문양도 매우 다양하다.

족대(足臺) : 장이나 탁자의 발에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두 다리를 연결시키는 막대기.

주영(珠瓔) : 구슬로 만든 목걸이.

지승(紙繩) : 한지를 가늘게 오려 끈 후에 엮어서 그릇이나 상자 등

을 만드는 수법.

지장의 걸이: 사랑방이나 서재에서 쓰이는 것으로 의장이 매우 단순하고 소박한 것을 상품(上品)으로 친다.

채(釵): 머리 뒤에 꽂는 꾸미개의 일종으로 뒤꽂이라고도 한다.

첩죽(貼竹): 죽재(竹材)의 표면을 얇게 벗겨내어 목공 가구나 합죽선 같은 소품 위에 접착제로 붙여서 쓴다.

청령옥(蜻蛉玉): 유리구슬 표면의 군데군데에 색깔 있는 둥근 모양을 새겨 넣은 구슬. 망울구슬.

치미(鷓尾): 큰 기와집의 대마루 양 끝에 세운 장식. 매 대가리처럼 특 붙거지고 모가 난 두 뺨에 눈알과 깃 모양의 선과 점을 새겼다.

칠기(漆器): 옷칠과 같이 검은 잿물로 된 도자기. 또는 곁에 옷칠을 한 나무로 만든 그릇.

칠보문(七寶文): 극락정토에 있다는 일곱 가지 보물의 형상을 무늬로 나타낸 것.

탁자(卓子): 여러 층의 널빤지로 구성되어 책·도자기·그릇 등을 올려놓는 가구.

투각(透刻): 주로 금붙이의 세공에서 속이 보이도록 뚫어서 조각하는 기법.

투호(投壺): 둥근 항아리처럼 생긴 것에 굵은 대나무 기둥을 만들고, 그 양쪽에 짧은 대통을 매달아 화살과 같은 작은 막대를 던져 넣는 놀이에 사용되는 항아리.

패옥(佩玉): 금관·조복의 좌우에 늘어 차는 옥

평의걸이: 살창이 없는 단순한 의장.

평탈(平脫): 금 또는 은편(銀片)을 문양으로 오려서 나전칠기와 같은 방법으로 칠기에 감입하고 그 위에 정밀한 문양을 선각하는 방법.

포선(布扇): 상제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가지는 물건. 장방형의 뱃조각에 대로 된 두 개의 자루가 붙었다.

풍혈(風穴): 장롱이나 탁자에 이용되는 것으로 다리 부분이나 모서

리 부분에 시각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보조장식.

필가(筆架): 사각이나 박쥐형으로 생긴 판에 작은 못이 달려 있어서 붓을 걸어 벽에 매달아 장식 효과를 겸하는 것.

향상(香床): 책상 닮은 것으로 문방에 자신이 즐기는 향을 피우기 위해 두는 조출한 상.

향완(香奩): 불전에 향을 피우는 향로.

호박(琥珀): 여러 가지 장식에 쓰이는 투명 또는 불투명의 광택을 가진 광물.

화각(華角): 쇠뿔을 펴서 얇게 간 후 뒷면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얇은 쇠뿔을 통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한 것. 상자나 장의 표면에 붙인다.

화초장(花草幀): 유리 뒷면에 그림을 그려 장의 앞면을 장식한 것으로 꽃·새·장생(長性) 등 민화풍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옷장에 사용된다.

Ⅶ. 서화 · 전적 (書畫 · 典籍)

각수(刻手) : 조각을 업으로 하는 사람. 조각사(조각사).

각판(刻板) : 서화를 새기는 데 쓰는 널조각 또는 서화를 널조각에 새기는 것.

간(簡) : 중국 고대에 죽편(竹片)에 문자를 새기거나 칠로 쓴 죽편을 간이라 한다.

간지(簡紙) : 편지에 쓰는 장지(壯紙)로 접은 종이. 이 편지지는 봉투도 같은 장지로 한다.

간찰(簡札) : 간지에 쓴 편지.

갈필(渴筆) : 동양화의 기법. 선과 주름을 그릴 때 그 스치는 맛을 살리는 동양화 특유의 화법. 붓에 먹을 많이 묻히지 않고 쓴다.

감지(紺紙) : 감남색(紺藍色)으로 착색한 것을 뜻하며, 중국에서는 자남색(磁藍色)이라고도 한다.

갑인자(甲寅字) : 조선 세종 갑인년(1434)에 만든 동활자. 자체(字體)의 크기가 경가자(庚子字, 1420년부터 12년에 걸쳐 만든 구리활자)보다 좀 크고 바르고 깨끗한 필서체이다.

개자점(介字點) : 네 갈래 또는 다섯 갈래가 진마뿔잎의 표현.

강목(綱目) : 송나라 주희(朱熹)가 쓴 중국의 역사책.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갑골문(甲骨文) :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격몽요결(擊蒙要訣) : 선조 10년(1577)에 이이(이이)가 한문으로 아이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지은 책.

경서(經書) : 중국 고전인 유교의 경전을 말한다.

경연(經筵) : 국와 앞에서 경서(經書)를 강론하는 국가 기관인 정이품(正二品) 아문(衙門)의 하나이며, 강독(講讀)과 논사(論事)의 임무를 관장한다.

경질(經軼) : 가느다란 침대 조각을 자서 장방형으로 대자리와 같이 만들고 그 한쪽에 삼각형의 깃(비단)을 붙여 줄을 달아 경권(經卷)을 마는 데 사용한다.

계미자(癸未字) : 태종 3년 계미년(1403)에 주자소를 두어 만든 조선 왕조 최초의 금속활자. 동으로 만든 활자인데, 우리 나라에서 그 모양을 알 수 있는 활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계병(契屏) : 조선왕조시대 국장·국혼 등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의 광경을 그린 병풍.

계화(界畵) : 자를 쓰고 재서 그리는 그림으로 전물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한다.

고담(枯淡) : 서화·문장·인품 등이 속되지 아니하고 아담한 정취가 있다.

고박(古樸) : 새로운 맛은 없으나 옛 풍미가 있어서 질박하다.

고원(高遠) : 산의 밑에서 높은 봉우리를 올려다 볼 때 나타내는 방법.

고정지(藁精紙) : 함경북도에서 나는 귀리짚으로 만든 황지(黃紙).

공필화(工筆畵) : 부분과 형태, 표본에 대해 세밀한 주의력을 기울여 꼼꼼하고 정밀하게 그리는 그림.

관(款) : 화가의 이름과 함께 그린 장소와 일, 시 그리고 누구를 위해 그렸다는 것을 적은 것. 판서(款署).

관첩(官帖) : 고려 때 지방관리의 임명장.

괘불(掛佛) : 야외에 내거나 크게 그린 불화(불화).

괘폭(掛幅) : 수직으로 걸 수 있는 큰 족자.

교서관(校書館) : 태조 1년(1932)에 설치되어 경자(經籍)의 인쇄와 향축(香祝), 인전(印篆)을 담당한 조선왕조의 관청. 별칭으로 운각(芸閣)이라고도 한다.

교서초(敎書抄) : 임금의 교론(敎論)을 초록한 책. 고종 5년(1868)부

터 10년간에 걸쳐 팔도감사·사도유수(四都留守)·통제사·총술사(摠戍使)·경기수사 등에 내린 교서를 뽑아 모은 것.

교지(教旨) : 조선왕조 때 임금이 신하에게 주던 사령(辭令). 종래에 사용하던 왕지(王旨)를 세종 7년(1425)에 개칭한 것으로 문무관 4품 이상의 사령장에 한하여 교지라 한다.

구(鉤) : 주로 풍경화에 사용되는 윤곽석.

구금(鉤金) : 윤곽선을 금으로 그리는 것.

구륙화(鉤勒畫) : 쌍선(雙線)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사이에 색(色)을 채워 올리는 법.

구분법(鉤粉法) : 먹으로 구름의 윤곽을 그리고 그 윤곽을 따라 흰색으로 다시 정리하는 방법으로서 금벽 산수에서 자주 이용한다.

구양순(歐陽詢) : 당나라의 서예가. 글씨를 왕희지(王羲之)에게 배워 해서(楷書)의 모범이 되었다.

군도목(軍都目) : 이두처럼 한자의 음이나 뜻을 취하여 우리말을 적은 책. 군두목(群頭目)이라고도 한다.

권계화(勸誡畫) : 유고를 통속화하여 권선징악을 목적으로 한 그림, 효자·열녀·현왕·충신 등을 그렸다.

권순문(勸善文) : 불가(불가)에서 선(善)을 권하고 장려하는 글발. 절에서 속가에 포시(布施)를 청하는 종이.

권운준(卷雲皴) : 구름이 둥글게 감긴 것 같은 준법(皴法).

권축(卷軸) : 말아 둘 수 있는 모든 그림의 총칭.

귀갑(龜甲) : 거북등의 껍데기.

금니(金泥) : 금박가루를 아교풀에 갠 물건. 서화에 쓰인다.

금벽산수(金碧山水) : 금색과 초록색의 산수.

금보(琴譜) : 거문고의 곡조를 적은 악보. 선조 5년(1572)에 출판한 금보가 가장 오래된 고전 악보이다.

금석문(金石文) : 옛날 사람들이 어떠한 사적을 오래도록 유전해 가기 위해 금속기물이나 석면에 문자 혹은 그림을 파 둔 것을 말한다.

기사지(耆社志) : 기사(조선 때 춘추가 높은 임금이나 일흔 살이 넘

은 문관의 정2품 이상 되는 노인이 들어가서 대우받던 곳. (기로 소)의 유래와 설치 이후의 여러 가지 사적과 조례를 상세히 기록한 책.

기전체(紀傳體) : 역사서(歷史書)의 기재 또는 편찬의 방법. 역사는 본기(本紀)로서 왕의 존위 중의 사건을 사실로서 년(年)·월(月)·일(日) 순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傳)은 열전, 개인 본위의 기술, 즉 저명한 인물의 전기를 모아 쓰는 기술 방법이다.

나한도(羅漢圖) : 불화(佛畵). 나한은 열 가지 부처의 칭호 가운데 하나인데, 생사를 이미 초월하여 배울 만한 법도가 없게 된 자리의 부처를 일컫는다.

낙관(落款) : 서화에 작가가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날인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난마준(亂麻皴) : 불규칙하게 결합되어 있는 산이나 바위가 침식된 모습을 나타내는 준법.

남종화(南宗畵) : 중국 그림의 2대 유파 중의 하나. 명나라 동기창(董基昌)이 제창한 화파(畵派)의 호칭으로 일명 남화(南畵)라고도 한다. 주로 시정이 풍부한 산수화를 그렸다.

납서(蠟書) : 조선시대 국가의 비밀을 요하는 사찰로서 피봉에 밀납을 녹여 붙여 지정된 상대자 이외에는 아무도 마음대로 뜯어 볼 수 없게 한 비밀문서.

녹권(錄券) : 원종공신(原從功臣)의 공훈을 기록한 문서.

농사(籠寫) : 문자 또는 서화 위에 얇은 종이를 놓고 외곽만을 이중으로 본뜬 것.

단관(單款) : 누구를 위해 그렸다는 사람 이름이 없는 화가의 서명이나 화기(畵記).

단자(單子) : 부조 등 남에게 보내는 물건의 수량과 보내는 사람들의 성명을 적은 종이.

단조(單條) : 길고 매우 좁은 죽자.

단청(丹青) : 짙거나 궁정 등 목조건물에 장식된 채색 문양.

단필마피준(短筆麻皮皴) : 부서지고 각진 바위나 봉오리의 효과를 낼 때 사용하는 준법.

달마도(達磨圖) : 법(法) · 진리 · 본체 · 궤범(軌範) · 이법 · 교법 등을 바탕으로 그린 불화(佛畵). 조선조 후기 김명국(金命國)의 달마도(達磨圖)는 유명하다.

담자(淡赭) : 연한 갈색.

대구운(大勾雲) : 큰 고리 모양의 구름으로 세구운(細勾雲)에 비해서 선이 고르지 않고 조직적이며 양감이 있다.

대련(對聯) : 시문(時文) 등에서 의미는 틀리나 동일한 형식으로 나란히 있는 문구.

대통력(大統曆) : 중국력(中國曆)의 하나, 고려 공민왕 19년(1370)부터 사용한 달력인데, 명 태조 광무 17년에 누각(漏刻)박사 원통(元統)이 만들었다.

도석인물(道釋人物) : 도교 또는 불교적 인물화. 여래 · 보살 · 나한 · 신선 등의 상(像).

독필(秃筆) : 끝이 거의 다 닳은 몽당 붓.

둔항(敦煌) : 중국 감숙성(甘肅省)의 서북부에 있는 현. 고대로 서역과의 교통 요지로 중국 내지에서 볼 수 없는 벽화 소장이 있어 불교 예술의 귀중한 유적이 된다.

동경(同景) : 여러 면 전체가 한 그림으로 이어진 병풍.

두방(斗方) : 작은 정사각형의 그림으로 보통 화첩으로 엮을 때 사용한다.

등록(騰錄) : 전예(前例)를 적은 기록.

만년지(萬年紙) : 칠(漆)이나 기름을 먹인 한지(韓紙).

매목(埋木) : 이판용(李版用)의 재료에 흠이 있을 때 또는 조각이 끝난 판목의 일부를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곳을 잘라내고 대응으로 적당한 나무를 붙여 매우는 것.

매지권(買地券) : 피장자가 매장지역에 대해 지신(地神)에게 땅을 사겠다는 일종의 계약문서.

맥락(脈絡) : 핏줄기 같은 산봉오리 윤곽의 표현.

모(摹) : 진작(진작)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대로 정확하게 옮겨 그리는 것.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 : 일제 말기에 발견된 만주 통구(通溝) 부근 하양어두(下羊魚頭)에 있는 고구려의 한 고분 벽면에 묵(墨)으로 쓴 묘지. 고구려의 광개토왕을 호태성왕(好太聖王)이라고 한 기록과 모두루를 시켜 북부여를 지키도록 하였다는 등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

목간(木簡) : 종이가 없었던 시대에 문서나 편지 기타 어떠한 글을 나무 조각에 적은 것. 주로 한(漢)에서 동진(東晉)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내용적으로 사료적 가치도 높으며, 그 서체로서 서도상(書道上)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몰골법(沒骨法) : 화조화에 있어서의 묘법(描法)의 하나. 윤곽선을 그리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수묵 또는 채색으로 대상을 그리는 기법. 송대(宋代)의 화가 서희(徐熙)가 창시하였다. 몰선묘법(沒線描法).

묘(描) : 사람이나 사물에 사용되는 윤곽선. 인물화 특히 의습(衣褶)의 표현에 사용.

묘지(墓誌) : 죽은 사람의 이름, 관위, 행적, 자손의 이름, 생사장(生死葬)의 연월일 등을 새겨서 관과 함께 파묻는 돌이나 도판. 또는 거기에 새긴 글.

무진도(無盡圖) : 길게 그린 산수화로 횡축에 그려진다. 강산무진도(江山無盡圖)라고도 한다.

문인화(文人畫) : 직업적인 화가가 아닌 문인 여기(餘技)로 그리는 그림. 중국 송나라 때 한창 행하여졌는데, 종래에 내려오던 전문적인 화가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자유로운 수법으로 수묵 또는 담채로 속세를 떠난 운치 있는 화풍을 이루었다. 나중에는 남종화와 합하였다.

문적(文籍) :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글자나 그림으로 기록하여 꿰

어 맨 것. 서지(書誌)·곡적(曲籍).

미법산수(米法山水): 중국 송대의 문인화가 미불(米芾). 미우인(米友仁) 부자가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수묵산수화법. 윤곽선을 사용하지 않고 산의 대체의 모양이나 나무의 가지·줄기를 먹을 번지게 하여 묘사하고, 그 위에 먹으로 점을 찍어서 그렸다.

미점준(米點皴): 중국 화가 미불이 창안한 것으로 산이나 땅에 윤곽이나 입체감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 점법(點法).

발묵(潑墨): 그림 전체를 윤곽선 없이 붓 터치로만 그린 것.

발문(跋文): 도서의 최종면에 그 내용의 대략이나 또는 그 내력. 감상 기타 관계된 사항을 친구·선배·후세인들이 쓴 짤막한 글로서 서지 연구상 중요한 구실을 한다.

방(倣): 보통 자유롭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방훈(傍訓): 한문의 옆에 찍은 훈점(訓點). 원문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찍은 구두점과 문장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찍은 경우가 있다.

배접(裱接): 종이·형집 또는 얇은 널조각 같은 것을 여러 겹 포개서 붙이는 일.

백묘(白描): 동양화 묘법의 하나. 옅고 흐릿한 곳 없이 먹으로 진하게 윤곽선만 그리는 법.

백엽점(柏葉點): 측백나무나 멀리 있는 큰 나무의 잎에 사용하는 점법.

백패(白牌): 조선왕조 때 소과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합격 증서. 대과에 합격하면 홍패(紅牌)를 주고 소과·잡과·이과에 합격하면 백패를 주었는데, 백지에 관명·성명·과별(생원·진사·잡과 등)·성적 등급을 써 주었다.

번각(翻刻): 한번 새긴 책판 같은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 새긴 것.

번려체(駢儷體): 한문체의 하나. 수사(修辭)하는 데 대구를 많이 써서 읽는 이에게 미감을 주게 하는 것인데, 네 글자와 여섯 글자의 대구(對句)로 되어 있으며, 중국의 육조(六朝) 때 성행하였다. 제(齊)·량(梁)시대에 운율의 연구가 일어나 사성(四聲)을 발견하

였고, 이를 시문에 응용함에 따라 날로 성행하여 당초기에 한층 빛났고, 우리 나라에는 신라시대에 문선(文選)이 읽힘으로써 이 문체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에 성행하였다.

변상화(變相畵):극락의 장엄한 모양과 지옥의 참상을 그린 그림.

변장(邊章):서명의 옆이나 그림의 하단부 양쪽 구석을 제외한 부분에 찍힌 도장.

병자자(丙子字):조선 중종 11년 병자년(1516)에 만든 동활자. 자체는 갑진자와 비슷하나 약간 큼직하다.

병진자(丙辰字):조선 세종 18년 병진년(1436)에 만든 납활자. 대자(大字)를 인쇄하여 만든 것으로 자본은 수양대군이 썼다.

봉교서(奉敎書):임금의 하교를 받들어 쓴 글.

봉니(封泥):옛날 중국에서 간척 등으로 된 문서 같은 것을 끈으로 묶고 봉할 때에 사용한 지금의 봉랍(封蠟) 같은 것. 진흙 덩어리.

봉서(奉書):왕의 종친 또는 근신에게 내리는 글. 봉서무감(封書武監)이 이를 전한다.

부(賦):글귀 끝에 운(韻)을 달고 흔히 대를 맞추어 짓는 글. 감상 그대로 적은 한시체(漢詩體)의 한 가지.

부감도(俯瞰圖):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그림이나 지도.

북종화(北宗畵):중국 회화 사상의 2대 유파의 하나. 당의 이사훈(李思訓)·이소도(李昭道) 부자를 비조(鼻組)로 하여 송대에 와서 전성기를 이루었다. 물체의 표현과 색채의 선명을 주로 하여 누대(樓臺)와 금벽(金碧)을 세밀하게 나타내는 것이 특색이다. 원 이후에 이르러서는 남종화에게 압도되었다.

비답(批答):임금이 대신의 상소문에 의견을 써서 회답하던 일. 또는 그 회답문.

비망기(備忘記):왕의 명령을 적어 승지에게 전하는 문서.

비백서(飛白書):글자를 쓸 때 날려서 쓰는 필법의 일종.

비운문(飛雲文):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구름무늬.

비첩(碑帖):비갈법첩(碑碣法帖)의 약어. 비에 새긴 글자를 그대로

- 종이에 박아 낸 것. 탁본 또는 그것을 첩(帖)으로 만든 것.
- 사경(寫經) :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나 또는 공양이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경문을 베끼는 일.
- 사군자(四君子) : 매(梅) · 난(蘭) · 국(菊) · 죽(竹)을 일컫는다.
- 사본(寫本) : 손으로 직접 쓴 책.
- 사생(寫生) : 실물을 놓고 그리는 것으로 주로 꽃 · 식물 · 곤충 · 동물 · 새 등을 스케치한다.
- 사신도(四神圖) : 청룡(동) · 백호(서) · 주작(남) · 현무(북)를 주제로 그린 그림. 주로 삼국시대 고분벽화에 많다.
- 사양(四鑲) : 그림의 바로 곁을 둘러싼 가장자리로 족자의 천지와외 사이를 말한다.
- 사초(史草) : 사료(史料)의 원고. 조선왕조 시대에 사관이 시정을 기록해 둔 초안. 이것이 조선왕조 실록의 원고가 된다.
- 삭서(朔書) : 40세 이하의 문관에게 매월 삭일(朔日)에 시서(試書)시키는 예서 및 전서.
- 산거(刪去) : 필요하지 아니한 글자나 글귀를 지워 버린 것. 산삭(刪削).
- 산질(散帙) : 여러 권으로서 한 철을 구성하는 책이 오랜 세월의 경과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서를 취급할 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
- 상서(箱書) : 서화의 진적(眞蹟)임을 증명하는 감정서(鑑定書). 축물(軸物) 상자의 표지에 서제와 필자명을 써서 서명 날인한 것.
- 상지(橡紙) : 한지(韓紙)의 일종으로 도토리나무로써 물들인 저지(楮紙).
- 생생자(生生字) : 정조 16년(1792)에 나무로 만든 활자. 이 목활자의 제조목적은 종래에 사용하던 동활자는 그 크기가 고르지 못하여 인쇄에 능률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활판 인쇄를 개량하는데 있었다.
- 서적소(書籍所) : 고려 인종이 여러 가지 책을 모아두는 한편 여러 학사들과 더불어 학문을 토론하던 곳.

서족점(鼠足點) : 추동(秋冬)의 소나무 잎이나 멀리 있는 소나무 잎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점법.

선묘(線描) : 그림을 선(線)만으로 그리는 것.

선염법(渲染法) : 화면에 물을 칠하고 채 마르기 전에 붓을 눌러 그려서 몽롱하여 침중한 묘미를 나타내는 화법. 산수운연(山水雲煙)의 흐릿한 감이나 비올 때의 정취, 어스름 달 등을 표현하는데 쓴다.

선종화(禪宗畫) : 어려운 불경에 의하지 않고 이심전심의 모법으로 참선을 주용시하여 경전도 없이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을 종지(宗旨)로 하는 선종파(禪宗派)의 이념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설채(設彩) : 색을 칠하는 것. 부채(賦彩).

세구운(細勾雲) : 선들이 고르고 길며 가는 고리 모양의 구름.

세엽점(細葉點) : 위쪽으로 향해 자란 가늘고 긴 잎으로 어린버들잎이나 대나무 잎에 사용하는 점법.

세천법(細泉法) : 개울물이 좁은 골짜기를 빠져나와 퍼지는 모습을 그리는 방법.

세한삼우(歲寒三友) : 추운 겨울의 상록수인 송(松)과 죽(竹), 그리고 눈이 녹기 전에 꽃이 피는 매(梅).

소묘(素描) : 단색, 특히 흑색의 선 또는 점으로 그린 그림.

소부벽준(小釜劈皴) : 작은 도끼로 찍었을 때 생기는 단면과 같은 준(皴). 단층이 모난 바위의 효과를 낸다.

소전(小篆) : 한문 글씨인 고전(古篆)의 팔체서(八體書)의 하나. 중국 진시황 때 이사(李斯)가 대전(大篆)을 간략하게 변형하여 만든 글씨체로 조선왕조 때 교서관 관원의 성적을 기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던 시험의 한 과목.

소혼점(小混點) : 붓끝으로 찍은 타원형의 작은 점으로 흐리고 진한 것을 섞어 그림. 바위나 나뭇잎 등을 그리는 데 사용한다.

송설체(松雪體) : 한자 서체의 일종. 송설은 촉(蜀)의 조맹부(趙孟頫)의 호로 조맹부 특유 서체를 말한다. 왕희지는 영향을 받았는데, 해

- 서(楷書)·행서(行書)·초서(草書)에 뛰어났으며 특히 행서는 실용적이면서도 연미(軟美)하고 정돈된 것이 특징이다. 촉체(蜀體).
- 송엽점(松葉點)**:가늘고 끝이 뾰족하며 약 일곱 개씩 모여 반원형을 이룬 점법.
- 수결(手訣)**:수압·사인·자서명·인장·화압(花押)과 같이 자신이 기재한 것과 타인의 것과 구별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고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 수권(手卷)**:열어보고자 할 때 벽에 거는 것이 아니라, 책상위에서 옆으로 펴 보고 말할 수 있는 두루마리.
- 수두점(垂頭點)**:앞이 무성한 한여름의 나무숲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점법.
- 수등점(垂藤點)**:매달려서 늘어지는 식물 같은 점으로 절벽 밑의 산을 그릴 때 사용한다.
- 수묵화(水墨畫)**:중국 당나라 중엽부터 시작된 동양화의 하나. 채색으로 쓰지 아니하고 수묵의 짙고 옅은 조화로써 초자연적 표현을 주로 하는 그림. 채색화보다 깊고 추상적이며 정신적인 그림으로 동양의 정신철학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 수조점(水藻點)**:물품점·해초점·소나무 잎과 비슷하지만, 가장 다른 점은 더욱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약간 곡선적이다.
- 수창(酬唱)**:시가(詩歌)를 불러 서로 주고받는 것.
- 시경(詩經)**:중국 은대(殷代)부터 춘추시대까지의 시집.
- 시권(試券)**:과거 때 글을 지어 올린 시험지.
- 시당(詩堂)**:시를 써 넣기 위한 공백. 때로는 제발(題跋)을 받기 위해서 수직의 족자 그림 위에 직접 붙여진 종이.
- 실록(實錄)**:역대 제왕의 사적을 편년체(編年體)로 쓴 사록(史錄). 우리 나라는 고려 때부터 실록이 편찬되었는데, 고려 초기 사관(史館)이 설치되어 여기서 실록편찬을 담당하였다.
- 실록자(實錄字)**:조선 현종 9년(91668)에 만든 동활자. 일명 운각활자(雲閣活字)·교서관활자라고도 하며 목활자의 불편을 느껴만든

것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 : 사실에 토대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일. 한서(漢書)의 하간헌왕(河間獻王)전에서 나온 말로 공륜만을 일삼는 양명학(陽明學)에 대한 반동으로 청나라 고증학파(高證學派)가 내세운 표어이다.

십계도(十界圖) : 육도화(六道畵)의 일종. 지옥·마귀·축생·아수라·인간·하늘·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불(佛)의 10세계를 그려 정토교(淨土敎)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쌍관(雙款) : 화가의 서명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그렸다가거나 누구에게 헌정한다는 사람의 이름까지를 포함한 서기(書記).

쌍구(雙鉤) : 윤곽을 가늘고 얇은 쌍선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를 채색하는 법. 몰골법(沒骨法)과 더불어 회화의 2대 기법이다.

아패(牙牌) : 조선시대의 호패로서 당시 16세 이상의 남자가 가지는 신분증의 하나. 상아로 만들었다.

양엽점(仰葉點) : 뺏뺏하고 곧은 점들이지만 결합되어 있지 않아 소나무의 다양한 효과를 낼 때 사용.

양국(養國) : 그림의 바로 아래위에, 또는 사양의 바로 안쪽에 붙인 능나(綾羅)나 특수한 비단으로 댄 좁은 대.

양문(陽文) : 글자 부분을 튀어나오게 하여 바탕에 빨간 글자가 찍혀지도록 새겨진 인장.

어록(語錄) : 중국의 백화(白話)어록을 모아 해설한 것으로 사전류의 하나.

어압(御押) : 임금의 수결(手決)을 새긴 도장.

어제(御製) : 임금이 지은 글.

어진 : 임금의 화상이나 사진.

연주장(蓮珠章) : 두 개처럼 되어 있는 하나의 도장.

엽(葉) : 종이 같은 것을 셀 때 한 장을 이르는 단위.

영모(影毛) :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

영모(零本) : 단본(端本)과 같다. 고간본·고사본의 경우 사용된다.

영인본(影印本): 원본을 사진이나 기타 과학적 방법으로 복제한 인쇄물.

영정(影幀): 화상을 그린 족자. 영상(影像).

예서(隸書): 한자 서체의 하나. 노예, 즉 천역자에게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글이라는 뜻으로 진나라 운양(雲陽)의 옥사(獄史) 정막(程邈)이 전서(篆書)의 번잡함을 생략하여 만들었다. 한 대(漢代)에 와서 또다시 장식적으로 되었는데, 후세에 이것을 진례(秦隸)·당례(唐隸)와 구별하여 말하나 일반적으로 한례(漢隸)라고 한다.

와문(渦文): 소용돌이 모양의 무늬.

완결(剝缺): 나무·돌·쇠붙이 등에 새긴 글자가 닳아서 없어진 것.

용감수경(龍龕手鏡): 중국 요나라의 중 행균(行均)이 고려 16년(997)에 편찬한 자전(子典).

우모준(牛毛皴): 소의 털 같은 준법(皴法)으로 나무가 없는 화성암의 부드럽고 두근 효과를 나타내는 준법.

우설점(雨雪點): 빗방울이나 눈송이 같은 속이 찬 작은 점.

우점준(雨點皴): 작은 타원형의 빗방울 같이 생긴 점.

운각(芸閣): 교서관의 별칭.

운두준(雲頭皴): 적운(積雲)처럼 생긴 산을 표현하는 준법(皴法).

운모지(雲母紙): 운모의 가루를 뿌려 혼합시켜 만든 종이.

운문(雲文): 고대 미술에서 성행하던 문양의 일종. 기하학적인 와권문(渦捲文)과 비슷한 무늬로 구름 또는 운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운서(韻書): 한자를 운에 의하여 분류한 자서(字書). 절운(切韻)·광운(廣韻) 등의 총칭.

원체(院體): 기존의 법칙과 관습에 따라 매우 정교하게 그린 화원화가들의 그림.

유둔지(油菴紙): 비올 때 쓰기 위하여 저지(楮紙)로 이어 붙여서 만든 두꺼운 유지(油紙).

유산지(硫酸紙) : 의양피지(擬羊皮紙)라고도 한다. 목재·섬유제의 종이를 유산에 침몰시켜 반투명 내수질(耐水質)로 한 것.

육필(肉筆) : 수서한 것을 말하며 인쇄 기타 복제품에 대한 어휘·서사·서법·필적·수적 등으로 호칭된다.

은구(銀鉤) : 화려한 초서의 형용.

은니(銀泥) : 은가루를 아교풀에 갠 것. 글씨와 그림에 쓴다.

은사(恩賜) : 임금의 은혜로 하사한 글이나 물건.

을유자(乙酉字) : 조선 세조 11년(1465)에 만든 동활자. 세조가 원각경(圓覺經)을 찍기 위해 만든 것으로서 정난종(鄭蘭宗)의 서체를 자본으로 하였다. 글자 하나하나가 좋으나 활자 자체는 정연하지 못하다.

을해자(乙亥字) : 조선 세조 1년(1455)에 만든 동활자. 갑인자보다 획이 곧고 바르며 약간 옆으로 벌어져 있다. 을해자에는 한글활자도 있는데, 이것은 한글활자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음문(陰文) : 글자 부분을 음각해서 빨간 바탕에 흰 글자로 찍혀지는 것.

의궤(儀軌) : 국가의 큰 일이 있었을 때 후세에 참고로 하기 위하여 그 전말·경과·경비 등을 기록한 책.

이두(吏讀) : 삼국시대부터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서 우리 나라 말을 표기하는 데 쓰이던 문자로 가장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향가(鄕歌)에서다.

인보(印譜) : 널인의 영적(影跡)을 수집하여 서책으로 만든 것을 인보(印譜)라 한다. 관인을 수집한 것. 제가의 사인, 사사(寺社)의 인, 기타 제종(諸種)의 취미가의 감상용으로 한 것도 많다.

임(臨) : 얇은 종이에 비추어서 옮기거나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본을 앞에 놓고 옮기는 것.

자문(자문) : 중국과의 왕복 문서. 중국 예부에 올리는 문서. 자문(咨文)은 표(表)·주(奏)·전(箋)·상(狀)을 갖추어 문이라 부른다.

자송점(刺松點) : 매우 가늘고 날카롭고 곧은 소나무 잎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점법.

장개(嶂蓋): 여러 봉오리 모두를 에워싸는 마지막 윤곽선.

장법(章法): 공간의 적절한 배치. 구도(構圖).

장정(裝訂): 책의 여러 종류의 외형적인 형태 중 어느 하나로 정해 제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사용되는 장정(裝訂)은 표지에 미술적인 장식을 가하여 제철하는 것으로 고서(古書)에는 해당되지 않는 용어이다.

장지(壯紙): 우리 나라에서 만든 종이의 한 가지. 두껍고도 단단하여 질이 썩 좋다.

장첩(粧帖): 아담하게 꾸며 만든 서화첩.

저(楮): 한지의 대표적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닥나무). 종이의 대명사로 사용된다.

저본(底本): 사본이나 복제본의 원본을 말하는데, 원본 중에서도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저주지(楮注紙): 조선시대에 저화(楮貨)로 쓰기 위해 만든 종이. 닥나무(楮) 껍질로 만든 종이이며, 길이가 1척(尺) 4촌(寸)이다.

전(篆): 한자의 한 서체. 대전(大篆)과 소전(小篆) 두 가지가 있다.

전각(篆刻): 나무나 돌 또는 금·옥 등으로 인장을 새기는 것. 또는 그 글자.

전문(篆文): 길흉의 일이 있을 때 임금에게 아뢰던 4·6체의 글.

전신(傳神): 중국 회화의 용어. 대상인 인물의 정신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그림.

전액(篆額): 전자(篆字)로 쓴 비갈(碑碣)의 제액(題額).

전채(典彩): 조선시대 때 회사(繪事)를 다루던 관청을 말한다.

절대준(折帶皴): 대(帶)가 갈라진 것 같은 준(皴)으로 여러 개의 단층이 모여 지층을 이룬 것 같은 효과를 낸다.

절지(折紙): 서화의 진적을 보증하기 위하여 감정가 또는 서화가 등이 첨부하는 서류로서 봉서를 육절(六折)로 접어 필자·서제 등을 기입하고 감정가가 서명 날인하고 할인(割印)을 압인(押印)한다.

절파(浙派) : 중국 명대(明代) 말기의 회화. 주로 산수화의 한파. 절강성(浙江省) 출신의 대문진(戴文進)을 시조로 하여 오위(吳偉)·장로(張路)·람영(藍瑛)에 이르러 대성한 화파로 화원(畵院) 회화의 주요한 양식이 되었는데, 필묵이 웅진(雄進)하고 조방(祖放)하여 화면에 조경감(噪硬感)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파(吳派)라고도 한다.

점엽(粘葉) : 호접장(蝴蝶裝)의 변화·발달된 것으로 이배본(裏背本)이라고도 한다.

제서(制書) : 제왕의 선지(宣旨)를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일명 조서(詔書)·조명(詔命).

제첩(題簽) : 한적도서(漢籍圖書)의 표지에 첨부하는 서명을 기입한 지편(紙片).

조보(朝報) : 우리 나라 최초 관보. 역대 왕조에서는 기별지(奇別紙)가 발달되어서 조선 태조 1년(1392) 예문춘추관을 두어 사관으로 하여금 조정의 결재 사항과 전문록을 기록케 하여 각 아문(衙門)에 돌렸다.

조판(雕板) : 문자를 판목에 조각하여 부친 것. 또는 그 판목.

족자(簇子) : 글씨나 그림 등을 꾸며서 벽에 걸게 만든 축(軸).

주경(遒勁) : 그림이나 글씨의 붓의 힘이 굳세다.

주본(奏本) :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

주자(鑄字) : 금속을 녹여 활자를 만든 것. 이는 황양목(黃楊木)에 글자를 새겨서 부형(父型)을 만들고 해변에서 고운 이토(泥土)를 가져다 모형을 만들어 그 속에 구리나 철 혹은 납을 녹여서 부어 만든 활자를 말한다.

주자소(鑄字所) : 태종 3년(1403)에 베푼 활자를 만들던 직소(職所). 처음에 승정원(承政院)에 속해 있다가 세조 6년에 교서관에 옮겨 붙고 정조 6년에 교서관이 규장각(奎章閣)에 붙으면서 규장각의 소속이 되었다.

주작(朱雀) : 남방을 수호하는 사신 중의 하나로 봉황과 유사한 상상

의 새로 나타난다.

죽엽지(竹葉紙) : 죽지 또는 박엽지(薄葉紙)라고도 하는 중국에서 나오는 얇은 종이.

준(皴) : 바위나 산, 토파(土坡) 등의 표면을 처리하여 볼륨이나 질감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필법.

지두화(指頭畫) : 붓 대신 또는 붓과 함께 손톱이나 손가락 끝으로 그리는 법.

지어본(紙魚本) : 지어(紙魚)가 책을 갇아먹어 구멍을 낸 책이나 서화를 말한다.

진강(進講) : 임금 앞에 나아가 글을 강론(講論)하는 것.

진경(眞景) : 실제의 경치를 그대로 그린 그림.

진서(眞書) : 한문을 숭상할 때 한문을 높여 일컫는 말.

집구(集句) : 옛 사람들이 지은 글귀를 모아 한구의 새 시를 만들. 또는 그런 시.

징비록(懲毖錄) : 조선 선조 때 유성룡(柳成龍)이 임진왜란을 기록한 책.

찬삼점(攢三點) : 위로 향하는 잎이나 잔가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점법.

채전(彩典) : 신라 때 도서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

천견문(淺見文) : 자신의 견문을 글로 쓴 것.

천지(天地) : 그림 아래위의 빈 공간. 표구가 되어 있는 축의 상·하 가장자리 부분을 의미한다.

철선준(鐵線皴) : 철사 같은 준(皴)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바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침두점(尖頭點) : 바위나 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점이며, 평지나 운곽의 중요한 곳을 강조하거나 풍경에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한다.

침엽장(粘葉裝) : 제본 방법의 하나로 종이 겹을 안으로 이절(二折)한 것을 겹쳐 절목의 부분을 배(背)로 하여 밖으로부터 표지를 쌓는 고서의 장정법(裝幀法).

첩(帖) : 도서 제정법(製釘法)의 일종. 권자형(卷子形)의 도서는 관람할 때 일일이 길게 펴본 다음 재차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한 위치에서 접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고안한 데서 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첩본(帖本).

청조(淸朝) : 접조(摺朝)라고도 한다. 모필로 쓰는데, 보통으로 쓰이는 체로써 명조체보다 쓰기가 쉽다. 중국 청시대의 자체를 모방한 자체.

초서(草書) : 전례(篆隸)를 간략하게 한 것으로 흔히 행서를 더 풀어 점획을 줄여서 흘러 쓴 글씨.

초지(抄紙) : 종이를 걸러 만든 것으로, 지록(紙漉)과 같다.

촉본(蜀本) : 중국 송시대의 촉나라에서 간행한 각서(刻書). 문자가 웅대한 것이 특징이다.

총록(叢錄) : 여러 가지 논의(論議)를 모아 기록한 것.

추각(墜角) : 서화의 하단부 좌우 구석에 찍힌 인장.

축(軸) : 준대. 두루마리.

축간(軸杆) : 축자를 감게 되어 있는 둥근 나무 막대기.

축수(軸首) : 축간의 양끝에 붙이는 장식적인 부분으로 윤을 낸 나무. 상아·뼈·자기·옥·금속 등 여러 재료를 사용한다.

취운법(吹雲法) : 바람에 날리는 구름을 나타내는 방법.

측필(側筆) : 붓을 옆으로 눕어서 사용하는 것.

칠회(漆繪) : 묵쇄(墨刷)를 한 후 단(丹)·홍(紅)·황(黃)의 색으로 필채하여 교질(膠質)을 발라 칠과 같이 광택을 낸 것.

침재(鍍梓) : 나무판에 새기는 것.

타미지(拖尾紙) : 수권(手卷)의 경우 제발(題跋)을 받기 위해서 그림 끝에 이어 붙인 긴 종이.

타지(打紙) : 한지의 일종으로 단지(檀紙)라고도 하며 다리미질을 하여 몽둥이로 두들겨서 매끄럽게 하여 광택을 낸 것.

탁본(拓本) : 금석에 새긴 글씨나 그림의 유물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화선지를 대고 먹물을 묻힌 솜방망이로 두들겨 찍어내는 것.

석탑(石榻).

태지(苔紙) : 가는 털과 같은 이끼를 섞어서 뜬 종이. 측리지(側理紙)라고도 한다.

탱화(幀畫) :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 거는 불화(佛畵).

통문관(通文館) : 고려 때 번역을 담당하던 관청. 충렬왕 2년(1276)에 설치되었는데, 후에 사역원(司譯院)으로 개칭되었다.

파묵(破墨) : 그늘이나 입체감을 묘사하기 위해서 점점 깊이를 더해 가며 붓의 터치를 내는 것.

파필점(破筆點) : 잎이 큰 나무를 그릴 때 사용.

파형(波形) : 물결처럼 기복이 있는 모양.

판각(板刻) : 나무·금속·돌 등의 재료에 문자·그림·모양 등을 도각(刀刻)하는 것.

팔분체(八分體) : 예서 2분(分)과 전서 8분(分)을 섞어서 만든 한자의 서체. 중국 한의 채옹(蔡邕)의 창작이다.

패엽(貝莢) : 패엽이라고도 하는데, 나뭇잎에 경문을 적는 것. 패다나(貝多羅)의 뜻으로 나뭇잎을 말한다. 고대 인도에서 종이 대신에 사용한 나무.

표(標) : 감아 놓은 족자의 곁에 붙어 있는 좁은 끈같이 생긴 것으로 보통 그림의 제목, 화가의 이름, 시대 등이 적혀 있다.

표문(表文) : 임금께 표로 올리던 글. 또는 국가의 경하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올리는 글.

표전(表箋) :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을 말한다.

풍대(風帶) : 족자에 늘어뜨린 수직으로 된 두 개의 띠.

피마준(披麻皴) : 마(麻)의 풀어진 것 같은 준(皴). 얼어붙거나 완전히 침식된 사면(斜面) 같은 효과를 주며 약간 두드러진 땅을 그리는 데도 사용.

필세(筆勢) : 글씨의 획에 드러난 기세.

하엽준(荷葉皴) : 산봉우리에 사용되며 물이 흘러내려 고랑이 생긴 산비탈 같은 효과를 나타냄.

한간(汗簡) : 간(簡)과 같다. 한(汗)은 대에서 기름을 빼내었다는 뜻에서 온 이름으로 사서(史書) 또는 기록을 말한다.

한구자(韓構字) : 정조 6년(1782) 임인년에 8만여 자를 더 주조하였다.

한장(閑章) : 좌우명이나 표어 같은 것이 새겨진 인장.

해색준(解索皴) : 선이 까실까실한 느낌을 주며 화강암이 부서진 것 같은 효과를 낸다.

해서(楷書) : 예서에서 변한 것으로 자형이 가장 방정한 한자 서체의 한 가지. 중국 진(晉)의 왕차중(王次仲)이 만든 것이라 한다.

행서(行書) : 해서와 초서의 중간이 되는 것으로 해서의 획을 약간 흘린 것. 중국 후한의 유반덕(劉升德)이 사용하였다.

협엽점(夾葉點) : 점잎. 5~6개의 잎모양을 부채꼴을 이루도록 그린 것.

호엽장(蝴蝶裝) : 도서를 철하는 방법으로 점엽철(粘葉綴)의 일종.

호종일기(扈從日記) : 차가(車駕, 임금의 탄 수레)를 모셔 쫓으며 쓴 일기.

홍견(紅絹) : 그림에 사용되는 담홍색을 띤 비단.

홍패(紅牌) : 과거의 최종 합격자에게 수여한 증서. 붉은 바탕의 종이에 급제자의 성적·등급·성명 등을 먹으로 쓴 것.

화보(畫譜) : 여러 그림을 모아 만든 책. 화점(畫帖).

화선지(畫仙紙) : 당지(唐紙) 또는 화전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질이 좋지 못하다.

화압(花押) : 옛날 도장 대신 쓰던 서명. 자서(自署)할 경우 자기의 이름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일정한 자형(字形). 압(押)은 글씨는 변체로 쓴다는 뜻이고, 화(花)는 초서로 쓴 글자의 모양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화훼도(花卉圖) : 화초를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

황마지(黃麻紙) : 충해(蟲害)를 막기 위하여 황벽나무로 물들인 종이. 황마(黃麻)란 인도마라고도 한다.

횡폭(橫幅) : 수평으로 걸 수 있도록 표구된 수평의 두루마리.

후목화(朽木畫) : 나무의 끝을 태워서 그 끝으로 회화의 처음부분을

그린 것을 말한다.

훈몽자회(訓蒙字會) : 중종 22년(1527)에 최세진(崔世珍)이 편찬한 한자 교본. 종래 널리 사용되어 온 천자와 유합(類合) 등이 일상 생활과 인연이 먼 고사와 추상적인 한자가 많아서 아동들의 학습에 불편이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물에 관한 글자로부터 익혀서 배우기 쉽게 하기 위하여 엮은 것이다.

희전(稀傳) : 전해 내려오는 것이 적어 희귀한 것.

인제문화원 임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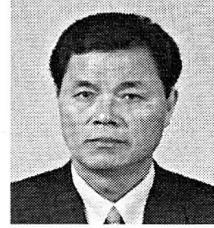
원장 박 해 순



부원장 김 현 래



감사 길 호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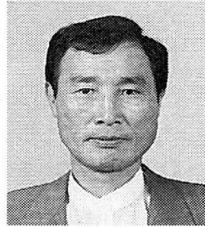
감사 이 지 형



이사 조 봉 호



이사 황 범 식



이사 유 석 호



이사 임 성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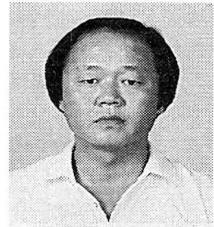
이사 김 진 태



이사 정 재 복



이사 조 철 환



이사 안 승 규



이사 서 성 호



사무국장 이 만 철



간사 안 정 임

인제문화원 회원 현황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성 병 선	서화면 천도리(서화중학교)	462-4006
박 성 실	인제읍 상동4리 낙원APT	461-1500
최 태 운	인제읍 남북2리	461-2640
한 용 운	인제읍 상동1리 설악APT	461-2623
최 병 현	인제읍 상동4리	461-0778
장 정 섭	인제읍 남북2리	461-0580
이 정 순	인제읍 합강2리	461-0936
이 정	상남면 미산 2/2	461-6871
조 해 숙	서화면 천도 4/10	462-0337
김 신 향	북면 원통 2/1	461-3437
이 상 각	인제읍 상동 3/4	461-0779
정 규 련	북면 원통 5/3	462-1864
이 정 복	북면 한계 2/2	461-4142
강 인 석	북면 한계 2/2	461-6927
김 봉 준	서화면 천도3리	462-4017
손 동 열	북면 용대리	462-4901
이 상 도	북면 용대리 구만동 401	461-4050
이 운 철	인제읍 상동4리	461-4050
이 은 자	기린면 현1리	461-1230
황 영 일	인제읍 귀둔리 설낙원	461-0993
백 창 우	서화면 천도3리	461-6897
최 정 규	북면 용대리	462-5098
김 기 호	인제읍 상동 1/7	461-2851
최 태 석	인제읍 남북리 골든빌라	461-4541
김 은 식	인제읍 상동 2/2	461-4401
오 성 현	인제읍 상동 5/3	461-4793
한 성 산	인제읍 남북 2리	461-8173

성명	주소	전화번호
손흥기	인제읍 상동3리	461-4147
김종각	인제읍 남북리 골든빌라	461-0316
김종호	인제읍 고사리 3반	462-3334
최은희	인제읍 상동4리 5반	461-8802
이재화	북면 원통3리 5반	462-3344
황민숙	북면 원통 6/4	461-8431
김경운	인제읍 상동3리	461-1798
박종윤	남면 어론 1/4	461-6370
장현귀	인제읍 상동 4/5	461-7209
박경욱	인제읍 상동 5리	461-4817
이수영	인제읍 상동 1/5	461-2784
김진성	인제읍 상동 4/4	461-3734
김두성	인제읍 상동 4/4	461-2279
하광수	인제읍 남북 2/4	461-2039
최광일	인제읍 상동 3/3	461-7064
유지녀	인제읍 상동3리	461-2985
정광벽	인제읍 상동3리	461-2686
김상혁	인제읍 상동2리	461-0309
방효정	인제읍 남북 2/6	461-5050
이동수	인제읍 덕산리	461-2974
박장훈	북면 원통 6/4	461-8418
전재홍	인제읍 상동1리	461-4080
추재엽	인제읍 상동1리	461-2474
백계현	인제읍 상동1리	461-2375
안종우	인제읍 상동1리	462-6565
임대혁	인제읍 상동4리	461-7157
박일남	인제읍 덕산리	461-4861
전석재	인제읍 상동5리	461-1679
황진	인제읍 귀둔리	461-4740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대순	인제읍 귀둔리	463-6676
이재하	인제읍 상동리	462-0288
김동환	인제읍 상동5리 4반	461-1060
안형석	남면 남전2리	461-6466
양명호	인제읍 남북리 쌍호 APT	461-2746
조순자	인제읍 덕산리 3반	461-1803
한순자	인제읍 상동 4/6	461-0788
유금실	인제읍 상동 4/5	461-2269
김부은	북면 원통 7/2	461-3689
이향영	북면 원통 1/2	462-8577
김옥인	인제읍 상동리	461-6043
정은희	북면 월학3리	462-5229
이미섭	인제읍 상동1리	461-8922
윤숙현	기린면 현리 군인 APT	462-7150
모광순	인제읍 상동 1/8	461-3181
한금옥	인제읍 남북2리	461-6662
기덕순	북면 한계 2/2	461-3953
윤미애	북면 한계 2/2	461-3953
이은복	인제읍 상동 4/5	461-2656
김수민	인제읍 상동3리 군인 APT	461-2225
이상희	인제읍 상동1리 우신 APT	461-8127
김우진	인제읍 상동5리 3반	461-6398
조정순	인제읍 상동3리 6반	461-4377
강인옥	북면 원통1리	461-6803
박미희	북면 원통리 미진 APT	461-1712
한경희	북면 원통1리 7반	462-5104
안경아	북면 원통 우신 빌라	462-3327
이명희	북면 원통 4/6	461-0363
이영미	인제읍 상동 1/2	461-6622

성명	주소	전화번호
김재형	인제읍 상동 2/5	461-1396
곽윤영	인제읍 상동 4/7	461-8436
신은희	인제읍 상동1리 우신 APT	462-2788
강미순	북면 한계리	461-9684
정외자	인제읍 상동3리	461-6435
김연희	인제읍 상동 4/7	461-2865
류순교	북면 용대리	462-3139
정해숙	북면 원통2리 불사조 APT	462-1749
서연숙	북면 원통3리 4반	462-7810
전경희	북면 서호 APT	462-6420
이양노	북면 서호 APT	461-8973
이미란	북면 월학3리 4반	462-5769
차민숙	인제읍 합강리 쌍호 APT	461-3982
장순화	인제읍 상동 5/4	462-5309
김소연	남면 신평리 군인 APT	462-5124
이정화	남면 신평리 군인 APT	461-8175
김정숙	북면 원통4리	461-4824
강길호	인제읍 합강1리 3반	461-2933
장영미	서화면 천도리	462-4452
안주현	북면 원통8리	462-0191
함선희	서화면 서화2리	462-4012
한경희	북면 원통 1/7	462-5104
서성옥	북면 원통 1/7	461-3094
박필너	인제읍 상동 1/2	461-8953
정만복	북면 원통 월학2리	462-1429
박미경	북면 원통 월학2리	462-6278
박성화	북면 원통 월학2리	462-7448
김윤아	인제읍 남북리 쌍호 APT	461-2998
최영규	북면 원통3리	462-6274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한 승 립	인제읍 합강2리 쌍호 관사	461-7842
이 영 숙	인제읍 상동 3/3	461-4796
민 겨 옥	인제읍 남북2리	461-5475
안 현 숙	인제읍 상동 5/4	461-7817
조 영 주	인제읍 상동리	461-9324
김 은 미	북면 용대리 남교 관사	462-7871
박 옥 환	북면 원통 3/4	461-6818
오 정 혜	서화면 천도리 연대 APT	462-7832
정 경 희	북면 서호 APT	462-6420
장 동 숙	인제읍 남북리	461-2885
박 경 애	남면 남천리	460-2485
함 선 희	서화면 서화리	462-4012
이 경 자	인제읍 상동 4/7	460-2325
황 명 희	인제읍 상동 5/4	461-6372
임 문 희	인제읍 상동리	461-3986
최 경 숙	인제읍 상동리	461-2859
조 순 자	인제읍 상동 1/7	461-7341
강 복 순	인제읍 상동리 우신 APT	461-7022
최 은 숙	인제읍 상동1리	461-2684
박 춘 화	인제읍 상동 3/5	461-9674
이 미 정	상남면 하남2리	462-7205
한 명 숙	인제읍 상동5리	461-8990
김 양 옥	북면 원통 3/2	462-6197
이 순 여	북면 원통 1/2	462-3727
김 옥 인	인제읍 상동 5/4	461-6043
홍 성 만	인제읍 덕산리 3반	461-4199

98년 문화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기간(일시)	장 소	참석인원	사 업 내 용
농악기 보급	98. 3. 5~3. 15	문화사랑방	6개소	부평리 노인회 용대리 노인회 덕적리 노인회 진동리 노인회 기린고등학교 귀둔고등학교
문화유적지순례	98. 4. 22	강릉지역	90명	축음기박물관, 대관령박물관
	98. 7. 28	고성지역	45명	통일전망대, 건봉사
	98. 9. 2	관내유적지	35명	학생대상, 한계사지
예술단초청공연	98. 7. 1	인제문화관	500명	민선 제2기 기념공연
합강문화제예술행사	98. 9. 25~9. 27	합강정 인제문화관 인제종고체육관	1,500명	미술, 조각, 스텐실, 꽃꽂이 공예, 서예, 사진, 수석전시 백일장, 사생대회
문화지 발간	98. 12. 30	인제문화원	1,500부	인제문화 제13집
청소년음악회	98. 5. 11	인제문화관	400명	서울 세실음악회 초청
문화사랑방운영	스텐실강좌	문화사랑방	120명	지역민 대상
	문화강좌	"	120명	"
사 진 전	98. 12. 4~12. 6	인제문화관	1,000명	사진영상의 해 기념사진전
합창단초청연주회	98. 12. 4	인제문화관	400명	
사료수집	98. 4~12	관내순회		사료집 발간, 사료수집 전시
문화학교 강좌운영	서예강좌	문화사랑방	25명	지역민 대상
	풍물강좌	"	35명	"
	꽃꽂이강좌	"	23명	"
	홈패션강좌	"	35명	"
	전통의례강좌	"	20명	"



원 고 모 집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문화 제14집」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주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전적인 소재와 애항심을 담은 옥고로 꾸며
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부문

가. 발굴수기 : 민속놀이, 문화재소재

나. 시론 및 논단 : 향토문화 예술을 위한 시, 시조, 논문, 산문
다. 고향의 정취 : 고향에 대한 정서와 애항심을 담은 이야기

라. 경로 효친 수기 : 효행수기, 사례담

마. 기타 : 옛사진, 관광사진, 옛문헌, 사료집, 전설 등

바. 그밖에 자유로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인제문
화 제14집」에 게재하여 우송해 드립니다.

2. 접수기간 :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3. 접수처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인제문화원 사무국

전화 (0365) 461-6678 FAX (0365) 461-4173



편집 후기

인제문화가

86년도 첫 아이를 낳고 산고를 치르던 어제 같은데
올해로 13집을 세상에 내 보내게 됐다.

해마다

씨뿌려 밭을 갈고 흐뭇한 수확을 기대해 보지만
뒤돌아보면 늘 창고의 한구석은 비어있다.

올해에도 분주하게

여기 저기 뛰어 다니며 수집한 자료로 마감을 하고 보니
또다시 아쉬움이 남을 따름이다.

바라건대

모든 사람이 향토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해 보고 싶다.

아울러

귀한 옥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철 -

麟蹄文化 <第 13 輯>

발행인 • 박 해 순
편집인 • 이 만 철
발행처 • 인재문화원
전 화 • (0365)461-6678
팩 스 • (0365)461-4173
인쇄처 • 태원출판사
인 쇄 • 1998. 12. 15
발 행 • 1998. 12. 20

<비매품>

※ 이 책은 국고보조금과 강원도 문예진흥지원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